



# Life After Pentecost

**By Don Fortner**

(옮김: 박영호)

© Don Fortner 2007. All rights reserved. My desire is not to restrict, but to further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is book.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 prior permission.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 1.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1-8

사도 행전은 30에서 35년 사이의 기간을 다룬 초대 교회의 사도 사역에 대한 계시의 역사이다. 책 전체를 통한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통치이다. 누가 기록하였으며, 그는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하였다. 사도 행전은 누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끝난 데서 시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유아기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이다. 이 처음 구절들 속에서 다섯 가지 중요한 공과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율법을 주신 분이다 (1-2 절). 누가는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연결을 만든다. 두 개 모두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인 테오빌로(눅 1:3)라 부르는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졌다. 많은 귀족이 부름 받지 않고(고전 1:26) 몇몇만 부름 받았다. 하나님은 모든 지위에서 약간을 택하셨다. 테오빌로(Theophilus)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는 뜻이다.

누가는 그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들

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고 서술한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지만(요 21:25), 누가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성령이 계시한 모든 것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특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행하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순종과 율법에 대한 그분의 확증과 우리 대속물로서의 그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왔으며 영원한 구속을 얻은 것을 기록하였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택한 사도들과 그들로 인하여 교회에게 그분의 계명들을 주셨다. 모든 교리와 규례, 교회의 믿음과 실행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의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어졌다 (딤후 3:16).

둘째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망으로부터 그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주셨다 (3 절).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또 사적으로, 그분의 부활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며 나타나셨다 (고전 15:5).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사십 일 동안 세상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시며 보내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정직한 남녀노소의

간증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거절될 수 없다.

셋째, 성령의 은사는 아버지의 약속이다 (4-5 절). 성경 안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그 영의 약속만이 “아버지의 약속”으로 불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 위에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실 것과 (골 2:28),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그 영의 은사를 약속하셨다 (요 14:16; 15:26; 16:7; 7:37-39; 갈 3:13-14).

넷째, 세상에서 가장 은사를 받았고 유용한 사람들이라 할 지라도 단지 타락한 사람들이며 때로는 혼돈한다 (6-7).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영적 본성을 이해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실하고, 믿는 자들이며,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하여 혼돈하였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것들을 배우도록 하라.

1. 이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사도들 자신들은 흠이 없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지침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벧후 1:21). 그들이 기록한 것은 절대 신뢰할 수 있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사도들 자신들은 단지 사람들이었으며,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이다

2.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한 점과 실패에 인내하고 관대하여야 한다. 우리 주께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극히 조금이라도 분노를 보이지 않으셨다. 분명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여야만 한다 (엡 4:32).

7 절의 공과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의도하지 않으셨던 어떤 것들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나,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아는 자는 없다. 실로, 하나님께만 알려진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것을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 (신 29:29).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성경을 찾음으로 그분이 그분 자신과 우리와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계시하셨던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평생 할 일과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책무를 말씀하신다 (8 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사 43:10, 12; 44:8; 눅 24:48). 이 8 절에 있는 두 가지를 주목하라.

1.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물을 필요도 없이,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도들이 되도록 택함 받은 그 사람들 위에 내려졌던 특별한 사도적 권능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것은 분명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무도 거듭남 가운데 그에게 성령의 생명 주는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구원 받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을 수 없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써만 있다 (롬 11:6; 엡 2:8-9).

3. 성령의 생명 주는 능력이 당신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증인은 그 자신의 귀로 듣고, 그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였던 것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 자이다. 증인은 간접적인 정보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 증인은 오직 스스로 사실이라고 아는 것 만을 분명하게 밝힐 뿐이다 (요일 1:1-3). 모든 믿는 자가 그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은 특권이며 책임이고 명예이다.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믿는 자의 부르심과 소명이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모든 참된 믿는 자는 선교사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참된 자는 전도자이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는 그분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에서 온 말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분의 순교자들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

을 내려 놓는 사람들이다! 가서 당신의 일을 하라. 그러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임을 잊지 말라.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

## 2. “이 동일한 예수님”

사도행전 1:9-11

성경의 이 세 구절은 모두 신성하고 기쁘며, 교훈적이고 실질적이다. 이 구절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천과 두 번째 강림에 대하여 말한다. 땅 위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고(요 19:30), 우리 주 예수, 하나님-사람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왕 중의 왕으로 그리고 주 중의 주로서 그분의 의로운 위치를 취하셨다(요 17:1-5; 롬 14:9; 빌 2:5-11; 히 1:3; 10:1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늘 가운데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셨을 때, 우리 구원자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계 1:7; 19:11-17; 살전 4:13-18; 살후 1:8-10; 요 14:1-3).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에 속하는 네 가지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라.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 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9 절; 눅 24:50-52).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올려지셨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 안에서 입으신 영광으로 돌아가셨을 때 무



슨 일이 그분께 있었는가? 하늘에서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모든 질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답이 있다. 스스로를 위하여 그 답들을 읽어 보라 (시 2:6-8; 68:17-20; 110:1-4; 사 53:10-12; 요 16:7; 행 2:25-36; 4:11-12; 5:30-32; 엡 4:8-12; 빌 2:5-11; 히 10:12-14).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주의 왕으로서 그분의 의로운 위치를 요구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되돌아 오르셨다 (단 7:13-14).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중보자적 순종에 대한 그 아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보상은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이다 (시 2:8).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사람의 손에 두시고 그 통치 아래 두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변호자와 대제사장으로 그분의 중대한 중보의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 자신의 피로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히 9:12). 그 피 덕분에 그분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을 위한 계속된 중보를 드린다 (롬 8:34; 요일 2:1-2). 그리고 그분의 피의 덕분에 모든 은혜에 속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 위에 주어진다 (엡 1:3-6).

찬양 받은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의 선주자로서 하늘의 소유를 주장하셨고 취하셨다(히 6:14, 16-20).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분의 피가 뿌려진 모든 자를 위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의 기업을 모두 주장하셨다.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 위에 그분의 자리를 취하셨다. 그분은 사망 가운데 사셨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하신다 (롬 5:10).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요 17:2; 롬 8:28). 한 마디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입양된 아들 딸들을 위한 아버지의 집에 자리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으며, 그분은 그들을 그곳에 데려가실 것이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10-11 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두 천사들을 이 땅의 그분의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보내셨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것-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참여함 가운데 끊임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응원하고, 우리의 혼을 살아나게 하며, 우리 소망을 격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서 나타날 시간을 알기를 뜻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림은 필연적 문제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절박하게 기대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히 9:26-28; 스펀 14:4, 5, 9; 마 16:27; 24:27; 요 14:1-3; 빌 3:20; 살전 4:16; 딤후 4:8; 딤펀 2:13; 약 4:7-8; 유 14; 계 1:7; 22:20).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네 가지 사항이 여기 있다.

1.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신체적이고 육신적 강림이 될 것이다 (계 1:7).
4. 그것은 영광스러운 출현이 될 것이다 (살후 1:7-10).
5. 그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다 (롬 13:11; 엡 1:14).
6. 우리 주는 갑자기, 경고 없이, 밤 중의 도둑과도 같이 나타나실 것이다 (살전 5:1-6).

셋째, 우리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극적 완성이 될 것이다 (행 3:19-21; 고전 15:24-28).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일단 재림 하시면 모든 일이 그 이후 엄청난 속도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주 빠르게, 주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작품을 모으실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과 땅 위의 큰 화재와 새 창

조,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마지막 구별 등 모든 것이 나타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요 5:28-29).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이며, 순간적으로 변화되고 세상으로부터 모아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다. 불가변한 공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모든 자가 아주 공정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은혜로 의롭게 된 의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악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큰 거둬들이 있을 것이다 (벧후 3:9-14). 우리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단지의만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지구적 화해가 있을 것이다 (계 5:13). 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어떻게 그 모든 창조가 그분의 계획을 다 하였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는지 보여 주실 것이다.

영화로운 안식이 있을 것이다 (히 4:8).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책하신 모든 무수한 많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식하고 우리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배할 것이고, 수고함이 없이 그분을 섬길 것이며, 그분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분은 “이 동일한 예수!”이다. 천사의 사자들은 우리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우리를 영광 가운데 집으로 데려가시려 오실 그 한 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려 죽으셨던 바로 그 동일한 예수이다. “이 동일한 예수”는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신 분이며, - “이 동일한 예수”는 영원한 의 가운데로 옮기셨던 분이고, - “이 동일한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가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우주적 통치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고, “이 동일한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 3. 신실하나 타락할 수 있는 지도자들

#### 사도행전 1:12-26

사도행전 1:12-26 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날 성령의 부으심 사이(약 일주일)의 짧은 기다림의 기간을 다룬다.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누가에 의해서 신성한 영감에 의해서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하여 쓰여졌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는 마음 속에 그것들을 둘 것이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육신, 삶, 땅에서의 사역, 십자가에 못박힘,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련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12 절). 누가가 우리에게 사도들이 올리브라 부르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말할 때, 그는 거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선지자 스가랴가 그분이 그럴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그분이 하늘로 오르셨을 때 올리브 산 위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었다(슥 14:4; 겔 11:23). 그 산은 윗시아 시대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우리 주는 베다니와 가까운 부분에서 승천하셨다(눅 24:50). 그곳은 그분의 고난이 시작된 곳이었다(눅 22:39). 그것은 가장 합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영

광스러운 승천으로 그곳에서 그분의 고난의 치욕을 던져 버리셔야 했다.

둘째, 축복과 유효성의 통로는 순종의 길이다 (12-14 절). 제자들은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4 절). 거기 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대부분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분명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돌아왔다(잠 3:5-6). 그곳 큰 다락방 안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마음으로 연합하였으며,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는 그들에게 기다릴 것을 명령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기다렸다. 그들은 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문을 여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시 27:15; 62:5-7; 대상 15:13).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며 그분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책임의 요점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여야 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은 그 영으로 충만하였고 많은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었다.

셋째,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사람일 뿐이다 (15-26 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기 쉽다. 우리는

여러 길 속에서 방황하며 많은 것들 가운데 잘못 한다.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종들이라 할지라도 혈육에 속한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제자를 선택하려 했던 사실 가운데 드러난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베드로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신실한 사제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다른 경우에는 그는 나쁜 동기로 무모하게 행동하였으나, 여기서는 아니었다. 그의 동기는 선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이었기를 원했다. 유다의 죄는 사도 직무에 공백을 만들었다. 열두 사도들은 처음에 선택되고 임명되었다.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들이 있었고, 열두 열조들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열두 사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왕관 위에 있는 열두 별들이다(계 12:1). 그들을 위하여 열두 보좌들이 예비되어 있었다(마 19:28). 베드로는 시편 69:25를 읽고 그것은 유다의 배교로 인하여 남겨진 공백을 채워야 하는 교회의 책무였다. 그의 잘못은 판단의 잘못이었지 동기나 원칙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깨달았다(16 절).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해하였다(행 2:23; 4:27-28).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유다의 악한 행위들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시 41:9).

베드로는 그의 예전 친구이자 동료의 타락을 비탄스럽게 기억하였다(17-19 절). 그는 필요한 이상으로 그 주제에 대하여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았다. 비록 그와 유다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머리 숙이고 그의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존중하였다. 베드로는 그와 유다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다(고전 4:7).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였다(20 절). 베드로는 성경에 복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였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한 갈망으로 감동되었다. 순수한 존경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21-25 절).

베드로는 유스도와 맛디아를 지명하기 전에 주께 구하여야 했다. 하나님께 결코, “주여, 저는 이것을 하려 합니다, 저것을 하려 합니다, 당신께서 제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택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네가 무엇을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말하라.

제비 뽑기가 던져졌을 때, 베드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던 사도를 임명하게 하려고 하였다(26 절). 그것은 사실이었으며, 주의 의도는 그분의 교회가 열두

사도, 열둘 오직 열두 명을 택하는 것이었다. 다윗의 예언은 성취되었음에 분명하다. 다른 사도가 유다의 자리를 취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의해 그 책무에 개인적으로 택함 받았고 임명되었음이 분명하다. 주는 유스도와 맛디아를 이 책무에 택하지 않으셨다. 주는 바울을 택하셨다(고전 15:8).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기를 던지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였다. 다윗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뜻을 구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대상 13:1-4).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육신의 지혜와 정력으로 성취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맛디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도록 주시지 않았던 은사를 하도록 선택되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결코 설교를 전하거나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그가 어떻게 되었을 것에 대하여 추측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결코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열두 사도들을 임명하는 곳에 빈 자리도 없었고 열세 번째도 필요하지 않았다!

여전히 베드로는 그때 초대 교회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인도자였다. 이런 많은 잘못들과 실수와 타락들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사제로서 그의 통치에 올바르게 순종하였다(히 13:7, 17). 비록 그가 타락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사제가 주어진 회중에게 복이 있다(렘 3:15). 신실한 목사들이 죄를 범한다. 신실한 목사들이 판단을 잘못 한다. 신실한 목사들이 심지어 교리에 있어 잘못을 범한다. 신실한 목사들이 실수를 한다. 신실한 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살전 5:12, 13, 25; 히 13:18).

## 4. “이것이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2:1-13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교회의 주목을 올바르게 끌고 있다.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심을 기록하고 있다. 그 큰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의 깊고 기도로 연구하도록 하자. 어떤 사람은 오순절의 재현을 피하여 보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오늘날 교회에 상응하는 사건이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오순절을 무시한다. 모두 다 잘못 되었다. 그 영의 기적적인 은사가 일시적인 표적이고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한편으로,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그 큰 날을 적용하는 사건으로 깨닫는다. 그 때 성령이 어떤 분이었으며, 지금 계시며,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교회에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신성한 역사를 기대하여야 한다! 오순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세 가지 큰 절기들 가운데 하나이다(레 23:4-21). 예루

살렘에 그 큰 군중이 모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매년 이 절기들에 참석하기를 요구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첫째, 유월절(레 23:4-8). 사실상, 이 축제는 이집트에서 기원하였다(출 12:1-13).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내릴 때 유월절 어린양이 희생되었다.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 모든 집의 문에 발라졌다. 심판이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문에 피가 발라진 모든 집을 지나치셨다. 유월절 어린양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양을 나타냈다(고전 5:7).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다. 그분이 주의 만찬을 가르치셨던 그 때였다(마 26:17-30).

둘째, 맥추절(레 23:9-11). 유월절 안식 후 주일에 이스라엘은 한 무더기의 수확의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흔들었다. 이것은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땅의 수고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냈다. 우리 주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던 것이 이 날이었다(고전 15:20-23). 십자가에서 그분의 역사의 모든 결과들, 곧 우리의 구속과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셋째, 오순절(레 23:15-21)은 유월절 후 칠 주간 열렸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서약을 새로 맺었고 그들

자신을 주 하나님께 새롭게 하도록 봉헌하였다. 성령이 우리 구원자께서 하셨던 약속으로서 주어졌던 날도 이날이었다.

언제 성령이 사도들 위에 내렸는가? (1 절). 그분은 거룩하게 지명된 시각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이르렀을 때” 오셨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높임 받으셨으므로, 그 영이 보내졌다(시 68:18-19; 엡 4:7-12; 갈 3:13-14). 그것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제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었다. 그들은 그 영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와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모두 하나가 되었다(행 1:14). 하나님의 축복들은 항상 그러한 하나됨과 순종 가운데 나타나신다(시 133:1-3; 마 18:20). 그러나 갈등과 분열은 그 영을 비통하게 하며 그분을 멀리 몰아낸다(엡 4:30).

성령의 임재의 표상은 무엇이였는가? (2-3 절). 바람이 신의 표상이며, 따라서 그 영의 합당한 상징이다. 사실상, 바람과 그 영에 대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모두 같은 단어이다.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시로 사용된다(겔 37:9; 욥 38:1). 휘돌아 강하게 부는 바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은혜의 거절할 수 없는 능력을 상징한다(요 3:8; 시 65:4; 110:3). 바람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주권적이고 전능하며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불도 또한 신성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불타는 등불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며(창 15:17) 모세에게 불타는 덩불로 나타나셨다(출 3:1-6).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분의 임재의 상징은 불기둥이었다(출 13:21-22). 그분은 엄청난 불로 엘리야를 위해 그분 자신을 보이셨다(왕상 18:38). 이사야의 입술은 불로 살아있는 솟으로 정결케 되었다(사 6:1-8).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 시니라.”(히 12:29). 불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 비춘다(요 16:13-14; 고전 2:11-14). 불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종들에게 힘을 주고 활기를 주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성령의 임재의 즉각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4-11 절). 첫째, “그들은 성령으로 모두 충만하였다.” 아, 우리는 성령으로 각각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분에 의해 통제 받는 것이다(엡 5:18-20).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갈 5:22-23), 그분의 위로로 충만하게 되며(요 14:16-18), 그리고 그분의 영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롬 8:14). 둘째, 그 영이 그들에게 입으로 말하기를 주셨으므로, 그들은 “다른 방언(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방언의 은사는 그들이 배우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6-11 절). 그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소리를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은사는 사도들 위에 부여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자로서 그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기록들을 확인한 일시적인 은사였다(히 2:3-4).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기 위하여 초자연적 은사(기적, 방언, 등)가 필요치 않다(고전 13:10; 벧후 1:19). 그 영은 그 때나 오늘날이나 같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세 가지 것들은 교회 안에서 그 영의 임재와 능력의 증거를 준다.

1. 그분은 하나님의 종들을 능력으로 전파하게 하신다(4 절).
7. 그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며,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택하도록 하신다(6 절; 살전 1:5).
8. 그분은 복음을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다른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11-13 절; 고후 2:14-16).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주제는 무엇이었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하였다(11 절). 베드로의 설교를 읽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사도행전에 있는



다른 모든 경우들에서처럼 그리고 어떤 날이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전파할 때, 주제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이었다(고전 2:2). “전파하다,” “전파하는,” 그리고 “전파된”이란 말들은 사도행전에서 37회 나타난다. 매번 그 말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 연구에서 좀더 자세하게 그것을 볼 것이지만, 오순절 날 베드로가 전파했던 것을 주목하라.

1.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대가 없는 구원(21 절).
2.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23 절).
3. 인간의 절망적인 나약함과 부패(23 절).
4.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힘과 죽음(23 절).
5. 그리스도의 찬양과 영광(32-36 절).
6. 은사의 하나님에 의한 회개와 죄들의 용서(38-40).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회중에 오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자(사 64:1-2).

“거룩한 영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당신의 가정으로 만드소서. 당신의 모든 은혜로운 능력들과 내려오소서. 오 오소서, 위대한 영이여, 오소서!”

## 5. 오순절 - 주권적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행전 2:14-36

우리 앞에 오순절 날 베드로가 전파하였던 설교가 있다. 그것은 현저하게 간단하다. 그것은 아무런 위대한 가르침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웅변술의 극치를 내포하지 않는다. 그것은 흥분된 이야기나 그림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룩한 진리의 간단한 선포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었다. 그 안에는 육신을 감동시킬 아무런 것도 없다. 그러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여기 많이 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한 대상과 그것을 계시하였던 성령의 한 대상이 타락하고 죄 있고 가난한 죄인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부활 영광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14-21 절).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났다. 그들은 사도들을 성령이 내린 자들이라고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영의 역사를 (고전 2:14)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취했다는 말로 (13 절) 비웃으려고 하였다. 베드로가 서서 자신과 담대함으로 그의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라.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믿기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희에게 설명하겠노라. 이 기적 같은 성령의 부으심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 이노라.”(욘 2:28-32). 요엘은 적극적으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심의 사증 증거와 그분의 왕국의 성취를 제시함으로써 메시아를 확정하였다.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분이 메시아시다!”고 말한다.

1. “마지막 날들”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요 일 2:18). “마지막 날들”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에서 재림까지의 전 공백을 망라한다.
9.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위에 부어졌다(17-18 절; 갈 3 13-14; 골 3:11). 구약의 사람들은 때때로 그 영으로 충만하였으나(벧전 1:11; 느 9:20), 그 영의 이 위대한 부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분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신호로써 남겨져 있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났다(요 3:3-8).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제 그분의 은혜는 세계의 열방들에 걸쳐서 뿌려진다. [주] 앞의 공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방언과 예언과 이상 등의 기적적인 은사들은 일시적이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을 공표하기 위하여 주

어졌다. 바울의 고린도 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 때에 하나님은 여자들에 의한 어떤 종류의 대중사역을 금하셨다는 것을 또한 주목하여야 한다(고전 14:26, 34).

10.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였다(19-20; 마 22:7). 요엘은 비유적인 상징들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였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경멸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민간 정부를 파괴하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빛을 어둠으로 바꾸셨다(눅 19:41-44; 23:28-29; 롬 11:7-11, 25). 눈이 멀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신호로서 있다(롬 1:21; 잠 1:23-33).
11.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은 이제 세상의 모든 열방들에게 선포된다(21 절). 이제 하나님은 은혜에 속한 그분의 지혜롭고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시 2:7-8; 롬 10:10-13).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이다. 성령의 부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음을 선포한다. 마침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갈 3:13-14).

둘째,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선포하였다(22-24 절). 그는 손에 그리스도의 피가 금방 묻었던 유대인들이 하였을, “만약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또 그가 그의 왕국을 세웠다면,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예상이라도 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다(22 절).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들(요 8:56; 14:9; 롬 9:5; 딤후 3:16)은 그의 기적들로 입증되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진 그 기적들은 공개된 기록에 있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이었다. 그 사실들은 그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조차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였으며,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였으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사람께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런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이르렀을까? (23 절을 보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롬 5:8; 8:32; 고후 5:21; 사 53:10). 그는 우리의 대속 희생물이 되도록 미리 명해졌고 운명 지워졌다(벧전 1:18-20; 계 13:8; 히 13:20).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의의

희생에 의해서이다.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으로서(히 9:22),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서(갈 3:13)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사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죽으셨다. 만약 어떤 것도 자유의지 교리를 혐오하는 사람을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것이 확신케 할 것이다 - 자유의지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망으로부터 그분의 부활로 우리 구원자는 사망을 폐하셨다(24 절).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형벌에 속한 사망의 방면을 멸하셨다. 그는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사망의 능력과 공포와 두려움을 폐하셨다(히 2:15).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의가 그의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만족되었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 선포였다(롬 4:25-5:1).

셋째,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사망의 고통을 겪을 것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실 것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25-31 절). 시편 16:8-11을 인용하면서, 사도는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찬양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행한 모든 것 안에서, 우리 구속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다. 그는, “나는 언제나 내 면전에 계신 주를 보았다.”(요 12:28-32; 17:4-5)고 말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임재의 확신으로 그분의 역사가

운데 한결같았고 강화되었다. 그는, “그분은 나의 우편에 계시며, 그로써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사 50:5-7).라고 말씀했다. 우리 구원자는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를 받으셨으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쁜 확신으로 가장 큰 시험을 맞으셨다(26-28 절; 빌 2:5-11; 히 12:1-3). 이 모든 것 가운데, 언급된 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29-3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지탱되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우리 구속자의 본을 언제나 따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넷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위에 주로써 통치를 받으셨음을 선포하였다(32-36 절). 우리의 다음 공과에서 이 구절을 좀더 깊이 연구할 것이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여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1.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과 땅의 찬양 받으시는 왕이시다(32-33, 36 절).
12. 조만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와 주인 되심에 옆드려야 하고 알아야 한다(34-35 절).





## 6. “주와 그리스도 모두”

사도행전 2:32-36

이 구절들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주제는 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과 영광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그의 청중들에게 강조하였던 문제였다. 그는 청중들에게 그들의 손을 들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복도를 내려와서 제단으로 다가가거나 죄인들이 기도 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손쉬운 믿음주의자들의 값싼 속임수는 아직 꾸며지지 않았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서 옹대리고 신뢰하고 깨달기를 요구하였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를 주로서 높임을 공표하는 것이었다.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식으로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성령의 부으심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나, 새로운 “분배 시대”가 아니었다. 이 강력한 부으심은 그리스도의 높임을 공표하였다. 모든 것 위의 주로서 그리스도의 높임과 영광은 모든 복음 전파의 주제이며, 모든 참 믿음의 깨달음이고, 믿는 자의 소망의 근거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가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심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아들의 의로운 통치에 엮드리고 깨닫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엮드릴 것이며, 이 생 가운데 회개와 믿음 가운데서든, 심판의 날이든,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께 엮드릴 것이다(빌 2:9-11).

우리 구원자의 높여지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실로 높여지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베들레헴의 아기가 이제 영광의 왕이다. 우리가 저주받은 나무에 못박은 사람이 이제 우주적 통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영광의 왕은 그분의 왕국에 오셔서 그분의 보좌를 소유하셨다(시 24:7-10).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첫째, 보좌 위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일이 끝났고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히 1:1-3; 10:10-14).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하늘 그 자체 안에 자리하신 제사장으로 그려진다. 구약에는 성소에 자리가 없었다. 그 제사장들은 그들의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앉을 수 없었다. 그들의 제물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었다(히 10:1-4).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안식하는 모습으로 앉아계신데 그분의 일이 끝났기 때문이다!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합의된 모든 것을 그분은

마치셨다(요 17:4).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분은 그것을 완전히 마치셨다. 삶 가운데 그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의를 가져오셨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사 59:16; 63:1-5; 요 19:30).

둘째, 영광의 보좌 위로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롬 8:34). 죄가 용서되었다는 믿는 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높여지심이다. 만약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영존하는 영광으로 높여지신다면, 그러면 그분께 전가된 우리의 죄들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분의 피가 실로 우리의 죄들을 없애 버렸다!

셋째,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선포한다(골 1:18-22). 그 의가 받아들여지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바로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였던 한 사람이 영광 가운데 있다. 죄에 대한 빛이 완전히 갹아졌다. 신격과 인격이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안에서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위한 소망이 있다.

넷째, 높여지신 그리스도는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히 7:25). 보좌 위의 그리스도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보좌 위의 그리

스도는 우리의 결함들의 느낌으로 감동된다. 보좌 위의 그리스도는 타락함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비난받지 않게 당신을 보이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높여지신 아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얻은 존귀와 존엄을 누리시고 계신다. 그분의 신성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자는 전적인 주권에 속한 기쁨과 영광을 언제나 누리셨다. 비록 그분이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분은 결코 모든 것 위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셨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를 통치하는 권한을 얻으셨다(롬 14:9; 빌 2:9-11). 그분은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존귀를 누리신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며 주 중의 주이다. 그리고 그분의 존귀는 매우 당연히 받을 존귀이다(계 5:9-10).

높여지신 그리스도는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요 17:1-4; 뱀전 3:22). 그분은 유일한 군주이시다(딤후전 6:15).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과 영원하고 영적인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기쁨에 따라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잘 통치하신다(롬 8:28).

하늘에서 높이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 받은 죄인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신다(히 7:25; 요일 2 1-2). 그분의 완전한 의와 피의 속죄를 근거로,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의 구원과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을 것과 마침내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그들이 있을 것(요 17:24)을 아버지께 탄원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설득하신다!

그리스도의 높이지심은 대표적인 높임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대표로서 높이지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미 높이진 것이다(엡 2:5-6).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며,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 가운데 영원한 유업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임도 너무도 확실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유자들이다!

높여지신 구속자는 무엇을 약속 받았는가? 그가 지극히 높은 곳에 권능의 오른쪽에 높이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모든 적을 그의 발등상으로 만들 것이라 약속하셨다(히 1:5, 8-13).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 모든 우주 전체에 행해 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그의 발등상으로 만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아버지는 또한 그분의 아들에게 그의 모든 속량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사 53:10-12; 히 2:13). 전에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엎드릴 것

이다. 당신도 역시 믿음 안에서 그분께 엎드려 이제 그분의 통치에 항복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심판날에 그의 주권적 공의를 깨달으며 엎드릴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분께 엎드리게 될 것이다(사 45:23-25).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행 2:37).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주권을 겪어야 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깨달았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이심을 깨달으며 그분의 요구에 엎드려야만 한다(롬 10:9-10; 고전 12:3).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께 자원하는 종으로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항복하는 것을 포함한다(눅 14:25-33). 항복이 없는 곳에 믿음이 없다!

모든 믿는 자는 기뻐하자.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셨다. 그리스도는 주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순종의 믿음 가운데 그분 앞에서 걷고, 소망과 기대로 그분을 기다리자(요일 3:2).

## 7. “주께서 교회에 더하셨다”

사도행전 2:37-47

베드로의 설교는 지극히 간단하였다. 예시도 없었고, 감동시키는 이야기도 없었으며, 놀라운 논리적 요점도 없었고, 높이 솟구치는 웅변적인 것도 없었다. 사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를 그의 청중의 죄를 담대히 노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며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선택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전달되었다. 그 날이 다될 무렵에 삼천 명의 남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였고, 구원받았으며 교회에 더하여졌다. 여기 각 설교자와 교사와 교회 인도자와 교회 지체가 배우고 마음에 두어야 할 두 가지 공과가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제시된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 만의 역사이다 (37-41 절).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린 자들이 울부짖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처럼, 그들이 일단 그들의 죄를 자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알고 깨어나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를 소망하였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다! 이 사람

들은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의롭게 하려고, 그분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호의를 받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구원은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오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의 결과이다(롬 3:28; 11:6; 엡 2:8-9; 딤후 1:9; 딤펠 3:5). 37-41 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의 아름답고 분명한 그림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그분은 죄인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파되는 복음을 듣도록 하신다(37 절). “그들이 이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복음(23 절)과 주로서 그리스도의 높이심과 영광(32-36 절)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 속으로 찢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롬 10:13-17; 고전 1:21; 약 1:18; 벧전 1:23-25). 그분의 지혜롭고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복음 전파자 목소리의 음성 아래 은혜롭게 될 자에게 데려오신다.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데려오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데려오셨던 것처럼, 바울을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와 멜리테의 “야인들”에게 데려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데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택함 받은 죄인들을 복음의 음성 아래로 데려오실 방법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사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사람들은 실로 축복을 받았다(렘 3:15; 엡 4:8-16).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계획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영을 그 죄인의 마음 속에 보내시고, 그 사람 속에 실제적인 마음의 죄의 자각을 산출하신다(37 절). “그들의 마음 속으로 찢림을 받았다.” 성령의 판결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은혜에 속한 필연적 역사이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다(요 16:7-8). 성령은 그 죄인이 입고 있을 것을 벗기고, 그를 채우고 있을 것을 비우시며, 그가 치유받을 것을 상처내시며, 그가 살아 있게 할 것을 죽이신다. 죄와 의와 심판의 판결은 마음 위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자만과 자기 의가 사라지게 된다(사 6:1-8).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계시로부터 일어난다(슌 12:10). 그것은 죄를 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 그리고 참된 성령의 판결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결론 짓는다(요 6:44-45).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죄인에게 오실 때 그분은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38 절).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복종하든지 멸망하든지 하여야 한다(마 10:

11-15, 40). 회개는 죄에 대한 비통함 그 이상이다. 그것은 변화, 생각의 변화, 동기의 변화, 주인의 변화이다! 그것은 부단한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이다.

38 절에서 “위하여(for[the remission of sins])”라는 단어는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나을뿐 했다. 침례는 죄들 때문에 혹은 용서의 방법이 아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믿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물론 찬 무덤 속으로 잠김으로 믿는 자는 그로써 그의 죄들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믿음을 고백한다. 무덤에서 나올 때, 그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를 고백하며, 생명의 새롭게 됨 가운데로 걸어나온다(롬 6:4-6).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여기 있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서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죄인들에게 오실 때, 그분은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부르신다(39 절).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롬 10:13).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을 부를 자들 모두에게” 주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부름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복음을 몇 사람에게 보내시며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감추신다(마 11:20-26). 복음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부름이 있으며, 듣는 모든 자가 복종할 책임이 있다(잠 1: 25-33; 롬 10:18-21).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들을 은혜롭게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다(살전 1:4-5; 시 65:4). “그분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인도해 내신다.”(요 10:3).

구원하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실 때 그분은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음성에 그들이 복종하도록 하신다(40-41 절).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떨어지는 손을 가진 이 백성들은 그분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그들의 주와 구원자로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향복하도록 되었다(시 110:3). 은혜가 그들을 자원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만의 역사이다 (41-47 절).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창의력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축된다. 복음의 전파 외에 교회를 건축하려는 사람의 모든 노력은 나무이고 건초이고 밀대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고전 3 11-15).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그런 교회가 구원 받게 되며,” 그분은 여전히 더하고 계신다!

2 장의 마지막 이 구절들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각각의 지역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를 제시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축복된 교통이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교통이다(엡 2:19-22). 그것은 교리적 교통이다. “그들은 사도의 교리 안에서 꾸준하게 계속하였다.”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들 위에 세워진다. 그것이 형제의 교통이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로 “모든 것을 공통”되게 가진다. 각자는 모든 것의 선을 위하여 소유한 것을 사용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랑 가운데 건축되고, 마음의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것이 경배의 영적 교통이다. 지역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일 때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하나같이 함께 모인다.

## 8.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사도행전 3:1-11

성전의 미문에서 이 절름발이의 치료는 매우 교육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 배움과 훈계를 위하여 여기 기록되었다.

1. 분명히 이 날의 사건들은 대중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기도를 위한 지정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대중예배의 지정된 곳으로 왔다. 비록 절름발이가 육신적인 이유로 왔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필요가 가장 잘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장소-하나님의 집-에 왔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절름발이인 특정한 사람” 모두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셨다. 모든 궁핍한 혼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경배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특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자 (시 122:1; 히 10:25). 궁핍한 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 안에서 이다 (마 18:20).
13. 이 단락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구제와 친절의 예를 보여준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주

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 사람의 불쌍한 처지와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마 6:3; 10:42; 눅 10:25-37).

14. 본질적으로 이 기적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부활하고 높여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베드로 자신이 그 기적을 주었던 것의 해석이다 (행 4:10-12). 이 불구의 거지의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효험 있고 구원하는 은혜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 열한 절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다섯 가지 중요한 공과를 가르친다.

첫째,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2 절). 이런 사람의 무기력은 사고나 질병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출생의 결점이다. 그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났다. 이것이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의 상태이다. 우리의 마음은 죄에 속한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영적으로 우리의 다리는 부러졌고, 우리의 손은 말라 비틀어졌고, 우리 눈은 멀었으며, 우리 귀는 들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범죄와 죄 안에서 죽었다.”(엡 2:1-4). 천연적인 사람의 영적 불구는 너무도 철저하여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완전히 타락한 채 태어난다(렘 17:9; 마 15:19). 그 마음

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께 올 수도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없을 것이다(요 5:40; 6:44). 그는 그렇게 할 갈망도 능력도 없다(렘 13:23). 어떤 죄인이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오게 되기 전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행하신다면, 그 죄인은 그리스도께 오게 될 것이다(요 6:45; 시 65:4; 110:3).

그는 불구자였기 때문에, 그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구걸을 하며 나날을 보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궁핍하고, 무력한 거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외에는 어떤 것도 얻을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분의 공휟을 구하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곤 그분 앞에 넘어져서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다(눅 18:13). Matthew Henry가 말한 것처럼, “궁핍하고 일할 수 없는 자들은 구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거지는 거룩한 은혜의 선택 대상이었다. 그는 가난하기도 하였고 무능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성전 주변에는 그런 상태에 있는 다른 많은 자들이 있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롭게 되시기를 결정하셨다(살후 2:13-14). 섭리가 그를 궁핍하고 무기력한 자로 만들었으며 은혜가 발견될 그 곳에 그를 두셨다.

둘째,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사람들의 혼에 조롱거리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주었다. 숨이 멎을 장관을 가진 성전이 거기서 있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이 완전히 하얗게 다듬어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이 미문은 고리도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중천의 해가 그 위에 비추면 그것은 거의 눈부실 만큼 번쩍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곳은 텅 빈 황량한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어떤 실질적인 혜택도 공핍하고 무능한 거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성전과 관련된 것이 없었다. 그것의 장관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은 단지 그를 업신여기기만 하였다! 현대 종교의 슬픈 모습이여! 종교 안에는 육체를 감동시키는 것이 많다. 부, 영향력, 재능, 오락, 절차와 의식이 양심을 만족시키며, 거룩한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복음이 없다! 은혜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와 사람의 혼에 조롱거리다!

셋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하실 때 언제나 특정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1-5 절). 그렇게 하심으로 기뻐하셨다면,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단들을 사용함이 없이 그분의 공훈에 속한 일들을 수행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공훈에 속한 일을 수행하시는 그분



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분은 무덤에서 돌을 쉽사리 움직이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 돌을 치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명하셨다(요 11:39). 그렇다 할 지라도, 이 궁핍한 절름발이 거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를 받았다. 베드로는 그것을 충분히 분명하게 한다(12-16 절). 그러나 세 가지 것들이 그가 치유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해야 되었다.

1.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다(롬 1:16-17; 10:17; 고전 1:21; 약 1:18; 벰전 1:23).
15. 이 사람의 친구들은 그를 성전, 그가 공훈을 구할 가장 희망을 가질 장소로 데려왔다.
16.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에게 하라고 말한 것을 하였다(4-6 절).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사람은 이런 기회에 치유를 받아야만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다. 하지만,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주께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가버렸다면, 이 사람의 친구들이 그를 성전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는 결코 치유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이 절름발이의 치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모든 천만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6-8 절). 이것은 참된 대화의 그림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보았다. 그리고 당신 속에서 그런 변화, 연약함에서 강함으로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혼이 구원 받을 것도 이런 방법이다.”-(Charles Simeon).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의 주권적 뜻의 실행만으로 죄는 정복되며, 범죄 사실은 없어지고, 죽은 자가 살며, 피에 굶주린 사자들은 양이 되고, 사악한 죄인들이 그분 안에서 새 피조물들이 된다. 나무 위의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 버렸다 (히 9:26). 보좌 위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수 있다 (히 7:25).

다섯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효험이 있다 (8-11 절). 언제나 그 의도된 계획을 성취한다 (사 55:10-11).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다 (사 45:22).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방법이다(사 65:4).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 그분의 구원하시는 선에 대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린다(고전 1:26-31).



## 9.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공과

사도행전 3:11-26

설교자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종들의 전파하는 것과 설교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영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사람들의 혼에 주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유익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십자가의 사도적 전파로 돌아가야만 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된 가난한 절름발이 거지를 만났다. 이 사람은 치유를 받자마자 곧 꺽충꺽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이 기적은 커다란 소란을 야기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다. 그 단락에 이제 우리 앞에 베드로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이 군중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으심 이후 그의 두 번째 설교였다. 이 설교와 그 날 전했던 것과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없다. 다른 사도들처럼 그리고 아직은 회심하지 않았던 바울처

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였다(고전 2:1-2). 성전에서 의 이 설교 내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베드로의 첫 번째 관심은 그의 청중들의 주의를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었다 (11-12 절). 이 사람들은 절름발이의 치료에 대하여 흥분하고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였던 기적에 놀랐었다. 따라서, 베드로의 첫 번째 관심은 그들의 주의를 치유 받은 사람으로부터,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신으로부터 돌리는 것이었다. 첫 번째 관심사는 사람들이 그 치유 받은 사람이나, 치유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닌 치유자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고 놀라움으로 가득하였다. 기회를 잡으며 베드로는 앞으로 나서서,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것을 행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들의 흥미가 있는 그 지점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났지만, 즉시 그들의 주의를 그리스도께 돌리려 노력하였다.

놀라움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너희는 왜 이 일에 놀라는가?” 사실, 절름발이는 치유를 받았지만, 이 일이 있기 바로 수 일전에 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치유하셨다! (요한복음 11:43-45 를 읽어보라). 그리스도는 반복하여 하나님으로서 생명과 사망 위에 그의 능력을 보였

다. 우리는 그분이 그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보고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나 요한에게 주어지는 명예나 공적이거나 칭찬 혹은 박수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도구들에 불과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도구들인 그들은 그들의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 받고, 귀히 여겨지고, 존경 받고,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살전 5:12-13).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우상화되면 안 된다. 참된 복음 전파자들은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존귀히 여겨질 것을 갈망하면서 평가 받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고전 3:5-7; 4:1; 고후 4:5,7).

일단 그가 그들의 주의를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면, 베드로는 이 대중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13-16 절). 이것이 사도들과 함께 오늘날 전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한 가지이다. 아무도 오늘날 계시나 기적이거나 방언의 사도적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 (고전 1:17-23; 고후 4:5). 영광의 주를 살해한 죄가 있는 이 군중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있어서 베드로는 네 가지 것들을 했다.

첫째,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말하였다 (13 절). 그분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다. 본질적으로, 베드로는,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분이며, 모든 것 위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축복받은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사람이며, 유일한 주이고 구원자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사 55:5; 요 17:2; 롬 14:9; 빌 2:9-11 를 보라).

둘째,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노출하였다 (13-15 절). 그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발을 힘껏 내딛고, 아주 담대하게, 사도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있음을 말했다! 그것이 전도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신실한 복음 전도자는 그들이 당신의 반역점을 발견할 때까지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핀다. 그들은 당신 마음속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노출시킨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보고 고백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증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선포했다 (15 절). 비록 그가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굴욕적이며, 경멸 받을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

력으로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그 부활은 그로부터 모든 비난을 제거하였고, 그분의 모든 요구를 승인하였고(롬 1:1-4), 그분의 가르침을 확증하였으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믿음과 소망의 근거이다(롬 4:25-5:1; 8:33-34).

넷째, 사도는 일으켜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였다(16 절). 이 기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의 덕으로 일어났다. 그것은 “그분에 의한 믿음”에 의해,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행해진 기적이다. 은혜에 속한 모든 기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생 4:12),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행해진다(엡 1:19; 2:8; 골 2:12).

그리고 베드로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다(17-18 절). 일단 그가 그들을 상처 냈고, 그는 그들이 치유될 것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였다. 그들은 죄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소망이 있다(딤후 1:15). 비록 그들이 영광의 주를 정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사 53:10-11; 행 2:23). 요셉의 형제들이 그가 누구였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 그렇다 할 지



라도, 우리의 요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창 50:19-20).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죽고, 일어나고, 영광으로 승천하셨다.

베드로는 주권적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의 청중들에게 강조하였다 (19-26 절). 그는 그들 앞에 은혜와 용서와 화목의 약속을 지금과 영원히 붙잡고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강권하였다 (19-21 절). 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의 확실한 파멸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촉구하였다 (22-23 절). 마침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축복들의 성취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촉구하였다 (24-26 절).

## 10. “생명의 왕”

사도행전 3:14-15

이 단락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에서 전도하고 있었다. 여중 앞에서 한때 떨었던 그가 이제 담대하게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화로웠고 그가 전도하던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죄를 “여러분들이 생명의 왕을 죽였다”고 말하며 분명하게 드러냈다. 여기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자에게 한 예를 제시한다. 우리 전도의 주제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악한 자를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의 대적을 노출하여야만 한다.

성경의 이 본문은 복음 교리로 충만하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왕을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니라.”

사람의 타락 - 인간 죄의 놀라울 만큼 흉물스러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명백한 사건이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모든 것들을 속이고 절망적으

로 사악하다.”고 말한다. 바울은 “육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이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인간 죄의 아주 나쁜 한계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에서만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살해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증오의 분명한 증거이다! 그것이 완전한 타락의 교리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게 되도록 하셨을 때, 그는 하늘의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셨고, 그에게 분풀이를 하셨으며, 그분의 무한한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까지 그를 벌하셨으며, 그를 죽이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시고(사 45:20), 공의로울뿐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의 의로운 분임을 선포한다(롬 3:24-26).

그리스도의 겸손 - 경이로움 중의 경이로다! 생명의 왕께서 죽기까지 굴복하셨다! 모든 자의 주이신 그가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죽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다. 모든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그분이 그의 선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당하셨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은 나무에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를 거기에 붙잡아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위한 그분의 열정이었다(빌 2:

5-11; 고 후 8:9).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을 구하지도 구할 수도 없었다.

반역의 우둔함 -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모든 반역은 미친 짓이다(시 2:1-12). 그것은 사실이며, 이 사람들이 생명의 왕을 죽였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대항하여 반역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 위에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왕이다! 이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고, 높여지셨으며,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받으셨다. 어느 날, 회개든 심판 가운데 있든지, 각각의 죄인은 주께 앞드리게 될 것이며 그분을 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사 45:22-25).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 - 그분은 “생명의 왕,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일으키신 분이다!” 그분 자신의 삼위일체가 그를 일으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의기양양하게 재개하셨다. 사망으로부터 그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다 (롬 1:1-4). 그분의 부활은 사탄이 패배하였음 과 (요 12:31; 계 20:1-3),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죄들이 없어졌음 과 (골 2:12-15), 그분의 백성이 의롭게 되었음 과 (롬 4:25),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음 과 (사 53:10-12), 그리고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들이

사망에서 일으켜질 것도(요 11:25; 고전 15:23) 선포한다.

복음의 신뢰성 - 복음의 신뢰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소식) 참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신 전능하신 분이다. 베드로는,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고 말한다.

저기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정직한 두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증언으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많은 것을 잃었다. 그들은 다른 아홉 명의 사도들을 불렀을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증언을 확인하려 한번에 오르신 주를 보았던 오백 명도 더 되는 형제들을 부르기도 하였을 것이다(고전 15:4-7). 그런 사람들의 증언은 의심할여지 없이 사실이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분의 몸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의 승리에 찬 부활은 인류사의 지면에 기록된 다른 어떤 사실처럼 확실하고 신뢰할만한 사실에 관한 문제이다.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오늘날 생명의 왕으로서 살아계시다!

“생명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받으시기에 자격이 있는 직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에게 스스로 계시하신 그 유명한 직함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 그분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 이 이름으로 그분은 영광스럽게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살해자들이 “생명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께 정당하게 속한 직함이다. 이 직함은 그분이 무덤에 있을 때조차도 그분께 속하였다. 비록 그분의 몸이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생명의 왕이었다. 이제 그분이 사망에서 일으켜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시려고 언제나 사시며, 주 예수께서는 이 직함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다. 그분은 그것을 아무하고도 공유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그분에게서 가져갈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는 생명의 왕이다. 이 직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은 생명의 창시자이다.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며,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특히 사실이다. 생명의 은사는 완전히 생명의 왕의 특전이다(요 5:21; 17:2; 요일 5:11-12).

그리스도는 최고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다. 생명은 그분 안에 결단코 최고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자존하는 생명이며, 필수적인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은 그분 안에 그 모든 충만함과, 힘과, 완전함과 자립 내에

서 내주한다(요 5:26). 다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주신다.

그분은 그 백성을 위하여 살 권리를 쟁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없애고 복음을 통한 빛으로 생명과 불멸을 가져왔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과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육체적)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습니다(히 4:14-15).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한 죄인들에게 대가없이 생명을 주신다(시 68:18-20).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구원자께서 사망과 접촉하시러 오셨을 때마다, 사망은 그분의 임재로부터 도망갔다. 그분은 언제나 사망 위에 승리하셨습니다(막 5:35-42; 눅 7:11-15; 요 11:43-44).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있다. 생명의 왕께서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오실 때마다, 영적 사망은 도망간다(요 5:25). 따라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요 5:28-29).

그리스도는 경이롭게 생명을 지키신다.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요 10:28-29), 그분 자신과 우리를 연합 가운데 지키심으로(요 15:5),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요 6:47, 48, 51, 53-56),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생명 안에 지키신다!

생명의 왕은 생명의 통치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에, 그분이 통치하신다! 모든 참되고 영적인 생명은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함을 낳는다(눅 14:33). 그분은 아무런 빈 직함을 달지 않으신다. 그분이 생명을 주는 모든 자는 기꺼이 “생명의 왕”이신 그분께 엎드린다.



# 11 .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사도행전 4:1-12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큰 부어주심과 그리스도로 그렇게 많은 자들이 회심하는 것으로 당황하고 난처해졌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에 맞섰던 것처럼 사도들에 맞서서 그들의 힘을 속히 규합하였으며, 복음을 잠잠케 하려 시도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 었다. 늘 그렇듯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빛의 왕에 의해 꺾였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첫 번째 박해의 기록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목표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신하도록 하라. 우리가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자 왕께서 절대적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분은 확산되어야 한다! 기록된 바,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통치하셔야 한다.”고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이유로 붙잡혔다 (1-4 절). 어둠의 권세자들은 그들에 대항하였다. 그들은 사탄의 바로 그 영역을 침범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절름발을 치유한 후, 그들이 군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큰 담대함으로 이 두 사람은 감히 그의 대적들 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실하게 증언하였다 (1-2 절). 이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의 원칙이 되는 점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일을 알았다. 그들은 나라 일들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 개혁을 추구하지 않았고 관련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악의 소굴을 폐쇄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은 전도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였다. 그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였고 그분을 부활과 생명으로 선포하였다(요 11:25). 그들이 보고 들은 것만을 선포하며 그들은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한 사실을 전하였다. 그리스도에 의한 부활을 전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를 전하는 것이다.

1.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고후 5 21; 갈 3:31; 행 3:13-15).
17. 하나님의 택한 자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부활(히 6: 20; 엡 2:5-6; 행 3:13).
18. 모든 자의 주로서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요 17:2; 롬 1 4:9; 행 2:32-36).
19.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살전 4:13-18; 행 3:19-2 1).

20.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요 11:25; 롬 10:9-13; 행 3:19, 26).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하였던 복음은 성령께서 많은 자들에게 효험있게 되었다(4 절). 전도자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드러났다. 수일 전에 삼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였다(행 2:31). 이제 믿음이 오천 명 이상에게 주어졌다. 두 번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파되었고, 교회는 백이십 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팔천 명의 믿는 자들 이상이 되도록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 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격이었다(2-3 절).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량, 부활 영광, 그리고 대가 없는 구원의 교리는 이 사람들의 교만하고 종교적 행위와 자기 의에 대하여 범죄 행위였다. 그들은 그들을 즐겁게 만들었던 것들로 인하여 비탄에 빠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탄에 빠졌다!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물의 공로를 통한 은혜에 따른 구원의 메시지로 그들은 불쾌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구속하였다. 현재까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투옥되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후에,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을 이유로 죽음에 처해졌을 것이다. 주는 그의 백성을 어떤 정도 고통을 받게 함으로 지혜롭게 훈련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더 큰

시험을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 좀더 작은 시험들을 보내신다. 바로 시작부터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박해자들의 손에 받는 고난의 역사였다. 그것은 피로 쓴 역사이다. 박해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의 전파이다. 이 메시지는 자기 의에 있는 종교적 사람들에게 공격이다(갈 5:11).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침묵하도록 위협하려고 하였다(5-7 절). 이 “지배자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높은 존경과 권력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가진 공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하였다. “무슨 권능으로, 무슨 방법으로 너희는 이것을 행하였는가?” 그들이 만약, “여호와, 유일하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다.”고 대답하였다면, 그들의 대답은 진실이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이었을 것이다! 공회는 “복되도다 그분의 이름이여.”라고 대답했을 것이며, 그 일은 종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는 앞에서 그 사람들과 맞닥뜨렸으며 의기소침하였다(눅 23:54-62). 그는 그분의 주를 결코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종교 재판의 한 가운데 서있는 베드로를 그려보라.

그는 자신을 보호하였고, 그의 발을 확고하게 서서, 그들이 그에게 하였을 것을 모르는 채, 그러나 그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말하였다.

담대하게, 도전적 확신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그의 박해자에게 타협함이 없이 전하였다(8-10 절). 그는 무엇을 말하여야 할 지를 가르쳤고 그것을 말할 용기를 주었던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눅 12:11-12). 그의 손 안에서 있는 문제들 가운데 어떤 악함에 대해서도 모두 결백하였다. 그는 주께서 그에게 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곳에 그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기회를 그만두었고 그의 대적들의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대히 고백하였다. (10-12 절에 있는 그의 고백을 읽어보라). 이 고백에서 베드로는 성경에서 하라고 한 모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크게 강조를 두고 있다(사 9:6-7; 마 1:21).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으며,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그분의 이름은 보화 같다(아 1:3; 벧전 2:7). 권능이 그분의 이름과 관련 있다(빌 2:9-11). 그의 이름은 믿는 자의 용서의 근원이고 이유이다(요일 2:12).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요 1:12-13; 롬 10:13).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죄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

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신다(엡 4:32). 모든 참된 기도는 우리의 대표자이고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만 하나님께 온다(요 14:13-14).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평강을 갖는다(요 14:27; 16:33). 주의 이름은 모든 때에 있어서 우리의 보호이다(잠 18:10; 삼하 22:1-4). 하나님의 택한 자의 보존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으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요 17:11). 만일 그분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를 잃는다면 그분의 이름에 속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분의 이름은 모든 참된 전파의 주제이다(눅 24:47).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나 번영과 관련 있다(렘 23:5; 계 19:11-16). “주의 기쁨은 그분의 손 안에서 번영할 것이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유다 족속의 사자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양은 만 족하시 될 것이다. 그분의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분의 계획은 승리할 것이다. 그분의 대적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계 5:9-14).

## 12. 나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말 하는가?

사도행전 4:13-22

이 단락 안에 몇 가지 점들이 조심스럽게 관찰되어야 한다. 각각이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세부적인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였던 복음이나 그들이 수행하였던 기적들 모두 부인될 수 없다. 그 증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13-16 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다. 그들은 그의 대적들 앞에서 그분에 대한 증언을 갖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셨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공회 앞에서 죄인들이었지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마 10:19).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신다(삼상 2:30).

둘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법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믿는 자는 대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17-20 절). 사회 생활과 정부와 관련한 모든 것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사회 통치자들의 권능과 권위에 복종하여야

한다(롬 13:1-4). 그러나, 만약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위배되는 것을 하도록 요구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그 계획은 성공할 것이다(21-22 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의 지혜롭고 숭배할만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분의 택하신 자의 영적이고 영원한 선과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게 하실 것이다(시 76:10; 롬 8:28; 계 4:12). 그분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하신다. 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후에 그것이 그들을 치고 가두었던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 후에 까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참혹하게 살해되었던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였던 것은 13 절에 기록되고 있다 -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복음에 흥미가 없었던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을 살아 있는 존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과 통제 아래 명백하게 있기를 택하



였다.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대화는 그들의 대적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된 그들을 인지할 만큼 생활과 언행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을만한 질문이 있다 - 내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일하고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의 행동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생활 가운데 체현될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들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나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살전 1:3-10). 다음 질문들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영원한 택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며(엡 1:4; 살후 2:13),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한 거룩한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 받은 자이며(갈 3:13; 벰전 3:18),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이며(벰전 1:23; 약 1:8), 성령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영향으로 그 죄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주라 시인한 자이다(롬 10:9-13; 요일 1:9). 그

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이다(골 1:27; 벧후 1:4).

거듭남은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를 소유 삼으시며, 그를 통치하시고, 그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하시는 그리스도보다 덜한 것이 아니다(마 12:29; 눅 14:26-27). 이것보다 못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믿는 자는 그 자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남녀이다(빌 3:10; 골 3:1-3; 히 12:14).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것은 이 생에서 얻을 수 없지만, 그 사실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걷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본을 따르기를 갈망한다(요 13:15). 여기에 우리 구원자의 삶을 특징짓는 네 가지 것들이 있다. 이 네 가지 사항들은 어느 정도는 그분을 알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특징지을 것이다.

1. 하나님의 존귀를 위한 단호한 담력(마 21:12-13).
2. 인자함과 사랑(요 8:1-12; 고전 13:1-8; 엡 4:32-5:1).
3. 스스로 낮추는 겸손(빌 2:5-8).
4. 의로움(눅 2:49-52; 엡 4:17-32).

그 삶이 참으로 이 특징들을 예로 삼는 사람을 찾다면 당신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자를 찾을 것이다. 그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영으로 난 자들이

다(갈 5:22-23). 선행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선한 행위들을 낳는다(엡 2:8-10).

믿는 자들은 언제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분투하여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쓸데 없는 것처럼 보이길 소망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일요일과 교회를 위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만일 당신의 종교가 당신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종교는 엉터리이다(고후 5:17).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곳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그분처럼 되기를 애쓰는 사람이다.

- 하나님의 집 안에서(딤후 3:15-16).
- 일상생활의 일 가운데에서(마 15:14-16).
- 가정에서(엡 5:22-6:4).
- 마음과 태도 가운데(시 139:23-24).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왜 그분처럼 되기를 애쓰는가? 믿는 자의 생활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동기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마 6:1-18),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추구한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솔직하게 애쓰라.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에 크게 달려 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은, 많은 정도로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구원자를 따르는 것에 달려 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으라(딤후 2:10). 당신이 믿기로 고백한 그 복음은 당신이 사는 그 방법에 의해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신뢰를 얻기도 혹은 잃기도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애를 써라. 감사를 사랑함이 그것을 요구한다(고후 5:14).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 결코 잊지 말라(고전 6:20, 7:23).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의 사랑과 순수함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본을 따르기를 힘쓴다. 그러나 그들은 기초 없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짓는 집은 곧 그들 주변에 허물어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은혜로 새롭게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본에 당신의 행동을 맞추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녀를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네 가지 은혜에 속한 전능한 역사로 이것을 하신다.

1. 피의 속량(벧전 3:18).
5. 전가된 의(고후 5:21).

6. 거듭나며 거룩하게 하는 은혜(벧후 1:4).
7. 부활 영광(빌 3:21).

## 13. 기도 안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4:23-31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유로 체포되고 재판을 받은 후,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지만, 유대 공화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 것을” 엄격히 명령 받았다 (18 절).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하던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기도 집회를 가졌다. 그 어떤 무기인가! 아무것도 기도처럼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손을 강하게 한 것은 없다. 이 단락에서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환기시키고자 한다.

실재적인 교회 권속의 위로와 기쁨 - (23 절). 베드로와 요한이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법정 투쟁을 하기 위하여 법정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취급 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후 10:3-4 를 읽어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로 갔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말했다. 성령은 그것을 간단하고 부드러운

말로 묘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리로 갔으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했던 것을 모두 보고하였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경배의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모이고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곧장 그 모인 장소로 갔던 것은 그곳이 그들이 원하고 있어야만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경배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통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없었다. 믿는 남녀들이 함께 앉아 하나님의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의 권능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삼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위로 같은 위로가 없다. 다윗이 그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그의 목숨이 두려워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주를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한번 더 갈망하였다(시 84:1-4, 10).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시 122:1)고 말했다.

대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보다 믿는 자의 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참된 지역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다(고전 3:16).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 안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집회와 만날 것임을 약속하셨다(마 18:20). 당신은 사람들이 모여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터 듣기를 가장 원할 것이다(롬 10:17; 엡 4:11-16).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에 경배를 드리기를 위하여 보인다. 찬양의 노래 가운데,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의 경배이다. 성도들의 집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만남이다. 가족이 모이는 것보다 더 기쁘고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아프고, 문제가 있고, 슬프고, 낙심하거나 기뻐할 때,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한다(시 133:1).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를 경멸하고 무시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한다. 그것은 철저한 배교로의 첫걸음이다(히 10:24-26).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필요한 것보다 더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통,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 등이다. 주의 대적들 가운데서 이틀 낮과 밤을 보낸 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집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관심의 문제들 - (24-30 절). 사도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교회에 말한 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팔을 들어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종교적 자유를 이유로 나라를 새로 결집하려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역 단체를 만들어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그들이 공동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은퇴할 것을 요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세상에 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충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하였다!

분명하게, 한 사람이 회중을 기도 가운데 인도하였다. 아마도 몇 사람이 그들을 연이은 시간에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모두가 들을 수 있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은 “합당하고 순서에 따라 행해졌다.”(고전 14:40). 대중 예배의 어떤 방면도 대중 기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회중을 인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의 선한 섭리와 은혜의 축복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말씀 사역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의 능력을 구하며 전체 회중이 그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높이곤 하였다. 이것이 정확히 24-30 절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지고와 절대를 앙망하였다(24 절). 아무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그분의 절대를 깨닫는 것과 같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도록 고무하는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다! 우

리는 논리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것이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분이 모든 것에 대하여 처분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다(시 135:6). 그것을 손에 넣으면 격려와 평강 모두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 가운데 계시된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인정하고 그에 엮드렸다(24-28 절). 이들 남녀는 그들과 그들의 대적들이 모두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믿었다. 그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확실히 보장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었으며(25-26 절),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였고(27 절),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시인하였다(28 절).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을 수는 없다. 아무것도 그분의 절대적 통치를 탈출할 수 없다(사 14:24, 26, 27; 단 4:34-35).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그분의 백성의 구원이다. 그분은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격노 조차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그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나무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도들은 주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한 힘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29-30 절). 그들은 그들이 섬겼던 이유였고 그

들이 구하였던 영광의 하나님께 세 가지 단순하고 순종적인 믿음의 요구를 하였다.

1.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감시하실 것을 요구하였다-“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소서.”(29 절, 속 2:8 을 보라).
8. 그들은 그분께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그분의 종들에게 주실 것을 요구하였다(29 절).
9. 그들은 그분께 그분의 손을 뻗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그들 가운데에서 보이실 것을 요구하였다(30 절).

그들은 이 세 가지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요구하였다.

그 백성의 울부짖음에 대한 주님의 은혜로운 대답(31 절).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 백성 한 가운데 알게 하셨다. 교회는 그 영으로 충만하였다. 사도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았다. 모든 회중이 이 회중을 따라 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교회 가운데 존귀함을 받으실 것이다!

## 14. 은혜와 관용과 탐욕

사도행전 4:32-5:11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초대 교회의 자세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오늘날의 교회처럼, 뒤섞인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다. 가라지 들이 밀과 함께 자랐다. 염소들이 주의 양떼와 섞여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초기 때에 조차, 탐욕스러우며 우상숭배 하는 위선자들이 있었다. 각각의 주일 학교 아이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4 장 32 절에서 시작되며, 5 장 11 절까지 계속된다. 이 이야기에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과 단지 위선적인 믿음의 고백 사이에 놀랄만한 대조를 제시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들 몇몇 계시의 구절들을 조심스럽게 읽는다면, 세 가지 사항에 관심이 갈 것이다.

은혜로운 태도 - 성령이 이 단락 안으로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은혜로운 태도이다(4:32-35). 믿는 마음들이 은혜로운 마음이다. 참 믿음은 죄인들을 정말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본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사는 사람은 모두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을 찾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그의 삶을 빼앗긴다(마 10:39). 이들 초대 사도들은 물질적인 소득을 위함이 아닌 영적 선을 위한 믿음 생활의 본을 보여준다. 믿음은 일시적인 풍요를 추구하지 않는다. 믿음은 지나가버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고후 4:18). 믿음은 불의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한다(마 6:24, 31-33).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마음 속에 은혜에 속한 태도를 산출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롭다. 이것이 이 네 절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하게 한다. 누가는 “믿는 자들의 많은 수가 한 마음이 되었다.”(32 절)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며(엡 3:14-15),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가족이다. 우리의 마음은 한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한다(벧전 1:8, 요일 4:19). 우리는 한 가지 계획, 하나님의 왕국에 바쳐졌다(마 6:10). 우리는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마 6:6). 우리는 통치하는 한 분,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요 12:28). 이런 것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이다! 많은 다른 것들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육신과 죄에 속한 이 몸 안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갈라 놓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

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따라서 “평강의 매임 가운데 성령의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자(엡 4:1-6).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에 대하여 관대하게 만든다 -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32 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상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높여져서 그들은 개인적인 재산이나 개인적인 부 혹은 개인적인 이득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런 믿는 자들은 실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조차 그들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 마음의 정서 속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모든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들은 오직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너무도 철저히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들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 재산으로 바라 보았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배워야 하는 것을 배웠다 -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 안에 있는 집사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선한 어떤 것들로 우리 각자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진보와 그의 복음의 촉진과 그의 백성의 위안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 이 사람들은 기꺼이 서로의 선을 위하여 위로와 편의와 개인적 만족을 그들 자신에게서 강탈하였다. 그것은 사도가 그런 권능으로, “그런 커다란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을 때”(33 절) 전도하였던 어떤 경이로움인가?

참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34 절과 35 절에서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형제자매들이 생활의 궁핍의 필요 가운데 있게 하기 보다는 그들의 소유와 집과 땅을 팔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런 종류의 은혜로움과 자비로움과 사랑을 산출한다(빌 2:1-8; 약 2:14-17; 요일 3:16-18).

그들의 은사는 사랑에 속한 대가 없고 자발적인 희생들이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줄 것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를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규제 받는다(고후 9:7). 이 백성들이 느꼈던 유일한 제약은 사랑의 제약이었다(고후 5:14).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할 최소의 압박도 없이 교회의 필요들이 무엇이었고 그 필요를 기꺼이 맞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 하에 그들의 은사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였다는 것을 또한 주목하라(35 절).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는 곳에 신뢰와 신뢰

감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분의 종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만을 취하였다. 다른 모든 것은 필요가 요구되는 대로 나누어졌다.

관용의 행동 - 하나님의 영은 누가 우리에게 안식의 본이었던 한 사람을 특정하여 말하도록 계시하였다. 바나바는 큰 행위, 관용의 행동을 하였다(4:36-37). 하나님에 의해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운명 지어진 한 사람인 바나바는 그 스스로 이 세상의 일들을 해방하였다(딤후 2:4; 고전 9:6-14). 아마 바나바는 이 때 그것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하여 그를 예비하고 계셨다. 실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고 부장되고 자격을 갖추게 된다(딤후 전 3:1-7; 딤후 1:6-9).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사역의 일에 사용하실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은혜로 그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는 평강의 사람이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본이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사도들에게 기꺼이 순종하였다(히 13:7, 17). 바나바는 좋은 평판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얻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그를 예비하신 후,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행 13:2).

탐욕스러운 행위 - 교회 안에 사악하고 위선적인 한 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다.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얼마나 많이 칭찬을 받았는지를 보았을 때, 그는 질투로 가득하였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기로 합의하였다(위선은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에 큰 선물을 하였으나, 그들의 선물은 탐욕스러운 행위였다. 그들은 인정받기를 위하여 주었다. 얼핏 보기에 그들은 큰 일을 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재산의 일부를 팔았다. 그들은 아마도 바나바가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후한 금액의 돈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삼상 16:7).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져왔던 선물은 은혜가 없고 탐욕스런 마음을 드러냈다. 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모두 준 것처럼 행동하였다. 아무도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것은 억지로 하는 희생이었으며, 위선적인 속임수이고, 사기였고, 보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흉내만 낸 것을 주었을 뿐이었다. 그들의 증여는 욕심과 탐욕의 행동이었지 은혜와 사랑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는 것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것을 바랐다! 그들

의 증여는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눅 16:15). 탐욕과 위선을 주의하라!

## 15. 교회 지체가 타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5:3, 12-16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였으며, 복음에 헌신하였고, 그리고 서로 헌신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셨다.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가 120에서 8000이 넘는 수로 성장하였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롱이 되었던 교회는 존경과 영향력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몇몇의 반역자가 있었고 뱀의 씨에 속한 위선자였다. 그들 두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드러남으로 끔찍한 위선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그리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시작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성령께 거짓을 말한 이유로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날 있었던 일의 소식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멀리받던 무리 중 한 사람은 그의 아내와 함께 그 자신이 위선자임을 입증하였다! 여러분은 그 말과 비웃음과 구설수와 손가락질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고백한 교회 지체들이 이 사악한 두 사람처럼 종종 타락한다. 행동에서 교회 안에서 기둥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저버린다. 교회 안에서 존경 받는 사람들인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그리고 사역자들이 죄로 타락하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며,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저버리고, 그들이 옳고 진실이라고 아는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해버림으로써 위선자들임을 입증한다. 때때로 우리 주의 제자들이 되겠다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서서 그분과 더 이상 함께 걷지 않는다(요 6:66).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그들이 우리를 떠났는가?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을 줄 것인가?”

교회 지체가 타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육신 안에서 우리의 경향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게 될 일로 두려워한다. 우리는 몇몇 종교적 위선자가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복음이 그 능력과 영향을 다소 잃게 될 수 있을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기초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고 확고하다!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 행렬에서 타

락할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고 숭배할만한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은혜롭게 성취하시며, 그분의 교회를 위한 최선의 것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분 스스로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고 계시다(롬 8:28; 시 76:10; 사 63:10-14).

여기에 이 공과 내의 고찰 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다섯 가지 위로가 되는 대답들이 있다 - “교회 지체가 타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하나님은 쓰레기와 보화를 구별하고 계시다. 처음 시작부터 지역 교회들은 실제 믿는 자들과 단순한 신앙 고백자들의 많은 수가 섞여 있었다. 우리 주께서 밀알을 뿌리는 모든 들녘에 사탄은 그의 가라지 들을 심는다. 염소는 물론 심지어 어떤 늑대들도 주의 양떼 가운데 발견된다. 참되고 신실한 믿는 자들의 모든 무리 안에 몇몇의 위선자들이 발견될 것이다. 유다, 데마, 알렉산더, 마술사 시몬, 후메네오, 빌레도, 디오드레베,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신앙 고백자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성경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지를 알곡과 구별하시고, 염소를 양과 구별하시며, 위선자를 참 믿는 자와 구별하신다(마 13:30, 41-43; 요일 2:19-20).

이런 구별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라지들이 알곡과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시는데, 그

렇지 않으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뿌리째 뽑게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정원에서 잡초를 어떻게 뽑을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하신다. 땅에 속한 시험들, 말씀의 선포, 사탄의 유혹들, 심판의 시능, 심지어 타락한 자들의 배교 조차 보화를 쓰레기로부터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 손의 도구들이다(고전 11:19).

둘째, 하나님은 다른 자들의 타락으로 구원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임을 우리에게 일깨우신다(고전 4:7).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도 믿음 안에 보존되지 않았을 것이다(요 6:66-68). 결코 교만하지도, 자랑하지도, 주 제넘지도 말도록 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의와 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곧 그분을 붙잡는 것을 놓게 될 것이다(고전 10:11-13).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충만함의 위로의 확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함이란 것에 기뻐한다(고후 12:9).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하여 믿을 수 있다. 나는 나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 안에서 보존될 수 있다.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다! 그분은 그분의 소유를 보존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다. 그들 육체의 약함과 결점과 죄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셋째, 마귀의 덫에 걸릴 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은혜롭게 이끄시고 그들을 복음의 믿음 안에서 확증하신다(히 6:1-12; 10:38-39). “우리 주변의 능력자들이 타락한다”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운다.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사탄의 도구의 위협을 일깨우는 것이 믿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피난처로 가게 한다(잠 18:10). 종종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타락을 본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보증과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변함 가운데 있다(말 3:6; 애 3:24-26; 딤후 2:15-19).

넷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포기할 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에 속한 계획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신다(행 5:14). 아무런 실질적인 해가 가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속량 된 자들 가운데 아무도 잃지 않으셨다. 선한 목자는 그 양떼 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 패배 당하지 않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했지만, 그들의 배교와 하나님의 응보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좀더 완전하게 서로 하나로 연합되도록 하였다. 사

랑하는 가족처럼, 위협의 두려움으로 그들의 집에 함께 모였으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번창하였다(행 5:12-16).

[주] 15 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이 계시될 때 미신적이 된다.

다섯째,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고 그분으로부터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교회를 보전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계획을 지속하신다(마 16:18; 행 5:38-39).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분의 계획이 좌절될 수 없다. 그분의 권능이 패배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준거는 확고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삼일 영광과 구원하는 은혜의 모든 충만 가운데 우주적으로 준거함을 받을 것이다(계 5:9-14). 하나님의 언약계가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다! 비록 많은 사람이 타락하여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는 모든 이 땅 위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만큼이나 안전하고 확고하다(요일 2:1-2; 롬 9:29-39).

“누구든지 시온의 길에서 돌아설 때, (아, 얼마나 많은 수가 그러한지!) 생각건대 구원자께서, '너는 나도 포기 할 테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네.



아, 주여, 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당신께서 나를 단단히 잡지 않으시면, 나는 분명코, 나는 부인할 것이지만, 마침내 그들처럼 증명하여야 할 것이네.

하지만 당신만이 나 같이 비참한 자를 구원할 권능을 가지심을 아네. 내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면, 누구에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고통을 이 질문이 일으켰을지, 만일 내가 또한 같 것이라면, 하지만, 주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 16. 하나님의 교회의 박해

사도행전 5:17-42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견뎌야 했다. 그 역사는 신실한 순교자들의 피로 기록되어 있다. 때때로 박해는 격심하고, 때로는 좀더 약하지만, 그러나 박해는 항상 있었다. 언제나 박해는 부도덕으로부터 오지 않고, 기초적인 사람들, 그러나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온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박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박해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요 15:18, 20; 마 10:22).

사도행전 5:17-41 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교회의 두 번째 박해에 대한 짧은 서술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1-22 이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에 던져졌나? 왜 그들의 나라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는가? 사도들은 자유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는 어떤 정치적 집회를 열지 않았다.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 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시대의 공통적 사회 질병들인 외설 문화나, 매춘이나 동성 연애에 대항한 반대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 이유로만 박해를 받고 있었다 -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그것

이 전부터.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사악함을 드러냈으며, 대속물의 필요를 선포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음을 선포하였으며, 부활하신 주권적인 주이신 그리스도의 주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 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의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가르침으로 그들의 사회를 개선할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런 것들 만으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투옥되었고, 맞았으며, 죽음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기 성령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두 번째 박해에 대한 이런 짧은 역사로부터 배우기를 의도하는 여섯 가지 공과들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범죄이다(17-18 절). 이 박해는 본질적으로 사두개 종파에 의해 선동되고 실행되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진보적이고 자유사상의 관대한 종교적 신사들이었다. 그들은 광신적 바리새인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았다. 그들은 철학적인 이교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양쪽에 관대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 몇진 종교인들은 격노함으로 충만하였고 죽일 준비가 되었다! 사실은 관대한 종교인들은 사람의 손 안에 구원을 남길만한 어떤 형태의 종교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관대하

였다. 그러나 죄인들의 십자가에 못박힌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로 만으로의 구원의 교환은 그들에게는 범죄 행위이다(갈 5:11).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불쾌한 것이다(고전 1:23-24; 롬 1:15-17).

둘째,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를 보살피신다는 것이다(19-26 절).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들을 나는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삼상 2:30).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그분의 왕국의 유익을 섬기며, 그분의 뜻과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대항 할 수 있으리요?”(롬 8:41).

“그러므로 이제 장래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키시며, 죽을 자들이 이곳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일이 다 할 때까지 그러하리라!”

이 땅 위에서 믿는 자의 일이 끝날 때까지, 그가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쓸모가 있는 한, 그분의 약속의 날들이 충만 되고 주께서 그를 집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는 이들을 세 가지를 확신할 수 있다.

1.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가리키실 것이다(잠 3:5-6).

10.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히 13:5-6).
11.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시 34:10).

셋째,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각각의 믿는 자의 책무라는 것을 보여준다(27-32 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증거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요일 5:1-3). 히브리서 11 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곳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된 믿음의 위대한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들은 그들의 본을 따랐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계속 해야만 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박해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의 생명,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어떤 순간에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과정은 네 가지 것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1.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인가?
12. 무엇이 나의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가?
13.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가장 좋은 것인가?

#### 14.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유익 안에 있는 것인가?

넷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는 침묵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패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왕국은 전복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33-40 절).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공과인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나 환경들에 좌우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것에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일 것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의 일을 지키기 위하여 가말리엘의 권고도 사용하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 안에는 모든 전도자와 믿는 자들의 모든 회중의 위로와 격려를 위한 많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장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유지될 것이다. 타협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망설임 조차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진척시키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의 필요를 그분의 섭리의 손으로 공급하실 것이다(스 4:2-3; 창 14:22-23).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보호하실 것이다(스 8:22-23).

다섯째, 이 공과를 배우라 - 당신의 섬김이 그분의 이름의 존귀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그

리스도의 계획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존귀한 자이다(41 절). 내가 회심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잡역부로 봉사할 것을 요구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장소로 깨끗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것은 커다란 공훈이고 명예이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모욕과 책망과 경멸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졌다면, 그것 역시 나의 명예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존귀를 위하여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에 놀란다!

여섯째,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한 가지 일과 책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배운다. 그 사도들은 전갈자의 위임을 받았으며(19, 20 절), 그들은 그것에 복종하였다(42 절).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위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사이다. 모두가 다 공개적인 전도자들이 되도록 부름 받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그것을 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 딤후 2:11-12).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은 그분의 증인들이다.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선포하여야 한다(마 28:18-20; 행 1:8).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위대한 은혜를 말해주기 위하여 구원 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마 22:8-9; 눅 14:21-23; 요 1:35-45). “가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 17. “왕과 구원자”

사도행전 5:31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도하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29 절). 그들은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을 그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계속하여야 했는지 세 가지 특정한 이유들을 제시하였다.

1. 예수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신 영광의 주이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30-31 절).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우리의 유일한 주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여야 한다!
21. 이 통치자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려고” 그분을 높이셨다(31 절). 죄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분만 사망한 죄인들에

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소멸되어가는 죄인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22.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32 절). 사도들은 통치자이신 메시아의 대표자들이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의하여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전도가 어떤 땅에 속한 사람의 권위나 세속적이든 교회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제쳐둘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그의 증인들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전능하고 주권적인 왕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매임 아래 있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으로 채울 수 있는한 그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그분의 증인들로 배가되어야 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확대하며 영화롭게 하기를 추구한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하자(왕상 18:36-37). 둘째,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 불가능하며 그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누군가 그들에게 말해주기 전에는 그분을 그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구하여야 한다 (롬 1:16-17; 10:13-17; 고전 1:21-23; 마 28:18-20).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안다(요 1:1-3).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진짜 사람임을 안다(딤후 3:16; 사 9:6). 비록 사람이 아니셨지만 하나님과도 같았고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사람이시다. 그러나, 생각할 본문 안에는,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원하는 성품 가운데 “통치자(왕)과 구원자”로 묘사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통치자와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는 그의 통치자로 그리스도께 엮드리며 그의 구원자로 그분을 신뢰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단지 그들의 생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만으로 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행위의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진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지옥에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한 구원자만으로 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깨닫지 않고, 음탕한 율법불요론 주의자로 산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 쓸모 없는 종교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와 구원자” 모두로 보는 자들만 참된 믿는 자들이다. 참된 믿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며 그들의 혼의 열정을 그들의 영

광스러운 통치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들의 주로서 그분의 뜻과 지침과 통제에 맡긴다. 동시에 그들은 그분의 의 무한한 충만함과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피의 무한한 공로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짐을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서 신뢰한다.

아무도 그분을 주로서 인정하며 통치자인 그리스도께 엎드리기 전에는 구원받지 않는다(롬 10:9-10; 고전 12:3; 눅 14:25-33). “아무도 그가 '나의 주여, 오늘 나의 몸과 혼과 힘과 재능과 물질과 집과 자녀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취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 참되게 주지 않았다.”(C. H. Spurgeon).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와 왕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가 우리의 통치자와 명령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새로 거듭난 혼의 첫째 특징들 중 하나는 찬양하며 경배의 순종과 “주여, 당신께서 내가 무엇을 하게 하실 것입니까?”(행 9:6)라고 울부짖는 가운데 구원자의 발에 엎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확고한 책무

하에 있다고 들을 필요가 없다.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것을 그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굴레 아래에 있는 것이 믿는 마음에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믿는 자는 그의 주로서 그리스도께 기쁘게 항복한다 (요일 5:2).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는 즉시 곧, 기꺼이 그분의 보좌 앞에서 울부짖으며 엎드린다.

“예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며, 그분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일상에서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운 통치자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신뢰받아야 한다. 그분은 주권적 권위와 권능을 가지 통치자이다. 그분은 무한한 공로와 은혜가 있는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사람은 구원의 근거를 이룩하셨다 - 의! 그는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 그 자신의 피! 그리고 그는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구원할 권능을 소유하셨다(히 7:25; 요 17:2).

무엇이 구원의 조건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질문으로 비춰겠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5:31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가지 것, 거룩하고 의로우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앞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두 조건이 있다. 그들은 “죄들의 회개와 용서”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과 은혜의 역사와 은사이다(롬 2:4; 스펀 12:10).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권능과 은혜로 인하여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이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마음 속에 믿음이 없고, 혼 안에서 구원이 역사하지 않으며, 생명의 참된 소망이 오지 않는다(사 55:6-7; 마 9:13; 막 6:12; 눅 13:3; 24:47; 행 2:38; 20:21; 딤후 2:25; 계 2:5). 회개는 지속적이다. 믿음처럼 그것은 평생 가는 은혜이다. 하지만, 회개는 구원을 위한 기초가 아니다. 회개는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며 죄를 위한 속량이 아니다.

용서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 수여되어야만 한다. 거룩함을 위하여, 단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네 가지가 성취되어야만 한다. (1) 죄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3) 죄는 반드시 제거되고, 없어져야 하며, 기록에서 소멸되어야 한다. 그리고 (4) 죄인은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대가 없는 전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후 5:21; 롬 3:24-26).

죄들의 이런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과 믿음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

사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각각의 죄인은 모든 죄에 대하여 영원히 용서받으며 구원받는다(사 45:22). 일단 죄인이 용서 받았음을 알면, 그는 그의 죄들에 대하여 진실되게 회개한다(시 32:1-5; 51:1-17; 눅 12:10).

## 18. “고난 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짐”

사도행전 5:17-18, 26-41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유대 공회에 의해 법정에서 불려 나왔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70인의 최고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높게 존경 받고, 가장 영향력 있으며, 가장 영적이고 거룩한 종교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매우 관대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유일한 주이고 사람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 공회는 비록 그들에게 속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였다. 주의 천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장소인 성전에 갈 것과, 그 곳에서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경배한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경멸하였던 거기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 받았다(20 절).

성전의 관리자들인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그런 행동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목숨을 살려두었으나, 단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였다. 40 절에서 “맞았다”라는 말은 “살



을 벗기다”라는 뜻이다. 그 말은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에 사용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채찍으로 참혹하게 매질을 당하였고, 채찍은 몸에서 살을 잡아 뜯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서 죽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것을 보게 된다(41 절).

그들의 몸은 고통으로 가득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없고, 죄로 충만한 피조물인 그들이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고난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같은 높은 명예를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뻐하였다(고전 10:13).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존귀하다(벧전 4:16).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고난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하고 어

편 사람은 덜하지만, 모두 고난 받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거나 정신적인 고민이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난 받는다. 우리는 마음과 혼과 생각 가운데 영적으로 고난 받는다. 읊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따른 것임을 깨닫는다(욥 2:10; 롬 8:28; 11:36).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고후 5:18). 그것을 깨달음으로 모든 고난이 다른 모든 것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로 질서가 잡히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들은 네 가지 의존적 이유들에 기인할 것이다.

1. 우주적 고난 -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무엇인가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죄가 이 세상을 비탄과 고통과 고난의 장소로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압제로 고난 받는다(욥 1:12; 2:7-8; 마 8:26-36; 15:22; 고후 12:7).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교활하고 간사하며 강력한 대적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 지배 받지만, 사탄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 받게 한다. 우리는 또한 죄로 인하여 고난 받는다. 모두가 죄인이

기 때문에 모두 고난 받는 자이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비통의 가시나 고난의 엉겅퀴, 열병의 땀, 혹은 세상 가운데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들 자신 위에 사악한 것을 분명히 가져온다.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피조물들이다.

23. 환경적인 고난들 - 때때로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환경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다. 기아와 재앙과 전쟁 때에 의로운 자와 악한 자 모두 고난을 받으며,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특별한 보살핌 아래 있을 때라도 고난을 받는다(시 91:1-16).
24. 양심의 고난들 - 종종, 하나님의 성도들은 양심의 문제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택한다(행 4:18-20; 5:29-32; 히 11:24-26).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기 보다 고통과 비통함, 심지어 박해와 죽음이라 할 지라도 기꺼이 택한다. 믿음과 확신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커다란 개인적 희생을 한다(마 10:34-38; 막 8:34-38; 눅 14:25-33).
25. 교정의 고난들 - 사랑하고 보살피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영적 선을 위하

여 그들을 혼내신다(히 12:5-11).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분의 택하신 자를 벌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 받으실 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벌하셨다(롬 3:24-26; 갈 3:13; 고후 5:21; 벧전 3:18).

“하나님은 대가를 두 번 요구하지 않으시니,  
첫째는 보증자의 손에 피를 흘림이요  
그리고 다시 나의 손에라!”

하나님은 그분이 전가하지 않으실 곳에 죄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 곧 그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된 자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실 것이다(롬 4:8; 8:33-34). 유일하게 형벌의 방법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의 죄들을 하나님이 다루신 장소는 갈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함이다(시 119:65-71).

언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고난이 그 자신의 악한 행동이나 태도의 결과일 때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지 않는다. 자기연민과 불평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 가운데 흔들거릴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은 고난

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약간의 살아 있는 순교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다(행 15:26).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의 약속을 믿고 인내를 갖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벧전 2:20-24). 욥과 엘리와 모세와 바울은 모두 그런 고난의 모든 사례들이다(욥 2:10; 히 11:24-26; 삼상 3:18; 고후 12:9). 우리는 그들의 본들을 따라야 한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존귀로 인하여 기꺼이 고통과 불행과 고뇌에 노출하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다. 사도들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미리 경고를 받았다(행 4:21).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높은 대가를 치르며, 그렇게 하는 것을 높은 명예로 여긴다. 영국에서 말뚝에 불태워진 순교자들은 단순히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John Bunyan은 영국의 Bedford 시에서 전도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Bedford 감옥에서 12 년을 보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것은 참된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다. 대가나 결과에 관계없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스

도로 인하여 고난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마 10:16, 22, 24, 28, 31-39).

모든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분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 받기 위하여 부름 받았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약속들을 받는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사 41:10; 43:1-5).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결코 고난 받지 않을 것이다(고전 10:13).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이다(요 10:28).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벧전 1:7). 만약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기를 배우려 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라(히 12:1-5).

## 19 . 첫 일곱 집사들

사도행전 6:1-7

예루살렘의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20 명에서 수천 명으로 수가 늘었다! 이 초대 교회는 비록 수가 많았지만,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한 공동체였다. 이 초대 교회는 비록 많은 수였음에도 사랑과 보살핌의 공동체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금전을 주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또한 많이 있었다. 이 가난한 자들은 특별히 아버지가 없고 과부들은 교회의 돈으로 입히고 먹이고 집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다. 몇몇의 그리스 과부들은 무시되고 있었으며 (혹은 적어도 그들이 그랬다고 생각되었다), 유대로부터 온 과부들과 동등하게 생활의 필요를 나누어 받지 않았다(1 절). 이 단락에서 몇 가지 것들이 우리의 주목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교회가 많은 박해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계속하였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처럼,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 수록, 그 수가 더해갔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계획과 복음의 성공은 사람이나 지옥 그 자체도 방해할 수 없었다(마 16:18).

교회의 인수 증가하였을 때 불화와 내분이 안으로부터 일어났다! 지금까지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행 1:14; 2:1, 4 6; 4:24; 5:12). 그들은 마음과 생각과 계획 안에서 하나였으며, 그리스도와 서로간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붕괴하였다. 그들은 숫자에서 늘었지만, 그러나 기쁨은 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가족이 늘었을 때, 그들은 부화가 있었다. “불평이 일어났고,” 공개적인 타락은 아니었지만, 하찮은 불화와, 이기심과 교만으로 커져갔다(잠 16:28; 17:14, 19; 26:21; 28:25).

모든 것들 가운데, 불만은 돈에 관한 것이었다! 앞으로 올 세상의 훨씬 더 위대한 것들로 취해지기로 고백한 자들 사이에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로 인하여 불화를 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여전히 이 악은 너무도 흔히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딤후 6:10). 그것은 눈을 멀게 하고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출 23:8). 남편과 아내 사이의 승강이는 돈에 관한 것이다! 가족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가슴 아프게 하는 점은 돈에 관련된 것이나 다른 세상적 소유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교회 분열은 돈에 관한 불화로 시작된다! 얼마나 슬픈가! 어떤 교회도 결코 순수하고 완전하지 않았으며,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



들의 어떤 회중이라도 때때로 직면하고 처리해야 하며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이 속한 지역 교회를 희생하지 말라. 대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일하라. 남편과 아내는 작은 승강이 때문에 가정을 깨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족을 깰 만큼 하찮은 차이들을 허락해서도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섬기자(빌 2:1-5; 엡 4:1-6).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일어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성령의 지시 아래, 교회 안에 새로운 직분인 집사의 직무를 세웠다. 사도행전 6:1-7은 이 직분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다.<sup>1</sup> 이들 첫 일곱 집사들은 교회 안에 특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일곱 명은 일곱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되었으나, 모든 교회가 일곱 집사를 필요하다는 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왜 집사의 직분이 세워졌는가? 하나님은 한 가지 특정하고 귀한 이유로 인하여 그분의 교회 안에 이 직분을 안수하셨다. 집사들은 모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염려에서

---

1 사도들은 편의의 문제로서 교회 안에 직무를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하심과 영향 하에 그들이 했어야 하는 것을 했다. 맛디아를 사도로 선택한 것과는 달리,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결정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서신들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직무를 새로 만들거나 그것을 채울 사람을 지명할 권위가 없다.

그들의 목사들을 해방시킴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을 전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드리도록 한다(딤후 4:12; 딤후 2:4; 4:1-5; 행 6:2-3). 아무도 한 가지 중한 직무보다 더한 것을 자신에게 적당하게 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들의 목사가 세속적 일들로 그들 자신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 집사들을 두고 있다. 집사들은 목사와 그 가족의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도록 관심하여야 한다. 집사들은 교회 재산과 교회 지체들이 합당하게 보살펴지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집사들은 말씀의 사역과 궁핍한 자를 보살피기 위하여 교회의 자금을 분배하여야 한다(고전 16:2). 집사들은 종들이다. 그들은 식사와, 주의 만찬과 목사의 식탁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식탁을 위하여 봉사한다.

어떻게 첫 번째 집사들이 선택되었나?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 걸쳐 흩어져 있는 몇 회중들에서 모였다. 사도들은 이들 회중들에서 전도자들을 불러모았고 그들에게 “좋은 평판의 일곱 남자(여자가 아님)”를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무에 안수 받았다. 이런 만큼 분명하다. 집사들은 모두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지침에 합당하게 선택되었다. 그들은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직무에

영구적으로 안수 받았으며, 단기간을 위하여 책봉되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남자들이 집사기 되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집사의 직무에 합당하게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의 특징을 서술한다. 그들은 친밀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신실함을 근거로 선택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6:3 과 디모데전서 3:8-12 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 두 단락은 우리에게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자격에 미치지 않는 자를 이 높은 직무에 임명되지 말아야 한다.

집사들이 안수 받기 위한 일은 무엇인가? “집사”라는 말은 “종”을 의미한다. 집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의 유익들과 그에게 복음을 선포한 목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남자이다. 첫 번째 일곱 집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부담을 안은 사도들의 책임을 덜기 위하여 선택되었으며, 따라서 집사의 일은 어떤 것이든 그들의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를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것으로 돌리는 어떤 부담이나 염려를 덜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일곱 명의 집사들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들 첫 일곱 집사들의 은밀하고 겸손하며 신실한 섬김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많은 수가 회심하였다(7 절).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

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던 곳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였다. 신실한 집사들은 어떤 회중에게도 자산이며 어떤 목사의 수고에도 자산이다.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은 모두 지역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계획을 함께 수고한다. 집사로서 신실하게 수고하는 집사들은 그들의 목사와 교회의 존경과 평가를 받는다(딤후 3:13).

## 20. 스테반 - 신실한 종

사도행전 6:8-15

스테반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리스 계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에서 태어났다. 사도들은 모두 갈리리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 눈에는 유치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어부들과 세리들의 오합지졸들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임을 알아챘다. 그러나 스테반은 다른 종류의 전도자였다. 그는 다른 문화권 출신이었다. 그는 배웠으며 교육받고 세련된 사람이었다. 그는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역사 학자들은 다소의 사울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지키기 전에 (사도행전 7:58)), 스테반은 가말리에 수하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한다. 스테반은 신실한 사람이었으며, 복음에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하였으며, 그리스도께 신실하였고, 죽을 정도로 신실하였다. 그는 신실함의 표본이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을 모든 자들이 따를 정도로 모범이 되었다(히 13:7). 이 부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는 네 가지 공과가 있다.

첫째, 8 절에서 우리는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한가지이며 그분의 종들에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라는 것을 배운다. 첫째, 스테반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범상치 않은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집사로 섬기는 명예로,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명예로 생각하였다. 스테반은 집사의 직무를 잘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좋은 정도와 큰 담대함을 그 자신에게 얻어주었다(딤후 3:13)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안에서 그분의 종들이다. 우리의 섬김이 무엇이고, 우리의 섬김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섬김을 누가 알아주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고전 4:2). 당신의 부름의 장소에서 신실하고(고전 7:20-23),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도록 주신 일 가운데서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셨던 소유들에 대해 신실 하라(잠 3:9-10).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삼상 2:30). 당신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신실할 수 있다(마 13:12; 눅 16:10).

스데반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믿음에 충만한”은 신실하다는 의미의 말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평강을 찾았다. 그가 믿음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능력에 충만”하였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권능과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였다. 믿음은 천연적으로 소심한 사람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만든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신뢰는 복음 전파자들을 강력하게 만든다. 그가 전하는 것을 믿는 자는 권능으로 전파한다.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스테반은 “사람들 가운데 큰 경이와 기적을 행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확증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보내신다면, 그분의 전갈자로서 그 사람을 확인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들을 확증하게 될 것임을 당신은 확신할 수 있다.

둘째, 9 절과 10 절을 읽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모든 말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이 그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소의 바울은 아마도 스테반과 논쟁하였던 자들의 대변인이었다.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시점에 있었다(행 7:58). 비록 스테반이 아무것도 확신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그 때 회심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았고, 전도자 자신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 하도록 하신 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다. 오직 영원이 말해 줄 것이지만, 나는 스테반의 설교가 사울이 “주여, 당신께서 내가 무엇을 하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흠먼지 속에서 울부짖는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사울의 귀에서 울리는 것이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두 가지가, 그리고 두 가지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혼을 위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의 성공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이다(사 55:11; 고후 2:15-16; 3:5-6; 4:7).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실패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않는다(고전 15:58). 때때로 어떤 사람이 그 영의 권능 가운데 한 차례의 설교를 하면, 오순절 날처럼 수천 명이 구원받는다. 버마에 있던 Adroniram Judson이라는 선교사의 경우처럼, 때때로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그 영의 권능 안에서 수천 번의 설교를 한다. 때로는 전도자가 죽음 당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한 사람이 여기의 경우처럼 그를 죽인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조차도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잠 16:33).



셋째, 11-14 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에게 불쾌하게 하는 것임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이 종교인들이 스테반의 가르침이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였다는 것이 확신되었고, 그들이 그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주장에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스테반의 말을 비꼬고 왜곡하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고용하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은혜로 변화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은혜로 인한 구원은 십자가에 박힌 희생물의 공로로 믿음만으로 받았으며 행위로 인함은 없는 그 죄인에게 모두 어리석고(고전 1:22-25)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갈 5:11). 그것은 그의 교만과 종교적 개념과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의를 공격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었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 없는 종교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이며 쓸쓸한 대적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갈 4:16). 복음의 진주(대가 없는 용서, 효험 있는 속량, 전가된 의, 그리고 타락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돼지 앞에 던져지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전하는 자 앞에서 진흙 속의 진주들을 짓밟을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파괴할 것이다.

넷째로, 15 절은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테반의 양심은 순수하였고 그에게 내려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자유로웠다. 따라서 그는 두려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말하고 행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왕국의 유익들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는 차분하였고 용감하였으며, 그런 만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고 기쁘고 빛나게 보였다. 그의 가장 큰 시험의 시간 중에 그는 그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그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히 13:5-6).

스데반은 놀라운 본보기이다.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기꺼이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관 썩우실 것이다(계 2:10).

## 21. 전도자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한 설교

사도행전 7:1-60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태의 율법을 충족시키셨고 그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으며, 모든 형태의 육체적 경배는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을 거스른 모독을 말한 이유로 기소되었다(행 6:8-15; 요 4:23-24; 골 2:8-23).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기록, 공회를 향하여 전한 설교, 그의 생명을 대가로 한 설교를 보존하였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토록 크게 분개하도록 스데반은 무엇을 전하였나? 이 사람들은 관대하고 서로 타협하는 자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으로 그들의 “종파”를 함께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의 설교를 마쳤을 때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왜? 그가 그들을 그렇게 격양시키도록 무슨 말을 하였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암시된 것은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교리이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언급하면서, 스데반은 스데반은 어떻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그분에 의해 충족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진적

으로 섭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구속과 은혜의 주권적 계획을 펼치시고 성취하시느니라 보여주었다.

주 우리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다(사 14:26; 롬 8:28; 9:11; 엡 1:11; 3:11; 딤후 1:9).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지혜로우며, 은혜로 충만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무것도 갑자기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 그분의 모든 것 안의 계획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영적이고 영원한 선과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이다. 그분의 목적은 확정되었고 변경할 수 없고 변치 않는다(사 46:9-11). 그것은 변경되거나, 방해 받거나, 뒤집어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 받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두 선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수 있다면, 성경 안에 기록된 어떤 약속이나 예언이나 혹은 전조들이 믿어질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그분의 불변하심을 깨닫는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의 포괄성과 불변성을 깨닫는 정도까지만 성경을 믿을 수 있다(롬 11:33-36).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개이고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고,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셔야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영적이며 영원한 선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찬양과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계 4:11; 5:11-14).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스테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전개를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제외하고는 유대인의 역사와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눅 24:27, 44-47).

구약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에 의한 구속을 가리켰다(1-47 절). 성경에 기록된 전체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요 1:45). 스테반의 설교의 대부분은 한 가지 주제로 채워져 있다. 그는 구약 역사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에 의한 죄인들의 구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원한 계획을 계시하기 위한 신성한 섭리에 의해 안배되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보증자 그리스도와 함께 만드신 은혜의 언약의 부분적인 계시였다(1-8 절, 히 7:22; 렘 31:31-34). 그 언약 안에서 씨가 약속되었다(5 절; 갈 3:26). 선택 받은 씨가 매임 속에 빠져야 한다고 하였으며(6 절),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아담의 범죄로 죄의 굴레에 빠진다. 구원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로 약속되었다(7 절).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은혜로운 권능에 의한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그 언약의 표적과 표징은 할례였다(8 절). 할례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의 예표였으며, 그것으로 그분 자신이 택한 자들과 나머지 세상을 구별하며 그들의 마음을 언약의 은혜의 모든 축복을 인친다(골 2:11; 엡 1:3; 13-14).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 보존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9-17 절). 모든 일 가운데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기쁨이었다(마 3:17; 잠 8:30). 그는 그의 형제들에 의해 멸시당하였고 거절되었다(사 53:3).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안배로 하나님의 처소에 있었다(창 50:19-20; 행 2:23; 4:27-28).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렸을 때 그들은 살아서 구원받았으며 바로에 의해 받아들여졌다(13 절; 롬 10:9-10).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하기 위하여 보내졌다(18-37 절).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였다(22, 35-37 절). 그는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은 사람이었다(행 2:22). 그는 선지자였다(요 3:2). 그는 피와 권능에 의한 해방자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왔던 그 날부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을 멸시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택한 나라의 믿지 않고  
우상숭배 하는 자들에 의해서라도 헛되게 될 수 없었다  
(38-43 절; 롬 3:3-4).

주는 임시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그 백성을 준비  
하기 위하여 경배의 집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  
나님의 명령을 우상숭배로 바꾸었다(44-47 절). 성전과  
그 장식들은 처음에 광야에 세워졌고(이방인들 사이에  
서), 구속의 그림이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이  
고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는 그림이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사람의 마음을 준비했어야 하는 이 복된  
대상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경배의 우상적 대상으  
로 바꾸었다. 그들은 믿음에 장벽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성취된 지  
금 모든 육적인 구약 경배의 계명들은 영원히 폐지되었  
다(48-50). 하나님은 유대에 속한 율법적 경배를 폐하셨  
다(히 10:1-4). 외적이고 가시적인 상징들(동상, 그림, 십  
자가, 성전, 제단, 등)에 대한 어떤 의존이라도 우상숭배  
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육적인 기초를 이용하여 경배 받  
으실 수 없다. 모든 참된 경배는 영적이다(요 4:23-24; 빌  
3:3).

스데반은 그리고 계속하여 신성한 진리에 대한 의도적 거  
부가 영벌을 초래한다고 선포하였다(51-53 절). 하나님

은 그분을 소홀히 하는 자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실 것이다(잠 1:23-33; 마 23:37-38).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절되었고, 그분의 아들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롬 3:3-4; 11:11, 22, 23, 26).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자를 향한 은혜에 속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악한 자의 손이라 할 지라도 막지 않고 사용하신다(54-60 절; 시 76:10). 스테반이 돌에 맞음은 이 사람들 편에서 사악함의 용서될 수 없는 행위였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억제되었고 그분에 의해 은혜로운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것이 스테반에게는 최선이였다. 그는 영광 속에 갔다! 그것이 다소의 사울에게 최선이였다. 그것이 은혜를 위한 그에게 앞으로 올 방법으로 예비되었던 예견된 은혜로운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최선이였다. 곧 교회는 회심으로 인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에 그 기초들을 놓았던 다른 사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이였다! 이런 것들의 빛 가운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22 . 스테반과 사울

사도행전 7:54-60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자는 신실한 집사, 전도하는 집사, 그러나 한 사람의 집사인 스테반이었다. 이 신실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외하고 신약 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도 더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죽어가고,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죽어가지만, 은혜 가운데 죽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영은 스테반의 살인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지명하기 위하여 누가에게 지시하였다.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 자들은 “그들의 옷을 한 젊은이의 발 아래 벗어 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사울은 아마도 스테반을 조사하고 공회 앞에 그가 서서 했던 그의 말로 당황해 하였던 사람이었을 것이다(행 6:8-10).

여기 충격적인 대조가 있다 - 스테반과 사울.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영광 안에 있다. 보좌에서 스테반의 미소가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어떻게 느꼈을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기쁜 만남을 가졌을지 - 스테반과 사울은 서로 껴안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본

문에서 두 사람은 극과 극이다. 그들은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었다. 스테반은 거의 주게 되었다. 사울은 스테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의 옷을 들고 있었다. 사울은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그의 혈통, 그의 학력, 그의 성과, 그의 종교적 지위와 그의 큰 명성으로 자랑스러워 하였다. 스테반은 부서지고 보잘 것 없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였다. 사울은 그 자신 속에 휩싸여 있었다. 스테반은 그리스도로 둘러 쌓여 있었다. 그의 마음은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여지신 그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기운이 났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으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하신 것으로부터 그의 위로를 가졌다. 사울은 종교적 전례주의자였다. 그는 종교의 외적인 것들에 커다란 무게와 중요성을 두었다. 그에게 있어서 율법, 성전, 제사장직분, 그리고 의식들은 모든 것이었다. 스테반의 종교는 마음의 문제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 있고 영적인 연합의 문제였다. 그는 외적 문제들을 그에 맞는 곳에 두었다(빌 3:3; 행 7:48-50). 그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종교의 외적 형태들을 전혀 떨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종교적 의식은 쓸모 없다는 것을 알았다(삼상 16:7; 눅 16:15). 사울은 그의 종교를 지켰다. 그의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교활하고 잔

혹하며 냉담하였다. 스테반은 그리스도의 명분을 그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하면서까지 지켰다.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 그분의 진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명분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큰 가치가 스테반에게 있었다. 스테반은 마지막까지 은혜롭고, 절대 신실하고, 온화하며, 용서하고, 자기희생적이었다. 여기 성경의 이 단락에서 배울 다섯 가지 사항이 있으며 스테반과 사울에 의해 여기에 제시된 대조가 있다.

1.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생명과 증거는 중요하고 영향력 있으며 쓸모 있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 여러분에게서 듣거나 여러분 가운데 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은혜에 속한 복음을 제시하라. 여러분이 선한 대표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딤후 2:10).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향한 사울의 첫 번째 대면, 참 믿는 자와 그의 첫 체험은 스테반이었다. 스테반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사울에게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는 그 계시와 사자를 경멸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계시는 그의 마음

위에 깊은 효험이었다. 스테반의 입술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신실한 선포를 들었다. 그는 스테반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된 한 믿는 자를 보았다. 그는 믿음 안에서 죽는 한 사람의 믿는 자를 보았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26.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을 위한 증인을 예비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위에서 어떤 것, 특별히 대단한 섬김과 유용함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을 언제나 꺼려한다.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특정한 사람이 없이는 기능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을 위하여 충분한 증인들을 예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언제나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 교회는 크게 쓸모가 있는 사람인 스테반을 잃었다. 주는 언제나 기뻐 쓰실 어떤 사람으로 후임자가 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졌을 때, 엘리사가 그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으시다.

27.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있었던 위치와 천연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좋다. 성령은 이 말씀을 영감의 책에 기억되어야 할 사실로서 두었다 -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에 두었다.” 그것은 바울을 겸손하게 지키려는 의미였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언제나 그랬다. 그는 결코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을 잊지 않았다(행 22:19-20; 딤후 전 1:12-17). 우리는 결코 은혜가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가 있었던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사 51:1). 우리는 결코 우리가 천연적으로 누구였으며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엡 2:1-4),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전 6:9-11; 요일 3:1-3). 그런 기억은 우리를 은혜롭게 할 것이다. 그분은 많은 용서를 받은 자를 많이 사랑하신다(눅 7:36-50). 그런 은혜로운 기억은 하나님의 특징적인 은혜의 복음을 값어치 있게 만들 것이다. 구원 받은 모든 자들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고 시인한다(고전 15:10). 택정함의 사랑과 구속하심의 피와 보존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은혜만이 저주 받은 자들과 우리를 구별한다(고전 4:7; 롬 9:16).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다른 자들을 위한 소망을 준다. 나를 구원하셨던 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의 피는 충분하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다! 그분의 능력은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구원자이다(히 7:25).

28.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선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롭게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 우리가 앞서의 공과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테반을 돌로 친 것은 비록 야만적 잔혹함과 죄의 끔찍한 행위였지만, 최선이었으며, 그날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일이었다. 하나님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통제 안에 두셨다. “만약 사울이 그곳에 없었다면, 스테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Spurgeon). “만약 스테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결코 전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Augustine). 사람들과 마귀에 의해서 행해졌던 악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좋으며 그분의 이름에 찬양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시 76:10; 잠 12:21; 16:7; 롬 8:28; 벰전 3:12-13).
29.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믿는 백성들에게 잘 죽기 위한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잘 죽는다. 하나

님께서 스테반을 위하여 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하실 것이다. 스테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었으며, 그리스도께 고정된 그의 마음을 갖고, 하늘로 고정하여 올려다 보며 죽었다. 그는 이 세상의 염려가 없이 죽었으며, 그의 주권적인 대속물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다. 그는 열려 있는 하늘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주 예수께서 그를 받으시기 위하여 권능의 자리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전혀 원한이 없이 죽었다! 그는 실제로는 전혀 죽은 것이 아니었다(요 11:25-26). 그는 사망의 육신을 단순히 내려 놓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 잠들었으며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깨어났다!

## 23. 당신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 있는가

사도행전 8:1-25

사도행전의 여덟 번째 장은 역사적 이야기이다. 짧지만, 그러나 교호 역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초기 교회가 그 시작부터 박해를 견뎌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시된 역사적 이야기는 초기 교회 역사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단순히 성령에 의해 계산된 것이 아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처럼, 이 역사적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장의 처음 스물다섯 절에는 다섯 가지 공과가 불명의 영혼과 멸망하는 죄인들의 혼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의 주의를 요구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범죄이다(1-4 절).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종종 반복되는 공과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자주 일깨워질 필요가 있다. 십자가의 범죄는 그치지 않았다(갈 5:11).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그리스도, 죄인의 대속물에 의한 대가 없는 의롭게 함의 교



리)는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고전 1:21-25),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케 하는 범죄이다. 타락으로 인한 파멸(전체 인류의 총체적인 타락)과 피에 의한 구속(그리스도의 백성의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효험 있는 속량)과 성령에 의한 거듭남(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은사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도 잃어버린 종교인들로부터 완고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실 백성을 갖고 계시다(5-12 절).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소수 가운데 있어 왔다. 사람의 의견과 종교적 전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전갈에 반대해 왔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전파된 복음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구속하는 피와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전갈을 결코 들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실 백성을 갖고 계신다(롬 3:3-4; 행 18:10). 그분의 택하신 자들은 모든 열방과 모든 세대에 걸쳐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구원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께 그분의 소유를 모으실 것이다(렘 32:37-40).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자들 중 아무도 마지막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요 6:37-40).

셋째,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신다(4 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의 전파는 택정함과 구속과 거듭남 만큼이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롬 10:13-17; 약 1:18; 벰전 1:23-25). 섭리에 속한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된 시간에 복음을 듣도록 그분의 택하신 자를 이끄신다. 그분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신다(요 17:2). 그분은 심지어 버림받은 자들이 그분의 교회를 박해하고 흩어버리려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은혜의 말씀을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가져가도록 만드신다!

넷째, 모든 초자연적 사도적 은사들은 사도들과 함께 그쳤다(14-17 절). 비록 빌립이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고 행사하였지만(6-7 절), 그는 그것들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었다. 오직 사도들만 성령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만약 사도들 외에 아무도 이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었다면, (아무도 이후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은사들은 사도들이 일단 모두 죽으면 그쳐져야 했다.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들은 그리스

도의 전갈자들로써 사도들의 신뢰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하였다(히 2:3-4).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성경)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소유하였던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표적들은 필요하지 않다(고전 13:10; 벧후 1:19-21).

다섯째, 복음이 참 믿는 자들과 육체적으로 고백한 자들 모두에게 전파되는 곳마다 믿음이 발견될 것이다(12, 13, 20, 21 절). 모든 교회는 참 믿는 자와 거짓 고백자들이 혼합된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밀알을 심으시는 곳마다, 사탄은 가라지를 심는다(마 13:24-30). 주께서 그분의 양떼를 모으시는 곳마다, 사탄은 몇 마리의 염소를 모은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실로 거듭난 자들과 함께, 마술사 시몬은 믿기를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고 말했다. 시몬은 다른 사람들이 믿었던 같은 교리를 믿었다. 그는 나머지처럼 침례를 받았다. 그는 분명히 성령의 권능을 보았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시몬은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다. 그의 마음은 거짓이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각에 의롭지 않았다. 그는 마음 속으로 위선자였다. 고백으로 그는 믿는 자였으나, 마음 속으로 그는 불신자였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각에 의로운가? 우리가 진리를 믿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믿음과 경배와 순종은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시각에 의로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청교도 Thomas Manton 이 한번은, “비록 바리새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의 서원을 음탕한 자로 대가를 드리고, 유다와 함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가인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 이세벨과 함께 금식하며, 당신의 재산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함께 가난한 자에게 주려고 팔지만, 우리의 모든 의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마음이므로, 모든 것이 마음 없이는 헛되다.”라고 말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잠 23:26; 4:23).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는 것이 마음이다. 사람은 본성에서 종교의 외적 모양-교리적 지식, 도덕 법전, 의로운 행위, 의식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감상주의-에 만족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경배와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사람의 혼의 상태는 그의 마음의 상황에 달려있다(잠 23:7).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삼상 16:7; 잠 21:2). 그분은 “영에 중점을 두신다.” 그분은,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중심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신다(렘 17:10). 우리는 하나

님께 엎드린 머리와 심각한 표정과 종교적 의무에 대하여 엄격하게 충실함과 경배의 집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것과 교리적 진리에 확고하게 헌신함을 드리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까지 우리의 종교는 그분께 혐오스러운 행위이다(사 1:10-15; 66:2-3; 눅 16:45). 구원은 마음의 역사이다(시 51:17). 구원은 “영광의 소망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구원에 본질적인 것으로서 언급된 그런 모든 것들은 마음의 문제이다 - 유죄 판결(행 2:37), 회개(눅 13:3), 그리고 믿음(행 8:37).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불신의 악한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전 9:3; 렘 17:9; 창 6:5; 마 15:19).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구별하는 한 가지 공통된 방법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겔 11:19). “돌 같은 마음”은 단단하고 차가우며 열매 없고 죽은 마음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에 사람의 마음을 의롭게 할 수 있다. 오직 그분만 그 마음을 열 수 있다. 오직 그분만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있다. 오직 그분만 당신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른 사람이었는데(행 13:22),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겔 36:26; 고 후 5:17)과 부서지고 회개의 마음(시 51:17)과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삼하 23:5; 롬 10:10)과 기도하는 마음(삼하 7:27)과 그리

스도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시 34:1-10)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시각에 의로운 마음은 죄와 지속적인 싸움이 있는 마음이다(시 73; 갈 5:17; 롬 7 14-24).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다(시 51:1-4; 40:16).

## 24 . 다섯 가지 복음 진리가 명시됨

사도행전 8:26-40

복음 교리는 생동적이다. 그것은 명확성과 구별성을 갖고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교리를 싫어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복음 교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신뢰받을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교리를 배운다면 이다(롬 10:13-17).

복음 교리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교육하고 위로하는데 필수적이기도 하다(엡 4:11-16).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건축되고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있는 진실한 가르침에 의해서이다.

모든 진실된 복음 전도자는 교리 전파자이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리는 분리될 수 없다. 복음의 교리를 전파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 듣는 자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전도자는 전구가 없는 전등과도 같다. 그는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나 그는 정말 쓸모 없다!

하지만, 교리는 개인적인 적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죽어 있고, 건조하고, 비개인적이며, 적용되지 않은 교리는 공허한 철학적 도덕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자의 말처럼 쓸모 없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다섯 가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리를 예시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회복 후에 주의 천사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남쪽을 향하여” 갈 것을 지시하였다.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후 그 내시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였고 빌립은 그를 침례 주었다.

이 단락에서 예시된 첫 번째 것은 신성한 섭리의 지혜와 선과 완전함이다(26-28 절). 섭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주권적 통치이고, 그분의 택한 자의 선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로운 영원한 그분의 계획의 은혜로운 그분의 성취이다(롬 8:28).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지혜로는 언제나 비밀스럽고 분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지혜롭고 선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하게 안배되어 있다. 하나님의 안배로 우주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연결들이 정시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늦지도 아



무것도 이르지도 않다. 이것이 여기에 아름답게 예시되어 있다.

가자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적막하고 사막 길이며 사막의 산들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의 여행을 하지 않는 길이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그 길을 택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옆으로 타고 왔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는 유대 개종자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 가운데 걷고 있었으나 길을 잃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공허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멀리 왔다. 예루살렘이 있는 동안,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많이 들었으며 그의 추종자들에게 의해서 크게 동요하였다. 그는 공회에 의해 사도들과 멀리 할 것을 경고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그를 위하여 다가왔다(겔 16:8). 그는 이제 구원 받았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도록 빌립을 보내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은 빌립과 내시를 함께 데려오셨다.

둘째, 이 단락은 주권적 선택 안에서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 택함 받은 죄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이끌려질 것이다(시 65:4; 110:3; 엡 1:4; 살후 2:13).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후손들을 하나님은 지나치셨고 멸시 받은 흑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셨다(시 68:31; 사 56:4-5). 은혜는 언제나 같은 방법을 역사한다(고전 1:26-31).

셋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앞에 실행 가운데 참 복음전도의 그림을 제시한다(29-35 절). 참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 영의 부르심의 효험 안에 있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일어난다(행 18:9-11).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는 역사이다. 세 가지 사항이 참 복음전도를 언제나 특징 짓는다.

1.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 -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은혜의 전갈자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었다. 그는 고통을 덜어주려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롬 10:15).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선택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흠없는 품성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었다(행 6:3, 5; 딤후 3:1-7). 그는 기꺼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떤 정도에서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빌립은 집사로서 기꺼이 섬겼다. 그는 기꺼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을 전하러 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 에디오피아 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러 수 마일을 기꺼이 걸어갔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명분을 섬기기를 원했다.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를 원했다.

30. 하나님이 명하신 전갈 - 누구에게나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모든 사람은 빌립이 내시에게 가지고 갔던 전갈을 갖고 보내진다. 빌립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35 절). 하나님의 종들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다(고전 2:2).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의도”이다(행 20:27; 눅 24:27, 44-46).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도록 보내신다면, 그분은 모든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를 보내실 것이다.
31. 하나님이 선택하신 죄인 -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행 13:48; 요 15:16). 그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운 그런 종류의 사람에 대한 그림이다. 그는 주를 진정으로 찾았다(렘 29:12-14).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빛 가운데 걸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였다(요 5:39). 그리고 그는 기꺼이 가르침 받았다. 은혜가 그를 택하

였다. 은혜가 은혜를 위하여 그를 예비하였다. 그리고 은혜가 그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데려왔다.

넷째, 이 내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하는 믿음의 예로서 제시된다(36-37 절). 진실한 구원하는 믿음은 머리 속으로 받은 관념 이상이다. 그것은 마음의 지식, 마음의 설득,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마음의 헌신이다(롬 10:9-13; 딤후 1:12). 이 내시는 그의 모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는 것”을 믿었다고 선포하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은 예언자들이 말하였던 그 한 분이며, 율법 안에서 예표 되었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과 죄인들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요일 5:1).

다섯째로, 성경의 이 단락은 믿는 자의 침례의 중요성을 예시한다(36-39 절). 분명히 침례는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주로서 그리스도께 복종과 순종의 시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믿는 자의 상징적 고백이다(롬 6:4-6). 그리고 침례는 오직 물에 잠기는 것에 의한다. 잠기는 것은 침례의 양식이 아니다. 잠김은 침례이다! 이 단락에 주석을 붙이면서 John Calvin은, “따라서 그들이 물 속에 전신을 담궜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인들과 함께 침례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본다”고 기록 하였다.

그 날이 저물었을 때 내시는 “기뻐하며 그의 길을 갔다.” 그는 인생의 일상적인 과정을 계속 따라갔다. 그러나 이제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빌립도 그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정착할 때까지 그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길을 계속 갔다(행 21:8).

## 25. 사울의 회심 - 은혜의 예

사도행전 9:1-22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세 번, 그 자신의 말에서 두 번 기록되어 있고(22:4-16; 26:9-19), 누가의 말 가운데 여기 한 번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의 회심은 성령의 계시로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다소의 사울의 회심은 모든 참된 회심의 전형이고 예이기 때문이다(딤편전 1:12-16).

사람들은 보통 사울의 다메섹 노상 체험에 대하여 아주 드물지만 예외적인 일로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할 필요 없이, 사울이 그날 체험하였던 물리적인 것들은 예외적이었다. 하늘로부터의 밝은 빛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내가 알기로, 어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영적 체험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회심한 자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사울이 체험하였던 바로 똑같은 일들을 체험한다.

구원은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한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눅 2:30).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확신의 근거로서 우리 체험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피와 의와 중보와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은혜

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하지만 구원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어떤 것이다. 아무도 그 마음 속에 은혜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다. (구원은 은혜의 역사이다 - 엡 2:8-9). 사울의 회심을 우리의 예로 취하면서, 우리는 구원 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와 믿음으로 옮겨지게 하는 은혜로운 다섯 가지 특징적인 결정들을 본다(시 65:4).

1. 신성한 택정(15 절) - 하나님의 영원한 택정하심의 사랑의 대상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결코 구원받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살후 2:13-14; 행 13:48).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운행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오래 전이었다. 사울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에 선택되었다(엡 1:4-6).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은혜 가운데 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셨을 때, 그에게 전한 바로 첫 번째 것은 택정함이다(행 22:13-14).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택정함의 명분이 아니라, 그 열매이며 택정함의 증거이다(행 13:48; 뱀후 1:10). 죄인이 그리스도께 엎드리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께 확신을 가지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 하 셨 다.”

택정함은 누구든 구원 받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을 보장한다. 만약 은혜의 택정함이 없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롬 9:27-29). 우리가 주를 택하였거나 택할 수 없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선택이 그분을 우리가 택한 것을 확실하게 한다(요 15:16). 택정함은, “다소의 사울이 구원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한 뜻이, “사울은 예정된 날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정하심이 사울은 긍휼의 약속된 장의로 여행을 하여야 했던 지도를 그렸다. 섭리가 그를 그 장소와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셔야 했던 시각을 향한 예정된 경로를 따라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32. 신성한 계시(3 절, 갈 1:15-16) - 비록 그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사울은 결코 그가 “공의로운 자를 보게”될 때까지 구원받을 수 없었다(행 22:14). 따라서 그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그의 주변을 환하게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후 4:6). 그는 모세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다(출 33:18-34:7). 그는 스테반이 말하였을 때 들었던 분들



가운데 공의로운 한 분을 보았다(행 7:52). 그는 신성한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변하지 않는 공의를 보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속물이며, 그 공의로운 분의 피의 속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은혜롭고 공의로울 수 있는지를 보았다(시 85:9-11; 롬 3:24-26).

구원은 죄인들의 마음에 그 영의 복음의 효험 있는 적용에 의해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때 온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보며 그분의 참된 품성 가운데 그분과 화해될 때 그는 구원 받는다.

33. 신성한 부르심(4-9 절) -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다(마 20:16; 22:14). 그것은 매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다가간다. 아무도 무기력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옮겨지는 이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결코 구원 받지 않을 것이다(요 5:25; 엡 2:1-4). 성경은 우리에게 이 효험 있는 부르심의 수 많은 예시들을 제시한다(겔 16:6-8; 37:1-14; 요 11:43-44; 고

전 1:26-31). 사울은 그리스도의 양 가운데 하나였다. 선한 목자가 그의 방황하는 양을 부르기 위한 시간이 왔다. 목자가 부를 때, 그 양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른다(요 10:1-5; 27-29). 그 영의 이런 부르심은 그 완료된 일을 얻기 때문에 효험있는 부르심이라고 한다(시 65:4; 110:3). 그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이다(4-5 절). 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오직 사울이 부름 받았다. 그것은 유죄 판결의 부르심이다(5 절). 주께서 말씀으로 사울의 죄로 그를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겸허하게 하는 부르심이다(6 절). 사울은 그의 주권적인 주이신 그리스도의 요구에 복종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 영의 이런 부르심은 또한 분별하는 부르심이다(7 절).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으며, 두려워 하였다. 그들은 무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았지만, 무엇인지 몰랐다. 은혜로운 이 부르심은 사울을 그의 동료들과 나누었고 구별하였다(고전 4:7).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깨우는 부르심이다(6 절). 일단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땅에 속한 모든 염려들에 대하여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기에, 그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를 찾기 시작하였다.

사흘 동안 그는 불안과 어둠 속에 있었다(8-9 절). “그는 이 모든 시간을 지옥의 계곡 안에서 그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포로 고통을 받았으며, 그것은 이제 그의 앞에 순서대로 놓여졌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며 어둠 속에 있었고 고기도 음료도 맛볼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영 안으로 깊이 상처를 입었다.” (Matthew Henry).

34. 신성한 빛비춤(17-18 절) -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진리를 말해주었던 전도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어둠과 무지, 미신과 전통의 비늘이 그의 눈에서 벗겨졌고, 그는 빛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쳤을 때(사 40:1-2), 그는 시력을 회복했으며, 무엇을 보았는가? 그는 그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았다.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책무와 특권임을 보았고, 믿는 자의 침례로 시작함을 보았으며, 그것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법이 되었다.
35. 신성한 회심(18-22 절) - 사울은 하늘에 속한 이상에 불순종하지 않았다.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다(빌 3 4-14). 그가 한 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 그는 끊어버렸다. 그의 의로운 행동, 그의 종교적 행위,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명성을 이제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종교에서 그리스도로 돌아섰다. 은혜가 그를 단순한 거룩의 모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바뀌었다(전 3:14). 즉시, 그는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였고, 그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에 속한 멸시 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분 안에 그의 삶을 내려 놓았다. 은혜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후 5:17). 이것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택정, 구원, 부르심, 빛비춤 그리고 회심이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며 따라서 사람의 구원은 그분의 은혜에 속한 영광의 찬양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별 짓는 것이 이 은혜의 체험이다(살전 1:4-10).

## 26. 사울, 교회에 들어가다

사도행전 9:23-31

회심하자 마다 사울은 기나긴 삼 년 간의 아라비아 여행을 하였는데(갈 1:16-17) 누가는 이 여행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지시 받기 위하여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사도로서 선택 받음으로, 그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받은 직접적인 계시로 복음을 배워야 했다. 따라서, 주께서 사울을 아라비아로 보내서 그곳에서 그가 그의 선생으로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배움 가운데 삼 년을 보냈다!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그는 이교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다. “많은 날이 충만하게 된 후,” 즉, 삼 년이 끝난 후에 사울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던 곳”인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성령에 의해 이끌려졌던 곳이다. 23 절에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한 후 삼 년 후에 다메섹에 돌아온다.

다메섹에서의 위험(23-25 절) -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후, 사울은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다메섹에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다. 그런 후 그는 언급된 것처럼 삼 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 이제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곳

에서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에 있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23-24 절). 사울이 전했던 복음에 격분하여, 유대인들은 다메섹의 총독에게 그가 위험한 사람이며, 붙잡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후 11:32). 따라서, 사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 커다란 일에 대하여(행 9:16) 삼 년 전 아나니아에 의해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곳에서 그분은 공통되게 큰 시험과 함께 그것을 행하신다.”(Matthew Henry). 이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박해는 유익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는 분명한 곤란과 고통과 비탄의 길을 걷는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터이다.”(요 16:33).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딤후 3:12). “우리는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행 14:22).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히 여김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비난과 비방과 학대와 경멸을 사람들로로부터 받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공통된 운명이다(마 5:10-20).

흔히, 믿는 자의 가장 큰 적들은 한 때 그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다. 한 사람의 적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있는 경우가 흔하다(마 10:30). 이 사람들은 사울의 이웃들이고, 친구들이며, 친척들이었다. 그들은 한 때 그 지역 공회로 함께 교회에 갔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그들의 원한을 살만한 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로 만으로 믿음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메시지는 잃은 바 되었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고전 1:23-24; 갈 5:11). 그것이 모든 영적인 것과 관련하여 아담의 타락한 족속의 총체적인 타락과 완전한 무능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함을 건드린다(엡 2:1-3; 롬 5:12).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우주 통치권을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의 우월감과 자결권에 대한 느낌을 건드린다(롬 9:15-18). 그것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만을 통하여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건드린다(롬 3:24-26; 고전 1:21-31).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의롭다는 행위들이 단지 배설물이고 불결한 누더기에 불과하다고 선포하며(빌 3:8; 사 64:6)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엡 2:8-9; 딤후 1:9; 딤텔 3:5-6), 사람의 자기 의를 건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의 박해들로부터 은혜롭게 구하셨다(24-25 절). 사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그들의 손아귀에서 탈출하였다.” 주는 거룩한 자를 유혹에서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에 대하여 탈출할 길을 만드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고전 10:13).

예루살렘에서의 어려움 (26-30 절) - 그가 다메섹에서도 망쳤을 때,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찾기 위하여 그의 박해를 피했다! 그들은 그를 박해하지 않았지만, 그를 신뢰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들이 없지 않았다. 때때로 참 믿는 자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고 방해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악의적인 계획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이런 몸 가운데 있으며 때때로 그들의 육에 속한 본성이 슬프게도 분명하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주의 백성 가운데 거처를 찾았다(26 절). 그의 첫 번째 염려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회중을 찾는 것이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는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교회 안에 지체 자격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회원 모집” 가운데 교회에 의해 모집되지 않았다. 그는 자원하여 지체 자격을 요청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 백성을 사랑하였고 그들과 함께 구별되기를 원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배운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은혜로운 혼의 의무이고 유익이다...교회에 가입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열린 주제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그리고 가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John Gill).

처음에 제자들은 사울을 의심하였다(26 절). 그는 그 제자들의 잘 못에 마음상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였고 용서하였다. 그는 은혜로운 사람이었다. 후에 그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친다(롬 14:1).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받았을 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서로 받아야 한다.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진실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접하였던 것처럼 서로를 대접하여야 한다. 바나바가 그를 천거한 후에 사울은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27 절). 이 단락에서 오직 두 가지 것들이 교회 지체 자격에 대한 자격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2) 믿는 자의 침례이다. 신약의 어디에도 더 이상 요구되는 것도 덜 용인되는 것도 없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명성을 얻었다(28-30 절).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리 안에서 그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대한 증인을 신실하게 품었다. 하지만,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고백이 그리스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여 다소로 피신하였다. 이것으로 두 가지를 배우라. (1)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간의 사악한 행위들조차도 지배하신다(시 76:10). 이 사람들의 분노로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도하도록 보내셨다(행 22:17-21). (2)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다. “사람은 이곳에서 그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교회들 가운데 기쁨(31 절) -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오랜 기간의 박해를 견뎌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자를 남겨두셨다! 한때 하나님의 작은 무리를 향해 으르렁거렸던 사자는 어린양들과 함께 눕기 위하여 피조 되었다. “그리고 교회들은 안식하였으며, 주에 대한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며 수가 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

나눔께서 우리가 그분의 시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마 16:18). 이 상대적 안색의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을 누리면서 행하므로 복음의 전진 가운데 전예보다 더 충만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27. 애니아라 불리는 남자와 도르가라는 여인

사도행전 9:32-43

베드로는 최근의 예루살렘에서 박해의 결과로 세워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전도 사역 중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들을 세우며 교회에서 교회를 여행하였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 (32 절) -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35 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로 하나님께서 복음 교회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셨던 곳이었다. 누가와 신약의 다른 모든 저자가 성도들인 모든 믿는 자를 언급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 지위, “성도들”은 소수의 아주 탁월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남겨둔 구별하는 지위가 아니다. 하나님에 속하여 거듭난 모든 사람은 성도이다. 그 말의 의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택정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되었다(유 1). 그분은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계획과 용도를 위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께 나머지 인간들로부터 구별해 놓으셨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갈보리에

서 그분의 대속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포하였다(히 10:10-14). 이것이 우리의 의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남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살후 2:13; 벰후 1:4; 요일 3:5-9). 모든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다. 그들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은사이고 역사이다.

“애니아라 부르는 어떤 남자”(33-35) - 베드로에 의한 애니아의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의 육체 질환의 치유를 받았지만, 그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확증과 예시를 모두 주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었다. 이 사람과 그의 치유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의해 경험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것이며 그것을 반영한다.

1. 애니아는 긍휼의 선택 대상이었다. 누가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 시대에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불구의 거지들이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부터 적선이나 다른 자비의 행위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한 사람이 발견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기 쉬웠다(요 5:1-9). 룻다에 있는 애니아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의심할여지가 없었지만, 애니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 받았다. 은혜는 언제나 특정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어떤 자들에게 온다(엡 1:3-6; 살후 2:13-14).

36. 애니아는 무기력하게 아픈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실제였다. 베드로는 가짜 치료자가 아니라 진짜 사도였다. 그는 정말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치료하였다. 그것은 우리와도 함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창 1:26-28).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영적으로 죽었다(롬 5:12).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의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다(시 51:5).
37.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언가를 알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를 믿지도 믿을 수도 없었다(롬 10:13-17).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

께서 누구이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 필요는 있다. 계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구원자를 신뢰하기란 불가능하다!

38. 베드로의 말(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애니아의 마음에 신성한 능력과 개인적 적용과 함께 왔다. 베드로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복음 전파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부르시는 방법이다(요 10:1-5).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 영의 효험 있는 부르심(시 65:4)은 복음 전파자에 음성을 통하여 선택된 죄인들에게 온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며, 부름 받는다(벧전 1:23-25).
39. 애니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는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자유의지의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셨던 것을 믿었다. 그는 그 위에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다. “그는 즉시 일어났다!”
40. 그는 즉시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가 믿었지만 치유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베드로는 사기꾼으로 입증되었을 것

이다. 그리스도는 부끄럽게도 불명예스럽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거짓으로 판명 났을 것이다. 내가 말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요 6:37; 히 7:25).

41. 일단 그가 치유되었을 때, 애니아는 온전하게 피조되었던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그는 즉시 일어났다!” 그는 더이상 그의 이전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자리 위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새롭게 되었다(고후 5:17).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 하면서 온 마을을 다녔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분명하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도르가: 선한 행위로 충만한 여인(36-43 절). 도르가는 믿음과 거룩함의 본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그녀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그녀의 행위들로 믿음을 분명히 하였던 여자였다(엡 2:8-10; 약 2:14-26). 그녀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생활 가운데 그녀의 일로 삼았다(딤후 2:10). 누가는 우리에게 도르가에 대하여 세 가지 것을 말한다.

1. 그녀는 그녀의 사랑의 행위로 복음을 실증하였다(36, 39 절). 도르가는 전도자나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공개적인 임무가 없었다(딤후 전 2:12). 그러나 그녀는 여 재봉사로 하나님에 의해 은사를 받았



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걸옷을 지으며 사랑과 자기 부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의 은사를 사용하였다. 만약 두 사람 가운데 택하여야만 했다면, 나는 베드로 같은 전도자보다 오히려 도르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빌 2:1-8; 고전 13:1-13).

42. 그녀는 믿음 안에서 죽었다(37 절). 우리는 그녀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고, 단지 그녀가 아팠으며 그 병으로 그녀를 죽게하였다는 것만 들었다. 다른 것은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주 보시기에 그분의 성도의 죽음이 보배롭다.”
43.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망에서 일어나게 되었다(38-43 절). 도르가는 사망에서 일어나서 다시 죽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다(고전 15:51-58). 도르가가 사망에서 일으켜졌을 때 하나님은 욥바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사망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영원히 영화롭게 되실 것이다(계 5:9-13).

## 28. 고넬료 - 믿음의 사람

사도행전 10:1-48

교만과 인종주의는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그분 안에서 하나이다. 모든 참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다(골 3:11, 엡 2:11-18; 4:1-6). 그리스도 안에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 계급의 구별이 없으며, 아무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됨은 아마도 초대 유대인 개종자들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었을 것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아주 어려운 장애물로 남아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한 존재로서 천시했으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다.

사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제한되었다. 유대인들만 신성한 진리의 빛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국가를 거절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이 모든 열방들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으로 그분께서 땅의 사

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얻고자 하셨다(마 21:3-43; 23:37-38; 28:19). 사도 바울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 보내졌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세워졌을 것이다. 베드로가 배워야 했던 공과,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하는 공과는 34 절에서 발견된다 - “내가 진실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속한 인간의 차별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제한 받지 않는다(요 1:11-12; 롬 9:15). 하나님은 사람들 간에 타락한 사람들을 나누거나 구별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분명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이교사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1-2 절). 그는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 안에서 그려진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예언서 안에 제시된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임을 배우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의 좋은 소식과 함께 고넬료가 찾고 있었던 구원자가 오셨고 구속을 성취하셨다고 그에게 말하려 베드로를 보내셨다. 시므온처럼 그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을 알지 못

한 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눅 2:25-32). 고넬료는 구원의 믿음의 모든 특징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1-2 절). 성령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다”고 말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남겨두신다. 주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기뻐하심을 취한다(시 147:1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에 의해 받아들여 진다(행 10:34-35). “주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시 103:13). “주의 눈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다.”(시 33:18).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열려있고 그들을 먹이신다. “주의 비밀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시 25:14).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오신다(말 3:16; 4:2). 구원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다(시 85:9). 실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늘에 두신 모든 선과 축복은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다(시 31:19). 믿음의 두려움은 노예근성이나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은혜로운 존경심이다.

고넬료는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이었다(2 절).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믿음은 또한 그분 안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를 향하여 사랑하며 관대한 영을 그 안에 생기게 한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 많은 구제를 하였다.”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산출되고 행하며(갈 5:6), 사랑은 친절한 행위에 의해 그 스스로 보여준다(고전 13:1-8).

그는 정직한 기도자였다(2 절). 그의 종교는 명목상의 경배 형식이 아니었다. 고넬료는 정직하였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았다(렘 29:12-14). 그는 외적인 경배의 방법을 열심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하였다. 기도 시간에 그는 기도 안에 있었다. 희생의 시간에 그는 성전의 바깥뜰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살전 5:16 을 보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주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고넬료는 빛의 자녀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 가운데 행하였으며(요일 1:7),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빛을 주셨다.

한때 고넬료가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3-23 절). 구약에서 주의 천사가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아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사역하셨다.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신시켰다(3-4 절). 에녹처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히 11:6). “믿음 안에서 그가 올려 드리는 기도들과, 사랑의 원칙으로부터 행했던 그의 구제 행위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올라갔다.”(John Gill).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고넬료의 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를 찾을 수 있는 곳에서 고넬료를 보았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사자를 찾았다(5-8 절). 한편,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은혜롭게 예비하셨다(9-23 절).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기도로 그것을 구하였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기도로 그것을 구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졌다.

이 사람, 고넬료는 존경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받았다(24-33 절). 그는 하나님의 종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기를 갈망하였다. 베드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존경으로 하나님의 종을 붙잡았다. 그는 베드로에게 너무 많은 존경심을 표하는 잘못을 범했다(25 절). 그러나 그의 태도는 곧았다(살전 5:12-13; 히 13:7, 17). 책망 받았을 때, 고넬료는 순종하였다(26 절).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전갈자의 죄의 잘못을 간과하였다(27-28 절).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했던 것을 듣는 것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하도록 결정되었다!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들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기대하였고(33 절), 그리고 그는 그랬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34-43 절).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가르치는 것을 믿었다. (1) 하나님의 은혜 위에 아무도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34-35 절), (2)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며(36-40 절),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높여진 군주이다(42-43 절).

고넬료의 믿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에서 보여진다(44-48 절).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과 이방인 등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율바에서 온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보여주면서, 이 이방인 믿는 자

들 위에 임하였다(44-47 절; 고전 10:16-17).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들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았다(롬 6:4-6).



## 29. 전도자들과 그 청중들

사도행전 10:1-48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 위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44 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체험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하여 모였을 때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을 때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30-33 절을 읽어보라).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그 듣는 자들은 경외와 순종과 복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 말씀의 사역과 함께 분명하게 올 것 같다. 이 공과에서, 나는 전도자와 그 청중들 모두로부터 당연히 기대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를 사용할 것이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에 극과 극의 두 가지 중 하나를 보인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경멸스럽게 취급하며, 바울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멸시하

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심지어 그들에게 반대적이다(갈 4:16). 다른 사람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추앙 받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지만, 전도자들을 어떤 지위에 올려 놓는다(25-26 절). 이들 극단적인 경우 모두 악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은 오직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추앙 받거나 맹목적으로 추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신실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멸시당하거나 무시되거나 혹은 경멸스럽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은 그가 사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랑 받고,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살전 5:12-13). 그의 가르침의 혜택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너그러이 공급받아야 한다(갈 5:6; 고전 9:7-14; 딤후전 5:17-18). 그리고 믿는 자들은 기도 가운데 그들의 목자들을 기억하여야 하며, 그들의 가르침과 본을 모두 따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순종하여야 한다(히 13:7, 17, 18).

베드로에게서 고넬료와 그 친구들은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믿음의 방법으로 그의 교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5, 6, 32 절). 따라서,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사로 여겼다. 그는 베드로에게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기대하였다(고후 5:18-21).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종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의해 이런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전 4:1-2). 오늘날 하나님의 전도자들(목사, 장로,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은 예언자나 사도가 아니다. 그들은 예언이나 사도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매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선포하도록 보내졌던 것-의롭게 됨과 평강, 모든 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죄사함-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보내졌다(36, 43 절; 히 7:25). 그들은 그분의 대속에 의한 구속과 주권적 통치와 구원의 능력 안에 계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보내졌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자임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서 기대하였던 것과 같은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33 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혼에 지극히 충성된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들은 이익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신실하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여야 한다(행 20:28). 모든 복음 전파자를 세 가지 사항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당신의 혼에 사역하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사항을 기대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전도자는 반드시...

1. 복음을 알고 있는 자(요일 1:1-3).

2. 대가나 결과에 관계없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고전 9:16; 겔 33:7-8).
3. 그 행동이 복음과 부합되는 자(딤후전 3:1-7; 4:12-16; 딤후 4:1-5).

가이사랴에서 집회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들 사이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이 있다.

1. 베드로는 사람들의 혼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을 고넬료에게서 발견하였다(24 절). 고넬료는 멸망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을 알았다. 그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가 같은 방법으로 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다.
44.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약속된 경배의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존경심을 갖고 그 사람들은 모였다(33 절). 성전에 있던 어린 사무엘처럼, 그

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하소서, 주여,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9)라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전할 때 단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구하려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

45. 베드로는 이런 무리의 사람들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것을 발견하였다. 아무도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33 절). 그들이 염려하였던 것에 있어서 적어도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사 66:1-2).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었다.
46. 가이사랴에 있던 회중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즉시 믿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그들은 즉시 드렸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그들은 즉시 행했다. 그들은 모든 자의 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였고, 죄 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였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법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것에 스스로를 내맡겼다.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딤후 1:8-13) 도처에 그것을 선포하라(마 28:18-20).

이 집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베드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람의 혼에 신실하였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방문하셨고 그분의 영을 택하신 죄인들의 무리 위에 쏟아 부으셨다(44-45 절).

베드로와 같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특권을 가진 자는 복되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찾은 것처럼 그런 회중에게 사역하는 전도자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전도자와 그런 청중들이 발견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체현될 것이다!

## 30.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사도행전 10:9-16

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의 보자기를 내려 보내셨는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지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었다.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여, 그리 할 수 없나이다 하였다.” 한번 더 성미 급한 베드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적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심판대에 우리 스스로 놓을 수 있는가? (로마서 14:4 를 읽어보라). 거의 아무도 베드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고, 그의 사람으로서 잘못은 우리가 배우고 경고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롬 15:4). 비록 그가 잘못 행했지만, 베드로는 좋은 의미로 그랬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았을 모든 악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가 의도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그의 잘못은 주 하나님께서 그를 날카롭게 질책하기에 충분할 만큼 중대하였다(15-16 절). 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주여, 그리 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반역과 불신으로 지속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믿는 자는 아무도 죄의 종이 아니다(롬 6:17-18). 그러나 믿는 자가 죄 없이 사는 자는 없다(요일 1:8-10). 비록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고, 은혜로 부름 받았고, 의로 옷 입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여전히 죄인들이다. 죄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전쟁과 뒤섞여 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개인적인 죄로 큰 싸움을 하였다(시 73:1-26). 바울은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컸겠지만, 그러나 그의 죄와의 전쟁은 실재였다(롬 7:14-24)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으나, 그도 역시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죄인이었다. 우리는 그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믿는 자는 여전히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피조된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옛 본성이 지워진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 마음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옛 사람 아담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고 있다. 그분이 나무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오랜 시간 죽어 있고



최고를 얻기 위하여 어렵게 싸우고 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며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죄인들이며, 구속 받은 죄인들이고, 거룩하게 된 죄인들이며, 용서 받은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두 죄인들이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 -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 모두 실재이고 지속적이다(갈 5:17).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베드로였다. 만약 내가 성경의 이 단락을 절대 읽지 않았고 주께 그토록 무모하게 말했던 자에 대하여 내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나와 관련 지었다면, 나는 그것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 공개적으로,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했겠는가? 여전히 우리는 모두 그와 너무도 유사하다. 비록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배하지만, 죄의 짐승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납게 날뛴다. 우리 안에 피조된 새 사람이 있지만, 옛 사람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악한 경향이 죽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 옛 본성의 고유의 연약함으로 싸워야 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조차 “사

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는 기껏해야 단지 사람이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무지함 가운데 그의 주를 비난하였던 첫 번째가 아니었다(막 8:31-33). 이것은 그가 충동적으로 그의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였던 첫 번째가 아니었다(요 13:8). 우리는 모두 이런 것에 관련하여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한 베드로와 너무도 닮았으며, 그래야 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어리석게도 상상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논쟁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고,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한다! 베드로가 단호하고 거의 무례하게 그의 주께 반박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마 26:31-35). 다른 믿는 자들처럼, 베드로는 구원 받았고, 거듭 났으며, 그 영을 충만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는 성급하고, 경솔하며, 충동적이고, 죄로 충만하였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좋은 점들도 있었다. 은혜가 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 속에 분명하게 있었다. 은혜가 그의 속에서 지배하는 원칙이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누가는 만약 베드로가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욥바에서 일어났던 것을

몰랐을 것이다(행 11:4-9). 베드로는 경솔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실제적이었다. 그는 우둔하였지만, 그러나 담대하였다. 그는 성미가 급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정직하였다. 그에게서 잔피를 부리거나 교활함은 없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1. 사람은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하지만 진실된 믿는 자이어야 한다.
47.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 대해 인내하고 오래 참으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엡 4:32-5:1).
48.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의 악한 경향들에 대항하여 지켜야 한다(골 3:12-17; 롬 6:11-14). 육신은 결코 수면상태가 아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은혜를 거슬러서 대항한다. 베드로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라는 말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복음의 위대한 원칙-율법 숭배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그의 육신의 반응이었다. 베드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

으며(롬 6:14-15), 그것을 배우기까지 그에게 시간이 걸렸다(갈 2:11-16).

율법주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럽다.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견어찬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행하는 악이나 선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게 만들려는 율법주의의 영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 개인적 결점 때문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게 하는 율법주의의 영이다(즉: 기도, 주의 만찬, 등).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시지 않았던 것인, 다른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삶의 원칙들을 설정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영이다. 믿는 자들을 심판의 위협과 보상의 약속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율법주의의 영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도들의 심판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영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 배울 것인가(롬 10:4)?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무법의 율법불요론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율법에 빛진 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베드로도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34 절). 하나님은 사람들을 서로 분리시

키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며,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한다(약 2:1-9; 행 17:26).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지만, 믿  
는 자의 옛 본성은 많은 방법으로 그 스스로를 보여준다  
-복음의 교리에 대항한 반역, 계시된 의무에 대항한 반  
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의 소리, 우리의 섬김의  
위치를 자랑스럽게 경멸하는 것 등에 의해서 이다! 이런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악한 경향들을 없애 버  
리지도 심지어 바꾸지도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비록 우  
리가 약하고, 육적이며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  
분하다(고후 12:3-9).

## 31.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

사도행전 10:34-35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뜻하신 자들에게 전적으로 주권적이며 대가 없이 그것을 주심이다(롬 9:15-16). 세상적 조건이나 유전된 혈통도, 외적인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으며,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구원 받은 것 같이 만들지도 않는다(요 1:11-13). 육적인 고려 사항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막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을 덜 구원받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고전 1:26-29). 하나님은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의 은혜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한 것에 끌리지 않는다. 또 그분의 은혜는 결코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악한 것으로도 저지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외양에 대한 경의가 있을 곳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없다. 우리의 사랑과 관용과 관심과 교통은 사람의 지위나 부나 인종이나 사회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

다.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공통 조상, 아담에게서 나왔다(행 17:26).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이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하나의 행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것이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분열은 없었을 것이다. 교만과 인종주의와 사회적 속물근성을 산출한 것은 죄이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세 종족으로 나누셨고, 각 종족에게 이 세상 가운데 섭리에 따른 토지가 나누어졌다(창 9:18-27).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런 섭리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골 3:11; 엡 2:14-22). 셈과 함과 야베스의 아들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흑인이나 백인, 동양인이나 유럽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자,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와 같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들을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과 모든 사회적 계급과 모든 세대에서 모으시며,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삶의 행보로부터 사람들 위에 부으신다(계 5:9). 이것이 베드로가 배워야 했던 것이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 주신다.”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성령이 말씀 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문맥을 해석한다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처럼, 이 단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자유함과 주권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섭리와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취급하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께서 자신의 주권적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Charles Simeon). 하나님은 택정함 가운데(살후 2:13), 구속 안에서(요 10:11, 26), 섭리 가운데(롬 8:28), 그리고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마 22:14)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전 4:7).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거절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빛을 거두시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거두심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 뜻에 따라 사람의 인격에 따른 것이 아님이다(마 11:20-26; 히 2:16).

이 말씀이 구원이 행위에 의한 것임을 가르치지 않는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 함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의를 행함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사람이 도덕적 선의 행위로 신성한 호의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구원이 의로운 사람의 행위로 성취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었다(갈 2:21). 만약 행위가 구원에 어떤 것이라도 기여한다면, 그러면 은혜는 모두 지워진다(롬 11:6). 은혜와 행위는 공존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상반된다. 한 사람은 구원이 우리에게 빛으로서 지불된다고 암시한다. 다른 사람은 구원은 대가 없이, 무보수로 우리에게 선물로 수여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함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롬 3:20; 갈 2:16; 딤후 1:9; 딤후 3:5).

이 본문은 사람이 신실하기만 하면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관계 없이 구원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에 무지한 자들은 잃어버린 바 되고 그들의 무지 속에 멸망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롬 1:18-20). 고넬료는 구원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가 했어야 하는 시간에 경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믿으며, 율법과 예언이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였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오늘날 아무도 자기 자신만의 상황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세상적 조건 때문에 어떤 자를 선호하시고 경멸하시지 않는다는 의미

이다.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대해 오셨던 유일한 백성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저주 받고 거절된 개로 여겼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똑같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확신 시킨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롬 3:23).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같은 방법으로 온다(엡 1:3-6). 구원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와야 한다(행 4:12).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 모든 자는 동등하게 그분에게 받아들여 진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갈 3:28). “어떤 자는 더 가까이, 다른 자는 해로부터 좀더 멀리 있지만, 그들은 모두 의의 태양에 똑같이 가까이 있다.”(Thomas Manton).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한 경건한 자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의의 행위들이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기초였다고 상상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에 모순되고 있다(딤후 3:4-5).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그리스도 안

에서 받아지며 그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런 것들은 은혜의 열매이지 은혜의 이유가 아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받은 죄인들이 의를 행하도록 한다(엡 2:8-10; 딤후 2:11-14). 그러나 은혜는 행위의 결과로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베드로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 졌다”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죄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다(엡 1:6).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각각의 믿는 자에 의해 그분을 위하여 주어진 각각의 은사와 그분을 위하여 행한 각각의 행위를 받으신다(벧전 2:5).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셨던 것처럼,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와 함께 기뻐하심은(마 17:5)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신성한 전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모든 믿는 자를 영원한 영광의 모든 축복으로 상주시는 것이 의로운 것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롬 8:17)

이 본문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다루심으로부터 배우는 공과는 무엇인가? 질문할 필요 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공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기록하였다. (1)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절대적으로 대가 없고 주권적이다. 어떤 땅에 속한 특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며 땅에 속한 어떤 비탄도 그것을 막을 것이다. (2) 아무도 절대로 주를 헛되이 찾지 않을 것이다(사 45:19).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걷는 자는 누구나 더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구속 하에 둘 수 없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아무런 공로도 받지 못하고 오직 진노만 받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다 - 주를 진실로 구하는 자는 그분을 본다(렘 29:13). (3)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외모도 관계 없으시다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는 부자를 심판하거나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한다.

## 32.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사도행전 10:34-44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42 절에서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를 천명한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은 그분의 교회와, 사도들과, 그들 위에서 특정한 책무를 갖고 그분을 섬겼을 모든 자를 떠나셨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모든 지역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성도의 단 하나의 책무이다(마 28:18-20; 막 16:15-16; 눅 24:46-48; 요 20:21-23; 행 1:8).

사도 베드로는 많은 잘못과 실패를 했다. 그는 다른 모든 복음 전파자들처럼 단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과 책무에 신실하였다. 주께서 어디로 그를 보내셨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려 나아갔다. 그의 청중들이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베드로는 전도자였으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문을 여는 곳

은 어디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성전에서 수천 명에게 전파하는 것이나 강력한 공회에 전파하는 것이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 몇 명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던 로마 군사의 집에서든 전파하기를 기뻐하였다. 우리 앞에 그가 어떤 본을 놓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그 존재를 위한 계획의 시야를 잃지 않았다(딤후 3:15).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공명관이 되어야 하며(살전 1:8), 더도 덜도 말아야 한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사명의 시각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왜 교회가 그토록 약하고 비통한 이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사교 단체가 아니며, 유흥장도 아니고, 정치세력도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성한 위임에 의한 전도의 장이다! 교회의 사역은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교회의 일인 것처럼, 전도하는 것은 특정하게 하나님의 전도자들의 일이다(딤후 4:1-5). 하나님의 종들은 상담사나, 심리학자, 사회 봉사나 종교 부흥사들이 되라고 부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들은 절박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파수꾼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전갈을 갖고 온 사람인 전도자들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 받은 각자의 책임은 세상의 일로부터 그 자신을 풀고,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딤후 2:12-16).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은 자 모두는 같은 것을 전해야 한다. 우리 본문에서 기록된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가 신성한 위임에 의해 전하고 있었다고 선포하였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전도자가 전하는 것을 보여 주신다. 베드로는 여기 하나의 본, 혹은 모든 복음 전파자들의 전형으로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

1. 그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그 사역 안으로 넣으셨다. 하나님만 그가 전할 것과 전할 장소와 전할 때를 결정하셨다.
49. 그는 신성한 권위를 갖고 전파하였다. “모든 참된 사역자는 그가 말할 것을 명령 받았기 때문에 말해야 한다. 그는 그가 말하도록 명령 받은 것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계속해서 되돌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C. H. Spurgeon). 전도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어야 하며, 분명하게 성경에서 계시되어야 한다(사 8:20).
50.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 본질에 있어서 같았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를 전파하였다(사도행전 2:14-40; 3:11-26; 4:8-12 을 비교하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성령의 주제이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설교의 주제이다(눅 24:44-47; 요 1:45).

교회의 사명은 전파이다. 전도자의 일은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전파되어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전파가 하나님께 존귀하며 영원히 맏인 사람들의 혼에게 유용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하며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권능으로 전파했던 사도들의 설교들을 읽어야 한다. 사도행전 10:34-44는 사도의 전파의 한 예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이 기준으로 모든 전도와 모든 전도자와 모든 교회가 그들이 신약의 본을 따르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사도의 전도는 주권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없음이다(34-35 절).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고 대가 없다. 하나님은 죄인들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롭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죄인들 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누구를 받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요 1:11-13). 그분만 어떤 자에게 은혜로우실지를 결정하셨다(롬 9:15-18). 35 절은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의 특징을 묘사한다.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고, 죄인들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께 받아들여 진다.



신약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평강과 화해의 선포이다(36 절). 복음은 “화해의 말”이다(고후 5:16-21).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거나, 그분과 평강의 조약을 맺든가 아니면 그분의 진노 하에 멸망해야 한다.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한 그분의 피로 인하여 그분은 평강을 얻으셨다(엡 2:14-15; 골 2:14-15). 그분은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마 11:28-30). 그분이 구원의 능력 가운데 죄인들에게 오실 때, 평강의 왕은 평강을 가져오신다(롬 5:1; 골 1:20-21).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절대적 통치권과 우주적인 통치를 선포한다. “그분은 모든 자의 주이시다.”(36 절).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사람 중보자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넘겨주셨다(요 17:2; 롬 14:9). 그분의 완성된 구속의 역사에 대한 상으로,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통치권을 소유하셨고(사 53:10-12),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 모든 섭리, 모든 창조, 그리고 모든 행사의 주이시다. 죄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이신 그분의 통치에 엮드

리는 것이다(눅 14:25-33). 그것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구원자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죄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37-41 절). W. A. Criswell 은, “사람이 예수의 역사적 사실들을 전파할 때, 그는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확증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믿을 때, 그는 믿음 그 자체를 믿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것은 이 시대의 치명적 오류이다! 전파는 사실의 선포가 아니라 한 분 위격의 선포이다. 우리는 한 분 위격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지 사실들 안에서가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가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들었던 모든 사실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지식을 확증하였다(요일 1:1-3).

복음 전파는 절박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포함한다(42 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의 복음과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다”(Matthew Poole). (요한

복음 5:26-27; 사도행전 17:31; 고린도후서 5:10-11; 디모데후서 4:1 을 보라). 그 위대한 날에, 구원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로 공의롭게 구원될 것이며, 저주 받은 자는 모두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공의롭게 저주 받게 될 것이다(계 22:11).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완전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다(43 절). 하나님은 긍휼 가운데 기뻐하신다. 따라서, 그분은 사악한 행위를 용서하신다(미 7:18). 그리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매우 공의롭게 행하신다(요일 1:9).

이 여섯 가지 사항은 모든 참 교회와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특징지으며, 사람들에게 하는 각각의 믿는 자의 간증의 본질을 형성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전파와 증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효험 있게 만드시지 않으면 공허하다(44 절).

### 33. 형제들 앞에서 베드로의 방어

사도행전 11:1-18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반대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그것을 예상한다(요 15:20-21).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선지자들, 시대를 걸쳐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은 지속적으로 조소와 조롱과 박해의 대상이 되어왔다. 십자가의 전갈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쾌하였고 여전히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가르침은 결코 대중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대적들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갈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들로부터 오는 반대를 예상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11:1-18에서 베드로는 교회 집회에서 그의 형제들의 한 가운데서 있었고 그의 사역 가운데 기뻐했어야 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사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독개인들, 그리고 자유사상가들로부터 오는 반대를 충분히 쉽사리 다룰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반대에 그가 직면하고, 그 자신의 형제들 앞에서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놀랍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갔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죄인들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속의 전갈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 이방인은 베드로에 의해서 주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유대 믿는 자들이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하여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대신에 그들은 미친 듯이 뛰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공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슬픈 사건을 기록하셨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결점들이 있다(1-3 절). 여기 사람의 본성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덤을 파는 교리적 잘 못이나 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큰 소동 가운데 있었다! 그 소동은 너무나도 커서 후에 베드로가 스스로 잘못을 범하게 하였다(갈 2:11-16).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이사랴에서 경배되고 존귀하게 여겨진 사실과 이 일이 하나님의 지시로 행해졌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전체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다. 이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들은 베드로가 무할레 이방인의 집에 있었고 그와 함께 먹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때 “한 마음”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한때 그렇게 강력하게 사용되었던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종과 그 역사 위에 심판 가운데 놓일 준비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툼으로 가득 하였다! 이 장의 마지막에 이르러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극심한 가난으로 위축시켰고, 그들이 비웃던 이방인 믿는 자들의 구제로 살게 되었다(27-30).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는 황량함과 중상과 분열을 향한 우리의 교만한 육신의 악한 경향에 대항하여 우리는 조심스럽고 지속적으로 지켜야만 한다(엡 4:1-7, 30-32; 5:1-2). 당신의 형제의 행위들에 대하여 정죄(평가)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마 7:1-5). 서로 용인하고 관대 하라. 은혜가 사람들이 은혜롭도록 가르친다!

인간 본성은 언제나 행위와 은혜를 뒤섞으려 할 것이다(4-17). 이것은 정말 문제였다. 이들 유대인 믿는 자들은 무할레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베드로가 자신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셨으며, 그리고 고넬료

와 그의 무리가 복음에 응답하였는지를 정확히 그들에게 말해주고,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슬픈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교도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다.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인간의 육체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구원이 은혜로 인함이라고 선포하는 한편, 그들은 율법 준수와, 안식일 지킴과 하나님의 은혜에 종교적 전통과 풍습에 집착하는 것을 더한다. 사람에게 의해 행해진 어떤 것도 의롭게 함과 거룩하게 함과 다른 어떤 구원의 방면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더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게 만든다(갈 5:1-4).

은혜와 행위는 섞이지 않을 것이다(롬 11:6; 엡 2:8-10). 은혜는 선행을 산출한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연유되지 않고, 좌우되지 않으며, 심지어 영향도 받지 않는다! 모든 행위 구원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그리스도의 대적이며, 복음의 대적이고, 사람 혼의 대적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심각한 멸시 가운데 묶여야 한다(갈 1:608; 5:12; 빌 3:2).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모든 역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셨다!”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들이 많은 잘못을 갖고 있지만, 영적 가르침에 순종하고 받는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잠잠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18 절). 올바르게 됨으로, 이 형제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로부터 돌아섰다. 참 믿는 자들은 많은 방법으로 잘못을 행한다(요일 1:8, 10). 그러나 믿는 자들은 치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다(삼하 11:26-12:24).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언제나 순수한 회개를 낳는다(18 절). 회개는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것은 사람이 행해내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논리로 낳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수여하는 것이다(행 5:31). 율법에 대한 두려움은 회개가 아니다. 가인과 마술사 시몬이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도덕적 개혁은 회개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벨릭스가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회개가 아니다. 유다가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이 회개가 아니다. 에서가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무엇이 회개인가? 그것은 적어도 이 네 가지를 포함한다.

1. 죄의 자각(요 16:8-14). 아무도 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에 의한 죄의 하나님 심판에 의하여 확신될 때까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51. 회심(살전 1:9).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사랑 가운데 계시를 받으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52. 헌신(막 8:34-38). 주이신 그리스도께 헌신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없다.
53. 지속(마 5:22). 모든 참된 참회자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한다. 믿음처럼, 참된 회개는 결코 그치지 않는다. 충만과 온전함과 하늘 영광의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 34.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

사도행전 11:19-30

사도행전 11 장은 초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다. 바나바의 사역 하에 건축되었던 안디옥에 있던 교회는(22-24 절)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졌던 첫 번째 복음 교회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약 일 년간 안디옥에서 함께 수고하였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막대하게 성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복음 전도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 교회가 하락 위에 있었을 때, 복음이 이방인 세계에 가져갈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일으키셨다. 그 교회는 복음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526년 지진으로 전체 도시가 파괴될 때까지 오백년간 그것을 높이 들었다.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선교사들(바울과 바나바 - 사도행전 13 장)을 파송한 것이 이 교회였다.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문명화된 전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갔다. 이 장들에 기록된 안디옥에서 사건들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고 제시한 공과는 네 문장으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의 안배로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그들을 구원하실 곳에서 듣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 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 박해를 보내심으로 이방인 가운데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이 은혜롭게 되실 것이다(사도행전 8:1-4; 11:19; 롬 8:28 을 비교하라). 사랑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실 것이다(겔 16:8; 시 65:4).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크게 괴로워하였던 이 믿는 자들은 아직 그분께 순종치 않았다. 비록 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주 예수를 전파하며” 도처로 갔다(20 절). 고난과 비탄 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신실한 증인들이었다. 비록 그들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책무를 이해하였고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21 절).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신다(사 41:10-1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그분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선과 일반적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의 선과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의 결과로 복음은 안디옥에 전파되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둘째, 주께서 안디옥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게 그분의 마음에 따라 성도들에게 지식과 이해를 공급하는 목자들을 주셨다(22-26; 렘 3:15). 첫째,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고, 관대하고, 베풀며, 친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셨다(엡 4:18-25).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증거하였다. 바나바는 그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 받은 것보다 오래전부터 섬겼다. 그는 말로만이 아닌 입증된 신실함의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으로 입증되지 않은 자로 복음 사역의 일 가운데 아무도 보내지 말자(딤후 전 3:1-6; 딤후 1:6-9). 이 신실한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였고 “그들 모두를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걱정하고 주께 붙어있으라고 하였다.”(23 절).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에게 사역 가운데 그를 돕도록 안디옥으로 올 것을 설득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안디옥에서 수년 간 하나의 목자 팀으로 함께 수고하였다(25-26 절).

셋째, 이 두 사람의 복음 전파자의 신실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수를 구원하셨고, 그로써 그분을 기쁘게 하였다(20, 21, 24 절). 이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다(롬 10:17; 고전 1:21; 약 1:18; 벧전 1:23-25).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구원하실 자들, 그분의 택하신 자들과 그분의 구속하신 자들을 갖고 계신다!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믿음과 회개를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실 것이다.

넷째,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다”(26-30 절). 이때까지 그리스도교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살았다. 그들은 모세 절기, 성일들, 예절과 격식들을 지켰으며, 성전과 공회에서 경배를 드렸다. 율법적 경배의 장식들은 내려놓지 않았거나 한번에 없어지지 않았다(히 8:13). 그러나 어떤 새로운, 어떤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이 개심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유대교의 배경도 없었고 모세 율법과도 관계가 없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신론적이고, 타락한 생활 방식에 있던 이교도와 우상숭배자로 살았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셨다. 타락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교도 이웃은 이 이상한 무

리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새로운 이름을 발명하였다. 그들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한 인격이다(요일 2:27). Augustinian 이 Augustine 을 따르는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제빵사가 빵 굽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집 안에서 자원하여 그리스도께 종이 된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이 조롱하며 바라보고 경멸과 멸시의 말을 하도록 하게 한 무엇인가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나? 이 사람들을 그토록 유일하고, 그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옷도 아니고, 말투도 아니며, 음식도 아니고, 혹은 심지어 그들의 사회 생활이 그들을 독특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여기와 다른 두 곳의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의 용법을 자세히 연구한다면(행 26:28; 벧전 4:16), 여섯 가지 사항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1. 그리스도인은 복음에서 계시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20-21 절; 행 26:28). 복음의 전갈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 자신

을 맡긴다. 우리는 복음을 믿지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신뢰한다.

54.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와 왕으로서 그리스도께 엎드린다(21 절). 믿음은 주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행복하는 것이며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눅 14:25-33).
55.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께 매달리는 자이다(23 절). 믿는 자들은 믿음을 이루어낸다. 그들은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께 매달린다(요 6:68). 우리에게 다른 희망이 없다.
56.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는 자이다(26 절). 양은 사회적 동물이다. 염소는 홀로 떠돌아 다닌다! 믿는 자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며(롬 6:4-6), 경배 가운데 함께 모이고(히 11:26), 달콤한 연합 가운데 떡을 떼며(고 전 11:24-28), 그리스를 이유로 함께 연합한다.
57. 그리스도인은 그 형제들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이다(27-30).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요일 4:8; 5:1).

58.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치욕을 인내심 있게 참는 자이다(벧전 4:16). 그들은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들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벧전 2:21).



## 35. 드림 안에서의 공과

사도행전 11:28-30

예언자 아가보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으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또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편에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본으로서 성령에 의해 지탱되었다. 그들은 구호 은혜의 예를 보였다.

그들은 필요에 대하여 아가보에 의해 알게 되었고, 아가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유대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행하였다(28 절).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과 은혜의 압력으로 그들이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그들의 유대 형제들의 구호를 위하여 주기를 동시에 결정하였다(29 절).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은 이미 그들의 소유를 팔았으며 모든 것을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지원하고 복음이 세상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보려고 주었다(행 4:34-37).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의 관용을 위함이 없었다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안디옥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들이 복음을 받게된 그들의 형제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돕기로 결정하였다.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줄 것을 결심하였다. 각 사람이 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이었다. 자연발생적으로 주는 것은 경솔한 제공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 사려 깊은 결정이며 마음의 계획에 따라 실행되어 주는 것이다(고후 9:7). 그들의 형제들의 필요에 맞추기 위하여 줌으로써 안디옥의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예를 따르고 있었다(빌 1:1-8; 고후 8:7-9). 안디옥 믿는 자들을 본으로 취함에 있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여덟 가지 사항을 보여 주고자 한다.

1.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어떤 것을 제공하려 한다면, 우리의 드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에 의하여 발생되어야 한다(고후 8:7-9). 사도 바울은 드림에 대하여 어떤 명령도 제시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단순히 우리의 드림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나 표현이어야 한다고 말한

다. 우리가 드리는 것과 왜 그것을 드리는 지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공언한 사랑의 신실함을 입증한다. 이런 은혜의 분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를 구별하는 법을 주시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경배 행위처럼, 우리의 드림은 사랑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열쇠이다. 사랑은 관대하고, 흘러 넘치며, 희생적이다. 사랑이 스스로의 지침을 둔다. 사랑은 그 자체로 법이다. 사랑은 믿는 자가 주는 것과 얼마나 줄 것과 얼마나 자주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59. 우리가 주께 드리듯 드린다면, 우리의 드림은 기꺼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후 8:12). 의무감, 책임감, 채무감, 혹은 법적 구속에서 드리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 오직 기꺼운 마음에서 우리의 드림이 나올 때만, 오직 자유롭고 기분 좋게 드려질 때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진다. 드림의 양은 주께는 전적으로 하찮은 것이다. 드리는 양이 아니라, 드림의 동기가 문제가 된다(출 35:4, 5, 29).
60. 우리는 능력에 따라, 우리의 축복의 분깃 안에서 모두 드려야 한다(고 전 16:2). 육적인 사람과 종교 율법주의자들은 비율과 특정한 금액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신약은 결코 그런 것

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계획과 복음 전파와 우리 가운데 궁핍한 자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납세자(십일조)가 아니라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에 우리 수입의 십 퍼센트를 빚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교회는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드리고 있는 것이다. 어떤 구두쇠가 자신의 가족에게 인색할 것인가? 또한 드림에 있어서 동등함이 있어야 한다(고후 8:13-14). 소수의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부담을 짊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지원함에 있어 할 능력이 있는 만큼 해야 한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부자처럼 같은 부담을 짊어질 것을 기대하여서는 안된다.

61.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려야 한다(고전 16:2; 고후 9:7).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 들었든 젊었든지 간에,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세상적 물질의 한 분깃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적 선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모두는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

62. 만약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드림 가운데 자유함과 희생함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후 9:5-6).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고 관대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자유하고 관대하다(롬 5:21; 고전 6:9-11). 드림은 땅에 씨를 심는 것과도 같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의 가장 좋은 씨를 심으며 그것을 넉넉히 뿌린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방법이다(갈 6:6-10).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취해서 우리 주께 그것을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었다(막 12:41-44).

63. 경배와 믿음과 그분께 대한 헌신의 행위로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는 드림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후 9:7).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드리며, 누구에게 드리며, 어디서 드리고, 드리는 방법과 언제 드리는 지를 맡겼다. 그것에 대한 어떤 법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뻐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지 못해 하는 영의 율법적 드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64. 우리의 드림이 경배의 공개된 헌금 가운데 행해지거나,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하든, 특정한 이유로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께 드리는 것이다(마 6:1-5).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명예로워지기 위한 것은 하지 말라. 주께 행해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하여 행해진 것은 하나님께 보여지고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다(마 14:3-9). 경배의 모든 행위 가운데(기도, 드림, 금식, 성경 읽기, 등) 비밀을 유지하도록 애쓰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을 광고하는 순간 당신은 위선자의 동기를 드러내고 만다!
65. 이런 종류의 드림은 하나님께 좋은 기쁨이다(빌 4:18; 히 13:16).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마음과 아무 것도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드러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은 확신할 것이다. (A) 여러분은 관대함으로 인한 손실을 결코 고통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눅 6:38).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끼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아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다”(Oswald Smith). “많은 사람이 나눔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빈 손이 되고 만다.”(C. H. Spurgeon). (시편 37:16-26 을 읽어보라). (B)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신뢰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약 기꺼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드릴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다(고후 9:10; 빌 4:19).

## 36.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사도행전 12:1-25

하나님의 섭리의 분명한 이해와 확신보다 더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유익이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 가운데 있는 확고한 믿음은 모든 땅에 속한 문제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의 분명하고 충분한 이해는 대부분의 신학적 문제의 해결책인 것은 거의 대등한 사실이다.”(B. B. Warfield).

신성한 섭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이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지혜롭게 영원 가운데 계획하셨던 모든 것과 성경 안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실현시키신다. 예정하심(롬 8:29-30; 엡 1:5, 11)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이다. 섭리는 시간 가운데 그 계획의 펼쳐심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영원하고 영적 선과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한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안배와 배치이다(롬 8:28; 11:36).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후 5:18). 당신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할 때 당신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곳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William Couper는 “삶을 얼룩지게 하는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자는 행복하다.”고 기록하였다.

사도행전 12 장은 매우 교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흠모할만 하고 선한 섭리를 예증하고 예시한다.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헤롯의 칼로부터 베드로를 구하였다. 이 공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혜롭고 은혜롭게 이 스물다섯 절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가운데 통치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려 한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속과 교회의 기도들과 사자에 의한 베드로의 구출과 헤롯의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들이었다. 이 장의 사건들은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보여준다(시 115:3; 135:6; 사 14:24; 45:7; 46:9-10; 단 4:34-37). 이 장은,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라고 기록된 시편 76:10의 예시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 백성 위에 끔찍하게 고통스런 시험을 가져왔다(1-4 절). 가이사 글라디오와 아그립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 전체에 기근을 가져오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 마치 그의 선임자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임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의도였다(마 2:16). 그는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너무도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부활절, 즉 유월절 이후에 죽이려하였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시험과 고뇌로부터 쉴 곳이 없다. 그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험을 당하여 고난 받는다.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위에 모두 왔다. 사실은 우리가 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물론 믿는 자들도 아프고, 슬픔을 견뎌야 하며,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삶 가운데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삶의 일상적인 시험들에 더하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비난으로 고통받는다(마 10:22; 24:9; 막 13:13; 눅 21:17).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킴이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요

16:33).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것이다(갈 5:11).

믿는 자는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것임을 안다(롬 2:10).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선을 위하여 명하신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 자연의 원리와 사람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피조물의 행위를 통치하신다(잠 16:1, 4, 9, 33; 21:1). 모든 시험받은 믿는 자가 이 다섯 가지를 확신하도록 하자.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험을 보내셨다(롬 8:28).
2.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험을 통하여 당신을 격려하실 것이다(고전 10:13).
3.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험 가운데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사 41:10).
4.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험을 선하게 끝나게 하실 것이다(벧전 1:7).
5.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험을 통하여 그분 자신께 영광을 가져오실 것이다(롬 11:36).

섭리의 시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그분을 찾도록 만드셨다(5, 12 절). 우리 시험들은 많은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다. 불이 금을 제련하듯, 믿는 자의 시험들은 그에게 거룩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땅에 속한 비탄들의 한 가지 축복된 결과는 이것이다. 그것들은 기도 가운데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지게 한다(시 107:1-31).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고뇌와 고통과 투쟁의 씨를 심으신다;

이것들은 땅에 뿌려진 잡초들을 썩이 트게 하고 숨통을 조인다;

시험들은 약속을 달콤하게 한다; 시험들은 기도에 새 생명을

시험들은 그분의 발에 나를 데려가서, 나를 낮추며, 나를 그곳에 둔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믿음은 베드로에게 자신과 확신과 만족과 평강을 큰 역경 한 가운데에서 주었다(6 절). 베드로는 잔인한 폭군에 의해 처형당하기로 계획되었지만, 그는 평화로웠고, 너무나 평화로워서 그는 그의 예정된 사형 전날에 깊이 잠들었다. 그는 너무도 깊이 잠이 들어서 사자가 그를 깨우기 위하여 옆구리를 쳐야 했다. 그

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평화로우며, 그렇게 걱정이 없을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는 큰 역경의 한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잘 수 있게 하였던 세 가지 것을 알고 있었다. (1) 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택정과, 구속과 거듭남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다. (2)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 안에 있었으며 그의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통제의 손 안에 있었다. (3)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만약 주께서 그를 구하셨다면, 그것이 선할 것이다. 그는 그의 주인을 섬김을 계속하였을 것이다. 만약 헤롯이 그를 죽였다면, 그것은 더 나은 것이었다. 그는 그의 주인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롬 8:31; 시 56:3).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구원한 같은 손이 그의 대적들을 멸한다(7, 23 절).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하고 헤롯을 멸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두 사람 모두 똑 같은 사자로 인하여 좌절하였지만, 한 사람은 그에 의해 구원 받았고, 다른 사람은 살육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향한 섭리는 모든 공흠이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는 그것은 모든 진노이다(시 92:1-15).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딸들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한 공흠의 사자이다(히 1:14).

그러나 버림받은 자에게는 그들은 진노의 사자이며 공의의 집행자들이다(마 13:41-42).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한다(24-25 절).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고 복음의 확산을 멈추게 하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장은 헤롯이 하나님에 의해 죽임 당하고 복음이 승리하며 확산되는 것으로 끝난다. 따라서 그것은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계시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전하다! John Newton 이 한번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법계가 무너지는 것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머리 속에서 헤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 37.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

사도행전 13:1-13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계시하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이 세상 전체에 전파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마 28:18-20; 막 16:15-16; 눅 24:45-48; 행 1:8). 각각의 지역 교회는 신성한 위임에 의해 존재를 위한 한 가지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계획은 교회가 복음을 위한 등대, 울려 퍼지는 판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도의 중심이어야 하며, 더도 덜도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보존되고 그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딤후 3:15). 각각의 믿는 자는 선교사, 즉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요 20:21; 사 44:8). 우리의 일과 목표와 삶에 있어서 직업은 주의 양을 찾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찾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을 버려두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믿는 자는 천국에 완벽하게 합당하다(골 1:12). 우리는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았고, 완벽하게

의로우며, 죄사함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 안에서 의로운 본성을 받았다. 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육신의 몸 가운데 살도록 이 세상 안에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도록 구원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려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3 장에 성령은 세상 복음화의 시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이 장에서 복음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앞서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다. 여기에 앞서 주요 대언자는 베드로, 할례의 사도였다. 이 지점부터 그것은 바울, 무할례의 사도이다. 여기에 앞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다. 이 지점부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 여기에 앞서 교회는 여전히 유대 율법적 경배의 많은 족쇄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 지점으로부터 앞으로 속박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다.

사도행전 13 장은 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땅의 사방으로부터 그분의 택하신 자를 모으기 시작하셨을 때 역사 가운데 그 지점을 표시한다. 이 공과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역사에 대하여 일곱 가지 사항을 심사숙고 해볼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각 부문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던 택정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갈망이며 뜻이고 계획이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땅 위의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로 세워진다(계 5:9).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실 사람들 모두 가운데 일부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할 사람 일부가 있다. 땅의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모으시는 계획은 언제나 있어왔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그분의 교회는 그분의 소유로 세워진다...

“각 열방에서 택한 자는, 여전히 모든 땅 위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함의 계획이 결코 단 하나의 종족이나 특정 계급의 사람들에게 한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은혜로운 그분의 계획은 모든 종족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곳으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로부터 온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창 22:17-18; 출 19:46; 사 11:10; 49:6; 히 1:10; 요 3:16; 행 9:15; 갈 1:15-16).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는 분명히 구원 받을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그분의 교회를 보내셨다. 얼마나 놀랍고 겸손하신 은혜인가! 분명,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방법이 없이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복음을 구원 받아야 할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가져가기 위하여 구원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려 택하셨다(행 26:16-18).

둘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는 그분의 교회이다(1-5 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계획은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리되어 있고 복음 선포의 일에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교회를 피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와 별도로 전도의 일을 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방법 안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체 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부르신 그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도의 일은 공개적이든 사적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의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행해질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수호자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이다(딤후전 3:15).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위한 청지기들이다(고전 4:1-2; 딤후전 4:10). 하나님은 복음을 그분의 교회에 맡기셨다. 그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셋째, 주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전도자들을 그분의 교회 안에 세우신다(1-5 절). 우리는 때때로 결점이 없으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 있을 때, 언제나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모든 참된 복음 전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다섯 가지를 보여준다. (1)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2)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그 사역의 일에 은사를 받고 부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된다. (3) 그들은 복음의 일에 분별되어 있다. (4)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인도 받는다. 그리고 (5)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넷째,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언제나 효험 있다(6-12 절). 하나님의 종들 중에 아무도 헛되이 수고하는 자는 없다(사 55:11).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않는다(행 28:24). 어느 쪽이든,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된다(고후 2:14-17).

다섯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은 복음을 전파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함으로 믿어 그들을 구원하시려 선택하셨다(롬 1:16; 10:14-17; 고전 1:21-23; 히 4:12; 약 1:18; 벧전 1:23-25). 하나님의 거룩하고 주권적인 성품과 인간의 잃어버리고 파멸한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효험 있는 대속의 속량의 신실한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메시지이다.

여섯째, 신실한 증인들은 많은 반대를 직면하며 이 세상 가운데 고통스러운 실망들에 고통 받을 것이다 (6-8, 13).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거짓 예언과 거짓 종교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로 인하여 때때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죄의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서로에게 실망할 것이며, 심지어 마가 요한처럼 믿는 자들 사이에도 실망할 것이다(13 절; 15:36-39; 딤후 4:11).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일을 해 내어야 한다.

일곱째,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목적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소유하실 것이다(요 6:37-40). 그리스도는 그분의 속량받은 자를 갖게 되실 것이다(사 53:10-11). 그 영계서 부름 받은 자들을 갖게 되실 것이다(엡 1:13-14).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 38. 복음의 소식

사도행전 13:14-41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공회의 율법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이 만약 “사람들에게 권면할 어떤 말이” 있다면 할 것을 물었을 때,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행 13:14-16). 그의 설교가 우리를 위하여 17-41 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7장에서 스테반이 전했던 것을 들은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것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었다. (1) 구약 성경과 (2)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바울은 그들의 관심사에 있어서 그들과 일치하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는 매우 담대하게 단순하고 실수 없이 반박할 수 없는 용어로 전하였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여서 그의 설교를 마쳤을 때 공회에 있던 모든 자가 그가 말하였던 것을 정확히 이해하였다. 그렇게 훈계 함으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대한 담대하고 분명한 선포이다(고전 2

1-8). 성경의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다섯 가지 점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 (17-19 절).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섰을 때 그의 입술에서 떨어졌던 첫 마디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다. 첫째, 그는 택정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셨다.” (17 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그분 자신을 알게 하셨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지나치셨다. 그분의 이스라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절대적 주권의 문제였다 (신 7:7-9). 그렇다 할 지라도, 그분의 주권적이고 택정하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의 타락한 자손 중에서 많은 수를 구원하시려 택하셨다 (엡 1:3-6; 살후 2:13-14).

둘째로, 바울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했다. “그들을 높으신 팔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17 절).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 혹은 이스라엘의 구속은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과 구원의 예표였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개별적이고, 구별된, 거부할 수 없는 효험 있는 은혜였다. 이집트인들에게 아무런 희생도 드려지지 않았고, 아무런 공훈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은혜도 행사되지 않았다. 그 일 가

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은 택함 받고 선택된 백성을 위함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그분의 영의 구원하는 운행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을 구속하셨다(사 53:8; 요 10:11, 15).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고 부르시며,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이었다(시 65:4). 심지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행해진다(요 17:9, 20).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데려오기로 계획하였던 자들을 그분은 데리고 나오셨다. 이스라엘의 굶있는 짐승들조차도 남겨놓지 않았다(출 10:26).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속하고자 계획하였던 모든 자들은 그분으로 구속되었고(갈 3:13) 그분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요 6:37-40).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롬 8:28-30).

셋째, 사도는 그분의 섭리에 속한 은혜와 역사의 실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19 절). 그것은 그것을 사람의 선택이나 뜻에 무관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잠 16:33).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그들의 대적들을 정복하셨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의 소유를 취하였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그렇다 할 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들의 대적과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정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쟁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쟁취하셨다! 믿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이 것들의 소유권을 취한다.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죄로 충만함 (18-21 절).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 죄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다 (시 78:103). 그분의 택하신 자의 표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셨던 백성들은 죄 많고, 자격이 없으며, 반역적인 사람들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단지 정죄 받을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선포한다 (롬 5:12; 엡 2:1-4).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확실한 성취 (22-23 절). 구약 역사의 이런 간단한 조사를 통하여 바울은 그의 청중들에게 한 가지 점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구속자와 왕과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는 분명 오신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지혜롭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므

로 사람의 부패한 마음과 죄로 충만한 행위들조차도 그분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 사실상,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도구들이다 (시 76:10).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죄와 반역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에 구원자 예수를 세우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 (24-39 절).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였다 (고전 2:2). 앞의 구절에서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이 지점에 이르게 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의 이 부분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말한다.

1. 그리스도께서 오심(24-27 절). 침례자 요한은 단지 하나의 임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그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는 그분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29-34).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요 1:14)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아

들은 자신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66. 그리스도께서 죽으심(27-29 절). 그분은 분명 죄가 없으셨고 의로운 분, “죄를 알지 못한” 분임에도 불구하고(고후 5:21),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멸시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의해 거절 당하셨으며 율법의 정죄 아래 죽임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으셨다(행 2:23).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일반적인 범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다(사 53:4-11; 롬 5:6-8; 갈 3:13; 벧전 1:18-20; 3:18).

67.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30-37 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임과, 거룩한 공의의 만족으로 그에게 전가된 그 백성의 죄들을 없애 버렸으며, 그의 모든 백성 위에 “다윗의 확실한 공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공훈)이 주어질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 선포이다.

68.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33-34 절).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는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로써 선택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다윗의 확실한 공훈”을 분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신다(요 17:2).
69.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38-39 절)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희생으로 성취된 구속의 전갈이다. 그것은 만족된 공의의 근거와 전가된 의 위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대가 없는 죄 사함과 완전한 의롭게 함의 선포이다(요일 1:9; 롬 3:24-26).

사람의 책무 (40-41 절).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다.”(26 절). 그것은 이를 믿는 모든 자의 책무이다. 만약 믿는다면,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만약 믿기를 거부한다면, 만약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한다면, 끔찍한 비통함이 당신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이다(막 16:16).

## 39.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사도행전 13:42-52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하였으며”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복음에 저항하여 말했다. 그들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를 거절하였다.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경멸하며 은혜로운 사자들을 경멸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위에 파멸을 가져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귀한 사역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 그들의 형제와 친구인 마가 요한의 불안정함도, 유대인들의 불신과 반대도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방향을 이방인들에게 돌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들이었다(사 55:11). 성경의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가르침 받는 다섯 가지 공과가 있다.

첫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42-44 절). 바울이 설교하기를 마친 후,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무리를 지어 나갔다. 그러나 거기 몇 사람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로 마음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주 동안 다음 안식일까지 그들에게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둘은 기꺼이 전하였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전파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많은 수가 유대 공회와 길거리에 모여들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혼에 대하여 영원히 매인 죄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잡았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모든 목사와 모든 복은 전도자는 반드시 사역의 일과 복음 전파를 신실하게 하는 일에 자신을 가차없이 드려야 한다(딤후 4:12-16; 딤후 4:1-5).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멸망해가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신실한 증거를 갖고 모든 기회를 구하고 잡아야 한다(요 20:21, 행 1:8).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는 모든 핑계를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핑계치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것은 사람들이 그분이 없이 멸망하는 것에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반작용을 두려워 해서든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곳에서 기뻐하며 전하는 많은 자들은 종종 조롱 받는 것이 두려워 한 사람에게 전하기를 거절한다.

둘째,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45-46 절). 그리스도의 대적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제시하는 누구에게나 반대할 것이다(고전 1:22-24).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파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을 반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삼상 8:7).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설교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운 전갈을 거절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결 받았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의 방법을 경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

으로 그들 자신 위에 내려진 판결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John Gill).

이것은 매우 확고한 문제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 거절로 버림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그들의 정죄에 버렸으며 그들의 마음을 불신 가운데 단단하게 하였다(호 4:17; 요 12:39-40; 롬 11:8-11). 그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은 들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복음을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 누구에게나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복음을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네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1.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른다(요일 4:10).
2.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멸한다(히 10:29).
3.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다(사 63:10).
4.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심판이다.

복음에 대한 사람의 거절,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의도적 행위이다. 믿지 않는 마음은 매우 완고하게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엎드리게 되기 전에 파멸을 선택한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그분



의 진노에 고통 받는 저주받은 자가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의 열매를 먹는다고 선언하신다 (잠 1:31).

셋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람의 신실함은 그의 성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47 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메시지가 거절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역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르침에 조금 덜 독선적이었다면 그들이 좀더 성공적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은 그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언제나 했던 것을 단순히 행했다 - 그들은 복음 전파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그들의 메시지도, 그들의 방법도, 그들의 방식도 바뀌지 않았다.

47 절(사 29:6)에 가리키는 예언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지만, 바울은 그 예언을 모든 참 복음 전파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전 3:9).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께 매우 가까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과 구원자들로 불려진다(마 5:14; 욥 21; 딤후전 4:16).

하나님은 그분의 종에게서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신실함. 그분은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심을 정말 요구하신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시하는 것과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요구하신다(고전 4:1-2; 고후 4:1-7).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람들의 혼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신실하게 정말 발견되도록 하자.

넷째,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로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다(48-49 절). 혹자는 믿고 혹자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성취된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불신으로 복음은 세상 전체의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전해진다(롬 1:22-23, 32-36). 48 절과 49 절은 극명하게 네 가지 복음 진리들을 보여준다.

1. 불신은 영원한 저주의 원인이다(46 절; 요 3:36).
5. 택정은 구원하는 믿음의 원인이다(살후 2:13-14).
6. 시간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모두 영원 가운데 영생을 받았다(살전 1:4-5).

7. 복음 전파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전 2::14-16).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고전 15:58).

다섯째, 그들의 책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 앞에서의 신뢰와 기쁨을 주신다(50-52 절). 복음 전파를 이유로 안디옥에서 쫓겨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혈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그들의 박해자를 향하여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었으며”(눅 9:5; 겔 33:8-9),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러 갔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책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다(딤후 4:6-8).

## 40. 두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

사도행전 14:1-28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디움으로 왔으며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한 전갈에 대하여 이고니움에서 사람들 사이에 큰 분열이 있었다. 하나님의 종들은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였으며, 루가오니아로 달아나지 않았다면 돌에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절름발이 남자를 치료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러 왔으며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다. “그들은 바나바가 주 발언자였기 때문에 그를 주피터라고 불렀고 바울을 머큐리라고 불렀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동물 희생제물을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우상숭배를 나무랐으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성에서 끌어내었으며,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서 그 성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그와 바나바는 다른 전도 여정을 떠났다. 그들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

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확증하였으며 모든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 그 후 그들은 비시디아를 거쳐서 밤빌리아와 버가와 앓달리아에서 말씀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고하려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27-28 절; 행 13:1-3).

사도행전 14 장의 요약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 시대의 신실한 복음 전파자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으로서 성령에 의해 받쳐지고 있다. 사도행전의 전체 책은 초대 교회 가운데 복음 전파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개개인의 믿는 자들이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의 일과 책무에 대하여 잘 알게 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함은 분명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야 하는지 확실한 질문들이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가? 사역의 일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어떻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하며,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답변된다(딤후 전 3:1-7; 4:12-16; 딤후 후 4:1-4; 딤후 1:5-9). 그 질문들은 또한 예

시로서 답해진다. 사도행전 14 장에서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의 참되고 신실한 전파자들로써 제시한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전파하였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종교인들과 속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멸시 받는 사람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전갈은 언제나 같았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거기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다.” (7 절; 고전 1:17-24). 모든 참 복음 전파자에게는 단 한 가지 전갈이 있다 -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다(고전 2:1-5). 그 전갈과 관련하여 그들은 모두 직접 보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사 52:7-8).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이며 각 복음 전파자의 주제이다 (눅 24:27, 44-47). Richard Sibbes가 한번은, “전도는 그리스도를 세상 위 아래로 모셔오는 마차다.”라고 했다. 전도자들에게 편지하면서 Richard Baxter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분명히 옳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아주 적어도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포함한다.

1.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의 위격의 영광(요 1 1-3, 14, 18; 고후 8:9; 빌 2:5-8; 딤후 6:14; 히 1 1-3; 요일 5:7).
8.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역사의 효험 (사 53: 10-11; 롬 5:19; 8:34; 갈 3:13; 히 9:12; 10:10-14).
9. 그분의 통치에 있어서 우주적인 주권 (요 17:2; 롬 14:9; 고전 15:25; 빌 2:9-11; 히 10:12-13).

각각의 전도자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그의 사역의 주제로 심판 받아야 하고 시험 받아야 한다. 만약 그의 사역 주제가 현저히 탁월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엮드리거나 완강한 불신을 갖고 그분께 대항 한다. 주권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께 냉담하게 서기란 불가능 하다 (행 13:48, 50; 14:1-5, 19-20; 고후 2:14-16).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으며, 언제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 길 잃은 종교주의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적 거리는

방해물이다. 길 잃은 지식들인 이방인들, 길 잃은 지식인들, 세상의 상상 속의 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들의 혼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전 1:23-24).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전하였다.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다.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날도 같다 -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에는 “그분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 (요 7:43).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비록 그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자신이 단호히 헌신 하는 사람들임을 입증하였다 (19-21 절). 비록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게 버려졌지만, 그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후에 그에게 돌을 던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려 돌아갔다 (21 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주신 일에 헌신하였다 (행 20:24).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였기에 그들은 확고한 신실함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고후 4:1-7). 그들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고, 또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했으며, 신실하게 사람들의 혼에 사역하였으며, 신실하게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였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문을 여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들의 일을 행하였다. 믿음이 하나님의 종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의존적이지 않게 만들었다 (행 13:51; 창 14:21-23). 믿음이 수 많은 영향력 있고 강력한 적들 앞에서 복음 전파자들을 담대하게 만든다 (행 15:26). 그들은 담대함으로 살고 전도한다. William Gurnall 은, “담대함이 없는 전도자는 전혀 쓸모 없는 닳아버린 줄과도 같다!”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복음의 진리의 방어에 있어서 담대하게 만든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자극을 주었는가? 분명히 그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자극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들을 자극하였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 모두를 자극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려는 갈망과 (고후 4:3-6; 왕상 1

8:36-37)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한 열망과 (고 전 9:22)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의 영적이고 영원한 전쟁에 대한 순수한 염려였다 (행 14:22-26).

무엇이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커다란 용기와 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아무것도 그들을 낙심시켰던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27 절). 그들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것들이 있다. (1)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식하였다.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일어났던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고 했다. (2)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그들 앞의 문을 열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3)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승리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과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의 수고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 41.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1-41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수 많은 교회 종교회의가 있어 왔다. 어떤 것은 기념비적 중대성을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의 결과가 없었다. 교파 교회들은 교파 교회들 사이에 교리와 실행들을 결정할 목적으로 정기적인 총회를 갖는다. 그 종교회의에서 세 가지 사항이 언제나 일어난다. 토론, 협상 그리고 합의이다. 반대파들이 연합되고 협력적인 프로그램 안에 함께 어울리고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파 생존의 길이다. 그러나, 원칙과 신념의 사람들과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복음을 믿는 것이 종교적 행위와 활동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하기란 가능하지 않다.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그런 종류의 종교 회의가 아니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리를 토론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모였다. 그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율법의 굴레 아래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두려 하며 그들의 혼을 타락시키려는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 시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회

의를 열었다. 많은 사도와 장로와 전도자들이 참석했으나, 단 세 사람만 발언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이다. 그들은 개인과 교회가 율법주의의 단합된 폐기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15 장에서 누가는 그 종교회의의 역사적 대화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 장에서 그것의 신학적 문제를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교리를 토론하기 위한 교회 종교회의가 아니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바꾸거나 율법주의자에게 전혀 어떤 배경도 주는 것을 거절하였다 (갈 2:5, 21). 그는 예루살렘에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절대적 자유함의 교리가 대중에게 공언한 것이고, 심지어 사역의 중심 영역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던 자들에 의해서 조차 공언하러 갔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사도와 장로와 전체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28 절), 율법주의를 공공연히 비난하였고, 모든 전도자들을 모든 진실성의 율법과 적법성을 벗겨 버렸다.

율법주의자들과의 대치 (1-3 절) -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율법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독단적이고 자유 논객 전도자들 몇몇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은혜 만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의 구원의 복음 교리를 믿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로 인한 역사를 혼합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예를 들어, 율법의 교리와 영은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한다 (갈 2:1-5).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선포한다. 그것은 의의 근거, 성화의 척도, 믿는 자의 생명의 법,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한 동기 혹은 천국에서 보상의 근거로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든 아니든지 간에, 믿는 자를 율법의 멍에 아래에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용서할 수 없이 사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포한다 (롬 6:14-15; 7:4; 10:4; 갈 3:24-26; 5:1-4; 골 2:8-23; 딤후 1:5-10). 절대로, 단 한번이라도 신약 성경 안에서 믿는 자가 율법에 근거하여 무엇을 하라거나 율법에 의해 동기가 되는 것을 명령 받지 않았다. 적어도 생명의 법이 되는 것으로부터 율법은 “사망의 직무”라고 바울은 선포한다 (고후 3:7).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전하는 것이 거룩함을 고취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죄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고전 15:56). 아무도 혼돈하지 말라. 문제는 신성하지

않거나 신앙 없음이 아니다. 문제는 믿는 자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마음의 동기이다.

지도자들의 종교회의 (4-21 절) - 그 시대에 교회 안에 많은 은사 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첫 번째 세대에 그분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던 자들이었다. 종교회의에서 첫 번째 발표자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이었다 (4-6 절). 두 번째 연사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였다 (7-11 절). 그의 전갈은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었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9 절), 그리고 (2) 구원은 은혜로만 존재한다 (11 절)는 것이다. 12 절에서 바울은 일어나 다시 말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와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였다 (13-21 절). 그가 결론적인 전갈을 한 것은 적합하였다. 그는 네 가지 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신약 시대에 믿는 자에게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사도들의 의견과 성령의 의견, 신약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유대인과 한 몸 안에 이방인들을 부르심은 선지자들에게 의해 강조되었다 (13-17 절; 사 11:10; 암 9:11-12).
10. 이스라엘의 몰락과 이방인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18 절; 롬 11:25-26).
11. 이방 세계의 믿는 자들은 결코 노예의 멍에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외에 아무도 갖지 않았던 것이다 (19, 10 절).
12. 냉담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 믿는 자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연약한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20-21 절).  
 [주] 분명히 간음은 무관심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악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가르침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무관심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신의 유통 (22-34 절) -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세계에 있는 교회에 보낼 서신들을 작성하였다. 서신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

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다. 서신은 거짓 선지자인 모든 율법 전파자를 알려주었고(24 절),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천거하였으며(25-26 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유함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확인시켰다 (28-29 절). 교회 내에서 그 서신이 읽혀졌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큰 기쁨을 주는 이유가 되었다 (31 절).

두 동역자들 간의 충돌 (36-41 절) -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시간 함께 수고하였다. 그들은 전투의 열기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섰다. 그들은 적어도 한동안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사탄은 교활한 적이다. 사탄은 박해로 사람을 결코 놀라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을 교리적으로 분열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늙은 뱀은 약점을 발견하였고 이 두 형제들을 나누기 위하여 그것을 착수하였다 - 마가라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였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에게 매우 인정이 많았던 것 같다. 아마 바울은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들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두 친구는 화나서 분쟁 가운데 서로를 떠났다.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의 선과 복음의 축진을 위하여 이 악한 것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셨다 (시 76:10). 하나의 전도 팀 대신에 이제 두 사람을 두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신다.





## 42. 복음의 정결케 함

사도행전 15:8-9

모든 참된 믿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결한 삶으로 그분을 존귀히 여기기를 갈망한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믿는 자의 소망은 그분 안에서 정결함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품는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요일 3:3). 그러나 어떻게 이 정결함이 성취되는가? 그것이 내가 이 공과에서 답하고자 원하는 질문이다.

구약에서 모세 시대의 예표와 그들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꼼꼼하게 순종할 요구를 받는 의례상의 정결함의 많은 형태들이 있다. 성막에서 그리고 후에 성전에 있는 제기들은 물로 씻고 피를 뿌림으로 의례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제사장들과 그 예복은 의례적인 세척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여자들은 혼인 전과 출산 후, 그리고 모든 주기의 생리 후에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정해진 절기와 신성한 경배의 거룩한 규례들을 지키기 전에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율법적

수단, 의례적 정화는 할례였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인침은 상징적으로 거듭남 가운데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정결케 함을 묘사한다 (빌 3: 3; 골 2:11).

정결함에 대한 구약의 그와 같은 의례들은 모두 외적이였다. 그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정결케 함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율법 시대의 마지막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는 유대인의 종교는 근본적인 우상숭배와 자기의와 의지에 의한 경배로 타락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실질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으로 외적 의례를 단지 준수하는데 관심하였고 그들의 외적 종교 예배를 하나님께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근거로 만들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마음이 혐오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적이고, 의례적으로 깨끗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 23:25-28; 눅 16:15).

비록 그런 종교 의식들이 단지 임시적 상징들이고 복음의 정결함의 그림들이었지만, 초대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이방인 믿는 자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행 15:1, 5). 바리새인들이 교회 밖에서 박해하는 것이 매우 나빴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의 혼을 타락

하게 하면서 교회와 연결되고 복음을 왜곡할 때 악함은 참을 수 없었다 (행 15:24; 갈 1:6-8; 2:4-5; 3:1-3; 5:2, 4, 12). 바울이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 “거짓 형제들”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은 여전히 불화를 휘젓고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을 율법의 굴레로 데려가려 애쓴다. 그들은 거룩과 정결을 외적 문제나 모세의 율법에 법적 순종이나 (더 나쁜 것은) 종교법과 사람의 관습에 관한 문제로 만든다.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직면하고 고발하였던 것이 율법주의의 영과 교리이다. 용서할 수 없는 해악이다. 베드로는 율법적인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정반대의 길을 가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한다 (행 15:10; 골 2:16-23; 딤후전 4:1-5). 사도행전 15:8-9에서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을 질책하며 그 종교회의에 참석한 자들에게 모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하여 일깨우면서 그들의 교리를 나무란다 (행 10:43-44). 하나님의 영의 말씀하심으로,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도 그에 대하여 무지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

님 앞에서 동등하다. -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하늘 왕국에서 두 번째 계층의 시민은 없다 (엡 2:11-19; 4:1-7; 골 3:11).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께서 받으심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물과 우리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 (골 2:10). 우리의 경험들은 변할 수 있고, 이 땅 위의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 받는다 (요일 3:1)...동일한 은혜로 선택 받는다 (엡 1:4-6)...동일한 특권으로 복 받는다 (엡 1:3)...동일한 피로 구속된다 (벧전 1:18-20)...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난다 (엡 2:1-4)...동일한 의로 옷 입혀진다 (렘 23:6)...동일한 신성한 본성에의 참여자들이다 (벧후 1:4)...동일한 가족에 입양되었다 (갈 4:4-6)...동일한 기초에 건축되었다 (엡 2:20-23)...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마 6:9)...동일한 주인의 종들이다 (고전 7:20-23)...같은 소망의 소유자들이다 (롬 8:24-25)...동일한 약속에의 참여자들이다 (고후 1:20)...동일한 기업의 상속자들이다 (롬 8:17)...그리고 동일한 중재자의 수혜자들이다 (요 17:20-26).

둘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졌고 불결하다 (마 15:17-19; 롬 8:7). “이러한 마음의 더러움은 몸의 모든 지체에 이르고, 혼의 능력에 이른다.” (John Gill). 로마서 3:9-19를 읽어보라. 인간 마음의 총체적인 타락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1.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고 했다. 의례적인 씻음, 도덕적 개선, 비통한 회개, 침례, 그리고 종교의식이 결코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만이 정결하게 할 수 있다 (히 9:12-14; 딤후 3:4-7).
70. 정결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의 사랑의 흐름을 바꾸며, 우리를 혼드는 동기를 변하게 한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함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며, 자아와 죄가 없는 동기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역사다!” (C. H. Spurgeon).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 우리를 죄책감과 율법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함 (히 9:14; 요일 3:21).
-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압도하는 깨달음 (고후 5:14).
- 우리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으로 이끌음 (아 1:2, 2:4, 6).
- 우리를 어떤 정도에 이르는 다양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특권들을 깨닫게 함 (엡 1:3-14).
-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약속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에 고정함 (고후 4:17-5:1; 골 3:1-3; 요일 3:1-3).

71. 믿는 자의 마음의 정결케 함은 신성한 은혜를 계속하여 매일 실행하는 것이다 (요 13:6-10).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 여정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위에 죄의 먼지를 계속하여 모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혈의 샘에 계속 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한다 (요일 1:9).

## 43. “우리가 믿노라”

사도행전 15:11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그가 그의 서신들에서 기록하였던 것들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말한 말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계시를 받았다 (28 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11 절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사도는 서서, “우리가 믿노라”고 말했다. 그는 담대하고, 굽히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교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말하면서, 베드로는 그 자신만을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참된 복음 전파자들과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가 말할 때, “우리가 믿노라.”고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것은 모두가 믿어야만 한다. 이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이단이며, 저주 받을 것이고 사람의 혼을 파멸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다.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다 -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그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했던 말은, 그의 서신들에서 기록하였던 것들처럼, 성령 하나님에 의해 계시를 받았다(28 절). 이 11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의 학습과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사도는 서서, “우리가 믿노라.”고 말했다. 그는 담대함과 단호하고 완고하며 신념 있는 신조로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말하며 베드로는 그 자신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도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자와 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가, “우리가 믿노라.”고 말할 때, 그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는 모두가 믿어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이단이며, 사람의 혼에는 저주가 되고 파멸하게 한다. 이것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은혜로 만에 의한 구원의 이 복음 교리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가 증거함에 있어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효험 있는 은혜의 전갈로부터 벗어난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사도의 고백이다. 조금 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은 본질적인 조화와 교통 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있으며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은혜로 만에 의한 구원에 대한 복음의 교리는 중요하다.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의 교리는 분명하게 천명된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여기서 벗어나는 자들은 모두 사도의 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오늘날 가르쳐지고 있는 것의 많은 것을 분명히 믿지 않았다. 베드로의 선포는 완전하다. 그것에는 사람들의 혼에 중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의례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두 가지 명령들, 침례와 주의 만찬이 경배와 순종의 중요 방면들이다. 믿는 자의 침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에 대한 믿는 자의 공개 고백이다 (롬 6:4-6).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에 대한 교회의 축하이며, 복음의 상징적 그림이고,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위격과 역사에 대한 가시적 기억이

다 (고전 11:24-26).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개인적인 순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것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있었던 문제였다. 분명히, 율법에의 순종이 구원이거나 성화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결과라면, 베드로는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속박의 멍에 아래 두려는 시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10 절). 개인적인 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세상의 신조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실 것이다.”이다. 그 신조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자만에 대항하는 대역이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난다. 자기 의가 우리 안에 흐른다. 때가 되면 그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의를 고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적이다.

“모든 인간적 교만스런 생각들을 소멸하고, 하나님만 증가하도록 하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를 택한 것은 사실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이다 (요 1:11-13; 롬 9:15-18; 딤후 1:9).

베드로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이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의 모든 것, 마지막에 시작되는 것으로부터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교리이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이다. 은혜로 만의 구원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인이다. 은혜와 행위를 뒤섞으려는 어떤 시도도 적그리스도이다. 베드로의 말에 일곱 가지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 가르치고 있다.

1.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 그는 구원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분은 그분이 뜻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 (요 5:21; 17:2).
72. 사람의 완전한 타락 - 베드로가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롬 5:12; 엡 2:1-3).
73.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정하심 - 사실상, 베드로가 이 단락에서 택정하심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자유의지, 곧 행위 종교에 의해서 타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언제나 택정함을 포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분에 넘치며, 변치 않음을 이해하였다 (벧전 1:2-5).

74. 그리스도의 한정된 속죄 - 베드로가 “은혜”에 대하여 말할 때,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흘러가는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대속물로 죽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효험 있게 얻어졌던 그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 (히 9:12; 뱀전 1:18-21; 2:24). 우리가 깨끗해질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 구속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얻어졌다 (사 53:8; 요 10:11, 15, 26). 둘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효험 있게 성취되었다 (히 9:10; 사 53:10-12).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충만과 효험을 보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른 어떤 복음 진리도 분명하게 볼 수 없다.
75.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 - 베드로는,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말하지 않고 확실한 일로서 말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시 65:4; 110:3).
76.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 - 베드로는 그가 믿었던 것에 대하여 안개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것이 영원함을 알았다 (전 3:14). 그는 하나님의 약속(요 10:27-29)과

그분의 능력(벧전 1:5)과 그분의 불변성(말 3:6)이 절대적이며 확실하며 영원한 그분의 택하신 자의 보증을 요구함을 알았다.

77. 모든 믿는 자들의 동등함 - 베드로가,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을 믿노라.”고 말할 때, 유대인 믿는 자들은 이방인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음을 함축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다! 모두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골 3:11).

이것은 모든 참된 믿는 자의 고백이다. 구원 받은 자는 모두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으며 기쁘게 그것을 인정한다 (고전 15:10). 자기의의 도덕주의자, 종교의식주의자, 그리고 부도덕한 죄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모두 구원받아야 한다. 은혜는 조건이 없다! 그것은 선행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 선행이 부족하다고 거절되지 않는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씻으며, 그리스도의 의로 모두 옷 입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받아들여지게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은사를 받지만, 아무도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신실하지만, 아무도 더 은혜를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신하지만, 아무도 더 사랑받지 않으며, 아무도 더 안전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이다 -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 44. 성령 충만한 사역

사도행전 16:1-8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자로 확증을 받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히 2:4)는 성경의 정전이 완성되고 사도들이 모두 죽었을 때 그쳐졌다(고전 13:10). 성경은 완벽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다.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제할 수 없다(계 22:19).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계시를 받은 사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도들을 사도로서 구별되게 하는 초자연적 기적적 특성의 그런 은사들에 대한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단지 사도시대에 그분의 종들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수고 안으로 부름 받고 인도된 모든 참된 복음 전파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사역을 실행한다. 사도행전 16:1-8은 그와 같은 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장은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이다. 우리는 마나바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



가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역이 무엇인지 이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받아 적게 한 사역이며, 하나님의 영에 순종함과 그 안에서 통제 받는 사역이다 (엡 5:18). 이 여덟 절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역을 특징짓는 네 가지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자 (1-3 절) - 성령 충만한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 곳마다 사역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고 자격을 부여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 받지 않는다 (딤펴전 3:1-7).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가 복음 사역의 일을 맡긴 디모데라 부르는 한 청년을 발견하였다 (딤펴전 4:14; 딤펴후 1:6). 바울이나 디모데는 주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랐지만,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신 청년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디모데는 이른 나이에 준비하시기를 주께서 시작하셨다. 디모데의 모친인 유니스는 믿는 자였던 유대 여인이었다. 그의 조모 로이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디모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였다 (딤후 1:15; 3:15). 유니스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디모데”라 하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됨”이란 뜻이다. 늙은 한나처럼, 유니스는 주께로부터 아들을 얻었으며 그를 주께 드렸다. 그의 소년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육되고 주의 본성과 훈계 안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엡 6:4). 만약 부모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훈련 시키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닌 그들이 가야 하는 길 가운데 훈련하여야 한다 (잠 22:6).
2. 자녀들을 엄격히 그리고 변함없이 자녀들이 해야 할 바를 행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잠 22:15; 23:12-14; 29:15).
3. 자녀들 앞에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길을 보임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 안에서 행해야 한다 (창 18:19).
4. 그들의 자녀를 훈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향과 은혜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훈련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창 17:18).

5.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삼상 1:24-28).

디모데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와 은혜가 보인다. 비록 모친과 조모가 모두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의 부친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유니스가 그에게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다 (신 7:3; 고후 6:14). 그러나 섭리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여인의 죄로 충만한 연합을 이루었으며 주권적 은혜의 사자로 예비되었다!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들 사이에 솔로몬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니스가 불순종하도록 하시고 디모데를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그분께 대한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실로, John Trapp 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선함과 위로로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바꾸신다).” 지혜로운 의사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치명적인 독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한 약을 만드신다.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던 일을 위하여 또한 은혜롭게 예비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은혜를 체험하여야 했으며, 디모데는 그랬다. 그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도이며, 그가 살았던 공동체 안에서 흠이

없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고 “형제들에 의해 좋은 평판을 받은 자”였다 (딤후 3:7). 디모데가 어떤 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기꺼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가가 부끄럽다고 멸시한 그 섬김을 디모데는 명예로 여겼다 (행 13:5; 15:38).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디모데는 더 나아가서 입증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순종함으로 복음 사역의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3 절). 한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 전에, 그는 반드시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수 있기 전에 그는 문하생이 되어 선지자 엘리야를 섬겼다.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의 보살핌에 맡겨지기 전에 그는 바울을 섬김으로 교회를 위한 그의 보살핌을 입증해야 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이 단순히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환경의 고통스런 시련에 순종하기까지 했다 (고전 9:19-23). 디모데는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하여 섬리와 은혜와 순종으로 예비된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전갈 (4 절) -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이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사이다. 그는 하나님의 전갈을 갖고 그것을 신실하게 전달한다 (고후 5:18-21). 그들은 모두 같은 전갈을

갖고 있으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듣고 받았으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취급 받는다. 그들은 성령의 계시에 따라 사도로 지명되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선포한다 (행 15:11, 18). 성경 만으로! 그리스도 만으로! 은혜로 만으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타락에 의한 손상, 피에 의한 구속, 그리고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다. 성령 충만한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전달로 특징지어지는 사역이다.

하나님에 의해 수행되는 사역 (5 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들은 복음을 좀더 나타내기 위해서 예능인들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꼭두각시 인형을 쓰지도 않고, 남자들을 위한 구단도 운영하지 않으며, 혹은 여자들을 위한 보울링 시합도 개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렸고, 그분은 역사하셨다 (고후 10:4-5). “어떤 사람은 그들의 사역으로 회심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확증되었다. 이것은 여전히 신실한 전도의 열매이다.” (John Trapp).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언제나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다 (고후 2:14-17).

하나님에 의해 추진되는 사자 (6-8 절). 신실한 복음 전파자는 성령에 의해 그들의 일 가운데 인도 받고, 지시 받으며, 동기를 부여받고,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사역의 과정이나 장소나 전갈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갈망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 하였지만, 그러나 섭리로 인하여 금지되었다. 복음이 드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금한” 곳이 있다. “이것은 수확이 거절되거나 태양 빛이 거절된 것보다 더 무거운 그 지방들에 내려진 심판이었다. 복음 전파에 단순한 특권으로 주어라.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대하 15:3).”고 Trapp은 기록하였다.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종을 보내신 그 백성들에게 있다 (암 8:11-12; 사 52:7).

## 45. 마게도니아인의 외침

사도행전 16:6-13

루스드라와 더베에 복음의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난 후, 바울과 실라는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다녔다. 바울은 아시아로 구속과 구원의 은혜로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그렇게 할 자유를 주지 않았다 (6 절). 그래서 그는 무시아로 여행하였고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문을 닫았다 (7 절).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드로아로 내려왔다.” (8 절). 저녁에 바울이 그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고 있을 때, 이상이 그에게 주어졌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계시로 그는 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을 보았다 (9 절).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으로 받아들였다 (10 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추구하였으며 이제 그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가 마게도니아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 즉시 그는 빌립보로 갔으며 마게도니아에서 그가 처음 이른 도시였다

(11-12 절). 그가 그가 가장 말을 듣고자 하였던 그 도시에서 왔던 곳에서 몇 명의 여자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였다 (13 절). 바울은 돈을 모으기 위한 대표자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선교 위원회의 승인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실 것과 그의 수고가 효과 있게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였다. 마게도니아의 파멸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할 것으로 알았던 한 가지였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했다 (고전 9:16).

여기 마게도니아인의 외침이 있다 -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할 외침이다. 이 외침과 교회의 복음주의 선교 책임에 대한 바울의 반응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잃어 버려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하에 멸망하고 있다. 멸망하는 죄인들의 일어버린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을 위한 외침이다. 이 마게도니아 인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가졌던 사람을 대표하였다. 그는 견줄 수 없이 거대한 한 나라와 제국을 대표하였다. 마게도니아는 마게도니아 왕 빌립보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땅이었다. 이 사람은 세련됨과 학문과 부와 문화



의 세상인 그리스 세상을 대표하였다. 그리스인들은 또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종교인들로서 그들의 헌신과 열의와 충직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종교적 일과 경배에 그들의 시간과 수고와 돈의 많은 부분을 들였다. 그들은 그 유명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에베소서 가장 큰 성전을 지었다. 아테네에서만 그리스인들은 30,000의 신을 갖고 있다! 바울이 그들의 경배와 헌신을 보았을 때,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고 말했다 (행 17:22). 그리스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부자 법관처럼 그들은 한 가지가 부족하였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혼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였다. 그 고상한 그리스인들의 잃어버린 상황은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잃어버렸고 멸망하고 있었다 (롬 1:18-2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종교적이고 비종교적인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들은 잃어버린바 되었다 (롬 10:1-7). 그들의 잃어버려진 상태는 도움을 위한 울부짖음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둘째, 어떤 사람들 위에든지 하나님께서 전에 내리셨던 가장 큰 축복은 그들에게 신실한 복음 전파자를 보내는 것이다 (사 52:7). 성령은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냈다. 어떤 축복인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선택 받은 몇몇의 죄인들이 마게도니아에 있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부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사역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멸망하는 백성들을 도우며 마귀의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한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자들(욥 21; 딤후 4:16), 구속자들(욥 33:24, 28),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고 후 6:1)이라고 불린다.”고 John Trapp 은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선택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명하신 그분은 또한 그것이 성취되어야 할 방법도 명하신다 (롬 10:17; 고전 1:21; 살후 2:13-14; 약 1:18; 벰전 1:23-25). 약속된 시간에 선택 받은 죄인이 발견될 때마다, 복음 전파자가 보내질 것이다. 버림 받은 자 위에 내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화에 관한 하나의 표적은 그들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지지 않거나 신실한 사람의 사역을 그들로부터 퇴각시키는 것이다 (호 4:17).

셋째, 지역 교회로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히 맏인 죄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이다 (막 16:15-16). 모든 복음 전파자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책임이다 (딤후 4:12-16; 딤후 4:1-5). 각 지역 교회는 그 스스로 복음의 축진에 헌신하여야 한다 (마 28:18-20). 그리고 각각의 믿는 자는 그 자신의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지게 만들 그의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길을 보여 줄 수 있는 빛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전갈을 당신에게 주셨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대 안에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복음을 믿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듣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다 (행 1:8).

넷째, 당신이 복음이 알려지도록 만들기를 노력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고 순종하라 (6-10 절).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도록 주를 기다린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 주실 것이다 (잠 3:5-6). 그분의 말씀의 지시와, 그분의 영의 자극과 그분의 섭리의 지시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

을 구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당신에게 계시하실 때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알 때 담대함으로 실패의 두려움이 없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것의 주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있으실 것이며, 그 약속된 끝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든지 여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은 복음의 축진을 위하여 그분의 백서의 노력들을 지시하고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삼상 2:30).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구한다면, 당신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 (고전 15:58).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그는 감옥에 넣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루디아와 빌립보인 간수라는 두 보석 같은 혼의 구원 가운데 그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셨다. 거기서 그의 사역은 큰 성공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거기서 하도록 한 것을 정확히 수행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신실하도록 하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분의 말씀, 즉 당신을 통하

여 보내신 말씀은 그분께 헛되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 55:11).

## 46. “루디아라는 이름의 어떤 여인”

사도행전 16:13-15

빌립보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으며, 강가에 기도하기 위하여 매 안식일마다 모이는 몇 사람이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 부르는 어떤 여인”이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따로 구별되었다. 이 “어떤 여인”, 하나님에 의해 선택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그 여인은 그 영으로 거듭났으며 그리스도께 부름 받았음에 분명하다.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셨다. 이제 은혜의 때가 왔다. 은혜로 선택된 그 곳은 빌립보 성 바로 외곽의 한 강변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그 시간에, “사랑의 때” (겔 16:8)에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사자인 바울을 강변의 작은 공터로 보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루디아의 회심의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어도 다섯 가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신성한 계시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

첫째, 은혜는 언제나 그 길이 있다! 구원은 은혜로만이다. 그것은 성경에 너무도 분명하게 강조해서 천명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엡 2:

8-9; 딤후 1:9; 딤편 3:3-5).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된 것처럼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다. 은혜는 신성한 속성 그 이상이다. 그것은 신성한 결정이며, 신성한 역사이고, 신성한 은사이다. 그것은 단순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갈망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품의 운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다 (롬 9:16). 하나님만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자를 결정하셨다. 누군가를 영생으로 선택하고 택정하심은 그분의 대가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였다 (렘 31:3; 엡 1:3-4). 은혜는 결코 사람에게 의하지 않고 좌우되지 않으며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딤후 1:9).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은혜가 가져다 줄 축복들, 은혜가 성취할 역사들은 모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 (엡 1:11).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고 효험있다 (시 65:4; 110:3; 사 46:9-13).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은 누군가로부터 '아니다'라는 대답을 받지 않을 것이다.” (Walter Chantry). 은혜는 신성한 선 그 이상이다. 그것은 신성한 선의 전능한 능력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단순히 제공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그분의 구원하시는 운행을 위하여 드린다 (고전 1:30-31). 은혜는 사람에게 기인하지 않고 죄에 기인한다. 은혜는 구원을 위하여 삼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하늘과 땅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분의 백성의 구속자이신 은혜로운 아들, 거듭남의 창시자이신 성령이시다.

은혜는 언제나 시간을 지키신다 (겔 16:6-8). 선택 받은 죄인이 구원 받아야 할 때인 약속된 그 시간에, 은혜는 와서 부르시고 생명과 믿음을 창조하며, 사망한 죄인을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신다. 시편 기자가,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 65:4)라고 노래한 것은 놀랍지 않다. 모든 구원된 죄인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한 은혜의 트로피이다 (엡 2:7).

둘째, 신성한 섭리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치한다. 이 공과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반복하여 보여지고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단락 안에서 우리는 “루디아라 부르는 어떤 여인”에게 은혜가 그 길을 만든 것을 본다. 은혜는 그 대상을 정했다 - 루디아! 은혜는 시간을 정했다 - 어떤 안식일 낮. 은혜는 장소를 정했다 - 빌립보 강변. 그러나 어떻게 은혜의 사



자인 바울과 은혜의 대상인 루디아를 빌립보에 함께 데려왔는가?

바울은 신성한 섭리의 아주 놀라운 역사로 빌립보에 보내졌다. 그의 의도는 모두 다른 방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빌립보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바나바와의 다툼이 그를 한 쪽으로 가게 하고 바나바는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5:36-41).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 루디아가 거기 디아두라에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때 집에 없었다. 따라서 성령은 바울이 거기 가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 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6-7 절). 마침내, 그는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것을 부름 받았고, 그의 여정에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다 (9-10 절). 그는 은혜의 때가 온 자들인 그곳에 있는 선택 받은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를 거쳐 가야만 하였다. 정확히 동시에 신성한 섭리가 루디아를 빌립보에 데리고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불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일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흠모할만한 섭리를 절대 신뢰하며 경탄하라. 흔히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한다. 대신에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요 17:2; 롬 8:28).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은 더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만 있다. 그 죄인들, 오직 그 죄인들만, 아버지께서 택하셨고, 아들이 구속하셨으며, 그 영이 부르신 자들은 구원 받을 것이다 (롬 8:29-30).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에 순종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여기 성경 안에 계시된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다. (1)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뢰할 책무가 있다 (행 17:30). (2)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요 5:40; 6:44). (3) 그리스도께 나아 올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인이든 그리스도께 올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나오므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요 6:37; 롬 10:13).

루디아는 그녀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그녀의 혼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해야 할 것을 알았고 그것을 행했다. 그녀가 빌립보에 왔을 때, 비록 예배의 집이 없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찾던 사람들을 찾았다 (13 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녀는 “하고 있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14 절). 루디아는 그녀의 혼에 대하여 정직하였다. 그녀는 주를 찾았고, 그녀가 찾고자 함으로 그분을 찾았다 (렘 2

9:12-13). 여러분은 그녀의 예를 현명하게 따라야 한다 (잠 1:23-33).

넷째,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도행전 공과에서 많은 경우 보아왔던 것처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법은 복음 전파이다 (롬 10:13-17; 고전 1:21; 딤후 전 4:16).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였다 (고전 4:1-7; 고후 4:1-7). 모든 것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곳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고 그의 보살핌에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역하였으며,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의 가장 큰 특권으로 여겼다 (엡 3:8).

다섯째, 주 하나님만 죄인들의 마음 문을 여실 수 있다. 섭리로 바울과 루디아가 함께 모이게 하였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구했기 때문에 기도처에 왔다. 그러나 안식일에 그들의 만남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종교적 행위였을 것이다. 주께서 거기 계셨다! 그가 거기서 그분의 전능하고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일하고 계셨다. 루디아는 “그 마음을

주께서 여셨던” 한 여인이었다. 그분 혼자만 하실 수 있다. 마음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마음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만 사람의 마음의 열쇠를 쥐셨으며, 어떻게 열쇠를 넣는 것을 아시고, 그분 자신이 들어가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여신다! 주는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전갈을 듣고 알며 믿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15 절). (1) 그녀는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다. (2) 그녀는 그녀의 혼을 섬기는 자들과 사랑에 빠졌다 (사 52:7). 은혜가 그녀를 관대하고 친절하게 하였다.

## 47. 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가?

사도행전 16:16-40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젊은 여인의 부정한 영을 찾은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체포되고 맞고 일반 범법자처럼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였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나? 주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나?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 있는 성난 폭도들이었나?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도록 조종했는가? 말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그분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셨다.” (시 115:3). 바울과 실라는 로마법을 어긴 죄로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체포되어 던져졌는데 (35-39 절), 그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 하나였고 공홀과 사랑의 약속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심하여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이었다.

이 단락에서 가르치고 제시된 첫 번째 공과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자주 제시되는 한 가지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16-24 절).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택정한 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여

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았다면 결코 지나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의 은혜에 속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자와 성난 폭도의 적의를 소유한 마귀의 호언장담을 좌우하셨다 (시 76:10; 롬 8:28).

하나님의 종들은 점술가의 칭찬을 거절하였다 (16-18 절). 이 사탄의 여인과 그 사탄의 종교와 관련되기를 거절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녀에게서 마귀를 내보냈다.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1) 모든 형태의 마술, 마법, 그리고 점술은 사탄의 도구로서 성경에서 금지되고 있다 (레 19:26-31; 20:6; 신 18:9-14; 사 8:19; 말 3:5). (2) 하나님의 종들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찬양과 칭찬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 악령퇴치, 치료와 방언의 은사들이 사도의 은사들이 것처럼,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사도들을 확증하는 것이다 (히 2:3-4). 그 은사들은 오늘날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활발하지 않다 (고전 13:10).

방탕한 사람들의 분노와 사악한 행위들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 (19-24 절). 사탄이 처녀에게 말하도록 영감을 주었던 것을 말하고 그 성의 사람들이 분노와 비탄으로 그들이 행하게 했던 것을 정확히 했음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선택된 죄인에게 전하도록 바울을 보내기

위하여 지혜롭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용하셔서 그가 구원받도록 하셨다 (시 76:10). 택정하심은 구원 받을 자를 선택하였다 (엡 1:3-6).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엡 1:11). 섭리는 그분의 계획의 주권적 성취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롭고 질서있는 배치이다 (롬 8:28-30).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후 5:18).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배울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한다는 사실이다 (25-28).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투옥된 것이 그들의 매일의 공급처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자신감에 기뻐하였다. 고난의 시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나 치료사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난파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도하였다. 자신의 고난을 다루기 위한 그런 것을 배운 혼들은 행복하다 (히 4:15-16; 벘전 5:6-7).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큰 고난 한 가운데에서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고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 왜 멈추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투옥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심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은 감사를 드렸다 (살전 5:16-18). 믿는 자들의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다 (빌 1:25). 그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기쁨이다.

주는 그분의 시험 받으며 고통 받는 백성을 확신시키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분이 보좌 위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방법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개입하심으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임재하고 그들을 승인함을 은혜롭게 보여주신다.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좋게 한 지진을 보내셨다 (26 절). 즉시, 바울은 죄수들이 탈출하면 스스로를 죽일 것을 알았던 그의 포획자를 생각하였다 (26-27 절). 그가 큰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하나의 본이 되었다. 그의 환란 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의 적이었던 자의 위로와 안위를 관심을 갖고 구하였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배운다 (29-34 절). 간수가 “선생들이여,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라고 울부짖는다.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처럼, 사망의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로 휩싸였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여



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그의 잘못에 대하여 그를 비난하기 보다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본질적으로, 그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다. -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여야 한다.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가족의 지체들이 그분을 믿으면,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면서, 바울은 선택 받은 죄인과 그 가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를 계속하였다 (32 절). 그들은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속의 전갈을 듣고,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였다 (33-34 절).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들은 모두 믿는 자의 침례 안에서 그분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들에게 은혜의 전갈을 갖다 준 사람을 편히 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였다.

이것을 또한 배우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는 것이다 (35-39 절). 행정관은 간수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진을 느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깨졌다. 그들과 간수 사이에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은혜이다! (고전 4:7; 15:10 을

읽어보라). 그는 주의 양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요 10:25-27). 은혜가 그를 찾았다. 은혜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은혜가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 은혜가 그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 (고후 5:17).

다섯째, 여기서 가르치는 공과는 믿는 자의 시험은 그들의 시험 가운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도록 그를 무장시킨다 (40 절). 바울과 실라는 믿음 가운데 격려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형제 자매를 함께 모았다. 나는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주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셨으며, 어떻게 은혜가 간수의 집에 이르렀는지를 말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을 떠나기 전에,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그를 신뢰할 것을 강하게 설득하여야 했으며, 그들의 외적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관계 없이 그들을 확신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속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으며, 영원히 좋다 (롬 8:28-39).

## 48. “은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니”

사도행전 16:30-34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의 관심은 일시적인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였다. 그는 시저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본성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강하게 분명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며,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있다는 것을 그와 우리에게 가르친다 (롬 3:20, 28; 엡 2:8-9; 딤후 1:9).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진짜 질문은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이다. 구원은 아무리 사실적이고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교리를 믿은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해

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고 오지 않는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위격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온다 (딤후 1:12; 요일 5:1).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사람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계시된 진리에 단순히 동의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한 위격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사 45:22). 이것이 믿음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는 방법이다 (마 16:16, 18; 요 20:21; 행 8:37; 요일 5:10-13).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겨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John Gill). 구원의 믿음은 당신의 모든 충만하고 효험 있는 죄 속량의 속죄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고후 5:21; 갈 3:13; 벧전 2:24).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간단한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다가 어렵게 만든다. 분명 믿음을 논할 때 그런 위험이 있다. 하지만, “믿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된 것처럼 사람들이 오늘날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Webster 사전은 믿다를 이렇게 정의한다. “개인적인 지식은 뒤로하고, 신뢰를 두

다; 기대하거나 희망하다; 어떤 것의 진리에 대하여 다소 간 확고하게 추구되다; 생각하거나 가정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대부분은 그분이 완벽한 사람처럼 의로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믿고, 죄인들을 구원하려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제 삼일에 사망에서 일어났으며,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용된 믿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31에서 사용된 믿다라는 그리스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어 단어도 없다. 그 말의 의미는 “에 들러붙다, 에 달라붙다, 신뢰하다, 에 믿음을 갖다, 에 의지하다.”이다. 간수에게 한 사도의 말은 아마도 보다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신뢰를 두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Amplified Version은 바울의 말의 느낌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 그것이 너 자신을 그분께 울리며, 너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부터 꺼내고 그분의 지키심에 너 자신을 맡기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에 대한 믿음은 네 가지를 포함한다. 인지, 동의, 신뢰 그리고 인내이다.

1. 인지 - 아무도 알지 못하고 계시되지 않은 구원자를 신뢰할 수 없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거나 하게 되기 전에, 복음의 전파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만 한다 (롬 10:14-17).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며, 그분이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왜 그것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알기 전에 믿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믿음은 저돌적인 행동이 아니다. 믿음은 신성한 계시에 근거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분명 있다.
6. 동의 -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동의해야 한다. 마음이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조화되고 동의 안에 있기까지 믿음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죄, 의, 심판-에 대한 그분의 계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후 5:20; 요 16:8-11). 여전히 더 많은 것이 있다.
7. 신뢰 -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마음의 자신감이다. 이 신뢰, 이 자신감은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나타냈던 것이다 (딤후 1:12; 4:6-8).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혼을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 그분의 의와 속죄와 중

보와 은혜와 통치에 확신있게 안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8. 인내 - 믿음은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신뢰함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구약의 성도들 처럼 “믿음 안에서 죽을 것이다.” (히 11:13). 마지막까지 보존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교만한 죄인들이 구원받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바로 단순함과 용이함이다. 하나님께서,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니요, 나는 무엇인가를 할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혼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한 다른 길이 없다! 죄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함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사신 대속주의 공로와 능력에 자신을 위탁함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은혜로만으로, 믿음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구원은 자랑하기에는 너무도 겸손하며, 자의의가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속에 믿음을 창조하

시지 않거나 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도 하지  
도 않을 것이다 (엡 1:19; 2:8-9; 빌 1:29; 고 2:12).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들에게 오는 그 구원은 무엇인  
가? 그것은 모든 죄와 그 모든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로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대속물로서 뿌려진 피의 공  
로를 통한 완전한 구출이다 (요 3:18, 26; 롬 8:1; 요이르  
5:10-13). 구원받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의의 자유로, 율법의 가혹함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로운 자  
유” 안으로 구출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 장을 읽으면 하나의 질문이 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데, 대답이 필요하다. 이 단락이 가족의 구원을 가  
르치는가? (31-34 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혈  
족 가운데 흐르지 않으며, 부모가 아들딸들의 믿음을 보  
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윗처럼 많은 참되게 거룩  
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들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  
자들로 살다 죽을 것을 알면서 그들의 무덤으로 갔다 (삼  
하 23:5).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다 (요  
1:12-13; 롬 9:16). 믿음은 그분의 은혜에 속한 선물이  
다. 빌립보 간수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  
았다.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



문에 구원받았다. 간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자마자, 그는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 윗층으로 데려갔다. 그는 한밤중에 식탁 주변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을 불러모았으며, 그들을 위하여 역시 은혜에 속한 전갈을 듣도록 준비하였다.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도 믿었으며, 즉시 모두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였다.

모든 믿는 부모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간수가 그의 가족에게 했던 것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구원 받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우리는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만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달려있고 결정된다.

## 49. 데살로니가에서의 세 주간

사도행전 17:1-10

사도행전 16 장은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빌립보를 떠나  
는 것으로 끝난다. 그 곳의 행정관들은 그들이 때리고 가  
두었던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는 정치적으로 당황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  
하였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곤경에 처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  
과를 받은 후, 한때 그들이 루디아와 첫 번째 유럽 회심  
자와 형제들을 방문하고 위로하였던 마을을 조용히 떠났  
다 (16:39-40). 빌립보는 결코 똑같지 않을 것이다. 그  
도시에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두 가족을 구원하셨다. 루  
디아와 간수의 가족들은 빌립보에 복음주의 교회를 형성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속하고 전파하는  
책임을 이제 가졌다. 그들은 곧 그곳에 강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열심으로 그들의 책임을 받아  
들어야 했다.

선교 삼인방(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은 암비볼리와  
아블로니아를 통하여 마게도니아의 가장 인구가 많고 중  
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로 걸었다. 그들  
은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위해서 모두 약 백 마일정도를

걸었으며, 분명히 노상에서 두 밤을 보냈을 것이다 (1 절).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삼 주를 연속하여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면서 집중적인 복음전파를 하였다 (2 절). 전통적으로, 여행 중인 랍비는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관례적으로 지역 회당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되었다. 분명히, 바울은 그런 이유로 연설하기를 요청받았다. 그는 분명히 환대를 받았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흥미롭고 교훈적이었다 (2-3 절). 바울은 그 스스로를 그의 환경과 필요한 시간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현명하였다. 때때로 그는 회중 앞에서 긴 설교를 전하였다 (행 13:16-41). 그러나 다른 방법의 전도도 있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의 전도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듣는다. (1) 그는 성경을 두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2) 그는 성경의 전갈을 열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3)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사망에서 일어나셨음을 증언하였다. 전도에 있어서 바울의 첫째 기술은 토론이었다. 여기서 “토론”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 단어 “대화”에서 온 말이다. 그 단어는 주고 받는 대화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 누가의 말의 의미는 -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 유대인들이 매우 친근한 말로서 바울은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들의 주장을 듣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을 반론

하였다. 그의 둘째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펴다”라고 번역된 그 말은 매우 강한 말이다. 그 의미는 “확대하다” 혹은 “열게 하다”라는 뜻이다.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은 펴서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것이 전도가 어떤 것인가이다. 성경을 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이해의 귀를 열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영광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눅 24:27, 44-47). 셋째, 전도에 있어서 사도의 방법은 증언이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과 승리 부활의 필연성을 증언하거나 입증하였다. “증언하다”는 말은 “옆에 나란히 놓다”는 의미이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였다 (고전 2:13). 그는 이사야서의 한 본문을 취하여 다니엘서에 있는 본문과 비교하였고, 시편의 어떤 단락이나 다른 선지서의 본문을 함께 나란히 두었다. 그와 같은 증언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어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4-9 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마다, 그리고 그분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곳마다 그분으로 인하여 분열이 있다 (요 7:43). 복음의 전파는 어떤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회개로 이끄며 다른 사람들은 모질게 한다 (고후 2:14-16). 믿

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는가 이다 (고전 4:7). 유대인의 일부와 이방인의 많은 수, 그리고 몇몇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속받고 부름받고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 설득되고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 종들과 함께 구별되었다 (4 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반대의 위치에 두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자주 반복되는지! 불신이 분개로 더욱 단단해지고, 분개는 악의적인 학대를 일으킨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그 성의 범죄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괴롭히고 협박을 하기 위하여 거리 불량배들을 고용했다 (5 절). 이렇게 폭동과 비방을 일으키는 것은 종교적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났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론할 수 없고 그들의 거짓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 복음에 대하여 증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잔혹하고 적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대가 없는 은혜를 자유의지의 회중과 행위 종교주의자들에게 전했던 어떤 전도자도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것을 정확히 알 것이다! 적대적인 폭도는 집에서 그 전도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야손과 그 형제들

몇 사람을 구금하였다. 의도적으로 바울의 말과 교리를 비꼬면서, 그들은 악한 것을 주장하는 반란과 폭동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난하였다 (6-8 절). 우리 주님 시대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에 대항하는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책략이었다 (눅 23:2; 요 19:12; 롬 3:8).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만든 후 석방되었다 (9 절).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어린 믿는 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둠 속에 마을을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갔다 (10 절)

하나님의 교회가 그 대적들에 의해 썩워진 혐의는 교회를 대단히 존귀하게 한 혐의였다. 폭도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데살로니가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쳤다. “이 자들이 세상을 뒤엎어 엎었다.” (6 절).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므로 명성을 떨치기를! 대신,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평화를 맺었고, 세상과 손잡고 걸으며, 세상과 혼인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같은 열심이 타협과 회유의 홍수 속에 익사해버렸다.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에 불을 지르는 대신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불, 곧 불타는 하나님의 진리로 연료를 공급받는 불로 자신을 덥힌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였고, 사람들의 혼을 배반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운 복음을 배반하였다. 모두가 칭찬과 인기와 세상의 평가의 은화에 팔려갔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에 대한 토론과 기세와 설득으로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한 바울의 호소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그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과 성경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2 절). 성경은 이 세상에서 신성한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다른 권위에 호소하지 않는다 (사 8:20; 딤후 3:16-17). 바울이 전한 전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박힌 그분이었다 (3 절; 고전 2:2).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필요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 가지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망을 필연적으로 하였다. (1) 하나님의 뜻 (벧전 1:18-20; 행 2:23). (2) 그리스도의 자원함, 보증 계약 (사 50:5-7; 요 10:16-18; 12:27-28). (3) 구약 선지자 (막 14:49; 눅 24:44). 그리고 (4) 하나님의 공의 (롬 3:24-26; 갈 3:21). 바울은 주이신 그분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면서 그의 청중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을 담대하게 펼쳤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자를 보내주신 사람들은 복되다!





## 50. 고상한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10-15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잠이 덜 깨거나 천 가지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방황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들이 경배의 집에 갈 때, 그들의 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구하러 갔다. 그들은 주의 깊게 들었고, 인용된 단락을 펴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받았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로 정해졌다. 그들 각자가 손에 연필과 종이를 갖고 교회에 왔던 것처럼 보인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그들 마음 속에 그의 가르침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찾아보았다.

성령은 우리 앞에 하나의 예로서 흘려 보내기 위하여 이 베레아 사람들을 붙잡는다. 만약 당신이 복음 전파로 당신의 혼을 위하여 영적으로 선한 것을 받으려 한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할 전갈을 가지고 베레아에 보내졌다 (10 절).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사자와 긍휼의 대상을 약속된 시간에 함께 데려오신다. 바울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도록 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밤 중에 초자연적 이상으로 빌립보에 보내졌다. 사도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 받을 시간이 왔기 때문에 간수를 위하여 빌립보에 왔고 투옥되었다.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하나님께서 몇 사람 선택된 데살로니가인들을 구원하시려 할 때가 왔으므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들의 마을을 떠나도록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시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데살로니아에서 베레아로 보내졌다.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종을 원하신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려 사람들의 사악한 행동을 사용하시는 신성한 섭리에 속한 통치의 손길을 본다 (시 76:10). “마귀는 자신의 활에 맞아버렸다.”고 Matthew Henry 는 적고 있다. “그는 박해로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진케 하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복음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통치된 것이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에 의해 위임 받은 사자로서 베레아에 왔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그 지역 회당을 발견하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대사였고 그것을 알았다 (마 10:40; 고후 5:18-20).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갈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달했다 (고후 5:211; 고전 2:2). 하나님의 대사들은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갈을 전하며, 죄인들의 대속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통한 대가 없고 은혜로운 구원의 전갈을 전한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전갈을 변경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선택 받은 죄인들의 부름을 위하여 공훈의 약속된 시간에 베레아에 보내셨다. 11 절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가 그들 앞을 지났고 은혜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는데, 이는 주를 찾는 몇몇의 선택 받은 죄인들이 베레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다. (1) 구원자를 찾는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죄인을 찾는 구원자가 계신다. (2) 빛을 찾는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빛을 가져가는 복음 전도자가 있을 것이다. (3) 은혜를 찾는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은혜가 그 역사를 시작했다.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할 때까지 어떤 죄인도 주를 결코 찾지 않을 것이다 (롬 3:11).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의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11 절). 전

도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준비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특권보다 더 기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행 10:33). 고넬료와 그 가족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다. 누가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사항을 말하도록 성령에 의해 계시 받았다.

1.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품위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누가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도를 향한 그들의 태도이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신성한 진리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숭상하였다 (사 8:20).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과 교리적 전통과 철학적 의견에 의해 말씀에 대하여 완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것에도 열려 있었다. 우리 생각은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에 열려 있어야 하며, 다른 모든 것에는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한다. 베레아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희망을 갖고 왔다. 그들은 영원한 선을 위하여 그들의 혼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배와 말씀의 사역을 존경하였다 (전 5:1-2; 고전 1:21; 엡 4:11-14; 약 1:17-19).

78.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더욱 고상한 기질의 생각과 행위는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John Gill).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한 혼은 복이 있으니, 그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한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한 죄인은 복이 있으니, 그가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하라,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도자들의 잘못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을 두고 다투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
79. 그들은 성경을 찾아 보았다.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과 성경을 두고 토론할 때 그들은 기록하면서 따라갔다. 그들이 집에 왔을 때, 그들은 매일 성경을 찾아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는지 보았다. 그들의 혼을 관심하는 자는 모두 같은 것을 해야 한다 (요 5:39; 요일 4:1).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사와 시험을 낳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청중이 성경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 중 많은 자가 믿었다.” (12 절) “그러므로”라는 말은 중요하다. 그것은 앞서의 11 절을 가리킨다.

그들 마음대로 방법을 부단히 사용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 기록되기를,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보이실 것을 약속하신다 (렘 29:13; 애 3:25). 아무도 아직까지 주님을 헛되이 찾은 사람은 결코 없다!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방인 여인들의 많은 수가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그들의 남편들도 믿기를 설득하였다 (고전 7:16). 은혜가 길을 예비하였다! 은혜가 은혜의 말씀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은혜는 믿음을 주었다.

하지만, 13-15 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범죄가 그치지 않았거나 심지어 사라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많은 사람), 많은 자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박해가 다시 터져 나왔고, 바울이 베레아를 또 떠나도록 하였다. 베레아에서의 복음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로부터 다음 네 가지를 배우기 바란다.

1. 부름 받은 그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롬 1:15-16; 고전 1:21-23). 타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전하는 전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다. 전  
갈을 타협하는 것은 그 방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80.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치는 돌이며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다 (벧전 2:7-8). 신성한 진리  
를 천연적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은 가능하  
지 않다. 하나님의 대사가 그 대적들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맞닥뜨려 하나님의 말씀에 항  
복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81.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  
혜에 속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어떤 전도자나 어  
떤 교회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마 10:1  
6-34).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들을 절대로 포용하지 않을 것이다.
82.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  
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신다. 아무것도 우리 하나  
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우리를 단념시키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분의 계획을 확대하  
게 하며, 그분의 왕국을 증가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  
리의 가장 포악한 적의 박해조차도 안배하실 것이다  
(롬 8:28).

## 51. “모르는 신”

사도행전 17:16-34

베레아에서의 소동과 그곳에서 박해의 협박 때문에, 어떤 베레아 형제들은 바울이 안전하게 아테네로 가도록 호위하였다. 누가는 뒤에 빌립보로 떠났으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그곳의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사역하려 떠났고, 실라는 후에 디모데와 합류한 베레아에 머물렀다. 그들은 모두 아테네에서 만나고 거기서부터 계속하여 그들의 전도 여행을 하려 하였다. 16 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방 세계의 문화, 교육,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 시에 홀로 남았다. 그 도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의 영이 분노와 연민 모두로 끓어 올랐는데, 그는 “우상숭배에 완전히 주어진 도시”를 보았다 (16 절). 아테네 시에서 사람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쉬웠다! 도처에 모든 거리마다, 모든 가로에 구석진 곳이 발견되는 곳마다 어떤 이교도 신상과 여신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테네에 삼만 이상의 신들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의 혼이 불타오고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는 구원의 전갈로 넘쳐흘러, 바울은 회당과 거리와 시장으로 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 그



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부활하였고, 높여지신 한분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심을 전하였다 (골 1:12-20; 2:9-10; 히 1:1-3). 그는 확실하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였고 (살전 4:13-18; 고전 15:50-58), 모든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약속된 날이 있음을 선포하였으며 (고후 5:10-11), 엄격한 공의를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사망으로 그분에 의해 보상받게 될 것을 전했다 (계 20:11-12).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곧 온 도시가 이 낮선 전도자와 그의 이상한 전갈과 그가 전한 “이상한 신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논란은 매우 뜨거워서 바울이 재판관을 위하여 아레오바고 마르스 언덕으로 보내졌다 (17-23 절). 마르스 언덕은 아테네의 최고 재판정이었다. 이곳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그들의 신에 대항하여 돌이키도록 한 것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곳이었다. 사자들의 시대에 용기 있는 검투사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하여 앞장섰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르스 언덕에 모인 이교도들에게 대가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알지 못하는 신”을 담대

하게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분을 위하여 말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를!

[주]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적으로 새겨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을 취해서 그것을 선한 논리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적용하였다. 비록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셨지만,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엄격한 책망 (22-23 절) - 최근의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초청된 연사가 그런 존엄한 물체를 모욕하기 위함일 수 없었다.”고 제시하면서, 바울이 덜 정죄하려 했던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 했다. 그러나 바울의 표현을 달래는 말로 정직하게 번역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정죄하려는 바울의 의도였다. 그가 이 존엄한 물체 앞에 섰을 때, 사도는 학식있고 철학적 종교 관습을 가진 아테네 사람들을 어리석은 우상숭배로 엄하게 책망하였다.

인간의 종교는 많은 형태를 취한다. 그것은 언제나 매우 관대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거의 어떤 것도 종교적 실행이나 교리로서 받아들여 진다. 종교적인 사람들을 언제나 실족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만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죄인들의 유일한 속죄의 대속물의 공로를 통하여만 있다는 사실의 분명한 선포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시 37:39; 사 53:1-12; 은 2:9; 롬 3:24-28; 엡 2:8-9; 딤후 1:9). 이 전갈에 반대되는 어떤 가르침도 거짓 복음이며, 사람의 혼을 저주하는 우상숭배이다 (갈 1:6-9). 그러나 이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물의 공로를 통하여 은혜로 인한 구원의 전갈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 (갈 5:11).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작은 파이 조각처럼 굴기 위해서 마르스 언덕에 오지 않았다. 그는 나무의 뿌리를 도끼로 찍으려고 왔으며, 그는 그렇게 했다. 그의 여는 말은 우상숭배의 거침 없는 정죄였다. - “내가 알고보니 너희들이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글자 그대로 “지나치게 종교적이다!”라는 말이다. 비록 아데네 사람들이 삼만이 넘는 신에게 그들이 존경을 표하였지만, 오직 세 종교적 무리들이 이 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 세 무리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거짓 종교의 신조들을 품고 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들은 모세 율법의 종교적 실행을 지킨다. 그들은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 산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이 도

덕적으로 옳바르기를 요구한다. 그들은 새긴 형상을 경배하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신성한 경배에 대한 헛된 거짓과 우상적인 대속물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일어나시고, 높여진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며, 그리스도 주께 엎드리기를 거절하고, 은혜로만 구원받기를 거절한다. 그리스도는 문이다. 그분은 길이다 (요 10:9; 14:6). 다른 것은 없다.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선택하는 것이다!

에피쿠르스 학파 인들은 일단의 철학적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어떤 종류의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들과 같은, 좋으나 위대하지 않은, 은혜로우나 영화롭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창조와 부활을 부인하였다. 에피쿠르스 인들은 쾌락을 즐기고 살았다.

스토아 학파 인들은 철학적 보수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어떤 신에 의한 창조를 믿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다. 그들은 도덕적 미덕을 가르쳤다. 그들은 인간 의지의 능력을 믿었으며, 그리고 물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부인하였다. 이 모든 세 부류의 아테네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으며 매우 타락하였다.

비록 그들이 그를 “쩍쩍이”, 트집잡는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런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가 어둡고 저주받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완고한 대면 (24-29 절) -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특징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그들과 대면하였다. 그는 참된 경배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특징에 대하여 네 가지 사항을 선포하였다.

1.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원천이시다 (24 절; 롬 11:36).
2.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주권자이시다 (24 절; 단 4:35-37).
3. 하나님은 영이시다 (25 절). 그분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리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상상이나 우상숭배, “거룩한 것들” 혹은 “거룩한 장소”에 관심이 없으시다 (요 4:23; 사 1:10-14).
4.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처리하신다 (26:-29 절).

확실한 명령 (30-31) - 바울이 “이 무지의 때에 하나님은 눈짓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렇다.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에 넘기셨지만, 그러

나 지금 이 복음 시대에 그분은 도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신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서 그분 앞에 서야 한다.

확고한 결론 (32-34 절) - 전갈이 끝났을 때 그 날은 “어떤 자가 조롱하였다.”로 끝났다. 어떤 사람은 망설였고, 우유부단과 불신 속에 흔들렸고, 그들은 가질 수 있던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다시는 결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을 살았던 몇 사람이 있었다 (34 절).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끝났을 때, 그는 고린도로 떠나 갔고, 그가 전했던 전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하였다 (고후 2:14-17).

## 52. 하나님, 사람, 그리고 심판의 날

사도행전 17:24-31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일하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징과 그분 앞에서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사람에 의해 결코 충분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사도의 목적은 사람들에 의해 경배되는 모든 거짓 신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는 일곱 가지 사항을 선포함으로 이것을 한다.

1. 주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자이며 모든 것의 통치자이다 (24 절).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배치하신다 (마 20:15; 시 15:3; 135:6; 단 4:34-35; 롬 11:36). 우주 가운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절대적으로 통치 된다 (엡 1:11; 사 45:7; 잠 16:4).
83. 거룩하신 주 하나님은 성전에 안치되거나 육체적 행위나 물리적 사물에 의해 경배받으실 수 없다 (24-2

5 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을 경배하는 자는 모두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한다 (요 4:24; 빌 3:3).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그분에 대한 경배를 세우시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우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희생제물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율법처럼, 성전 경배는 임시의 것이고, 육체에 속한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하실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일을 끝내셨으며, 육체에 속한 규례는 영원히 폐지되었다 (골 2:8-23; 히 10:1-14).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경배도, 형상이나 우상이나 십자가들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29 절). 모든 참된 경배는 영적 경배이다.

84.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땅위의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26 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나올 것을 결정하셨다. 그분은 “한 혈족으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만드셨다.” 세상의 모든 인종은 한 사람에 그 근원을 둔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종족이 아니라, 많은 구별되는 특질들을 가진 한 종족이다.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출생과 수명, 세상에서 각자가 차지할 공간과



각 사람이 죽을 시간과 방법들을 결정하셨다고 선포한다 (욥 7:1).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합당하게 보살필 책임을 충분히 깨닫는다면, 아무리 조심하여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아무리 부주의해도 1/10초도 그 생명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85. 주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시간 가운데 주를 찾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27 절).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삶을 살고, 한 번 죽으며, 직면할 한 번의 심판이 있고, 보낼 한 번의 영원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기쁨 가운데 영원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기회와 능력 모두 있는 동안 지금 그분을 찾아야 한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 55:6).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애 3:25).
86. 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가까이 계신다 (27-28 절). 주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셔서, 한 번에 도처에, 그분의 영화로운 삼일의 존재의 모든 층만 가운데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 모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까이, 우리 가까이 계시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 존재를 갖고 있다.” (시 13

9:7-12 를 보라).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이 도처에 있으며 그 원주는 아무 곳에도 없는 무한한 원이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깨어 있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고 영적을 죽였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었다 (롬 5:12). 이 영적 사망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상상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모든 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하시므로 특별히 땅 위의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마치 우주 가운데 당신과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신다! 하지만, 당신 가까이 그의 존재는 다른 누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므로 그분은 엄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신다. 그분은 모든 마음 속 깊은 곳의 비밀스러운 생각들과 의도를 분명하게 아신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느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하여 생각하신다. 그분은 무소부재한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들 가

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실 준비가 되어있으시다. 그분은 도처에 하시에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낮으로 밤으로 그분은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경이로 충만하라 - “그분은 우리 중 각 한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 안에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우리 존재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커다란 확신과 평강의 문제이다. “주께서 손에 계시다.” (빌 4:4). 그분은 우리를 시험에 보호하시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살리시려 가까이 계신다. 물고기가 모든 필요한 것을 연못에서 찾듯이, 믿는 자도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갖는 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찾는다. 만약 주께서 가까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딤후 4:9-18).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문제이다. 바울의 주장은 -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계시므로 그분을 찾는 모든 자는 그분을 따라 느끼며 그분을 찾을 것이다 (27-28 절). 만약 주께서 당신과 가까이 계시고 당신이 그분을

찾는다면, 당신은 분명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롬 10:6-10; 렘 29:13). 만일 당신이 그분을 찾는다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분을 결코 못 찾을 것이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며, 둘은 곧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용서하며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계신다. 이것은 모든 반역자들에게 경고의 말이다. “그분은 우리 각각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다.” 모든 죄, 모든 반역, 모든 불신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 가운데 있다! 어떤 죄인이든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스스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87. 하나님은 모든 자가 어디에서나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30 절).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에 이방인의 무지한 자와 우상숭배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눈을 감으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알아채지 않았거나, 혹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가 뜻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이방 나라들을 지나치셨고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은 “

모든 사람들이 도처에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또한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의무이다 (요일 3:23; 겔 36:31). 복음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 1 22-33).

88. 약속된 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 안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요 5 28; 고후 5:10-11; 계 20:11-17). 심판의 날은 진정 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그 큰 날 모든 사람은 공의가 명령한 것과 그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정확히 받게 될 것이다. 책이 열리고 각 사람이 엄격한 공의의 전 지하신 눈으로 시험받을 때, 믿지 않는 자, 곧 대속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는 영원한 진노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사악함의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받을 것이다. 구속 받은 자, 곧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며 그들의 대속물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로운 존재는, 그들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공의에 의해 선포되기 때문에 하늘 영광의 모든 충만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 53.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 18:1-11

고린도는 큰 항구도시였다. 그 도시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상업적 교차 장소였다. 그 도시의 한 편에는 이오니아 해에 접한 항구가 있었으며, 다른 한 편은 에게해에 접한 항구가 있었다. 아테네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도 세계의 지성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고린도는 경제의 중심이었다. 그 도시는 장대한 동상으로 유명하고 그 음란함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다. 고린도에 비너스 신전에는 그 도시를 지나갔던 많은 여행자들이 고용하였던 수천명의 매춘부가 있었다. 이곳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물질만능이고 우상숭배의 사악한 도시였다. 디모테와 실라는 여전히 마케도니아에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로 혼자 왔다. 그는 동역자가 없었지만, 그의 하늘의 동역자가 있었다. 그는 친구가 없었지만, 그가 선포하러 올 죄인들의 친구가 있었다. 이 일곱 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여섯 가지 매우 중요한 공과를 가르친다.

1. 하나님의 종들은 고용인들이 아니다 (1-4 절). 가말리에의 수하에서 학자로 훈련 받았지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는 천막 짓는 일로 생계를 위한 벌이를 했다. 아퀼라와 브리실라는 유대인 믿는 자들로 역시 천막을 짓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에 바울을 받아드렸다. 천막 짓는 일은 그 때 일반적인 직업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귀한 직업이었다. Matthew Henry가 기록하였던 것처럼, “빵을 얻을 수 있는 정직한 직업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멸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구두쇠가 되는 것에 대한 변명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생계를 살면 안 된다. 그런 태도는 신약의 분명한 가르침에 위배된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의 일에서 신실하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고전 9:6-14; 갈 6:6; 딤후전 5:17). 개개인의 믿는 자와 집사와 지역 교회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목자, 선교사, 전도사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그들의 사업이 그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사역의 일에 자신을 드린 자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들은 결코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역 교회 내의 집사들은 목자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염려를 갖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 그가 자신을 성경 연구와 기도와 전도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다 (행 6:2-4). 바울



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그를 지원해 줄 아무런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교회들은 그 책임을 져야 했으나,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 했다. 하나님의 종인 까닭에, 사람들의 도움을 애걸하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보다,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손으로 직접 수고할 것을 택하였다 (고후 11:7-8; 살후 3:8-9). 그러나, 일단 그들이 회심하였을 때, 바울은 고린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관대하게 도울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 (고전 9 ; 고 후 8, 9). 비록 그가 일주일 동안 직접 일을 하였지만, 바울은 매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며 그들과 토론하였다 (4-5 절; 창 49:10; 신 18:15; 시 132:11; 사 7:14; 9:6; 53:1-12; 렘 23:5-6).

89. 신실한 사람은 다른 신실한 사람들의 교통과 격려가 필요하다. 바울은 약간 낙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디모데와 실라가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5 절), 그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목자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다. 믿는 자들은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섬김 가운데 서로의 팔에 힘을 주어야 한다.

90.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그들에게서 복음의 빛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6 절에 서술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결정을 그들에게서 가져가시고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다 (마 22:8-9; 23:37-38; 롬 11:22). 이 어떤 경고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롱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판결을 받는다 (잠 1:22-33).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대한다 (마 10:40).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그들 자신 위에 파멸을 가져온다. 그들의 저주는 그들 자신의 잘못이 될 것이다. 그들의 피는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있게 될 것이다 (행 20:16; 겔 33:8-9).

91.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자를 보내 주시는 것이다 (7-8 절).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갈을 멸시하였고 그것을 전한다고 그를 멸시하였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 집을 열고 복음 전파의 중심으로 바꾼 유스도라 하는 남자가 있었다. 사실은,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아데네에서 그의 전갈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았으며 고린도에서 큰 반대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신실하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함을 귀히 여기신다 (삼상 2:30).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기 시작하셨다. 첫째로 유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가족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8 절의 사건들의 순서를 주목하라. 그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다. 첫째, 복음이 전하여졌다. 둘째,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셋째, 믿은 자들이 침례를 받았다. 신약의 본과 교훈에 따르면, 침례는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행 7:37). 어떤 유아도 그들의 부모가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침례 받지 않았으며, 오직 믿는 자들 자신뿐이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침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른다 (막 16:15-16). 침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과 함께 동일

하게 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전의 종교를 어둠과 우상숭배로 단념한다 (행 2:38; 롬 6:4-6).

92.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전파로 그분께서 구원하실 많은 수의 선택 받은 죄인들을 소유하셨다 (9-10 절). 사람의 공포는 결코 하나님의 종의 입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렘 1:8-10). 주께서 이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고린도에 복음 전하기를 신실하게 계속하도록 격려하셨으며, 그에게 세 가지를 확신시키셨다 - 하나님의 임재 -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하나님의 보호 - “아무도 너를 해치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 “내가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을 소유하였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그분의 택하신 자의 확실한 구원이었다. 영원 가운데 선택되고 갈보리에서 구속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부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 전파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롬 10:17; 벧전 1:23-25).
93.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지시를 구하고 따른다 (11 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일년 반을 머물렀다. 그는 거기 남아서 주의 양들을 찾았으며(요 10:16),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엡 4:11-16). 비록 그가 고린도에 사는 전도자였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부분 봉사하기를 계속하였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신실한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하며 그들에게 순종하자 (살전 5:12-13 과 히 13:7, 17 을 읽어보라).

## 54. 아볼로 - 알렉산드리아 웅변가

사도행전 18:12-28

앞서의 단락에서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과 세 번째의 시작에 대한 다급한 이야기를 본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사도를 따라간다. 안디옥에서 얼마간을 보낸 후 그는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로 돌아갔으며, 거기서 19 장이 시작된다. 19 절에서 다루기에 많은 지역이다! 우리는, “기다려, 누가. 좀더 이야기 해달라. 겐그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그 여인 뵈베가 로마서 16:1-2에서 그녀에게 바울이 주었던 칭찬을 받았는가? 바울이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그리고 브루기아에 있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묻고 싶다. 그 곳에서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누가는 모든 자세한 것들을 생략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다음 장면과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인 알렉산드리아 웅변가 아볼로에 대하여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다. 누가는 사도 행전 내에서 소개하였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존경과 칭찬으로 이 사람

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성령에 의해 감동되었다 (24-25 절). 아볼로는 그리스도인 인물의 한 예로서 그 믿음과 신실함을 따라야 할 사람으로 우리 앞에 제시된다 (히 13:7, 17). 그러나, 아볼로가 소개되기 전에,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의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의 여정에 대하여 약간의 이야기를 하도록 지시 받았다.

전형적인 박해 (12-17 절) -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는 박해를 만났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그의 대적들의 적의를 억제하셨지만, 시간 가운데 그분은 옛 뱀, 사탄의 독을, 그의 종에 대항하여 토해낼 것을 허락하셨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항하여 하나가 되어 폭동을 일으키도록 만드셨다.” (12-13 절). 우리 King James Version은 “이 친구”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친구”라는 말은 번역자에 의해 더해졌다. 유대인들은 혐오스럽게 “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그들의 의사를 표현할 만큼 충분히 악한 말이 없었다.

14-15 절 - 갈리오는 이방인들이 소스테네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 행정관으로서 모든 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 대하여 제기된 혐의를 듣기를 거부하였다는 사실 안에서 칭

찬을 받았다.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과 관련한 문제에 법을 만들거나 심판을 하는 것은 시민 법정의 일이 아니다. 16-17 절 - 공회의 치리자였던 그리스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되었다 (8 절). 소스데네는 그의 자리를 받도록 선출되었다. 소스데네는 바울을 치기 위하여 갈리오로 왔던 자인데, 그 자신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바울을 괴롭히기를 희망하였다. 많은 하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모르드개를 목매달기 위하여 만든 교수대에서 처형되었다.

고린도에서의 이 사건들로 성령은 두 가지 공과를 강력하게 가르치신다.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그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만의 구원의 분명한 선포가 그들에게 어리석음과 거치는 돌과 마음 상하게 하는 반석을 소멸하는 것이다. 사람의 자유의지와 선행이나 종교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구원을 기초한 어떤 종교도 그에게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갈 5:11).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하는 자는 모두 사람들의 분노를 견뎌야 할 것이다 (마 10:16-39).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갈 1:10-12). 두 번째 공과는 동일하게 분명하다. 이 세상



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통치는 그분의 택하신 자의 선을 위하여 모두 합하여 역사한다 (롬 8:28). 유대인들의 박해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실라의 선행만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 고린도에서 그의 일이 끝났다는 것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되었다.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도망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박해를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는 표시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렸을 때, 그분은 바울에게 그 약속을 확인하셨다 (10 절). 이런 소스데네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들 중 하나였다 (고전 1:1).

여행하는 전도자 (18-23 절) - 바울이 유대 서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지극히 믿겨지지 않는다 (18 절). 누가가 서원을 취한 자로 가리킨 사람은 아굴라였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모든 유대 율법과 의식과 예식을 던져버렸다 (골 2:16-23). 그는 편의상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서원을 받아들이고 그 서약 안에서 그의 머리를 밀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아니었다!

19 절 - 그가 아굴라와 브리실라를 떠났던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은 유대인과 토론하기 위하여 회당에 다시 갔다. 그의 친척들에 대한 열정이 너무도 커서 그들에게 그

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들을 멸망하게 둘 수 없었다 (롬 10:1-2).

20-21 절 -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유월절 동안 많은 거기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기로 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헌신을 한 가지 조건으로 만들었다 - “만약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약 4:13-15).

22-23 절 - 어린 믿는 자들은 어린 나무들처럼 보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들 어린 교회와 어린 성도들의 필요를 부드럽게 관심하고 사역하였다. 그는 혼자 자신의 비용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수백 마일을 여행하였다 (엨 4:11-16).

은사 받은 설교자 (24-28 절) - 바울이 떠난 동안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24 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달변인”이었으며, 이성적이고, 신중하며, 잘 교육을 받았고 연설에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성경에 강하였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의 빛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다.

25 절 - 아볼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안에서 교육받았다 (요 14:6).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으로 진작하였으며 그 백성의 구원을 구하였다 (롬 12:11). 하지만, 그는 오직 침례자 요한의 전갈과 가르침만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양에 의한 죄들의 용서이다 (마 3:1-2; 요 1:29). 그는 성령의 부으심과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의 가르침은 진리적이고 복음의 교리였지만, 그러나 아볼로는 침례자 요한의 때 이후 계시되었던 것들에 대해 교육받지 않았다.

26 절 - 아퀼라와 브리실라는 아볼로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그를 복음 안에서 좀더 충분하게 가르쳤다. 브리실라는 교회에서 공개적이지 않고, 그녀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가르치는 그녀의 남편을 도왔다. 거룩한 여인으로서 그녀는 온유함으로 행동했다 (벧전 3:1-2). 여자가 공개적으로 남자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정숙함에 반대이다 (딤후 2:11-12; 고전 14:34).

27 절 - 에베소의 믿는 자들은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로 아볼로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천거하는 서신을 보냈

다. 그가 거기 도착했을 때, 그는 “은혜로 믿게 된” 형제들에게 상당한 영적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이다 (엡 2:8; 골 2:12; 빌 1:29).

28 절 -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 받으면서, 아볼로는 강력하고 확신에 찬 교사였다. 많은 반대에 직면하는 가운데 그는 구약 성경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세상의 구원자임을 증명하였다 (요일 4:1-4).

## 55. “그들에게서 나왔더라”

사도행전 19:1-12

이 장에서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실라를 떠났던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을 따라간다 (행 18:19-21).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아볼로가 왔으며 그곳에서 회당에서 “요한은 침례”를 전하면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다. 아굴라와 브리실라는 그와 가까워졌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좀더 충분히 가르쳤다. 아볼로는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하여 고린도로 갔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볼로 같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어떤 제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침례자의 제자들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여전히 경배를 드리고 있던 형제들 가운데와 있으면서 그들 자신을 구별하였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이 형제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과도기의 시간 - 만약 우리가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이든 합당하게 해석하려 한다면, 사도 행전에 기록된 교회 역사는 과도기적 발전의 기간이었으며, 사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 초기 년도 동안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한 종파로 여전히 여겨졌다. 믿는 자들

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의 회당에서 경배를 계속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한동안 유대 성전에서 경배를 계속 드렸다. 많은 순수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전파자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도록 할 때까지 몇 해 동안 많은 중요한 복음 진리들을 모르는 채 남겨졌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보았다. 고넬료(행 10:1-2)는 참되게 믿는 자였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 드렸던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묘사한다(행 10:2, 4, 22). 그러나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그가 찾던 구원자 이미 오셨으며, 그 백성을 구속하셨고, 하늘에 다시 오르셨다고 말할 때까지 구약 성경의 빛 비춤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가 전에 믿었던 것은 진리였다. 그는 구약의 본과 약속과 예언들 가운데 계시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였다. 아볼로는 고넬료보다 더 빛 비춤을 받았지만(행 18:24-28), 그러나 그 역시 대단히 부족하였다. 그는 잘못 알고 있지 않았지만, 아무런 것도 듣지 못하였다. 그는 아퀼라와 브리실라가 그에게 좀더 깊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까지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만 알았다. 고넬료도 아볼로도 이교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진리를 믿었다. 그들은 그들이 받았던 빛비춤에 따라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빛 비춤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았고, 그것에 순종하였고 복종하였다. 사도행전 19장의 여는 절들에서 바울은 아볼로 같은 열두 사람의 다른 무리를 만났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던 참된 믿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는가?” (1-3 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종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들은 주 예수를 신뢰하였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였으며,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그들과 얼마간의 이야기를 나눈 후, 바울이 물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번역은) “여러분이 믿은 이후에?” 그것은 매우 부족한 번역이다. 질문은 좀더 정확히 번역되었다. “여러분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N.A.S.V., N.I.V., The Amplified Bible). 그들의 대답인, “어떤 성령이 계신지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까?”에 버금간다. 분명 요한의 제자들이기에 그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강림의 약속을 알았다 (마 3:11; 막 1:8; 눅 3:16).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

에 의해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 안에서 침례와 그것을 따라올 비범한 표적들에 관련하여 구약의 예언들 안에서 잘 교육받았다 (겔 36:21-28; 율 2:28-32; 슥 12:10; 요 7:29).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이 주어진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였다. 그들은 성령이 약속된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오신 것을 몰랐다. 그것은 이보다 더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진 실수이며, 심각한 오류로 이끄는 잘못이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에게 침례를 받았는가?” 바울은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침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막 16:16; 롬 6:3-6). 이 사람들에게 한 그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았는가?”였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로.”라고 대답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요한의 전갈을 믿으면서,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두 가지 사항이 분명히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모두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참 믿는 자와 육신의 고백자 사이의 극명한 차이점이다 (요 3:3-8; 롬 8:9-14; 갈 5:22-23). (2) 믿는 자의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과 본을 따르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책임이다 (롬 6:3-6). 침례로, 물속 무덤으로 잠겨지고 거기서 나와 일어나므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구별한다.

요한의 침례 (4-5 절) -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아니었다고 가르친다. 4 절과 5 절을 나누면서, 그들은 바울이 이 제자들을 재 침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문은 정확히 반대로 가르친다. 두 절을 함께 읽어보라. 그 두 절을 인용부호로 묶어보라. 두 절 모두 요한의 침례에 대한 바울의 설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요한의 침례가 오늘날 우리가 실행하는 것,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고백한 믿는 자들의 잠김과 정확히 같은 것을 천명하고 있다.

[주] 이 해석을 지지하는 가운데, 비록 기회가 분명히 보였지만 좀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가르침 받은 후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우리 주나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재 침례 받았다는 것이 신약의 어느 곳에서도 가리키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행 18:26). 더욱이, 만약 5 절이 바울이 했던 것을 기술하는 누가의 말을 포함했다면, 6 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을 특정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정확히 서술 했을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4 절과 고절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했던 말을 한다. 6 절에서 그는 바울이 했던 것을 말한다.

성령의 교통 (6-7) -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에 의해 침례를 받았던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안수하였던 것처럼 (행 8:14-17), 바울은 침례자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은 이 열두 사람들 위에 안수하였고 그들은 그 영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다시 한 번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명하게 확증되었다 (히 2:3-4). 사도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도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은사들을 소유했던 빌립은 그것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었고,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도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이 놀랍고 외적인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망한 이후에 필연적으로 그쳤다.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하고 있다 (고전 13:10; 벧후 1:16-21).

믿는 자들의 격리 (8-1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함께 모였다. 그들은 유대 백성의 구원을 정직하게 구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자들과 자신들을 격리하여야 할 때가 왔다. 빛과 어둠은 함께 거할 수 없다. 따라서 신실한 가르침의 삼 개월 후 바울

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오했던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도록 인도하였다 (고 후 6:14-7:1; 계 18:4). 바울과 그의 작은 무리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멸시당하였다. 비린 작은 방에서 모이면서, 그들은 고린도의 부유하고 번성하며 강력한 종교인들에 의해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했으며, 멸시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그분의 복음과 사자와 백성을 그들 가운데 그분의 기뻐하심을 분명히 보이시면서 확증하셨다. 그분은 언제나 확증하신다! (삼상 230)을 보라.

## 56.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권능 있게 성장하였고 널리 퍼졌더라”

사도행전 19:13-20

때때로 그리스도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며,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마 16:18; 사 55:11; 고전 15:58). 마지막에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의 찬양 앞에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고, 이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들로 될 것이다. 그것들은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그분의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은혜로 도처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 위에 드러내실 도구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복하는 군대이며, 그 전쟁의 무기, 유일한 무기는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사도행전에서처럼 이 사실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사도행전 19 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열두 명의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학교 건물

에 있는 작은 방에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들은 반대와 직면하였다. 유대인 광신자들, 다이아나 우상 숭배자들, 사업가들, 그리고 마을을 지나던 유대 집시들은 두란노 학교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성도 무리에 반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연합되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작은 무리는 예수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을 전하는 것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종교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권력에 관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 (삼상 2:30). 삼 년의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작은 믿는 자들의 무리는 크고 영향력 있는 회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기초를 잘 다졌다. 신실하게 전도한 삼 년이 다될 무렵 에베소 교회는 너무 커져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그 사역을 감독할 필요가 있었다 (행 20:17).

이런 괄목할만한 성장은 인형극이나 음악회나 주일학교 발표회나 구기종목 팀이나 유명한 영화 배우, 운동선수, 정치인들의 간증이 없이 일어났다. 속임수나 정치적 영향력 없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상 언어의 단순함으로 전해진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역사를 성취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리라.” (20 절). 13-20 절 안에 네 가지 사항이 우리의 배

움과 혼계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앞에 놓여졌다.

복음의 상품을 만든 사람의 예 (13-16 절). 스게와의 아들들은 방랑자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술을 실행하며 성과 성을 떠돌아 다니는 집시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운명은 별자리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이나 좋은 말을 던지고, 사자의 영을 주술로 불러내며 마귀를 불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일에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마술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마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시대에 활동하였다 (마 12:27). 그들은 바울의 시대에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도 활동한다. 마술을 조심하라. 마법과 점성술 등을 갖고 장난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 것을 명령하신다 (레 19:31; 20:6; 신 18:10-11). 이기주의 정치인들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들은 그들의 귀를 땅에 박고 정확히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말한다 (딤후 4:3-4; 고후 11:14-15).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얻고, 그들을 따르는 군중을 얻으며, 그들의 금고에 넣을 돈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하는 행동과 말을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종교적 소란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라. 하나님은 그 속에

없다 (요 2 10-11). 스게와의 아들이 지옥의 마귀들에 의해서 조차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현대의 스게와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올 세상 안에서 드러내실 것이다 (마 7:21-23).

하나님의 지배하는 섭리의 예 (17 절). 스게와의 이 아들이 집을 도망쳐서 맞고 벌거벗겨졌을 때, 에베소의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었다. 그 사람 속에 있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되었으며, 그가 그리스도께 복종함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의 종 바울에게 복종함을 고백하였다 (15 절). 따라서, 스게와의 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악행은 주님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권적인 우리 주에 의해 지배되어야 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권적이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한다 (시 76:10).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천명과 허락과 지시 없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신다!” (단 4:32; 시 115:3; 135:6; 사 46:9-11; 애 3:37).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라 할지라도, 주는 선하게 바꾸신다!

참 회개의 예 (18-20).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일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일어났으며,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자 왔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자를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셨다 (롬 10:17). 여기에 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진 참 회개의 세 가지 표시들이 있다.

1.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18 절). 그들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 (고전 1:30).
94.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18 절). 이것은 바울의 귀에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으며, 마치 비록 그가 교황 같은 제사장인 것 같았으나, 그러나 믿는 자의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개적 고백이었다 (마 3:6; 롬 6:3-6).
95. 그들은 행위와 미신과 의도적 경배에 속한 그들의 이전의 종교를 폐기하였다 (19 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묶고 있던 종교를 공개적으로 폐기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 종교와 주술 책들을 태우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서 그렇게 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지나칠 정도까지 가야 했는가? 그들의 이전



종교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것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들 자신과 어둠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 사이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큰 거리를 두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복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정복의 예 (20 절). 다른 무엇보다 에베소에서의 이 사건은 복음 전파를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 종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시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는 말한다. “전쟁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지옥의 문과 전쟁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백마를 타고 정복에 정복을 하며 전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널리 퍼질 것이다!”

# 57. 에베소의 소동 - 신성한 섭리 안에 있는 공과

사도행전 19:31-41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항한 많은 사람들의 소동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하셨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에 의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의 정해진 일이었다. 소동은 사악한 마음을 품은 사악한 자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의 전파에 반대 가운데 사악한 목적이 그들을 두었으므로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들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의 사악함을 지배하셨다. 여기 믿는 마음들이 땅에 속한 고난들 한 가운데에서 평강으로 한결같은 네 가지 성령의 기본적인 기초 진리들이 있다.

1. 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주권적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이 뜻하신 바를 하실 공의와 능력을 소유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주권에 속한 그분의 공의를 행사하신다 (욥 42:2; 사 14:24, 27; 46:9)

-11; 55:11; 시 115:3; 135:6; 렘 32:17; 단 4:35-37; 마 20:15; 롬 9:11-23; 엡 1:11, 22). 창조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방법이 있으시다.

96. 우리의 위대하고 주권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통치하시는 계획과 은혜에 속한 목적과 섭리를 갖고 계신다.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다 (딤후 1:9; 살후 2:13; 마 25:34). 그것은 바꿀 수 없다 (민 23:19; 말 3:6; 약 1:17).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셨던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창 50:20; 사 45:7; 잠 16:1-4, 9, 33; 21:1; 암 3:6).
97. 전능하신 하나님은 섭리에 속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롬 8:28-30; 11:36; 엡 1:11). 하나님은 그분의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옆 줄에 서서 응원하고 환호하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탱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그 예정된 마지막으로 가져가시며 도처에 계신다. 작은 참새가 우리에게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나는 것은 보기에 즉흥적이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참새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가지 위에 내려앉지 않으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운 섭리는 어떤 가지에 참새가 훑대로 삼을지, 어떤 곡식을 쪼을지, 어디에 둥지를 틀고 지을지, 무엇을 먹고 살지,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를 전에 지정해 두셨다.” (Augustus Toplady). 하나님의 섭리는 도처에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물질적인 세상 (사 40:12; 나 13), 동물의 세계 (단 6:22; 마 10:29), 세상의 나라들 (시 33:9-11; 사 40:15; 단 2:21; 4:17),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잠 16:9; 21:1; 행 18:9; 출 12:36; 삼하 16:10-11; 시 76:10; 출 14:7; 행 4:27-28), 그리고 심지어 사탄과 지옥의 마귀들 (욥 1:6-12; 2:1-6)까지도.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 모든 것이!

98.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과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롬 8:28; 11:36). 창조 가운데 아무것도 우연이나 행운이나 운명이나 사람의 의지에 남겨진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되므로 종말에 그분의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며 (롬 8:29-30), 존재하였던 모든 것이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계 5:13).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기 위하여 레베카를 우

물로 보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던 것은 운의 연속이 아니었다. 바로의 딸이 방주에 있던 모세를 발견하여 그를 살게 보호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비멜렉의 머리를 부수었던 멧돌에게 명령했던 것은 눈먼 운명이 아니었다. 역사 속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휘된다. 그분은 심지어 번개가 그 표적을 치도록 명령을 내리신다 (욥 28:26; 37:3; 38:25, 35). 에베소의 소동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셨는지 사도행전 19:21-41에 기록된 사건들을 연구하라. 그리고 신성한 섭리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선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하라.

첫째, 하나님으로 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끄심 받는다 (21-22 절).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 성전으로 시므온을 이끌었던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으며 (눅 2:27),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곳곳으로 바울을 이끈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으며 (행 20:22),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은 성령에 의해 명령 받는다 (시 37:23; 롬 8:14).

[주]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바울에게 사역했고 바울의 지시 하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역하였다 (22 절). 그들은 자신들이 그 영으로 충만케 되었으므로 주의 사도에게 복종하였다 (엡 4:18, 21; 히 13:7, 17).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권위를 두셨던 자들에게 순종하였다.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23-28 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전갈이나 사자에 무관심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전해질 때마다, 그것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엎드리거나 그 대사에 대항하여 반대편에서 봉기한다 (마 10:22, 34). “그 길에 대하여 작은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종교와 구별된다. 은혜에 속한 길, 그리스도께 속한 길은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길, 사람들의 길과 모두 다른 “그 길”이다. 사람들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사람 위에 있는 어떤 길에 의존적이게 만든다. 그러나 자유 의지의 길, 행위 종교는 사망에 속한 길이다 (잠 14:12; 16:25).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구원으로 가는 길을 그리스도만 이도록 만든다 (요 10:9; 14:6). 두 가지를 주목하라.

1. 종교에 속한 일은 언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고 이득이 되는 일이다 (24-25 절). 이 사람들은 종교 장신구, 우상, 형상 등을 마치 십자가와 형상과 종교화 등을 팔고 있듯이 만들고 팔았다.
99. 사람들이 만들고 품는 신들은 찬양하기 보다는 경멸할 가치 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것들이다 (26-28 절; 사 46:5-7; 왕상 18:27-29).

셋째, 시련과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을 위함이다 (29-34 절). 그렇다, 사악한 사람들의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다 (시 76:10). 이 소동과 박해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정제된다. 겨는 밀에서 분리되었다. 시련의 한 가운데에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확고하게 섰다. 구리세공사 알렉산더는 불 앞에서 사라졌다 (딤후 1:19-20; 딤후 4:15-16).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았다 (33-34 절).

넷째, 주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고난에서 구할 방법을 알고 계시다 (35-41 절; 시 18:1-7, 43-50). 주 하나님은 다이나나 신전의 제사장들과 (31 절) 놀란 고을 서기들을 성난 폭도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때로는 친구에 의해서, 그리고 때로는 적에 의해서 그분의 교회와 백성을

과멸로부터 지키셨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은 지금도 부족하지 않다.” (Matthew Poole).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분의 절대적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시간 그분을 경배하고 신뢰할 것이며 모든 시간에,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살전 5:16-18).



## 58.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감

사도행전 20:1-16

앞 장에서 우리는 에베소의 소동에 대하여 읽었다. 성난 폭도는,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두 시간 이상 동안 서 있었다. 마침내,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켰고” 그리고 “그 집단을 해산하였다.” 우리는 20 장의 시작 구절들에서 이야기를 짚어 낸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함 (1-16) -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누가의 신속한 다른 서술들을 본다. 그는 밀레도에 있는 에베소 장로에게 한 사도의 작별의 전갈까지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누가는 매우 급히 우리에게 에베소에서의 소동 이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도록 하신 것을 곧 진행한 것을 말해 준다. 그는 다음 수 개월간의 여행을 보내면서, 육지와 바다,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그의 초기 사역 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그가 갔던 곳마다 그는 같은 일을 하였다. 회당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장터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

다. 그러나 그는 내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서두르고 있었다 (16 절).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열중하였을까?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될 것을 분명하게 지명하셨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그가 반복하여 절기 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였던 것을 본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제시하였던 것처럼, 과거를 돌파하고 사망한 유대교 수의들을 털어버리는데 힘든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의식과 육체에 속한 계명들로부터 믿는 자의 해방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고 꾸준하였다 (롬 6:14, 15; 7:1; 10:4; 갈 5:2, 4; 골 2:8-23). 바울은 가능하다면 절기 일에 맞추어 그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그 날 동안에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그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그의 모든 힘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다 (롬 9:1-3; 10:1-4).

성경의 전갈 -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했던 전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이었다 (고전 2:2). 때때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으며,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다. 때로는 많은 무리의 잃은 바 된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때로는 작은 무리의 믿는 자들에게 전하였다. 때로는 학식 있는 철학자들에게 전하였고, 때로는 단순한 여인들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그의 전갈은 언제나 같은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오직 그리스도 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때로는 한 밤중까지 조금 길게 전하였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동안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9 절). 자주 그의 전갈로 인하여 그는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의 전갈을 바꾸지 않았다. 그의 전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체 책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과학, 역사, 정치, 도덕, 혹은 종교적 신념에 관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눅 24:27, 44-47).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는 살아계신 말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고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복음 전도자의 일고 책무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행 20:27; 고전 2:2).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율법의 모든 희생물과 의식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었다. 각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임시 구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의 예시들이었다. 율법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분의 가르침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우리 주의 가르침들에 대한 의미들을 기록하였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라. 성경의 각각의 책과 장과 절과 행과 모든 단어는 그리스도를 그 백성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사건들을 발견하고 교리를 지지하기 위한 성경 연구를 중단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요 5:39). 하나님의 책에 있는 어떤 말씀도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즉시 바라 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직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성경의 교리는 그리스도이다. 성경의 율법은 그리스도이다. 성경의 복음은 그리스도이다. 당신은 그것을 보는가? 그리스도와 갈라선 그 어떤 교리도 이단이며, 단순한 지적 과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와 결별한 어떤 교훈도 자기의 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도처로 갔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게 하는 가르침은 결코 전해지지 않아야 했다. 어떤 가르침도 그 진수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에 의한 동기가 아닌 어떤 교훈에도 순종하여서는 안 된다. 창세기 1:1에서

계시록 22:21 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드러난 계략 (1-6 절) -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는 반대에 직면하였다. 교만한 육신들은 그리스도만의 공로를 통한 은혜로 만의 구원에 대한 전갈에 관용을 표할 수 없다. 바울은 그의 목숨에 대한 계략을 다시 발견하였다. 그리스에 있는 동안 십자가의 대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3 절). “그리스도 교회의 수 세기를 걸쳐서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은 자주 위험 가운데 있어왔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 당하였다. 어떤 자들은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은 장미 침상을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적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1:29)…사실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과 순교에 직면해야 했을 때 그 가장 순수함 가운데 있었다.” (Donald Grey Barnhouse).

바울은 삼 개월 후 그리스를 떠났다. 그가 시리아를 향한 항해를 준비하였을 때, 그는 그를 향한 계략에 대하여 알았다. 그래서 그는 소바더와 누가를 그의 여정에 함께 하도록 준비하였으며,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 육로

로 갔으며,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배를 탔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이레 동안 머물렀다.

주의 날의 성찬 예배 (7-12 절) - 제자들이 제 칠일 보다 “주의 첫 날”에 경배 드리기를 위하여 모였음을 주목하라. 이 과도기 동안 있었던 많은 것들처럼, 안식일 준수는 점차 중단되었다. 새로운 경배일, 주의 날 (계 1:10)이 우리 주의 부활로 세워졌다 (마 28:1). 일요일은 “그리스도인 안식일”이 아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골 2:16).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그치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다 (히 4:9-10). 하지만, 신약에서 세워진 경배의 날은 일요일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행 20:7; 고전 16:2). 이날 교회는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으며 복음의 전함을 들었다. 성찬 예배는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공예배의 매우 단순한 부분이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날 예배를 위하여 모였을 때, 그들은 무교병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잔을 돌렸으며 모든 믿는 자가 그 자신을 위한 분깃을 떼었다. 신약에는 제한되고 폐쇄적인 성찬은 없었다! 이 단락에서 많은 다른 곳에서 모인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 믿는 자가 진실로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주의 만찬을 지켰다. 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가치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서로를 시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각자 믿는 자가 주 앞에서 스스로를 시험하였다 (고전 11:28).

바울은 분명 길게 하는 설교자였다. 그는 한밤중까지 전하였다. 유두고는 졸음이 들어 삼 층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추측했다. 아마도 그는 죽었을 것이지만 바울이 그를 사망에서 일으켰다. 그러나, 10 절은 그가 떨어져 죽지 않았다는 암시를 하는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개입하셨다. 그 후 바울은 미명까지 전하기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나서 (13-16 절), 드로아에 잠깐 머문 후에 바울과 그 동료들은 앓소로 떠났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 59.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작별의 전갈

사도행전 20:17-38

때때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장소에 생명을 위한 섬김의 장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영원토록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사람은 그분이 부르신 장소에서 신실하게 있을 것이다. 그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적에 의해 내몰릴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개인적인 이득이나 세상적 안락이나 더 큰 유명세의 매력들로 내몰리 수 없다. 교회를 사역의 성공으로 가는 길 위의 디딤돌로 이용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그들은 최고의 입찰자에게 그들의 봉사를 파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피고용인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어떤 장소로 사람을 보내신다. 그의 일이 성취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다른 것을 이루도록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 저속으로 다닌다. 그들이 섬기는 장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유익을 섬기려는 그들의 갈망을 제외하고 어떤 것으로도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자는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이며, 그에 상응한 것을 받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 (살전 5:12-13; 히 13:7, 17). 그러나, 그는 단지 임시 대변인이며, 광야에서 울부짖는 목소리일 뿐이다 (요 1:23). 주어진 장소에서 한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쓸모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유익하다 해도, 그것은 단지 임시일 뿐이다. 성령 하나님의 죽으심이든 지시하심에 의해서든지 끝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결정,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은 계속된다. 따라서 주의 종들 자신이 없어졌을 때 계속되고 방해 받지 않으며 활발한 사역을 위하여 백성을 예비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가 된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행전 20:17-38 에서 행하고 있던 것이다. 그는 신실하게 에베소에서 삼 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은 많은 수의 회심에 그의 수고를 크게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곳으로 움직일 때가 왔다. 에베소에서 그의 일은 끝났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셨다. 바울은 감독하기 위하여 몇 사람의 설교자들(장로들)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큰 수의 회중을 뒤로 하였다.

아마도, 에베소의 교회는 도시 전체에서 몇 개의 회중이 그들 자신의 목자와 선생을 갖고 만났던 것 같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이 절들에 포함된

마지막 확고한 전갈을 그들에게 주었던 밀레도에서 자신을 만나도록 하였다.

바울은 전형적인 복음 전도자였다 (17-27 절).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각 복음 전도자가 생활과 가르침 가운데 어떤 자이어야 하는지 본으로 자신을 제시한다. 그는 오만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신감으로 말했다 (딤후 4:6-8).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하도록 한 것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가 기대하였던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며, 그들 모두 그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가 은혜롭고 온전한 생각을 가진 신실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는 자기 본위, 자기 선전, 자기 봉사의 종교적 허풍선이 아니었다 (고전 4:1-5).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입술의 가르침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에의 그의 헌신을 보여주었다 (빌 4:9).

그의 일상 생활에서, 설교에서처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였다 (18-19 절). 그는 완전한 것 같은 눈속임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생활 방식이 비난의 여지가 없는 자로서 흠이 없도록 살았다. 그것은 단지 바울의 인생 행로 가운데 극명하게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 전도자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딤펴 3:2-7). 바울은 육체 가운데 그 자신의 부족함 (고후 2:16)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

만함 (고 후 3:5; 12:9)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주를 섬겼다. 그는 성실함과 큰 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다. 그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섬겼다 (고 후 4:7-14). 그는 흥분함이 없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헌신에 일관되었다. 삼 년 동안 그가 말했던 사람들은 그를 낮과 밤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가 확고하였고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강단 가운데에서나 밖에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였다. 그는 자만하거나 위선적이지 않았다. 그는 헌신하는 생활 가운데 그 가르침이 드러난 전도자였다.

바울의 전도는, 그의 생활처럼, 하나님의 종이 그래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본이 되었다 (20-27 절). 그는 에베소란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왔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름을 신실하였다. 그의 전갈은 한결같았다. 공개적인 곳에서도 사적인 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치며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20-21 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전하도록 하였던 전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고 전 2:1-2; 9:16). 그의 동기는 순수하였다 (22-25 절). 신성한 계시로 그를 기다렸던 고난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부름 받은 것에 대한 수고를 단념하지 않았다 (행 21:4, 11). 24 절을 읽고 바울이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은혜와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의 손길은 순결하였다 (26-27 절). 하나님의 약속된 파수꾼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였다 (겔 3:15-21; 33:1-16). 아무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멸망하지 않았다! 두가지 것이 모든 복음 전도자를 특징지어야 한다. (1) 그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된 자로서 복음의 원칙에 의해 살아야 한다. (2)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는 정직하고 솔직하며 담대하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모든 자에게 그의 전갈을 속이거나 꾸밈이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28-31 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든 자들 위에 큰 책임의 부담을 둔다. 이 명령은 특별히 목자들에게 향한 것이지만, 그 적용은 지역 교회들 안에서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장로, 교사, 집사, 선교사, 및 전도사)에게 확대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감독과 영적 목자와 치리자가 되는 것은 모든 목사의 책임이다 (28 절).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의 보혈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는 목사나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언제나 그분 자신만의 소유로 여겨져야 한다.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목양 하에 있

으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교회 안에 두어졌다 (엡 4:8-16).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키우시고, 그들에게 하려 하신 일을 위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포도원 가운데 원하시는 곳에 두신다 (렘 3:15). 하지만, 복음 사역의 일은 전도자가 기도와 공과와 전도함과 그 자신의 혼을 감독하는데 근면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수고스러운 책무이다 (딤후 4:12-16; 딤후 4:1-5). 그리스도의 목양 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고, 보호하고, 먹이며, 치리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이다. 그는 사람들의 혼을 감독해야 하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복음에 의한 지식과 이해로 먹이며, 복음 전파와 개인적 본으로 하나님의 집을 치리하여야 한다 (히 13:7, 17; 벰전 5:1-3).

목사의 일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양떼처럼 많은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29-31 절). 많은 늑대들이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의 벽 안에서 일어나 양떼를 게걸스럽게 먹어버린다 (자유의지주의, 율법주의, 의식주의, 등). 복음의 교리 안에서 건전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양떼를 거짓 종교의 늑대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목사들의 책임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 복음 안에서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실 수 있다 (32-38 절).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 그가 비

록 에베소인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삼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수고하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손에 교회를 남겨두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교회를 효험 있게 보존할 수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교회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겼다. 그는 그들에게 지침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그분의 복음)을 바라볼 것을 말했다(32 절). 그는 자기 자신의 신실함과 관용의 본으로 복음 전파자들이라 주장했던 모든 자들을 판정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33-35 절). 그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36-38 절; 엡 1:15-23; 3:14-21).

## 60. 다섯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

사도행전 20:17-38

은혜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만든다. 마음 가운데 체험한 은혜는 마음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게 한다. 우리 주께서 실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든 자가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요일 3:10, 16-18; 4:8; 5:1).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모든 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가르치신다 (마 6:14-15). 하나님으로 난 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들이다 (고후 5:17). 모든 참된 믿는 자는 은혜로우신 성령에 의해 새로운 본성을 부여 받았다 (갈 5:22-23). 믿는 자들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죄의 본성을 가졌으며, 그로써 지속적인 전쟁을 한다 (롬 7:14-25). 그러나, 그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 믿는 자는 육체를 따라 걷지 않으며 그 영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여기 다섯 가지 은혜,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의 특징들인 하나님께서 주신 다섯 가지 영적 자격들이다.

겸손 (19 절) -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그가 “생각의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한다. 겸손이 없이 구원이 없다 (시 34:18; 51:17; 사 66:2; 마 5:3

-5; 18:34; 빌 3:3).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의 겸손함”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나 그분의 영광을 섬길 수 없다 (골 3:12).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 어떤 것도 겸손함으로 행해져야 한다 (마 6:3, 5, 16, 33). 대부분의 사람은 겸손이 소심하고 약하며 겁쟁이 영에 의하여 보여지는 것이거나, 마지 못해서 대담하고 마지못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어질 수 없다. 모세는 이 땅 위에서 그가 비록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 중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 12:3). 겸손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이다. 겸손은 죄를 이유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다. 여기 겸손의 특징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여섯 가지 것들이 있다.

1. 겸손은 자신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가치 없음을 깨달음이다 (욥 42:1-2; 시 51:4-5).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얻도록 계획되어 있다. 오히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무가치이다 (눅 18:13; 사 6:5).
100. 겸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자랑과 개인적인 의의 단념이다 (빌 3:9). 누구의 마음도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거나, 그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천 조각 이상이라고 상상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낮아 지지 않는다 (사 64:6).

101.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고 놀라운 은혜로 인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다 (시 116:12, 16).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의 책무와 은혜를 느끼며 살도록 한다 (고전 9:15).
102. 겸손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행 9:6). 그것은 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모든 것에 대한 이 섭리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께 복종하고 대가에 관계 없이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의 결정이다.
103. 겸손은 구원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고 기꺼이 말한다 (고전 15:10).
104. 겸손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며, 자신보다 그들을 더 높이 여기며, 그들의 명예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자신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빌 2:3-8).

회개 (21 절) -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언제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없이 한 사람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뿐이다.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중대하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들이다. 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다.” 바울은, “내가 회개를 전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전하였다.”고 했다.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지나지 않은 율법적 회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산출된다 (롬 2:4).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계시로부터 온다 (숙 12:10). 회개는 그 본질에 있어서, 망탕한 아들 (눅 15:14-20), 세리 (눅 18:13), 그리고 다윗 (시 51:4)에서 예시되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이다. 회개는 하나님께 가장 정직한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다 (요일 1:9). 그것은 사람이 그 죄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과,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항한 대적임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벌하실 권한이 있음을 인정함이다 (시 51:4; 롬 8:7). 회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심

판 가운데 놓는 것이며, 당신 죄를 이유로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만의 공로를 통한 순수한 은혜에 기초한 공훈을 구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도록 할 수 있다 (행 5:31; 렘 31:18; 애 5:21).

믿음 (21 절)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구원 받은 죄인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역사이며 운행하심이다 (엡 1:19; 2:8; 골 2:12).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구원자와 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확신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에 대하여 아는 것을 포함하는데, 당신이 알지 않는 구원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하는 믿음에 본질인 그 지식은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롬 10:17)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음에서 온다 (살 전 1:5). 그리고 믿음은 복음과 함께 한 믿는 사람의 마음의 동의이며, 그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근거로 그리스도의 피와 의 만을 신뢰하게 만든다. 회개와 믿음 모두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며, 자라며 흔들리지 않는 은혜들이다. 그것들은 삶에 있어서 동떨어진 행위나 사건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믿는 자 각자의 삶의 특징적인 태도들이다. 믿는 자는 계속하여 회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화목제와 섭리에 의한 통치와 하늘에서의

중재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

헌신 (24 절) -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헌신된 남녀노소들이다. 그들은 그분께 위임되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혼인 가운데 서로에게 헌신하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는 자들은 그분께 스스로를 위임한다.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획이 생명 그 자체의 궁극적인 희생을 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였다 (딤후 4:6-8).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죄인들이 그를 본을 삼고 따르도록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체험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위임할 것을 요구한다 (롬 12:1-2).

관용 (35 절) - 하나님의 성도들은 관대히 드리는 사람들이다. 은혜가 사람들을 관용이 있게 만든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를 찾는다면, 당신은 열린 마음과 열린 손길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돈을 짊어주고, 그의 소유에 구두쇠이고, 그의 부를 늘릴 것만 찾는 사람을 찾으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며 혹시 은혜와 관용이 함께 하지 않는지를 보라 (약 2:14-17; 요일 3:16-18).

## 61. "주의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0:26-35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 세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어떤 마지막 가르침의 말을 남기려 하는 것이었다. 그 중요한 때 바울의 가르침의 말은 이 장에 우리를 위하여 보존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를 섬기며, 그분의 교회와 우리 세대에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섬길지를 또한 알도록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사단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우리 책임들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시도할 것인 가를 알게 하는 명확한 것들이 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는 사도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 예수의 말씀이다.

복음의 사역 (26-31 절) - 확실히, 바울의 최우선의 목적은 장로와 목자들과 선생들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책무에 관련한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전도자는 "주 안에서 그가 받은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골 4:17; 딤후전 4:12-16).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알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책임이다 (살전 5:12-13; 히 13:7, 17). 바울은 모든 참 복음 전도자와 교회 안의 모든 참된 목자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1.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교회의 파수꾼들이며 사람들의 혼의 파수꾼들이다 (26-27; 히 13:17; 겔 3:15-21; 33:1-16). 감독의 일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그는 집단을 파수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이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너희에게 선포하기를 꺼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그는 신실하게 선포하였다. 그는 뒤로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다. 그것은 사역 전체 일이다. 신실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내놓으신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이다. 그는 성경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 성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란 문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속자의 복음이다 (고

전 2:7).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만 통하여, 은혜로 만의 구원의 전갈을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선포한다.

105. 목사는 하나님의 집의 영적 치리자와 감독자들이다 (28 절). 그가 섬기는 교회의 감독을 행하는 것이 모든 목사의 책임이다 (벧전 5:13). 하나님의 집을 보살핌이 그의 책임이다. 그는 남편이 그의 집을 치리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해야 한다 (딤후전 3:4-5). 목사는 본과 사랑 안에서 치리하여야 한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야 하며, 그로써 그들이 기꺼이 그에 의한 치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는 치리하여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치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그분의 목소리에 의해 치리되어야 한다. 민수기 16:1-35를 읽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로서, 교회를 먹이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다. 많은 자들이 교회를 갈취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지식과 이해로 교회를 먹여야 한다 (렘 3 15).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순수한 복음의 교리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앎으로 먹여야 한다. 그런 지식과 이해는 오직 기도와 연구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목사는 자신을 전적으로 이 일에 드려야 한다 (딤후 4:12-16).

106.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사로 정해진다 (29-31; 엡 4:14; 딤후 3:1-4:5). 목자가 그 양떼를 감독하는 것처럼, 참된 목사들도 파멸적이고 교묘하고 교활한 늑대의 교리로부터 그리스도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감독한다. 이 늑대들(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구석들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공통적으로 네 가지 사항을 갖고 있다. (1)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한다. (2) 그들은 그리스도 피로 인한 구속의 효험 있는 성취를 부인한다. (3) 그들은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효험을 부인한다. (4)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효험 있게 하려고 어떤 해야 할 것을 죄인들에게 준다.

하나님의 교회 (28 절) -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사회이며, 믿는 자들의 가족이다. 그 지체를 함께 붙잡는 유일한 묶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관계이다.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서 적어도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 모든 세대, 구약과 신약, 땅과 하늘 모두에 있는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을 묘사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비밀스럽고 영적인 몸이다 (엡 1:22; 5:25-27; 히 12:23-24). (2) “교회”라는 말은 어떤 주어진 장소에 모든 고백한 믿는 자들의 지역의 가시적인 집회를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한 지역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의 참 소유자들과 믿음을 단지 고백한 자들이 모두 있다. 하지만, 고백한 믿는 자들의 각 지역 집회는 신약에서 지역 교회로서 제시되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진다 (롬 16:1-5). (3) “교회”라는 말은 또한 세상 가운데 어떤 주어진 시간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고전 10:32; 12:28). 그것은 모든 종교들이나 모든 교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의 본과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참 교회들은 하나이다.

사도행전 20:28 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특정한 지역 집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고, 혹은 아마도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장로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몇몇 지역 집회로부터 온 전도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 믿는 자들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 두 가지 사항이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제시되고 있다.

1.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셨다 (살후 2:13). 그분은 그분 자신의 피로 그것을 사

셨다 (엡 5:25-27; 딤후 2:14). 그리고 그분은 효험 있는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불러내신다 (골 1:12-14).

107.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양 무리이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분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길을 잃은 양떼였다. 회심한 후, 믿는 자들은 양에 비유되는데 그들은 온유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인내하고, 전적으로 그들의 목자, 그리스도 예수께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33-35 절) - 35 절에서 바울은 비록 사복음서 가운데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 그러나, 함께 읽고 33-35 절이 인지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다.

1. 하나님의 종들은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지들이 아니다 (33 절). 바울은 화려한 것은 물론 편안한 것조차도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없고 자원하는 선물들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구걸을 거절하였다!

108. 모든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일하는 한 사람으로 수고하여야 한다 (35 절). 각자가 그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공급할 책임이 있다 (딤후 5:8; 살후 3:10). 우리는 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재산을 덜 가진 자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갖도록 근면하게 각자가 수고해야 한다. 믿는 자들은 그들이 직접 일을 하여야 하며 그로써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방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엡 4:28). 이것이 실로 사랑이다 (요일 3:16-19).
109. 기억해야 할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은사대로 관대하게 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으로 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받는 사람은, 그러나 주지 않으나 그를 위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숨김으로,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입증한다 (요일 3:16-19).

## 62.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이다”

사도행전 21:1-40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도착할 때 그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행 20:22-24). 그러나 그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하도록 지시하신 것을 알고 있는 대로 하기를 막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밀레도에서 잠깐 머무른 후에 (행 20:17-38), 그는 고스, 로데스, 바다라 등에 멈추면서 소아시아의 서쪽 해변을 따라 내려갔다. 거기로부터 그들은 키프로스 섬을 돌아 시리아의 두로로 향해하였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 그와 그의 동행은 칠 일간 두로에서 임시 머물렀다. 사도행전 21:1-4 를 읽어보라.

두로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경고하였다 (4-5 절) - 물을 필요도 없이, 그들은 이 경고를 “그 영을 통하여 바울에게” 하였다. 바울이 “그 영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분명한 대조를 이해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 성령에 의해 바울에게 주어진 이 경고들은 그의 믿음과 신실함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으로서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경고가 주어진 후 바울은 단념할 수 없었으며, 두로의 제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바울과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두로를 떠난 후,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으며, 거기서 그들은 전도자 빌립의 손님이 되었다 (7-9 절). 빌립은 원래 집사들 가운데 하나였다 (행 6:5). 후에 그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자이다. 그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그가 가이사랴에 정착하였다 (행 8:40). 지금 약 20 여 년이 더 지난 후,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네 딸들의 가족과 함께 주를 섬기며 그곳에 있었다.

이 하나님의 종은 기혼자였다. 하나님의 종의 혼인을 금한 교황의 교리에 반하여, 신약의 거의 모든 목자들과 집사들과 전도자들은 기혼자들이었다 (딤후전 4:1-5).

빌립은 숙소를 제공하면서 바울과 그의 여행 동료들에게 그의 집을 정중하게 열었다. 은혜는 사람들을 정중하고 관대하게 만든다. 빌립은 그의 집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받는 것을 명예와 특권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시로 손님으로 있는 가정과

집은 기쁘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축복이 머무는 곳이다 (마 10:41-42; 히 13:1-2).

빌립의 처녀 딸들은 예언을 하였다. 이 소녀들이 처녀 맹세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가리키는 바는 없다! 그들은 모든 미혼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아직 혼인하지 않고 처녀들인 젊은 여자들이었다. 이 젊은 숙녀들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설했는지 혹은 교회 공개 집회에서 전하였는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었을 것이다 (고전 15:34-35; 딤후전 2:11-12). 누가 우리에게 그들이 “예언 하였다”고 할 때 그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미래 일들을 미리 말하는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도 시대에 요엘의 예언의 성취의 많은 비범한 표적들 가운데 하나였다 (엘 2:28). 우리는 단지 그들의 예언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우리를 돕는다. 두로(4 절)와 아가보(11 절)의 제자들처럼, 빌립의 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위험에 대하여 바울에게 경고하였을 것이다. 반복하여 성령은 분명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직면할 것들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분명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았다 (행 20:25).

그가 아직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있는 동안, 아가보가 유대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투옥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11-14 절). 바울은 아가보를 안디옥에서 십 오륙 년 전에 만났다. 카이사르 클라우디아스 시대에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한 자가 아가보였다 (행 11:28). 바울은 이 사람과 가까웠으며 그의 하나님께 헌신과 은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아가보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힐 것과 로마로 이송될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예언하였다. 제자들은 바울의 안위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정중하고 긴급하게 그가 그의 계획을 추진하지 말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단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 헌신하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으로 그의 생명을 취할지라도 따르기를 결정하였다 (13 절; 행 20:22-24). 바울의 결정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은 주의 뜻에 순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마 26:42).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더 선호하며 따른다.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그는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허락하도록 야고보에 의해 강요되었다 (15-40 절). 사도행전 21:17-26 을 자세히 읽어



보라.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단락들 중 하나이다.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무도 바울보다 율법에서 믿는 자의 자유를 더 크고 더 많이 모순 없이 주창하는 자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노예의 멍에 아래 돌아가게 되려 한다!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유대인들을 회유하고 바울에 대하여 그들이 들은 괴씸한 보고에 중지부를 찍기 위하여 바울을 설득하였으며, 그는 모세의 의례법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허락하여야 했다. 그들은 바울이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취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민 6:2, 13) 정화의 헌물을 드리도록 하였으며, 바울은 그것을 행하였다!

물을 필요 없이, 이 행위는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에 모순되었다 (갈 2:3, 11; 3:1-3; 5:1; 골 2:16). 본으로서 그리고 연합으로, 바울은 율법주의에 허락하였다. 그의 행동은 오직 율법주의의 영을 갖고 있고 이방인 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다. 오늘날에, 율법주의자들은 이 단락을 왜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주장으로 지목한다.

왜 바울이 이 율법적인 의식에 순종하였는가?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 성전의 파괴를 보지 않았다. 이 변화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유대 믿는 자들은 율법의 관습을 계속하

여 지켰다. 하나님은 사실상 그들이 모세의 율법과 율법의 육체적인 의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을 끊어야만 하셨다. 그러나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 왜 이런 끔찍한 것을 하였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아직 믿음에 약한 믿는 유대인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였다 (고전 9:19-23). 그것은 훌륭한 것이다. 믿음에 약한 자들은 인내 가운데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약한 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순되거나 우리 자신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포도주나 고기가 없이 형제가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율법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이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타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런 것들에 더하여, 바울은 아마도 단지 그의 형제들과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에 지쳤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포기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믿는 자의 완전한 자유에 대하여 그가 강하게 가르쳤던 것들은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타협은 작용하지 않았다 (27-40 절).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달래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한 그들의 용납이 타협으로 쟁취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식 위하여 바울의 생애 이와 같은 슬픈 오점 조차도 은혜롭게 뒤엎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울에게 너무도 좋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좋음이 너무도 입증되었다. 그날 그가 성전에 가지 않았었다면, 그는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며, 로마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감옥 서신서 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부터 선을 가져 오셨으며, 여전히 행하신다!

## 63. 항복

### 사도행전 21:13-16

그리스도 안에 믿음은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로 한 사람의 삶을 항복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이 그 인생의 모든 일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절대적인 신뢰이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삶을 항복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마 10:37-38; 막 7:34-38; 눅 9:23-24; 14:25-33; 요 12:25). 사도행전 21:13-16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참 믿음과 언제나 함께 오는 삶의 그런 포기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바울은 “그 영 안에 매이도록” 하려고(행 20:22) 예루살렘으로 그의 길을 갔다. 그는 거기서 그를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몰랐다. 그러나 성령은 “결박과 고난”(행 20:23)이 그를 분명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에게 확신시켰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던 기쁜 깨달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할 지라도, 그의 여정을 끝내기로 결정되었다.

모든 여정을 따라 주님은 그의 결심을 시험하였고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다. 첫째,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이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강권하며 바울에게 간청하였다 (4 절). 그리고, 아가보가 가이사라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속박을 아주 담대하고 생생한 예언을 하였다 (10-11 절). 그 후, 모든 제자들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애원하였다 (12 절).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와 가이사라의 제자들은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 마음에 바울의 최선의 유익을 품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대가나 결과에 관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우리 앞에 얼마나 놀라운 예를 남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셨을 때, 우리 책임의 경로가 분명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관계 없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걸어야 한다. 하나님의 알려진 뜻에 불순종의 무시를 정당화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왕상 13:26).

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애정 어린 헌신과 생명의 포기를 포함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

의 몸을 산 제사로 주께 드릴 것을 말했을 때 (롬 12:1-2), 그는 이미 그렇게 하였다. 그의 삶은 13 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스스로 희생하는 헌신을 한 삶이었다.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행하거나 고난 받도록 부름 받을 만큼 자격이 있으며, 또 그 이상 무한한 자격이 있으시다. 이것은 그분을 아는 모든 자에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입증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분은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분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즉 모든 것 위의 하나님이며 영원히 축복된 분이시고, 우리의 성육신 하신 중보자 이며 대속물이시기 때문에 받으실 만한 분이다 (사 9:6-7; 요 1:1-3, 14; 빌 2:6-8; 골 2:9; 딤후 3:16; 히 1:1-3).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것-보증계약(히 10:5-14), 우리 본성을 취하심(고후 8:9; 갈 4:4-5), 순종의 대표(롬 5:19), 그리고 속전과 대속물과 희생의 죽음(롬 5:6-8; 고후 5:21; 벧전 2:24; 갈 3:13)-으로 인하여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모든 것-그분의 변호

(요일 2:1-2), 섭리에 의한 통치(요 17:2), 우리를 위한 하늘에서의 예비하심(요 14:1-3), 성도들의 부활(살전 4 13-18), 그리고 영화롭게 함을 온전케 하심(엡 5:25-27)-으로 인하여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소리치게 된다.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참 믿음은 다른 무엇보다, 심지어 생명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 믿는 자들에게, “그는 보배롭다.” (벧전 2:7). 믿음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와 그리스도 외 다른 어느 것도 견줄만한 가치가 없음을 감지한다 (빌 3:4-11).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정도는 변화하며, 믿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그러나 은혜가 체험되는 곳마다, 빛을 느낀다 (눅 7:36-50).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지고 드러지는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사랑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행하며,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싶어한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감, 그리스도께 완전한 순종 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런 종류의 헌신이 매우 합당한 것으로 여긴다 (롬 12:1-2; 14:7-8; 고후 5:15).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 바울이 개인적인 만족을 따르지 않은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친구,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생명을 드릴 것을 “주의 뜻이 이루어 지리이다.”라고 말하며 순복 하였다 (14 절). 그렇다 할 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순복 하는 것이 책임이고 우리의 최선의 유익 가운데 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순복시키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다 (약 4:15). 그리고 개인적인 시험과 환란과 골치거리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 깨달으며 겸손하게 인내하는 것이 인내의 행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 받는다 (삼상 3:15).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보하기를 구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하나님의 비밀스런 뜻은 섭리에 속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며 계명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조물주이다 (롬 11:36; 고후 5:18; 엡 1:11). 어떤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된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기인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었다 (사 46:9-11).
110.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가 복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명령하셨



다고 아는 것들을 할 책임이 있다 (요 2:5).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회개하여야만 한다 (행 17:30). 모든 믿는 자들은 물 속의 무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침례 받을 책임이 있다 (행 2:38).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는 그분의 증인이 될 책임이 있다 (행 1:8).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대가나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복종하여야 한다.

111.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뜻은 시간 가운데 무엇이든 일어난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 (롬 8:28; 살전 5:16-18). “주의 뜻이 이루어 지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계획에 속한 뜻을 신뢰하고, 계시에 속한 뜻에 복종하며, 섭리에 속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참된 믿음은 종말에 목적을 이룬다. 16 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목었던 “키프로스의 한 므나손이란 늙은 제자”에 대하여 말한다. 얼마나 감미로운 말인가! 내가 늙은 이로 살아야 한다면, 내가 “나이든 제자”로 살게 하라. 나는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 “므나손”이란 뜻은 “기억하는 자”이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속과 은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였다. 그가 분

명 누렸을 얼마나 귀한 기억들인가! 그는 키프로스의 작은 섬, 바나바의 고향 출신이다. 그리고 그는 “나이든 제자”였다. 그 말이 함축하는 것은 그가 연배가 앞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축어적으로 그가 “처음부터 제자”였음을 의미한다. 므나손은 믿는 자들의 첫 무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삼십 년이 지났다. 므나손은 육체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었던 자들 중 남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그의 옛 친구들은 이미 천국으로 갔다. 그러나 므나손은 여전히 제자였다. 그는 아직도 그의 주에게서 배우고, 주를 따르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환대를 받았으며, 교회 안에서 높이 칭송 받는 자로서 그가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유대인 형제들이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크게 비중으로 작용하였다 (17 절). 늙은 제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 64. 바울의 믿음의 변명

사도행전 22:1-30

사도행전 22 장은 바울이 성난 종교인 폭도들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한다. 위험한 범죄자인양 사슬에 묶여서, 그는 사람들에게 손짓 하여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행 21:40).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고하고 힘있는 변명을 하였다. 히브리 어로 회유의 말로서 조용히 말하면서, 바울은 형제들로 여기며 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연설하였다. 비록 그들이 어떤 영적 의미에서 그의 형제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천연적인 감정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가 해야 할 말을 그들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거기서 그는 성공적이었다 (1-2 절).

이 장을 읽을 때 바울의 말의 단순함을 특별히 인지하라. 비록 그가 역사와 전통과 철학과 문학과 논리와 신학적 정통성에서 사로잡을 논쟁과 예시를 보일 만큼 매우 잘 훈련되어 지적이고 능력이 있었지만, 또 비록 그가 시적 상상력과 웅변적인 달변과 놀랄 만큼 아름다운 상상력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하였다 (고전 2:4-5). 이런 극적인 순간에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는 단순하게 그의 회심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그의 청중들에게 가능한 한 단순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으로 그를 위하여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방법이다.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최선의 변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간증이다.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아는 것을 단순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 받은 죄인들이 그들이 아는 다른 죄인들에게 단순하게 말해야 한다 (요 9:25). 세 가지 영적 공과가 이 장에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다.

첫째, 사람이 매우 종교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길을 잃고 있을 수 있다 (1-5 절). 사람이 성경의 글에서 잘 배우고 자기 부인에 이르도록 성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알지 않은 채 하나님께 매우 열심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바울이 말한 했던 성난 폭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열광적인 종교인들 폭도였다. 3-5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그도 그들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 “오늘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는 엄한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육받았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이며,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났다.” 그는 견줄

수 없는 종교적 혈통을 갖고 있었다 (빌 3:4-6).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대 회당의 존경 받는 충성스런 지체들이었다. 그는 평생 종교적이었다. 그러나 은혜가 혈통 속에 흐르지 않고 있다. 은혜는 본성적으로 관대히 오지 않는다 (요 1:11-13). 바울은 또한 율법서들로 매우 잘 훈련되었다. “이 도시(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성장했으며, 율법의 완전한 행동거지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성경을 알았다. 그는 엄격하게 도덕적이었다. 그의 삶은 도덕과 종교적 순수함의 표본이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정결치 않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 만큼 매우 훌륭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는 알았다고 확신하였지만, 하나님을 몰랐다. 믿음은 배울 수 없다. 믿음은 주어져야만 한다 (빌 1:29). 구원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계시의 결과이다 (고후 4:5-6). 더욱이, 바울은 그의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는 일에 헌신하고 성별하고 열심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이었다. 그는 종교의 가짜 교수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볍게 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전심으로 종교적 임무의 수행에 드렸다 (4-5 절). 그러나 은혜는 종교적 행위들로 얻을 수 없다 (롬 3:20; 11:6; 엡 2:8-9). 질문의 여지 없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고, 그리스도가 없었으며, 생명이 없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었다 (엡 2:12). 그

의 종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황을 입었고 그가 받았던 공황에 놀라운 마음을 결코 잃지 않았다 (딤후 1:12-17).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바울과 같다는 것-종교적이지만 길을 잃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틀림 없이 종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소유한다. 당신은 분명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요 17:3; 골 1:27; 요일 5:11-12).

둘째,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다.” (6-21 절). 3-5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전에 그가 누구였는지 말해 준다. 6-21 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하셨던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구원의 전부를 돌리고 있다. 이 절들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이다 (고전 15:10). 이 절들에서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그가 “그들에게 이후에 믿어야 할 본”으로서 그가 처한 입장을 네 가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말하고 있다 (딤후 1:16).

1. 바울은 주권적인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를 그의 대역의 과정 안에서 마주쳤다 (6-11). 조만간 하나님은 모든 선택 받은 죄인의 여정과 마주치실 것이다. 6 절의 시작에 있는 말씀-“그리고 일어났다.”-을 주목하

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을 향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선을 위하여 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이로운 나타남을 본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채 다마스쿠스로 향했다. 그러나 다소의 사울이 구원받아야 할 사랑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데려오셨다 (겔 16:8). 그는 주를 찾고 있지 않았다. 주께서 그를 찾고 계셨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주 예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의 권능 안에서 이 선택되고 구속 받은 죄인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부신 계시로 압도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주장을 접하고, 구원자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효험 있는 부르심에 의해 부름 받아, 다소의 사울은 회개 가운데 부서졌다.

112. 신실하고 복음 전도자의 가르침으로 바울은 영적 빛 비춤을 받았으며 복음 안에서 깨달음을 받았다 (12-15 절). 바울의 경우에서 조차도 은혜의 통치는 깨지지 않았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느니라.” (롬 10:17). 그는 스테반의 입술로부터 나온 복음을 들었다 (행 7:1-59). 그러나 이제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그것을 들었다. 비록 그가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문자로 말씀을 배웠지만, 사울은 어떤 야만인만큼이나 영적 진리에 무지하였다. 영적 진리는 영적으로 계시되고 영적으로 배워야만 한다 (고전 2:11-16). 그리고 성령께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방법은 복음의 사역이다 (엡 4:11-14).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시는 은혜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는 택정하심의 목적은 구원임을 바울에게 가르쳤다 - “그대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분의 계시된 뜻, 복음,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울 수 있으며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의 의로운 분이 되실 수 있다 (롬 3:24-26). 다음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죄인들의 대속물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의로운 한 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구원은 온다는 것을 말했다. 다음으로, 그는 효험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영의 부르심에 의해서이다 (살전 1:4-5; 살후 2:13-14; 시 65:4).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택하셨다고 말



했다. 그것이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의 평생의 일이다 (사 44:8; 요 20:21).

113. 바울은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침례를 고백하였다 (16 절). 침례는 구원하고 구속하는 효험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의 죄들을 그리스도의 사망과 장례와 부활로 씻어버리는 상징적인 그림이다.
114. 믿는 자로서 바울은 그 영에 의해 인도되고 걸었다 (17-21 절). 믿는 자들은 그 삶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는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 받는 사람들이다 (롬 8:9-16).

셋째, 22-30 절에서 성령은 한 번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이 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전했던 은혜로운 전갈,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체험하였던 은혜로운 그의 간증이 그들을 격분하게 하였다. 은혜로 만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구원은 언제나 길을 잃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격분시키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 기뻐한다 (고전 1:22-24).



## 65.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사도행전 22:22-28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의 말을 들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은혜와 주권적인 공화로 그를 구원하셨는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주권 가운데 나라인 이스라엘을 거절하셨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분의 택한 자에게 복음을 보내셨는지 말할 때까지 상당히 인내를 갖고 들었다 (17-21 절). 사람의 공로나 종교적 배경, 가족 혈통, 혹은 인종적 유산에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화를 베푸신다고 들었을 때, 그들은 사로잡혔다. 타락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의 실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선포에 의해 격분한다 (눅 4:25-29).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셨고 하찮은 이방인을 구원하려 택하셨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 자기의 유대인들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들은 야생 동물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런 친구를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라. 그가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소리쳤다. 바울의 피를 요구하며 외치면서, 그들의 옷을 찢고, 그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였으며, 공중

에 흠을 날렸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징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거의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에 손을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총대장은 그의 병사에게 바울을 쳐서 심문하기 위하여 성으로 데려올 것을 명령하였다 (24 절). 병사들이 그렇게 하려 준비하고 있을 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라고 말했다 (25 절). 물론, 그렇지 않다. 로마 시민을 칠 생각은 병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달려가 그의 지휘관에게 말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을 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총대장도 역시 두렵게 하였다. 그는 바울에게 와서 말했다. “네가 로마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27-28 절). 그는 자유로운 성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 기원전 83년 1월 14일 - 30년 8월 1일)에 의해서 바울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자유가 선포되었다. 이 공과의 목적을 위하여, 나는 로마 시민 다소의 사울의 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인 믿는 자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취하겠다. 여기서 바울이 자

신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든 참 믿는 자가 자신에 대하여 기쁘게 선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께서 그분의 피의 권능으로 그 성이 자유함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늘 왕국의 자유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노예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갈 5:1).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해하여야 할 이 영적 자유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다. 인간은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자랑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영적 의미 가운데 천연적으로 종이 될 대상들이다. 모든 자는 죄에 노예 상태에 있고 (롬 6:20), “육신의 정욕”의 종들이다 (엡 2:3). 자기 자신의 열정에 전력하는 자들은 가능한 가장 최악의 폭군에게 노예이다. 하지만, 천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락한 마음의 사악한 열정에 의해 모두 지배 받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모든 사람은 율법에 노예 상태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으며 (갈 3:10), 사망 선고 하에 있다 (롬 6:23). 어떤 정도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천연적으로 노예들이며, 그들의 허락과 용납과 칭찬을 열망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 전통에 노예들이며 본성에 의해 미신에 종들이다. 인간성의 최대는 사실이다. “인간은 믿으며 성장했던 것을 믿는다.” 종교는 문화적인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다. 이 천연적이고 문화적이며 환경적인 종교는 사람들을 끔찍한 노예 상태로 끌고 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 잡힌 자를 자유 하게 하고, 감옥의 문을 열며, 쇠사슬과 강철 족쇄를 부수고, 사람들을 행방과 자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이끌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사 61:1; 눅 4:16-20).

그리스도만 죄인을 자유하게 한다.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와 은혜로 인함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자신의 양심 가운데 결코 참 해방을 누리게 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해방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모든 선한 것은 사탄에 의해 모방되며, 사탄은 거짓 해방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하여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해방이라고 상상한다. 다른 사람들은 외적 행위의 어떤 악한 습관을 그만두는 것같이 자기의 개혁신으로 자신의 생활을 고쳤을 때 해방을 찾았다고 간주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영적 자유를 위하여 은혜의 이름 안에서 음란의 영을 대신 사용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율법주의도, 반율법주의도, 공허

한 종교적 고백도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죄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요 8:36).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 그분의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한 해방을 사셨다 (갈 3:13). 그는 복음을 전하심으로 죄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다 (사 61:1-3). 그리고 그는 진리이신 그분을 알도록 죄인들이 깨어나도록 하시는 분인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통한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다 (요 8:32).

하나님에 속하여 난 모든 자는 태어나며 자유롭고, 자유함 속으로 태어났다 (갈 4:1-7). 사람이 거듭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는 그 혼 안에서 실제이고 영속하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한다. 믿는 자가 성장하여 성숙하면서, 그는 그의 자유를 보다 자유롭게 누리며 그것을 더 감사한다. 그러나 자유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자마자 그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범죄 사실과 정죄와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히 9:14; 롬 8:1; 엡 2:1-5; 롬 6:11-18).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또한 사탄의 권능과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다. 본성적으로 사탄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 속이며 사탄의 의지에 포로로 이끌며 모든 사람 위에 강압적 통치를 잡고 있다.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마귀를 그 권좌에서 쫓아내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택하신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강한 사람을 묶으시고 그 집의 소유를 취하신다 (눅 11:21-22).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 율법에서 그 백성을 자유하게 하였다 (롬 5:20-21; 6:15; 7:4; 8:1-2; 10:4). 신약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이 아니라, 언제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백성, 구약의 사법적 법으로부터 자유한 백성, 율법의 의식으로부터 자유한 백성, 도덕법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자유한 백성으로 언급한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자들은 율법으로 아무런 언약도, 율법에 의한 아무런 정죄도, 율법으로부터 아무런 제약도, 율법에 아무것도 속박됨이 없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율법의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통치 받는다 (요일 3:23; 고후 5:14; 고전 10:31). 그러나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는 이런 교리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 확장되며, 매일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에 도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인간 종교의 모든 습관과 전통과 미신들로부터 자유를 준다. 우리는 자기 의와 종교적 전통과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 15:1-9; 골 2:6-8, 16-17, 20-23). 하나님의 교회도 복음 전파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좌우할 율법이나 계율을 만들 어떤 권리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을 섬기기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음식과 행복과 만족과 위로를 위하여 사용할 자유가 있다. 구약의 레위 율법은 불법적인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지극히 평범하거나 불결한 것은 없다 (행 10:14-15; 롬 14:14; 딤후전 4:1-4). 모든 것을 알맞게 사용하라. 더 약한 형제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라. 여러분의 사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평안에 모든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피조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라 (롬 14:2-3, 13-15, 20-23; 고전 8:9-12).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자유, 그분의 집의 성찬을 지킬 자유, 그리고 그분을 섬길 자유-를 주셨다 (엡 2:18; 히 4:16). 더욱이 하나님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히 2:14-15).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구속 받았고, 그분의 의로 옷 입혀졌으며, 그분의 영에 속하여

났으므로, 사망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위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 (계 20:6; 요 5:25).

그러나, 아직 계시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다 (롬 8:21-23). 하늘에서 우리는 죄와 모든 죄악 된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부활 가운데 몸이 영광스럽게 되며, 영원불멸과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될 것이다!

## 66. 바울과 그의 대적들

사도행전 23:1-35

믿는 자들을 평강의 마음으로 비탄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사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믿음이다.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예외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며, 그분의 계획을 따라 부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영적 선을 이룰 것을 안다.” (롬 8:28).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 위에 계신다! 비록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것 가운데 언제나 즉각적인 선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선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환란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평강 가운데 지켜진다. 사도 행전의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악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분명한 제시이다. 사도행전 23 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한 교훈적인 사례를 제시해 준다. 분명하게 이해되고 지속적으로 기억되어야 할 네 가지 것들이 이 서른 다섯 절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다 (1-10 절).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거슬리는 태도와 행동과 말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천연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품고, 혹은 관대하여야 한다. 천연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모든 소신과 모든 종교에 관대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종교,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대가 없는 구원의 전갈, 피의 속량에 의한 구원의 전갈, 전가된 의, 그리고 신성한 거듭남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거슬린다 (고전 1:18-25). 그것은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거슬린다 (롬 8:7).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타락과 죄와 영적 무기력을 노출시킨다 (마 15:19; 롬 3:9-19; 엡 2:1-4). 그것은 사람의 선을 무효화하며, 사람의 의의 악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종교를 가치 없는 것으로 폐하여 버린다 (사 1:2-15; 암 5:21-23). 복음은 구원은 행위가 없이 은혜로만임을 선포한다 (롬 11:5-6); 엡 2:8-9; 딤후 1:9). 이것들을 천연적인 사람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의 끔찍한 폭동은 한 가지에 의해 발생하였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태정하고, 구별되며, 구원하는 은혜를 전하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하였다. 격분하여 그들은 소리쳤다. “그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 버리라. 그를 살려 두는 것은 마땅

하지 아니하다.” (행 22:20-22; 눅 4:25-29).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유대 공회에서 한 바울의 말과 그 결과를 다시 읽어보라 (1-10 절).

하나님의 종의 용기를 훌륭하게 여기라 (1-5). 로마군 사령관은 바울을 데려와서 피에 굶주린 폭도들에게 조사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묶여 있음에도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였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그의 생명이 언제나 고결한 하나였으며, 그것을 그들 모두 사실임을 알았다 (1 절). 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은 원칙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행해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그의 열심이 지식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했던 것을 하였다 (빌 3:6). 바울이 그것을 말하자 마자, 아나니아는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2 절). 바울은 화가 나서 분개로 격앙되어 대답하였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3 저르).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는 척하였으나 율법에 모순되게 그를 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나니아를 위선자라고 불렀다 (마 23:27).

[주] 율법을 따라 살며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척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위선자들인데, 왜냐

하면 그들 중 아무도 율법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딤후 1:6-7; 갈 6:12-13).

바울의 이 말은 분명 계시 받은 예언의 말이었다. 오 년 후, 이 사람 아나니아는 칼에 맞아 죽었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대적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치며 복수하실 날이 올 것이다.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 선포를 하도록 도전 받았을 때 (4 절), 그는 대답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바, 너는 네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5 절; 출 22:28).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또 유대인 제사장이,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장에게 가득했고 그리스도에 의해 헛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대속자 외에는 아무도 대제사장이 아닌데, 거만한척 하는 모습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히 7:24-25; 10:1-14; 요일 2:1-2). 5 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그들에게 빈정대는 말투가 있다. 그것은 그가,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며, 나는 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난 후, 사도는 그의 대적들을 따돌렸다 (6-10 절). 그는 바리새 인들과 사두개 인들이 적들인지 알았

다. 바리새 인들은 자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문구를 믿었고 불멸의 교리와 죽은 자의 부활을 고집스럽게 수호하였다.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였다. 양쪽이 처음 함께 했던 유일한 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서였다. 서로 극히 싫어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나는 바리새 인이라.”고 말했고, 두 무리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과 다른 교리의 모든 것이 다른 가운데, 바울은 여전히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였고 믿었다. 일단 두 무리가 싸우기 시작하였을 때, 총대장은 그들로 인하여 바울이 조각나기 전에 그의 병사들을 때 보내 바울을 성내로 데려오게 하였다.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며 그들을 분노하게 휘젓는다는 것을 깨닫는 한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분 자신의 소유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11 절). 이틀 간의 지속적인 희롱이 있는 후, 주께서는 그분의 고통받는 종에게 자신을 알리도록 하셨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분의 소유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 28:20; 빌 4:4; 히 13:5).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어둠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 (단 3:35). 아마 바울은 비관적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대한 그의 친구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를 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을 것이다 (행 20:16; 21:13). 아마도 그가 로마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 옆에 서 계셨고, 기운내라고 바울에게 하셨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나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나의 증인이 또한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시 42:11; 사 41:10; 43:1-5; 46:4).

셋째, 12-35 절을 읽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주권적으로 선을 위하여 섭리의 속한 모든 사건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그분의 택하신 자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시 76:10; 115:3; 135:6; 롬 8:28-30; 11:36).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궁극적으로 로마로 보냈던 것은 사악한 사람들의 분노였다. 하나님은 유대인 광신자들 (테러리스트들) 무리의 악한 음모를 취하여 그것으로 좋게 하셨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사령관으로 하여금 바울을 자기 휘하의 470 명의 병사들의 보호 아래 보낼



것을 명령하게 하셨다. 그가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총독인 벨릭스 앞에 보내졌을 때, 벨릭스는,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그를 가두라고 명령하니라.” (35 절).

넷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흠이 없고 나무랄데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29 절).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하기 위하여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증오했다. 그들은 그를 죽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흠잡을 곳이 없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그의 교리를 빛나게 하였다.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이기를 (딤후 2:10; 빌 2:14-16).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반대에 직면 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 때, 주님은 바울 옆에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 서실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혜롭고 선한 섭리를 확신을 갖고 신뢰하자.

## 67.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른 길”

사도행전 24:1-27

사도행전 23 장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헤롯의 재판정에서 체포되어 있는 것으로 끝났다. 그는 밤새워 그곳으로 끌려왔으며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의 명령에 의해 470 명의 로마 병사의 감시 하에 있었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서신을 써서 바울의 사건의 유별난 상황과 그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행 23:25-30).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벨릭스는 바울에게 일단 그를 고발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면 그의 사건을 들을 것임을 말했다.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이 역사적 이야기는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지혜가 마음에 놓여질 것이라는 특별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의도된 것이다.

첫째, 유대인의 바울에 대한 고소는 비록 근본적인 것이지만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악한 명목과 불손한 동기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기란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1-9 절). 바울은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확실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

락한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는 체포되었고 하찮은 범죄자로 취급 받았다 (딤후 1:8-9).

그의 고발인들(대제사장 아나니아, 공회(“장로들의”) 대표자, 더들로라 하는 교활하고 세련된 율법사)이 도착했을 때, 바울은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끌려왔다. 더들로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벨릭스의 생각에 편견을 줄 의도로 계획된 화려한 작위 수여식을 시작하였다 (욥 32:21-22; 사 12:2-3; 잠 26:28). 바울에 대한 고소는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1.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친구였다.” 이 혐의는 바울을 문제 인물, 지속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키는 자로 취급하려 의도되었다. 팔레스타인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고, 총독은 자연히 그런 것을 싫어하였을 것이다.
115. “세상을 통틀어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선동꾼과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들.” 여기서 더들로는 바울이 나사렛 사람 예수의 추종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벨릭스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적인 종파라고 여겨졌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아무도 정치

적 권력으로 세상에 영향주기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정치적인 세상과 교회 세계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통치될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그와 같은 놀랄만한 결과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의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정복을 추구한다 (고후 10:3-5).

116.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이 사건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혐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려고 갔다는 것이 혐의였다. 총대장 루시아를 연루시키려고 했고, 그들 자신의 사건을 좀더 유리한 측면으로 하려는 시도에서, 더둘로는, “만약 루시아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이 문제로 귀찮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이 사람을 당신들이 직접 심문하면 우리의 혐의를 입증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아멘”이라고 말했다.

이들 혐의는 그들이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울에게 씌워졌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과 최전선에서 있는 사람에 대하여 증오하는 것으로 그들의 자신의 양심과 종교 계율

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과, 하나님과 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둘째, 바울이 그 자신을 변론하고자 썼을 때,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인정하였다 - 참 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언제나 주류를 이룬 인간의 종교적 지론에 의해 이단의 길로 여겨진다 (10-21 절). 바울은 벨릭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이 내가 당신께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따라나는 그렇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바울의 대답은 더둘로의 포괄적인 혐의보다 좀더 구체적이었다. 법정에서 간단히 말을 한 후에, 경의를 받을 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아첨함이 없이, 바울은 그의 고소자 들에게,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혐의에 대하여 근거가 없음을 알았다. 그는 오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다 (17 절).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그들의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주는 연보와 헌물을 가지고 왔다 (17 절; 행 11:29-30; 롬 15:25; 고후 8:4; 갈 2:10). 그는 차분하고 율법적인 태도로 왔다. 그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진짜 원흉들은 소아시아에서부터 그를 따라 왔고 그

에 대한 중상하는 소문을 퍼뜨린 말썽꾼들이었다 (18-19).

주류 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해 왔다. 은혜로 만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구원의 전갈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인간의 교만과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력과 그의 가누더기 천임을 선포하는 그의 의를 상하게 할 뿐이며, 죄에 대한 대속자의 속량이 필요함과 무한한 공로의 대표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계시한다. 비록 모든 세상(학원, 정치, 종교)이 달리 말하지만,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유일한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전갈이 있으며 그것은 율법서와 예언서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높이는 것이며,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전갈,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록 모든 세상이 그것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지만,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사실들, 일곱 가지 영적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다.

1.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로써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딤후 3:16-17; 벰후 1:19-21; 사 8:20).

117.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들 위에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며 창조와 섭리와 은

혜 가운데 주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계시다 (시 115:3; 135:6; 롬 11:36).

118. 모든 남녀노소는 천연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완전하게 타락하였으며,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이다 (시 51:5; 롬 5:12; 엡 2:1-4).
119.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택정하심으로 주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 받아야 하고 받을 백성을 선택하셨다 (엡 1:3-6; 살후 2:13).
120.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를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그들의 죄들을 없애시며 효험 있게 구속하셨고, 그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사 53:1-12; 고후 5:21; 갈 3:13; 히 9:12; 벰전 2:24).
121.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적용에 있어서 거절될 수 없으며, 언제나 약속된 시간에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효험 있게 하신다 (시 65:4; 110:3).
122. 모든 참된 믿는 자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킴을 받으면서 지켜 나갈 것이다 (요 10:28; 빌 1:6; 벰전 1:5).

셋째, 벨릭스는 “좀 더 편리한 시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미루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벌이 판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신호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22-27 절). 바울은 로마 총독과 그 아내에

게 그들이 너무도 많이 들었던 바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하여, “그 도”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 필요와 복음의 도덕적 영향 모두를 매우 강조하였다. 벨릭스는 분명하게 감동을 받았지만, 꺾이지 않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에 직면하여,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좀더 편리한 시기”로 미루었다. 그러나 “좀더 편리한 시기”는 결코 오지 않았다. 오늘날 벨릭스는 지옥에 있는데,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경고 받도록 하자!



## 68. “죽은 자의 부활”

사도행전 24:10-21

사도 행전 전체에서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자의 필연적인 부활을 강조하였다. 맞디아가 사도 유다를 대신하도록 선택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 자는 “부활에 속한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22). 사도의 최우선 기능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오순절 날에 사도는 그 영에 의하여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2:31).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공회 앞으로 갔을 때, 그들이 체포에 대하여 제시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는 것이었다 (4:2). 그들이 풀려났을 때, “그리고 큰 능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4:33). 아테나 사람들의 의구심을 일으켰던 것은 부활에 대한 전파였다. 그들은, 바울이 “이상한 신들을 전파하는 자인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파하였기 때문이었다.” (17:18). 그리고 바울이 그를 벨릭스 앞에 고소하였던 유대공회에 답하기를, 나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을 갖고 있으니…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24:15).

죽은 자의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 의해 믿은 바 된 복된 복음의 교리이며 위로로 충만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혼의 불멸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몸이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육신이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천사들과 “온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 안에서든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사탄과 악마와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참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자연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혼은 불멸 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이교도들조차도 사람의 혼은 너무도 놀랍고 비밀스럽기에 영원히 견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한다. 이교도 종교와 이교도 철학은 혼의 불멸을 인정한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다른 문제이다. 이것은 과학이나 철학으로 발견되거나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신성한 계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의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그

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와 그분의 피로 구속 받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는 불멸의 생명과 영원한 기쁨 속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왔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창세로부터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문제였다. 욥, 아브라함, 요셉, 모세, 한나, 다윗,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모두 자신감과 기쁨으로 그것에 대하여 말했다 (욥 14:12, 14, 15; 19:25-27; 히 11:19, 22; 신 32:39; 삼상 2:6; 시 16:8-11; 17:15; 사 26:19; 겔 37:11-14; 단 12:2). 신약 안에서, 부활에 관련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을 간단하게 이 공과의 영역 안에서 열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의 입에서 나온 두 단락이 그분의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충분할 것이다. 요한복음 5:25-29와 11:23:-26을 읽어보라. 요한복음 5:25와 계시록 20:6에서 언급한 첫 번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새로운 탄생과 거듭남과 부활이다 (엡 2:1-4). 그러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글자 그대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요 5:28-29; 11:23-26). 예녹

과 엘리야의 변화는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약속으로 선다 (창 5:24; 왕하 2:11). 두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으로 올려질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난 후일 것이다 (살전 4:13-18). 하나님의 성도들의 몸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하여 확신시켜준다 (유 9). 비록 우리의 몸이 매장되어 있는 동안 잠들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킨다. 성경 안에 기록된 죽은 자의 많은 부활들이 보여주며,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기록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려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왕상 17:21; 왕하 13:21; 마 27:50-54; 눅 7:14; 8:54-55; 요 11:43-44; 행 9:40; 20:9).

우리의 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 (고전 6:13).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의 혼 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도 구원하신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는 그분이 갈보리에서 속량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몸을 일으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롬 8:23; 엡 1:14). 몸은 주를 위함이며, 그분이 그것을 취하실 것이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고전 6:15). 우리 혼이 생명으로 그분께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엡 5:30-32). 믿는 자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고전 6:19-20). 성령이 성도의 몸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그 몸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멸하지 않게 하신다. 비록 이 성전이 흠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의인의 부활” 가운데 다시 지어질 것이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 위에 세워진다 (고전 15:1-23, 49).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와 대표자로서 사망에서 살아나셨다면, 그분의 모든 백성도 또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죄에 대한 속량은 없으며,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아무런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며...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구원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망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전가되었던 우리의 죄들이 사라지며, 그분의 피로 씻겨져 나갔다. 공의는 만족되었다!...그분의 의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무한한 공로에 속한 것이다...그리고 그분의 모든 백성,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자는 사망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지만, 그 첫 열매는 앞으로 더 올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의인의 부활이 있

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믿음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불의한 자의 부활도 또한 있을 것이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 모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양과 염소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 흠 없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 죄들이 그분의 대속의 희생으로 없어진 자들은 그들의 몸을 입고 하늘의 기쁨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고, 그들의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으며, 대속물이 없는 자들은 몸과 혼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진노의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하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분 자신만 아는 어떤 방법으로 주 하나님은 저주 받은 자의 몸과 혼을 영원히 유지시킬 것이며, 따라서 비록 그분의 경감되지 않은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지만, 그들은 사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 5:27-30; 10:28). 이것들을 깨달으며, 바울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고후 5:11). 의인과 악인 모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않고 그분의 의로 옷 입지 않는다면, 몸과 혼은 영원히 저주 받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

스도가 없다면, 이 글을 읽는다 할 지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호소한다.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원히 살아라.

“너희 죄인들아, 그분의 영광을 구하라. 그분의 진노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난처로 피신하며, 그 곳에서 구원을 찾아라!” 지혜가 있는 자들은 모두 즉각적인 사망과 부활과 심판과 영원의 기대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도록 하자 (막 8:35-37; 고후 4:18-5:21).

## 69. 치명적인 망설임

사도행전 24:22-27

사도행전 24 장의 마치는 절들은 머뭇거림의 사악과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등대로 서있다. “몇 날이 지난 후, 벨릭스가 유대 여인인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을 때, 그는 바울에게 보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하여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있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논할 때, 벨릭스는 떨며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편리한 때에 너를 부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년 동안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바울을 잡아두었다.” 얼마 후, 이 동일 인물 벨릭스는 자살하였다. 벨릭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누구든지 영원한 저주의 판결이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 망설임은 언제나 악하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포와 관련한 망설임은 치명적이다. 만약 성령의 권능으로 전달된 그리스도의 선포를 직면하였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망설임은 성령을 거스르는 신성모독이다 (마 12:31; 잠 1:23-33).



바울은 벨릭스와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벨릭스는 악명 높게 사악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예로부터 일어서서 교활함과 배반으로 유대의 로마 총독이 되었다. 그 배후에 로마의 권세를 가진 벨릭스는 바울에 대하여 그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그를 죽이거나, 그를 감옥에 넣거나, 그를 놓아줄 수 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벨릭스가 바울을 그 앞에 불러 세운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바울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견해들이 자극적이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분명 그의 죄수가 그의 죄를 드러낼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회개를 요구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일어났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포획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능으로 전하였다. 질문할 필요 없이 바울은 담대하게 벨릭스의 죄를 드러냈고, 그의 마음의 타락과 그의 행위의 악함을 모두 드러냈다. 그러나 사도가 이 이교도 총독에게 그의 행위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그를 도덕적으로 개혁된 사람이 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시도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총독의 마음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주제는 도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 그는 이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이 회개와 믿

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엮드리게 되도록 노력하였다.

첫째, 바울은 벨릭스와 의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도록 되기 전까지는 구원조차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은혜 가운데 죄인들을 다루실 때, 의로서 그들을 질책하신다 (요 16:8). 사실에 있어서, 바울은, 벨릭스여,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공의롭고 참되시다고 말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완전하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렇지 않으며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진노 가운데 소멸해 버리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충만한 사람이며,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며, 죄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의를 산출할 수 없다. 그것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이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죄인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주 우리 의”이다. 벨릭스여, 당신과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의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죽으심에 의해서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주 예수 그

리스도를 믿어라. 만약 당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의가 되신다.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은 그분이 당신의 죄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없애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하셨으며, 당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출생하였다는 사실의 증거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라. (1) 주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하시다 (시 7:9-11; 단 9:14). (2) 거룩한 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 안에, 그분에 의해 받아들여진 모든 자 가운데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레 11:44:45; 22:21; 마 5:20; 히 12:14). (3)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산출할 능력이 있는 자는 없다 (사 64:6; 롬 3:9-20). (4)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뿐이다 (롬 3:19-26; 10:1-4).

둘째, 바울은 절제에 대하여 벨릭스와 토론하였다.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 통제”를 뜻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활 법도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다 (마 8:34-36; 눅 14:26-33).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남용하고, 육신의 욕정이 그 생활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며, 세상과 사단의 유인하는 매력에 포기하는 것이 죄로 충만한 사람의 지금까지의 경향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 거듭날 때, 성령

께서 그를 은혜롭게 감싸서 그리스도와 의의 지배 아래로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분께서 삶과 모든 일을 지배하신다 (갈 5:23; 롬 6:11-18; 계 1:6).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하므로, 절제의 실행 가운데 성장한다 (벧후 1:6). 하지만, 이 절제는 사료와 근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전 9:27). 벨릭스는 교만한 권세자였다. 바울은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핍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엎드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와 구원자로서 그분의 순종의 공로를 신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선포를 집에 선포하였다.

셋째, 바울은 벨릭스에게 경고하고 영원과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그와 토론하였다. 그는 총독이 결정을 내릴 것을 재촉하였다. 나는 그가 이런 어떤 것을 말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 “벨릭스여, 나는 당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토론하여 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압니다. 여기 당신의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든지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돌아서든지 소멸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그분을 심판 가운데 만나서 그분에 의해 저주받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에 대한 공포를 알

기에, 바울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촉구하면서 벨릭스를 재촉하고 설득하였다 (고후 5:10-11).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판결을 듣고 떨어졌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음을 안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따라가신다면, 그분은 언제나 그를 집으로 데려가신다 (시 65:4). 그러나 나는 또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고 복음에 순종하는 죄인 각자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을 것을 안다 (잠 1:23-33; 롬 10:21; 요 3:36). 만약 이 지점에서 벨릭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면 그는 구원 받았을 테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그의 판결은 지나갔다. 그는 생명보다 사망을 택하였는데, 그가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에 내어드리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판결은 회심이 아니다. 감동은 구원이 아니다. 떨림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나 왜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그 전갈에 떨어졌는가? 그는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마음 속에 여전히 대역이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부수어지지 않았다. 그의 의지는 정복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주로써 그리스도의 지배에 엎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주권의 그리스도께 대항한 그의 마음의 반항으로 인하여, 벨릭스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포를 의도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는 바울에게, “이제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좀더 편리한 때가 되면, 그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아니다. 아마도 내일하자. 나는 먼저 처리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 내가 내일 너를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누구든 내일 구원하기로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다 (고후 6:1-2; 히 3:15; 시 95:6-8).

벨릭스는 그의 망설임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는 구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귀를 막았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였고,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일을 사소하게 여겼을 모든 자에게 벨릭스가 얼마나 큰 경고인가! 그와 같은 것이 법적 형벌로서 존재한다. 세상에는 스스로 이미 지옥에 있는 것처럼 지옥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비록 아직 살아 있지만, 벨릭스처럼 그들은 영원히 저주 받았다 (렘 7:15-16; 호 4:17; 롬 11:20-21).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노아 시대에 살고 있다. 다섯 어리석은 처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분의 왕국의 문을 닫고 밖에 두셨던 때를 살고 있다. 에서는 여전히 회개하려 애쓰지만 회개의 장소를 찾지 못한 채 그 때를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에 복종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고 있다 (고 후 2:14-16). 죄인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가 듣고 답하기를 원하는 그 날이 올 것이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잠언 1:23-33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에 여러분이 주의할 것을 지적한다. 읽고 경고를 받아들이라. 벨릭스는 망설임의 위험에 있는 죄인들을 경고하기 위한 등대로서 있다.

## 70. 살아나실 것을 확증한 예수

사도행전 25:1-27

유대인들은 벨릭스가 바울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따라서,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총독 자리를 취하자마자 곧, 그들은 그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하려 했든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암시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줄곧 그를 암살하려고 의도하였다. 1-12 절을 읽어보라. 그 시대 존경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제시한 하나님에 있어서 바울을 향한 그들의 증오심이 너무도 끓어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고자 결정하였다 (요 16:2).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그의 법적 권리에 있어서 유리하였다. 예루살렘의 하급 법정에 의하여 재판 받기를 거부하고, 그는 “나는 가이사에게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11 절). 베스도는 로마법 아래에서 아무런 선택이 없었다. 그는, “가이사에게 네가 갈 것이다.”고 말했다 (12 절).

이제 13-27 절을 읽어보라.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로 명성이 있었던 아그립바가 가이사랴에 왔으며, 베스도는 그와 함께 바울의 문제를 협의할 기회를 환영하였다. 아그립바는 그 자신을 위해 바울의 말을 듣기를 요



청하였다. 아그립바와 그의 누이 베르니스가 “청문회장”에 화려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베스도는 습관적인 아부의 말과 정치인 한 사람 사람에게 거짓 찬사를 내비치었다 (22-27 절). 문제의 사실은 베스도가 바울에게 아무런 법적 혐의가 없이 그를 로마로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19, 27 절). 그 문제에 아그립바가 개입함으로써 그가 물러서기로 한 어떤 것이 있었고, 로마에 있는 그의 상급자들에 의해 그의 행동들은 의혹을 받았다.

두 가지가 베스도에게 분명하였다. 기억하라, 그는 이교도 정치인이었다. 그는 바울이나 유대인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그는 논쟁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알지조차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재빠르게 그의 대적들과 바울을 구별하였던 두 가지 사항을 알아챘다.

첫째, 유대인들, 종교적 회의론자들, 불신의 종교주의자들은 “분명한 질문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한 확언을 하였다 (18-19 절). 그것은 끊임 없는 문제였다. 복음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파에 반대를 한 그들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질문한다. 그들이 악을 입증하지 못하는 곳에, 그들은 의문을 일으킴으로 의혹의 그림자를 던져버리기를 소망한다. 교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의 질문은 거의 언제나

의미 없는 것에 대하여 흠을 잡을 만큼 어리석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답할 만큼 의미 없고 헛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반복하여 경고 받는다 (딤후 1:4; 6:4; 딤후 2:23; 딤후 3:9). 우리는 진리를 방어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단지 그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울의 방법이였다. 그는 담대하고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확증하였다.

믿는 남녀노소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사 44:8; 행 1:8). 증인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자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문과 성찰과 반대에 대하여 아무 것도 관심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분명하고 명백하며 드러난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고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체험된 사실들을 단지 확증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받은 어리것은 자들의 학문과 지혜와 논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 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9사 8:20; 딤후 3:16). 유대인들은 질문으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죽으신 예수께서 사신 것을 확증하였다. 그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그의 교리를 입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성령과 그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그런 것임을 확증하였다. 그는 사시고 높여지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고, 들었으며 느꼈다. 그는 그가

진리라고 알았던 것을 확증하였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종교(미신)에 대하여 관심이었던 것을 보았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계신 위격에 관심이었던 것을 보았다 (19 절). 바울의 종교는 책과 경에 속한 종교가 아니었다. 그의 종교는 위격이었다. 그는 그의 모든 보화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안에서 발견하였다. 그는 한 위격을 알았고, 신뢰하였으며, 사랑하였고, 경배하였으며, 섬겼고,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전파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종결자 이상이다. 그분은 그것의 전체고 본질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조나 교파 안에서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가운데 영화롭다 (고전 1:30-31; 갈 6:14; 빌 3:3). 기독교는 살아계신 위격과 함께 산 연합이다. 그것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다.

신약의 본과 교훈에 따라 전파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기술이다. 유대인들을 크게 불안하게 하였던 것은 그들이 바울을 행동으로 고소하였던 것들 중 어떤 것이랴도 바울이 행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혐의에 대하여 결백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고 도처에서 전하였다. 이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어서 베스도 자신이 그것을 선포하였다 (19 절). 바울은 일으켜지시고, 높여지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너무도 많이 말하였으므로 이 이교도 행정관 조차도 그 전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전 2:2). 기독교의 그 초기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그들의 귀를 가능한 한 자주 기울였으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도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어떤 설교도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그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것은 결코 전해지지 않았다 (고전 2:2; 9:16).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쓸모 없는 설교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성령의 전갈이다 (눅 24:27, 44, 45). 멸망하는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요 12:32)과 모든 것에 있어서 믿는 자의 동기와 영감과 인도이다 (고후 8:9; 벧전 2:21-24).

바울은 죄인의 대속물로서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단히 강조하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는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한 분 예수, 죽으신 분”을 전하였다. 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미움을 받고, 마음 상하며, 어리

석은 점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바울이 대부분 전하였던 바로 그것이었다 (고전 1:17-23).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이방인들이 가장 우습게 여겼던 그것이, 바울은 가장 지속적으로 확증하였다 (갈 6:14). 그는 그리스도의 사망에 의한 생명과 십자가에 못박힌 대속물에 의한 구원과 피의 속량과 죄인들의 모든 충만과 효험 있는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벌의 죽으심에 의한 의롭게 하심을 전하였다 (롬 3:24-26).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그의 신실함과 신조로 인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였던 타락한 종교인들에 의해 죽음에 처하였다 (행 34:5; 롬 10:1-4).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것이다 -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과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회중은 수치스러운 비난과 오늘날 타락한 종교인들의 지독한 분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아왔다 (갈 5:11).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은 갈보리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증하였다! 그는 부활하신 구원자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의 은혜의 변화하는 능력을 체험하였다. 믿는 자 각자는 그 자신의 혼 가운데 이 사실을 확증하였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분

은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을 위하여 천국을 주장하시고 (시 68:18-19),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위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며 (요 14:1-3),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히 7:25; 요일 2:1-2),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며 (요 17:2),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시려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기 위하여 (마 1:21; 살전 4:13-18) 사신다.

# 71. 그리스도의 부활 - 확인된 사실

사도행전 25:19

베스도는 사도 바울과 그의 유대인 고소자들 사이의 분쟁을 한 가지 문제로 종합하였다. 전체 논쟁은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계시다고 확증하는 예수 한 사람에게 관한” 것이었다. 이 공과의 목적은 단지 그것이다 -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믿는 자 각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인간 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으며,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약점을 느끼심으로 마음이 움직이신다 (마 1:21, 23; 히 2:17-18; 4:15).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그분이 역사하셨던 의이다. 그분의 순종하는 삶은 모든 믿는 자가 따르고자 분투하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과 헌신의 도덕적 본이다 (요 13:15; 엡 4:32-51; 벰전 2:21).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속이다. 우리의 대신하고, 죄 속량, 대속물 희생으로서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의 기초이다. 그분은 우리의 빛을 갠하였으며,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죄들을 없

에 버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갈 3:13).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려 시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분은 죽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롬 3:24-26; 롬 8:1, 33-39; 고후 5:21; 히 9:12; 벧전 1:18-20; 2:24; 3:18).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구원자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의 안에서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았고, 하늘에 오르지 않았으며, 높은 곳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순종과 삶과 죽음은 다른 어떤 사람의 그것처럼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소용 없었을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 진리, 전체 복음, 우리 믿음의 모든 것, 우리 구원의 모든 것, 그리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서든지 스러진다는 것이다 (고전 15:14-18). 따라서, 그 사실이 믿는 자 각각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된 사실 -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2000년 전에 로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



한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다 (사 53:9-12; 행 2:23). 죽으셨기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수의로 감싸졌고, 빌린 무덤에 매장되셨다. 그 무덤은 큰 바위로 가려졌고, 로마 정부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두 명의 노련한 병사들이 지켰다 (마 27:57-66). 그러나 세 번째 날 아침에 그분은 사망에서 일어나셨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분을 끝내기 위하여 병사들이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을 때, 그들은 그분이 이미 사망했으며 일부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악의적인 앙심을 품고 그들 중 하나가 창을 임마누엘의 가슴으로 찔러 넣었다 (요 19:31-37). 바로 그 죽었던 예수께서 사망에서 일어나셨다 (고전 15:3-4; 롬 14:9). 그렇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실 그대로, 육체적인 몸의 부활이었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의 부활이 아니었다. 그분의 신성한 본성은 죽을 수도 죽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분의 사람 혼의 부활이 아니었다. 사람의 혼은 영원하다! 그분의 혼은, 모든 믿는 자의 혼처럼, 그분의 몸의 사망 시에 즉시 낙원으로 떠났다 (눅 23:43; 고후 5:1-9). 그것은 사망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었던 그분의 육신의 몸이었다 (요 2:19-21; 눅 24:39-40; 요 20:25, 27). 비록 지금 불멸의 영화롭게 된 천국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의 몸은 그분이 땅 위를 걸으셨

을 때와 같은 모습과 크기와 형체와 성분에서 동일하다. 그  
분은 진짜 사람이시며, 지금도 그렇다!

확언된 사실 -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확인되었으므로 어떤 솔직한  
사람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항한 그들  
의 집요한 배역 가운데 단호한 사람들은 진리를 억압하  
고 큰 소리로 그것을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  
어 야만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그  
들의 마음 속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 것이라는 것을 그  
들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다 (롬 1:18).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위로와  
교화를 위하여 주어졌다.

첫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죽음에서 일어날 자  
일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사 53:10-12). 그리스도께  
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속하시려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 모든 것 위체 통치하시  
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을 구약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  
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 어떻게 신약 성경이 구약  
의 충만과 설명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 2:7 & 히  
1:5; 시 16:10 & 행 2:31; 시 68:18 & 엡 4:18; 시 110:  
1 & 히 1:13; 시 110:4 & 히 7:17; 사 26:19 & 마 27:5  
2-53; 호 6:2 & 엡 2:6; 골 3:1).

둘째, 많은 직접적인 예언에 더하여, 구약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많은 예표와 그림이 있었다. (1)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어진 신부를 보고 받아들이기 위한 깊은 잠에서 아담의 깨어남 (창 2:21-23); (2)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흘이 지난 후 제단에서의 이삭의 부활 (창 22; 히 11:17-19); (3) 불에 타고 있었지만, 소진되지 않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덩불 (출 3:22-6); (4) 생명의 싹이 나고 꽃을 비웠던 아론의 지팡이 (민 17:5-9); (5) 문둥병자의 깨끗하게 함을 위하여 살육되었던 새의 피에 담궈진 후 자유롭게 되었던 살아난 새 (레 14:6); (6) 속량을 위하여 다른 염소가 살육된 후 자유롭게 된 속죄 염소 (레 16:8-10, 15-17, 20-22); 사흘 후 고래 배 속에서부터 요나의 구원 (마 12:40).

셋째,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세상 법정 어디도 그들의 증언을 부인할 수 없이 많은 수이고 신뢰성이 있다. 그는 천사들에 의해 보여졌다 (마 28:2, 5, 6; 눅 24:5-6; 요 20:12). 거룩한 여인들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것을 분명히 밝혔다 (마 28:9; 막 16:4; 눅 24:2-3).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자신이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마 28:4, 11-15). 500 명 이상의 제자들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한 번씩 보았다 (고전 15:6). 살아나신 구원자는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과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회심하기 전후에 각각 보여지셨다 (고전 15:5-

8; 행 22:17-18; 26:16, 19).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포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증인들이었다 (행 10:34-43). 의도적으로 그들의 증언을 거절하는 자는 모두 역사 안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닫는다.

넷째, 성령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행 5:30-32; 히 2:4).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부어졌으며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시려 부활하셨고 높임 받으셨다는 사실의 확증으로서 기적을 행하셨다.

밝혀진 사실 -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중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죄인에 대해서도 구원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좌로 높이 지시고, 그분의 백성을 중보 하시게 되신 이후, 세 가지 사항이 그로써 보장된다. (1)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속 - 만족된 공의로 인하여 우리 죄들은 하늘의 기록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며, 죄는 믿는 자에게 결코 전가될 수 없다 (히 9:12; 롬 4:8; 요일 2:2). (2)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거듭남 - (엡 2:5-6; 벰전 1:3). 속량을 받고 대표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진 모든 자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남 가운데 들려질 것이다. (3) 하나님의 택한 자의 부활 - (고전 15:20, 23; 살

전 4:13-18).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고, 거듭난 혼인 모든 믿는 자는 부활 영광 가운데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따를 것이다 (롬 8:28-30).

## 72. 아그립바 앞에서 바울의 증언

사도행전 26:1-32

바울이 비록 그 생명을 지키려 로마 법정에서 싸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에게 그리스도께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그 안에서 하셨던 것을 법정과 그의 고소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장의 서른두 절에서 그는 자신과 그의 삶과 그의 회심, 그리고 그의 사역을 서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의 포획자들에게 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함으로서 여호와와 종으로서의 그의 책무를 신실하게 성취하였다 (사 44:8; 행 1:8). 복음 전파는 언제나 죄인들이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부른다. 아그립바는 바울의 말에서 그것을 이해하였고, 바울이 말하기를 마친 후 말했다. “너는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하고 있구나.” 바울이 아그립바에게 말한 것이 그를 감동시켰는가?

첫째, 사도는 아그립바에게 그가 타락한 종교 광신자였음을 말했다 (1-11 절). 그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따라,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5 절). 다소의 사울은 결코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

었다. 그는 그의 청소년기부터 정직한 종교인이었으며, 원칙적이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부자의 젊은 지배자 처럼, 그의 청년기부터 율법을 지켰다. 율법의 글자와 그 외적 요구들에 관한 한, 그는 흠이 없었다 (빌 3:4-6). 하지만, 그는 타락하였다!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사울은 매우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헌신하였다. 그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충심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히 헌신하였다. 다소의 사울은 기도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나,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종교에 너무도 열심이였으므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신성모독이라고 믿으면서 잔인하게 박해하였다. 사울은 너무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대부분은 자신과 비교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타락하였다! 더욱이, 다소의 사울은 그의 교리에 철저하게 정통하였다. 이 사람은 비웃는 자도, 무신론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아르메니아주의가 아니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그는 교리적 진리를 알았고 품었다 (4-8 절). 나는 그가 영적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정통적이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신성한 택정함과 신성한 주권과 절대적인 예정하심과 완전

한 타락과 성경의 영감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지어 개별적인 구속을 믿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을 이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바리새인이든 혹은 그 누구든지 보편적인 속량을 꿈꾼 적이 없다! 사울조차도 그리스도와 관련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의 가르침은 옳았다. 하지만, 그는 타락하였다! 사울은 교리의 문제로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믿었지만, 그는 그를 몰랐다 (요 17:3). 그는 타락한 종교적 광신자였다.

둘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다소의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을 만났고, 정복되었으며, 회심하였다 (12-15 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신 사랑의 시간이 있다 (겔 16:8; 시 65:4; 110:3; 갈 4:4-6). 사울에게 있어서 공훈의 약속된 시간과 장소는 그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하던 때였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는 주를 찾지 않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았다. 그는 은혜를 찾지 않았지만, 은혜가 그를 찾았다. 그는 구원자를 발견하지 않았지만, 구원자께서 그를 발견하였다 (사 65:1; 행 9:1-20; 22:6-21).



그는 “그 길에” 있었다. 비록 그가 그것을 몰랐지만, 사울은 미리 안배된 경로를 따라서 미리 명해진 길 안에서 걸어가며 그를 그리스도께 이끌게 될 그 길에 있었다. 그의 발걸음마다 주님께 의해 명령되었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되었으며 표시되었다 (잠 16:9; 롬 8:28). 다소의 사울은 하나님의 택정하시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날 다마스쿠스로 여행하는 길은 많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이 선택되고 구속되기 위하여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효험 있는 권능과 은혜로 부름 받았다. 거절 할 수 없는 은혜와 부르심이 선택 받은 자에게만 왔다 (롬 8:29-30; 살후 2:13-14).

교만한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정복되고 압도당했다. 주 예수께서 그를 노상에서 만나셨고, 그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그가 거절할 수 없었던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셨다. 그는 주님을 보았고 (13 절),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14 절), 그분의 뜻에 항복하였다 (15 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모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일한 주권적 개입으로 구원 받는다 (엡 2:1-6; 갈 1:15-16).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바울을 사역으로 보냈다 (16-18 절). 하나님의 전파자들은 사역에 나갈 것과 전할 장소를 찾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전파할 곳을 찾으

러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곳을 얻기 위해 타협할 것이며 지키기 위하여 타협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파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분에 의해 사역의 일에 보내진다. 바울은, “나는 사역자로 지음 받았다.”고 말했다 (엡 3:7-11). 하나님의 전파자들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전갈을 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다. 그것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와 함께 있다. 그들의 전갈과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바울은 더도 덜도 아닌 그가 체험하였던 것을 전파하도록 요구 받았다 (16 절). 어둠과 미신의 세상 속으로 복음의 빛을 들고 가는 것은 그의 특권이자 책임이었다 (18 절). 그가 전하도록 보내진 전갈은 분명하고 단순하였다 (18 절). 주 예수께서는 바울을 죄인들에게 그분의 피에 의한 죄사함 (엡 1:6), 그분의 은혜에 의한 영생의 소망 (살후 2:16),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성화 (거룩함) (고전 1:30)를 전하도록 보내셨다.

넷째, 바울은 그의 주인에게 복종하였다 (19-23 절).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모든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전갈은 언제나 같았다 (고전 2:2).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20 절)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23 절)과 죽은 자의 부활(23 절)을 전하였다. 그

는 첫 번째 부활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의한 영적 거듭남이며(요 3:3-8; 5:25; 계 20:6),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요 5:28; 살전 4:13-18)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바울은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 자신의 안락과 행복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24-32 절). 그는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로 서 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구하거나, 심지어 그의 결백을 입증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 자신을 변론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분명한 의도는 그의 포획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 장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을 통하여, 바울은 베스도, 벨릭스, 베르니스, 그리고 그의 고소자들을 이스라엘의 소망(6 절), 십자가에 못박힌 구원자(9 절), 하늘로부터 온 빛(13 절), 높여진 주(13-15 절), 교회의 머리(14 절),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16-23 절)로서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는 용서와 영생과 회개와 구속과 성화와 부활과 믿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구원하는 은혜의 선물임을 말했다. 베스도는 그를 미친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24-25 절). 그러나 바울은(26-32 절), 그가 아그립바의 의도를 받았음을 느끼면서 그에게 개인적

이고 절박하게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했다. 아그립바는 그 자신의 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경배자와 추종자가 될 것을 “거의 설득 당했다. “거의 설득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놓쳤다! 질책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그립바는 의도적으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다. 따라서, 그는 멸망하였다. 그의 예를 따르는 모든 자는 두려움에 떨 것이다 (잠 29:1).

## 73. “이 목적을 위하여”

사도행전 26:13-20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 (렘 2:9).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세 가지 것들이 필수적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 세 가지를 하셨기 때문이며, 세 가지 것들은 그분의 진노 하에 멸망할 그 어떤 자를 위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구원은 신성한 택정하심으로 시작된다 (시 65:4; 롬 8:28-30; 11:5-8; 엡 1:3-6; 살후 2:13).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하며 택정하심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면은 범죄자의 결정이 아니라 판사의 특권이다. 구원은 영원 전부터 택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인들에게 온다 (딤후 1:9; 요 15:16). 그러나 택정하심 만으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 구원에 필수적인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이다. 공의는 결코 만족함이 없이 죄를 없애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롬 3:24-26; 히 9:22). 그리고 공의는 결코 한 사람의 죄인이 속량을 이루게 하신 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 받도록 허락할 수 없다 (롬 5:11; 갈 3:13; 히 9:12; 10:10-14).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양떼를 위하여 내려 놓으셨다 (요 10:11, 15). 그분은 그분의 백성 대신 죽으셨다 (사 53:8).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려는 백성과 그분께서 중보를 하시는 자들을 위한 속량을 예비하셨다 (마 1:21; 요 17:9, 20). 택정함과 구속은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이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이 필수적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죄인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들어가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요 3:3-7). 택정은 긍휼의 문을 연다. 구속은 은혜의 장애물인 죄를 없앤다. 그리고 거듭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준다. 거듭남, 새로 태어남은 사망으로부터 부활이다. 그것은 생명의 창조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선택 받고 갈보리에서 하나님 아들에 의해 구속 받은 자들은 모두 약속된 사랑의 시점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고 부름 받을 것이다 (시 65:4; 110:3). 거듭남의 열매와 결과는 회개와 믿음과 회심이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고 돌이키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회심한다. 만약, 성경이 우주적으로 선포한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으면,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의 결과로 있는 것이며 죄인이 행한 것을 조건으로 한 어떤 방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엡 2:1-8; 롬 9:16-18).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아들이 구속하셨으며, 그 영이 부르신 모든 자는 분명 구원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은혜로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주권적인 은혜는 언제나 사람의 조력을 사용하심으로 운행한다. 사도행전 26:13-20 에서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어떻게 왜 주께서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다. 주께서 바울에게, 선택되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나는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준비하신다 (13-17 절; 롬 10:14-15). 구원은 두서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운 계획과 영원한 목적에 의해 성취된다. 그 계획과 목적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부르실 그분의 택하신 자에 의해 전도자들의 예비하심이다. 이

것은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바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비하시고, 무장시키시고, 위임하신다 (렘 3:15)! 전도자를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 만의 일이다 (갈 1:1, 엡 3:7-11; 4:8-16).

18 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은혜롭게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그분의 종들을 보내시지 않았다. “그것은 믿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파함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고전 1:23). “믿음은 들음으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롬 10:17). 복음 사역은 결코 가벼운 것으로서 보여져서는 안 된다. 복음의 전파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최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결코 둘째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와 동떨어져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문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문제를 확정하도록 하자. 로마서 1:15-16, 야고보서 1:18, 그리고 베드로전서 1:23-25 를 읽어 보라. 복음 전파는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 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말한 그분에 대하여 그에게 보여 줄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빌립을 보내셨다 (행 8:26-35). 이것이 말씀에 대한 대중 사역에 그와 같은 높은 중요성을 두는 이유이다. 아무것도 복음 전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혼을 관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사람의 혼을 관심한다면, 복음의 소리 아래 그들을 두도록 당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 만약 세상 사람들의 혼을 관심한다면, 선교 임무들을 통하여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관대하게 제공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복음의 전파로 구원하실 것이다. 18 절을 다시 조심스럽게 읽어보라. 하나님의 종들은 허공을 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된 죄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보내셨다. 복음 전파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성공의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전파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사 55:11; 롬 1:16-17; 히 4:12). 우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고

전 15:58). 하나님은 그분이 명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단락에서 배워야 할 한 가지 더 분명한 공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모두 기꺼이 회개하고 그분께 믿음 안에서 돌이킨다는 사실이다 (19-20 절). 신성한 주권은 사람의 조력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더 사람의 책무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택정과 구속과 거듭남 가운데 죄인은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는 완전히 능동적이 된다.

어떤 죄인도 회개 없이 구원받지 않는다 (눅 13:3, 5; 행 5:30-31; 롬 2:4). 물을 필요도 없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회개하여야 한다. 실로, 회개는 새롭게 된 마음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이고, 태도의 변화이며, 동기의 변화이고, 주인의 변화이다. 시편 32장과 51 장을 읽고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배워라.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

도를 믿어야 한다 (행 16:31; 막 16:15-16). 회심은 마음의 일이다. 그것은 당신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롬 10:9-13; 고전 1:30-31; 빌 3:3).

그리고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는 회개를 증거하는 행위들을 하게 될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좌우한 어떤 기준에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의 행로 안에서 선행 가운데 행보한다 (롬 6:11-18; 엡 2:8-10; 딤후 3:8; 약 2:14-26).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며, 믿음의 행위이다.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열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거듭남의 열매이다. 거듭남은 구속의 열매이다. 그리고 구속은 택정함의 열매이다.

## 74. 복음 전파자와 하나님의 구원

사도행전 26:16-23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복음의 사역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택함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선포하였다 (16-18 절). 우리는 물론, 구원이 전파자로 인한 것이거나, 그에 의해 성취되었다거나, 그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욘 2:9).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롬 6:23). 그것은 그분의 은혜에 속한 일이다 (엡 2:8-9). 그러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고전 1:21). 복음 전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들이다. 구원은 전파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자들 조력이 없이는 성취되지도 않는다 (9 롬 10:13-17; 약 1:18; 벰전 1:23-25). 하나님은 택정한 많은 수의 사람들의 구원을 명하셨으며, 복음 전파의 조력을 통하여 택정한 다수의 구원을 명하셨다 (살후 2:13-14). 비록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지만, 그는 “그에게 예수를 전했던 하

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를 접촉할 때까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행 8:26-39).

전도자들은 결코 성직자 직분으로 인하여 높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성직자도 없다. 어떤 전도자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빛 비추고, 회심케 하고, 용서하거나 거룩하게 할 공로나 효험이 없다. 어떤 전도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죄인들에게 줄 수 없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과 그분의 택함 받은 선한 도구가 멸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로운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죄인도 복음 전파가 아니고서는 신성한 빛비춤과 하나님께 회심과 죄들의 용서와 거룩하게 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랑 받아야 하며 높이 칭송 받아야 한다 (살전 5:12-13; 사 52:7).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복음의 전파로 온다. 고찰 중인 구절들 안에서 성령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죄

인들을 위하여 일곱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첫째, 그분은 눈먼 자의 눈을 여신다.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지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눈을 열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신다. 전도자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만 영적으로 닫힌 눈을 여실 수 있다 (요 3:3; 고전 2:9-14; 고후 4:6; 엡 1:17-18). 전도자는 단순히 빛 비춤의 도구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앞으로 들고 간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눈을 여실 때 그는 자신이 단지 정죄 받을 죄인임을 보며 (시 51:4; 욥 43:5-6; 사 6:1-4; 롬 3:19; 7:9), 자신을 의롭게 할 능력이 철저히 없음을 본다 (욥 9:20, 30-33).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속물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보여 주신다. 그리고 나면 그분께서 죄인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 주신다 (롬 3:24-26).

둘째,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이키신다. 회심은 택정함과 구속과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르

심의 증거이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는 자가 돌이키는 사실이지만, 단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돌이키게 되기 때문이다 (시 80:3, 7, 17; 85:4; 애 5:21). 회심은 마음의 일이다. 그것은 삶의 개혁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Joseph Alleine은, “회심은 심오한 일이고, 마음의 일이다. 그것은 사람 안팎으로, 마음 안팎으로, 지체를 통틀어서, 전 생애를 통틀어서 진행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회심은 평생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는 것의 시작이다. 베드로에 의해서 믿는 자들은, 마침내 하늘에서 그분 앞으로 갈 때까지 그리스도께 계속적으로 “나오는” 자들로 묘사된다 (벧전 2:4).

셋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죄들의 용서”를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보장하신다. 이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들이 원하고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하는 첫 번째 것이다.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의 첫 번째 기도는 세리의 기도이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세상에서 들었던 말 중 가장 달콤한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회개하는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죄 짓는 것은 끔찍하다. 용서는 영광스럽다! 믿는 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언약 가운데 약속된 신실한 용서이며 (요일 1:9; 렘 31: 34), 그

리스도의 피로 사고, 보증 받고, 요구된 공의의 용서이며 (엡 1:6),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하는 완전한 용서이며 (사 43:25; 44:22), 영원하며 반복 할 수 없는 용서이다 (롬 4:8; 렘 50:20). 일단 부여되면, 그것은 결코 부인되거나 없애 버릴 수 없다. 이 용서는 돈으로 살 수도, 혹은 선행의 공로로 받을 수도 없다. 그것은 믿음의 손으로 받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은혜로운 은사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죄인들은 “죄들의 용서”를 얻는다.

넷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용서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의 영원한 기업,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기업”을 주신다. 이 기업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모든 축복들을 소유한다 (엡 1:3). 그러나 바울의 언급은 분명히 믿는 자의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기업을 가리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롬 8:17). 그것은 은혜에 속한 기업이다. 그것은 하늘에서의 보상이다!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을 믿는 누구든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어떤 부분이 행위로 얻거나 잃거나, 그것들이 부족하다



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 속한 영광은 단순히 구원의 은혜에 속한 절정이고 완성이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만 그것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고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화(거룩)가 점진적인 노력과 행위의 문제라고 상상한다. 그렇지 않다! 성화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선물이고 역사이다. 우리는 거룩한 택정함 가운데 하나님께 분별되었고 (유 1), 의롭게 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 받았으며 (히 10:10-14),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본성을 받았다 (벧후 1:4; 요일 3:9).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 등 가운데 자란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자란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과 의와 성화 가운데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다 (골 2:10).

여섯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신다. 주 예수께서 이 모든 은혜에 속

한 축복들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하신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그분의 은혜의 작용이다 (엡 1:19; 2:8; 골 2:12; 빌 1:29). 믿음은 은혜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의 은사이고 은혜의 증거이다 (히 11 1). 그리고 이 믿음은 복음 전파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죄인들 가운데 창조된다 (롬 10:17).

일곱째, 다소의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반역자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를 기꺼이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19 절). 은혜는 마음을 정복하며, 의지를 복종케 하며, 천연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롬 8:7)를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으로 만드신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엮드려 그들 위에 그분의 멍에를 기꺼이 멘다 (마 11:28-30). 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항복함이 없는 곳에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다 (눅 14:25-33).

## 75. 거의 설득될 뻔 했지만, 모두 잃었다

사도행전 26:24-32

아그립바는 부와 권세와 존경으로 힘 있는 자였다. 그는 유대 전체의 왕이었다. 그의 전임자나 동료들과는 달리, 아그립바는 생각이 깊은 종교인이었다. 그는 유대 종교의 교리를 품었고, 구약 성경을 그가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드문 특권과 기회를 즐겼다. 아그립바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갈을 전달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갈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신하였다. 생명과 구원의 방법이 그 앞에 제시되었다. 바로 그의 눈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공훈의 문이 그에게 열렸다. 그는 거기를 들어갈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복음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 기회의 시간에 그는 소홀히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그는 그의 귀를 막았다. 그는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거의 설득되었지만,” 그러나 모두 잃어버렸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임을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신호로서 혼들을 묶은 영원한 눈 앞에 아그립바를 붙잡는다!

당신은 엘리야의 시대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확신하지만 불신과 반역의 과정을 계속하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당신이 “거의 설득되었다”는 것으로 자신을 칭찬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왕국 가까이 있었던 그 부유한 젊은 통치자 같은 것이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막 12:34).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당신의 뚜렷한 관심에 당신을 칭찬할 수도 있다. 주의하라. 왕국 가까이 있다는 것은 왕국 바깥에 모두 있다는 것이다! 거의 설득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 길을 잃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계속하여 갈팡질팡 한다면, 당신은 곧 버림받은 불신자로 확인될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홀히 대한다면, 당신은 곧 하나님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잠 1:23-33; 29:1). 당신은 공황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가 당신에게 경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1-2).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바울은 18 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고 알도록 그 눈을 여신 자이다 (요 6:44-45).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 (고전 2:16).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이며 (요일 1:9), 그의 유일한 죄속량의 대속물이고 구원자로 하나님-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고전 1:30),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되었음”을 은혜로이 고백하는 자이다 (고전 15:10).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변화되었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이킨 죄인들이다 (고후 5:17).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 (엡 1:7).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들은 우리 구원자의 피를 통하여 용서받았다. 축복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전가하지 않으실 것이다 (시 32:1-2; 롬 4:8). 그리스도인은 그 보화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영원 전에

미리 예정되었던 성도들 가운데 상속자이며 (엡 1:11), 그것은 우리 선주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위하여 벌은 것이며, 사들인 것이고, 요청된 것이며 (엡 1:11; 히 6:20), 마침내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요 14:1-3).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성도들이며, 의롭게 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거룩하게 되며 (롬 3:24-26; 5:19) 거듭남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배된 의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 (요일 3:9).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효험 있게 가르침 받았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다. 이 은혜들을 체험하지 않았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어떻게 바울은 아그립바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하였는가? 그는 이 사람의 혼에 냉담하지 않았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면서 그는 네 가지 강한 주장을 하며 그를 그리스도께 나오게 (고전 5:11) 하려 설득하였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였다

(22 절). 그의 유일한 주장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였다. 이것은 우리 전쟁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과학이나 역사나 논리에 믿음을 위한 부벽으로서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서 나오는 계시로서 믿는 것은 누구든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요일 4:10-14). 둘째,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였던 것에 대하여 아그립바에게 간증하였다 (6-19 절). 그는 주께서 그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왕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좋은 증언이다! 누구나 자신이 체험하였던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죄인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득 방법은 없다. 셋째, 사도는 아그립바에게 복음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천명을 하였다 (23 절).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다 (요 1:14).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신하는 죽음으로 모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죄인의 대속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백성의 죄들을 품으셨다 (고전 5:21; 히 9:26; 뱀전 3:18). 그는 셋째 날에 사망에서 일어나셨고 (롬 4:25),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 백성을 위한 중재자와 대제사장으로서는 중보 하신다 (요일 2:1-2). 이 일어나고, 높여지신 그리스도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히

7:25; 요 17:2).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포획자가 공개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무뿌리에 도끼를 놓았다 (27-29 절). 비록 그가 아그립바의 죄사슬을 차고 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였으며, 그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행하였다! 아그립바는 분명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말의 진실함을 부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질문이 있을 것이다 - 만약 그가 바울이 전했던 말을 확신하였다면...

왜 이 사람은 단지 “거의 설득 되었는가?” 왜 복음이 참되다고 아는 사람들이 그 요구에 의도적으로 대적하기를 고집하는가? 같은 이유로 아그립바가 그랬다. 그가 항복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베르니스는 그의 누이였으며, 아름다웠으나 뽀뽀한 여자였다. 그녀와 아그립바는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되었다면, 그는 베르니스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베스도는 아그립바보다 지위가 더 낮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원했다면 그는 왕을 가이사와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은 적어도 일부 아그립바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인간의 공포였으며,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마도 그의 믿음에 장애가 되었다. 바



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디어야 했던 속박과 투옥과 모욕과 비통과 치욕을 그는 보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기를 꺼려 했다. 그는 대가를 계산하며 말했다 (마 13:44-46; 눅 14:28). “그리스도는 내게 그렇게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문제는 그 자신의 마음 속에 있었다. 아그립바는 세상과 허식과 쾌락과 명예와 부와 죄와 권세와 세상의 안락함을 사랑하였다. 그는 거의 설득되었으나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그럴 것인가?

한번은 엔진에 불량 링이 있는 한 비행기가 멕시코를 향하여 시카고에서 이륙하였다. 승객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아내에 의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도록 거의 설득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탑승하였다. 비행기는 추락하였으며, 그는 사망했다. 어떤 사람이 최저가 주식이 시장에서 상승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돈을 투자하지 말도록 거의 설득되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어떤 사람이 그의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팔은 감각이 없었다. 그는 약간 두려워하였다. 그의 아내가 그가 응급실로 가기를 거의 설득하였다. 그러나 통증이 진정되었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성령이 이 사람 아그립바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분명한 글로 기록되어 있다. 거의 설득된다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거

의 설득되어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모두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이다!

## 76. 폭풍에 대비

사도행전 27:1-44

가이사랴에서 이 년 이상 감옥에 있던 후,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는 가이사에게 그의 개인적 항소를 하였을 것이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바다를 항해하였는데, 일행 전체를 큰 위험에 처하게 했던 엄청난 폭풍이 북동쪽에서부터 발생했다. 사도행전 27 장은 그 폭풍에 대하여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우리는 이 장에 기록된 축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 할 지도와 상식보다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장은 우리에게 역사적 자료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영적이며, 복음의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영감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딤후 3:16).

바울의 시대에 바다는 끔찍한 곳이 될 수 있다. 항해자에게는 나침반이 없었다. 따라서 별 빛이나 해가 가려지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를 배가 뚫고 나갈 추진력을 주는 엔진도 없었다. 그 돛이나 노들은 태풍의 세력 앞에서 쓸모 없었다. 바다의 공포에 대한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사용된다. 요나는 그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바다에 던져졌다 (욘 2:12-15).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무섭게 놀랐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 울부짖었다 (막 4:38). 고린도후서 11 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세 번이나 난파되었으며 깊은 바다에서 하루 밤과 하루 낮을 보냈다고 말한다. 유다는 거짓 종교의 영향을 “바다의 성난 파도”에 비유한다 (유 13). 요한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계 13:1). 계시록 21:1 에서 그는, 마치 바다가 끔찍한 재난과 마귀의 상징임을 가리키는 것처럼, 새 창조 안에서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이다 고 말한다. 문학작품과 시와 성경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광활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에 비유된다 (욘 9:29).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의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많은 폭풍우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책이 우리에게 그 폭풍을 예비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준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라.”는 것이 이 장의 영적 공과이다.

첫째, 우리는 일들이 우리의 갈망이나, 계획이나, 그리고 기대에 따라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1-8 절). “귀와 사람들의 가장 좋은 계획은 곧 파멸되는 것이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로 가기로 계획하였다. 이 일단의 군사들은 죄수들을 배에 태웠으며, “아

시아의 해변으로 향해 하려 배를 띄웠다.” (2 절). 그들은 항로를 잡았으며, 항로를 준비하였고, 아시아 해변을 지나 로마로 순탄한 항해를 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잘 세워진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하였다. 폭풍이 일어났고 그들의 계획에 반하여 “바람이 용납하지 않았다” (4 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앞으로 있을 폭풍을 고려할 만큼 지혜로울 것이며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서 조차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종할 만큼 지혜로울 것이다 (약 4:13-15). 인생은 폭풍과 순탄치 않은 바람들로 가득하다 (욥 5:6; 14:1). 그것들은 언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 물을 필요 없이, 사람이 직면할 가장 큰 폭풍은 그 자신의 죄의 폭풍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맞닥뜨리게 될 때, 정죄와 심판의 강력한 바람이 압도하게 된다. 그는 그의 혼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느낀다 (느 1:2-3).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와 죄 있는 자의 숨을 처소가 있다 (사 4:6; 32:2).

둘째,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폭풍들이 종종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한 열매다라는 것을 본다 (9-14 절). 나는 모든 시험들이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우리 하나님께 단순히 순종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이 장에서 기록된 끔찍한 좌초에 고통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고 그들의 분명한 공과들을 배워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이다 (11 절). 하나님은 뜻은 언제나 육신의 쾌락과 편의에 반대이다 (12 절). 최소 저항 과정은 대부분 언제나 육신을 유혹하고 있지만, 언제나 파멸의 길이다 (13-14 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그것은 그분의 뜻이다. 그리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불순종은 비참하다.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비논리적이고, 즐겁지 않고, 대가가 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 지라도, “그분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라.” (요 2:5). 순종은 대가를 치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순종은 언제나 더 많은 비용을 치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증거가 된다 (잠 3:5-6).

셋째, 폭풍이 올 때, 유일하게 안전한 행로는 항복이다 (15-20 절). 누가는, “배가 좌초되고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을 때, 가는 대로 두어 맡겨두자.”고 말한다. 이것은 운명주의적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선상의 모든 기구를

던졌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의한 구원의 모든 소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올렸고 “가는 대로 두었다.” 배를 지휘하는 사람들은, (만약 당신이 웃지 않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와 바울과 아리스다르코에게 있어서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누가는, “가는 대로 두라.”고 말한다. 그들은 배를 지휘하는 분이 누구였는지 알았다! 그들은 누가 그 폭풍을 보냈는지 깨달았다 (사 45:7; 시 107:25;; 느 1:3; 요 1:4; 암 3:6). 구약의 엘리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었으며, “그것은 주님이다. 그분이 좋게 보는 것을 하시도록 하라.” (삼상 3:18; 약 4:7, 10). 순종과 믿음 안에서 주께 돌이킴으로, 그들은 평강을 찾았다 (사 26:3-4; 시 42:11). 그리스도의 뜻에 엮드리라. 그분의 멍에에 목을 넣어라, 그러면 평강을 찾을 것이다 (마 11:29).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라. 당신의 작은 배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 속으로 올리고, “가는 대로 두어라.” (롬 8:28).

넷째, 폭풍이 올 때, 위로하고, 가르치며, 그것을 통과하도록 방향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구하라 (21-25 절). 만약 고난 속에서 위로를 찾는다면, 위로의 책 안에 당신 자신을 물어라 (롬 15:4). 바울은 심지어 폭풍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구하였고, 그것

을 믿었으며, 신실하게 전하였다. 그것은 엄한 책망의 말이었고 (21 절) 확신을 격려하는 말이었다 (22-24 절).

다섯째, 아무리 폭풍이 심하다 할 지라도, 배 안에 있어라 (26-38). 선원들의 일부는 배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구명정을 내리고 바울이, “배 안에 거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떠나려고 했다. 즉시 군사들이 밧줄을 자르고 배가 내려지도록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논쟁하며 서성대지 않았다. 그들은 밧줄을 잘랐다! 그들은 다른 모든 소망의 근원을 잘라버렸고 다른 모든 것을 배 밖으로 던져버렸다 (19, 38 절). 폭풍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바꾸고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갖고 있다! 그들은 배 안에 머물렀고 구원 받았다 (37 절).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께 매달려라. 은혜라는 좋은 배 안에 머물라. 인생의 시험과 폭풍을 견디는 자들만, 믿음 안에서 보존되는 자들만 구원 받는다 (마 10:20; 요 8:31; 15:9; 골 1:23; 히 3:6, 14; 약 1:12; 행 13:43; 14:22).

여섯째,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만 두어라 (39-40 절). 그분을 찾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찾지 말라. 다른 모든 것을 바람 속으로 던져버려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



고, 아무것도 관심하지 말며,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며, “해변을 향하여” 나가라 (골 3:1-3).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갈망이라면, 당신은 모든 당신의 갈망을 소유할 것이며, 인생의 폭풍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을 통과하여 우리가 갈망하는 안식의 하늘 안으로 은혜롭게 데려가실 것이다 (41-44 절). 어떤 사람은 구명정으로 헤엄쳤다. 어떤 사람은 배위에서 표류하였다. 어떤 사람은 부서진 배의 좌편 위에 올라갔다. 그러나 두 바다가 만나는 그 곳으로 왔을 때, 그들 모두 안전하게 바닷가로 왔다. “그래서 폭풍이 지나갔고, 그들은 안전하게 육지로 탈출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함께 할 것이다 (벧전 5:10-11; 유 24-25; 롬 8:35-39).

## 77.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도행전 27:21-44

하나님은 완전히 주권적이며 사람은 완전히 책임이 있다. 이 진리 모두는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자에 의해 믿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책임에서 해방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 모든 축복의 복음 진리는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 제시되어 있다.

24 절에서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말한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22 절). 다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변치 않고, 바꿀 수 없으며,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모든 지옥의 능력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고 하신다 (사 46:11).

그 주권적인 섭리가 모든 책임의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이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였나?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이 이들 276 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분께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나? 당신의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다! 31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인간의 책임에 속한 위치를 보여준다. 선원들 중 어떤 자들은 폭풍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거의 배를 포기하려 하였다. 바울은, “이들이 배 안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부터 그들의 안전과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 따라서 그들의 안전과 구원은 절대적 확신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배 안에 남아 있어야만 구원받으며, 그들은 그렇게 할 책임이 있었다. 만약 그들이 배를 포기하였다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배 안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을 것이다. 책임의 부담은 그들의 어깨 위에 똑똑히 놓여 있다. 만일 그들이 구원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뿐이다.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일이었을 것이며, 그들의 일일 뿐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내배는 난파하였고 화물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배 위의 모든 사람은 구원 받았다. 배가 좌초하였을 때, “군

사들은 그들 중의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의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 하니라.” (42-44 절).

사도행전 27:21-44 에 기록된 사건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완전한 책임을 분명하게 예시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과 역사에 의해서 성취된다 (엡 1:3-14). 하지만, 죄인 각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주 예수그리스도를 신뢰할 책임이 있다 (행 17:30; 요일 3:23).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가 구원 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는 영원히 공의롭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마 15:16). 여기 여덟 가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그것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 성령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한 이해력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요구하라.

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영원 가운데 택정하심의 사람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기로 한 이 세상 가운데 백성을 갖고 계신다 (엡 1:3-6; 살후 2:13-14; 롬 9:11-18).

123. 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확고히 하시기 위하여 시간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히 예정하셨다 (롬 8:28-30; 엡 1:5, 11).

124.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모든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효험있게 구속하셨다 (사 53:8; 마 1:21; 갈 3:13; 히 9:12).

125. 성령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택함 받고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으로 갈보리에서 구속 받은 모든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하신다 (엡 2:1-6; 요 3:3-8; 시 65:4; 110:3).

126.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에 속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전능한 절대적 권능과 전지한 전적인 지혜로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롬 8:28; 요 17:2).

127.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 모든 참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확고하게 안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보존되고 지켜진다 (요 10:27-30; 빌 1:6; 벧전 1:5; 유 24-25).

128.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각각의 죄인은 구원 받을 것이다 (요 3:14-16; 행 16:31; 롬 10:9-13).

129.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멸시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는 공의로 이 영원히 저주 받게 될 것이다 (잠 1:23-33).

이것은 신성한 계시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다. 구원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구원 받았다. 저주 받은 모든 자는 그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저주 받았다. 사도 행전 27:21-44 를 다시 읽고 성경의 이런 진리들이 어떻게 예시되어 있는지 보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21-25).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하셔야 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잃었을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졌을 것이며, 그분의 명예는 잃어버렸을 것이고, 전능한 분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분의 택하신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자들이 실제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했다 (29-34 절). 하나님은 그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을 주 하나님께 일단 위임하면, 그들은 그분의 구원하시

는 계획에 대한 격려의 확신을 받게 되었다 (34-35 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만을 신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증된다 (요일 5:10-13). 복음에 복종하기를 거절한 모든 자는 그들의 불신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요 3:18).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방해들을 은혜롭게 억누르신다 (41-44 절). 시편 76:10 과 잠언 16:1, 4, 9, 33 절을 자세히 읽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음을 이해하라. 모든 것은 그분의 종들이며, 그분의 택하신 자를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주권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였던 모든 자는 구원받은 것이 일어났다 (44 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그것은 일어났고, 그들은 모두 육지로 안전하게 탈출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는 구원 받을 것이다 (롬 11:25, 33-36).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운을 내라. 그분의 계획은 확실하다 (롬 8:28-39).

## 78.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18-25

여기 시험 받고, 믿는 자를 충만한 위로로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폭풍이 있다. 그는 그의 위로의 원천과 원인을 세 단어로 서술한다 -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것을 하실 것을 자신하였다. 그는 그 자신의 삶과 운명에 관련하여 위로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가 탄 배를 던져버린 폭풍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의 말을 갖고 있었다. 성령께서 우리 앞에 여기 붙잡고 계시는 어떤 믿음의 본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한 믿음과 격려의 본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놀랍지만, 우리는 갖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며, 사실의 문제이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우리 마음은 불신으로 인하여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곤 한다. 인간 타락의 가장 역력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할 지라도 믿음 없음과 싸운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도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의심한다! 어떤 사소한 시험이 우리 길에 오고, 어떤 가벼



운 동요가 오면 우리는 의기소침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며, 측은히 느낀다.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은 참되고 신실하시다. 그분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예가 되며 아멘 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분에게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 하셨던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이유가 있다.

보여진 상황 안에서 바울의 선포를 묵상하라.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았듯이, 당신은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여정도 아니고, 심지어 바다의 폭풍조차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본 이 말 -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안에 있는 상황이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였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다 (25 절).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다. 분명히, 그것은 특별한 계시였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계시의 근원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욱 확실한 계시

의 말씀이다 (벧 후 1:16-21). 이상이나, 고봉의 체험이나, 심지어 천사의 방문조차 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히 1:1-3).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실성의 신념을 포함하였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는, “그렇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셨던 것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역사책이 끝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끝”이란 도장을 찍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그것으로 모든 것 안에서 부합할 것이다 (벧전 1:24-25; 사 40:8; 눅 16:17).

바울의 믿음은 그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모든 외적인 모습을 향하여 “(그들이) 구원 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20 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방향 안에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한 가지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로 보일 때 침몰하는 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은 섭리가 평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은 섭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모든 것이 그것에 모순되게 보일 때라도 신뢰한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매달을 곳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외에 아무것에도 세상을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탁하셨던 것에 우리의 믿음을 위탁하지 않겠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매우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였다. 그는 로마 병사들과 거치른 선원들이 지키는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인으로 가득한 배 안에 있었다. 이들은 멋지고, 교회 출석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악명 높게 기분 나쁜 성향의 거치른 사람들이었다. 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다. 그들은 믿는 자의 침례로서 (롬 6:4-6),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들이 되고 (행 1:8), 반대를 무릅쓰고 (행 4:10-12) 그렇게 행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분이 신뢰받을 분이라는 우리의 죄 있음을 자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처럼 행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광란적이었을 때, 바울은 차분하였다. 왜?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믿음은 진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

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경건한 허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야기 하기 예쁘고 감상적인 것들로서 바라본다. 그들은 신성한 섭리를 멋있게 보이고 신학적인 사상으로 바라본다. 바울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그 자신을 그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과 섭리 위에 안식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이 선포는 교리의 모든 문제들과 믿는 자의 삶과 체험의 모든 영역과 앞으로 올 세상에 관한 우리 소망과 관련한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만 인정되고 제한 받는다 (고후 1:20). 당신의 책꽂이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책을 꺼내서 그 약속들을 찾아보라. 만약 약속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의 특징을 본다면, 그것을 믿고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라. 죄인들에 대한 약속들 (사 55:6-7; 마 11:28-30; 막 16:16; 요 3:14-18; 요일 1:9), 죄짓는 성도들에 대한 약속들 (요일 2:1-2; 고전 10:13; 시 89:19-36; 대하 7:14), 그분의 고통 받는 자녀들에 대한 약속들 (사 41:10-11; 43:1-5; 행 18:10; 고후 12:9; 롬 8:28; 히 13:5), 그분이 교회에 대한 약속들 (고전 15:58; 사 55:11; 전 11:1; 시 126:5-6), 그분의 궁핍한 백성들에 대한 약속들 (빌 4:19; 마 6:25-34),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들 (삼상 2:30; 말 3:10; 마 6:33; 눅 6:38), 그

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약속들 (약 1:12; 살전 4:13-18; 딤후 1:12) 등이다.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될 확실한 약속들을 은혜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서로간에 하셨다 (삼하 23:5; 렘 32:31-34; 32:38-40).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를 구속하고 의롭게 하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히 10:5-10; 요 10:16).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가 그의 혼의 고통의 보상이 될 것을 아들에게 약속하셨다 (사 53:9-12; 시 2:8; 22:30).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함 받고 구속 받은 모든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부르시고, 인치시며,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엡 1:13-14; 살후 2:13-14).

하나님은 장래와 관련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약속들을 하셨다. 장래에 관련하여, 모든 믿는 자는 바울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해야 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기도들을 여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요일 5:14-15).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에서 보존하실 것이다 (빌 1:6).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영광 속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안에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계 21:1-5; 요 14:1-3).

정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 그분의 섭리의 통치, 그분의 은혜의 약속들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신 기록을 믿는 세상의 죄인들은 영원히 복되다 (요일 5:10-13).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 79. "기운을 내라"

사도행전 27:20-25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런 환경 가운데, 바울은 일어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고 말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바울은 “기운을 내라.”고 말했다. 반응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보시오, 바울. '기운을 내라!'니 무슨 뜻이요? 정신이 나갔소? 우리가 난파될 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고 말한다. 기억하라, 그는 그들에게 절박한 위협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처음에 항해를 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다 (10 절).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의 말을 들었어야 할 것과 그들의 현재 고난이 그들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상기시켰지만 (21 절), 하지만 그는, “기운을 내라.”고 말한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확신시키면서, 그는, “선생들이여, 기운을 내시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반복하였다.

만약 바울이 바다의 폭풍에서 구원 받는 것에 대하여 무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분

명 모든 믿는 자는 스스로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과 관련하여, “기운을 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문제가 안되며,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났다면, “기운을 내라.”고 할 모든 이유를 갖고 있다. 비판과 낙심과 우울한 염세주의에 관하여 거룩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거룩과 성화에 정확히 반대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지, 우리의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위로와 격려를 가져오기 위하여 오셨지, 절망과 비판이 아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격려의 자녀들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격려가 되고 믿는 마음으로 행보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성경을 찾아보고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지 않는지 보라. “기운을 내라.” (시 16:5-6; 잠 15:13, 15, 30; 17:22; 전 2:24; 9:8-10; 빌 4:4). 그 영의 열매로 불려진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기쁨”이다 (갈 5:22).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격려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여전히 외적 증거들이 염려되고, 끔찍한 어둠과 성난 폭풍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바울은 “기운을 내라”는 다섯 가지 이유를 발견하였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다. 23 절에서 그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 계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폭풍 한 가운데 그와 함께 거기 계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옆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빌 4:5)는 것을 확신 할 수 있다. 희망에 대한 외적인 모든 증거가 없어졌을 때,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기운을 내라.”라고 하실 것이다. 절대로, 그분은 당신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의 임재를 당신에게 확신시키시며 (사 43:1-7), 당신에게 공급하시고 (고 후 12:9), 당신을 보존하실 것이다 (유 24-25). 그러면, 바울처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내라. 주께서 그분의 보좌 위에 여전히 계시다. 그분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분은 여전히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주님은 그분이 하시는 것을 안다. 그분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바다 위에서의 이야기는 바울에게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때 그가, “주여, 세상의 끝 날이 오기까지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고 말한 많은 때 중

단지 하나이다 (마 28:20). 같은 일이 그에게 고린도에서 (행 18:10), 예루살렘에서 (행 23:11), 그리고 로마에서 (딤후 4:16-17) 일어났다.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께서 또한 당신과 함께 계시다. 당신의 큰 환란과 궁핍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다. 의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신에게 말해야겠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에서 슬픈 목소리로, “전화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고 말할 때,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고난의 깊은 물과 역경으로 불타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와 고통과 난국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내가 너를 결코 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히 13:5)와 “기운을 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둘째,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소유하신 분이며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시험의 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커다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

난 한 가운데에서조차도 “기운을 낼”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제 나는 예수께 속하였나니.”를 부른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면 기운을 내라! 믿는 우리는 신성한 예정하심(엡 1:4-6)과 신성한 사들임(엡 1:7-12)과 신성한 능력(엡 1:13-14)에 의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우리는 신부가 그녀의 남편에게 속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구약과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친밀하고 사랑하는 연합에 계속해서 비유된다(엡 5:25-30; 아 6:3). 우리는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Donald Grey Barnhouse는 한 때 아기와 그 어머니를 연결하는 탯줄을 의사가 끊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아버지와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탯줄 같은 것을 창조하신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즉시 전달하며 아버지가 '저건 내 자식이다!'라고 알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의 축복된 그림이 있다. 그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요일 3:1). 다시, 우리는 양이 목자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 주께 속하여 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양떼로 부르신다.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다. 양의 생명의 안녕은 그들을 감독하도록 명령을 받은 진 목자의 책임이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분의 양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다 (사 40:11; 요 10:27-30).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오랜 믿는 자에게,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당신의 재산이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바울이 느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실 것을 알았다.

셋째,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분을 내가 섬기는” 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했다. 땅의 법은 분명하다. 만약 당신이 어떤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당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당신이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동안 부상을 입었다면, 회사는 당신을 보살피야 한다. 주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살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분은 당신을 보살피실 것이다. 그분의 명예가 걸려 있다. 그분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다.” (삼상 2:30)고 약속하셨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 91:11).

넷째,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알았다. 그는 그가 속하였고, 그가 섬겼고, 그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께서 잔잔하셨던 것 만큼 폭풍을 통제하실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그는 기운을 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여,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깨닫는 것처럼 평강과 격려 속에서 당신의 혼을 지탱할 것은 없다 (롬 8:28-30; 11:36).

다섯째,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구출과 안전에 대하여 절대적인 약속을 하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했으며, “기운을 내라.”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강하게 훈계하였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불시에 공격하거나 그분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말라. 그분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격려하시며, 그분의 위대한 신실하심 가운데 당신을 격려하신다. 따라서,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에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니라.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은 의니라. 주  
가 말하노라.” (사 54:17).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  
피시리라.

그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  
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시리라, 매일 매일, 늘 언제나.  
그가 너를 보살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시리라.  
”

그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  
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시리라, 매일 매일, 늘 언제나.  
그가 너를 보살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시리라.  
”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 80. 천연적인 사람의 종교

사도행전 28:1-10

사도행전 28 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멜리데 섬으로 그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 섬은 오늘날 말타로 불린다. 그것은 시실리와 아프리카 사이, 시실 해변에서 약 60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

그들이 항해하고 있던 그 배는 맹렬한 폭풍 속에서 산산조각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276 명 모두, 승객과 선원들은 육지에 안전하게 올랐다. 폭풍의 생존자들은 흠뻑 젖었고, 지쳐 있었으며, 추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았다! 신성한 섭리가 그들을 말타 섬에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말타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 중 그 섬에 있던 몇 사람은 복음 전파로 부름 받았음에 분명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하나님,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그분의 길을 가지신 분이 바울을 말타로 데려가도록 이 폭풍의 경로를 정하셨다. 여기 다른 우연한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부름 받기도 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사실의 놀라운 예시이다. (롬 8:28).

말타 사람들은 누가에 의하면 “야만인”으로 묘사된다. 비록 그것이 역시 사실이였겠지만, 꼭 그들이 문맹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히 그들이 그리스어나, 로마어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지배적인 사회의 관습에 부합하지 않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야만인들에게 전에 복음 전파자를 보낸 적이 없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천연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종교는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보듯이 그들을 도덕적이고 자비롭게 만든다.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본성의 빛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빛 가운데 걸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빛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타락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종교는 제한되었고, 어떤 정도에서 외적으로 그들 마음의 천연적 타락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그 종교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천연적 종교, 양심과 본성에 의해 교육되고 얻어진 그것은 구원할 수 없다.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겨져야 한다. 바울이 말타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여섯 가지 매우 중요한 공과를 분명하게 배운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의도하셨을 때, 언제나 그들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신다 (1 절). 이 세상에는 구원 받아야 할 많은 수의 택함 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택하시고 아들 하나님에 의해 갈보리에서 구속 받은 자들은 모두 약속된 사랑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고 부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모두 구원 받을 것이다 (요 6:37-45; 10:16; 롬 11:26).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될 방법도 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된 방법은 복음 전파이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요 6:40; 롬 10:17; 고전 1:21; 약 1:18; 벰전 1:23-25).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명하신 은혜로운 방법들을 지나치지 않으신다. 만약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분은 죄인이 복음을 듣도록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안에는 이런 사실의 많은 예시들이 있다 (8:26-27; 9:10-18; 10:1-48; 16:9-15; 16:19-34). 사도행전 28 장에서 우리는 바울을 말타로 보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은혜롭게 안배하심으로 그가 그곳의 야만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본다. 비록 말타의 거주자들이 그것을 몰랐지만, 그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

다. 그들을 모두 두렵게 하였고 섬사람의 많은 수를 죽였을 수도 있던 폭풍우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모든 백성보다 축복하셨다. 그분은 복음 전파자를 그들 한 가운데 심기 위하여 그 폭풍우를 사용하셨다 (사 52:7).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주의 깊게 적용해 보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로 죄인들의 구원을 명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각각의 믿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자신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증인으로, 소책자, 테이프, 책 등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신실한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혼을 관심하는 모든 자는 전파되는 복음을 들을 모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종교적이다 (2-6 절). 하나님은 창조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주셨으며, 그것을 그들은 피할 수 없다 (롬 1:18-20). 이들 말타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배우지 못한 야만인이었지만, 분명한 본성적인 종교 강령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말이 창조주의 우주 통치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심을 알았다. 그들이 바울의 손에 뱀이 들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고 본능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말타 야만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책에 대하여 들어보거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었다 (롬 2:13-15). 그들은 살인이 끔찍한 범죄임을 알았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지만, 그러나 ...

셋째, 천연적인 사람들의 종교는 언제나 빼뚫어져 있다. 이것이 왜 아무도 복음 전파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이유이다.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가는 무관하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이는 사람은 그 자신의 타락한 마음의 눈이 멀고 종교적 미신과 우상숭배와 의지 경배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린다. 말타의 사람들은 악한 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무지하게 추측한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 짐은 그 자신의 개인적 선에 의해 결정된다고 추정하였다. 자유의지, 행위 종교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종교이다. 그것은 아담의 부패하고 타락한 자손들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과 경험에 의해 통제 받기 때문에 그것은 변덕스럽다 (5-6 절).

넷째, 누구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단락으로부터

분명하다. 이 사람들은 천연적인 빛 밖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빛 가운데 정직하게 행했다. 전도자 Rolfe Barnard 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을 멸시하면, 그가 가진 빛은 어둠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마 6:23).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 안에서 행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빛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사 2:5; 요일 1:7). 아무도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는 그분에 대해 무지함 속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이 단락에서 또 다른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전갈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스스로 높인다든지,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바울은 다루고자 하는 뱀을 찾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장작을 모으고 있었다. 만약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혼을 섬길 수 없었다면, 그는 그들의 몸을 기쁘게 섬겼을 것이다. 수감자 신세인 그의 상태로, 바울은 군중들 안에서 가장 멸시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섭리에 따라 구별하였고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도록 하셨다. 주께서는

종종 두 다리 달린 뱀들, 주의 종들의 영향을 파괴하려 정해진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것들의 유용성을 증가하기 위한 바로 그 방법들이며, 바울 앞에서 말문을 열기 위하여 바울을 물은 그 뱀을 이용하셨던 것과 같다.

여섯째, 이 단락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존귀히 여김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실증한다 (7-10 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은 후, 어떤 아주 돌발적인 사람인 보블리오가 주 예수를 믿었다. 그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그의 집으로 은혜롭게 받았으며 그들을 머물게 하였다. 선지자의 이름 안에서 선지자를 받았으므로, 그는 선지자의 보상을 받았다 (마 10:41). 그의 아버지가 심한 열로 쓰러졌을 때, 그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치유가 필요한 모든 다른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선지자가 있었다. 바울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은 바울에 의해 신실하게 섬김을 받았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 귀히 여겨졌으며 섬김을 받았다 (삼상 2:30). 지혜로운 자는 모두 그들 자신에게 바울이 이것과 관련하여 주었던 권고를 적용할 것이다 (살전 5:12-13).



## 81. "우리가 형제들을 찾았노라"

사도행전 28:11-16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 교회, 한 왕국, 그리고 한 가족이다. A. A. Hodge 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면, 오직 한 하나님 뿐이다. 만약 오직 한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오직 한 교회 뿐이다. 만약 오직 한 십자가만 있다면, 오직 한 교회 뿐이다. 만약 오직 한 성령만 계시다면, 오직 한 교회 뿐이다.” 그 한 우주적인 교회의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다 (엡 3:15).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곳의 모든 참 믿는 자는 하나이다 (엡 2:14; 골 3:11).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영원하며 택정함의 사랑으로 입양되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혈로 구속 받았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성령으로 부름 받았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장로 형제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로 구원 받았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업에 상속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남편과 결혼하였고, 동일한 몸의 지체들이며, 동일한 머리에 연합되었다.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았다.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이다. 하

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소유한 가장 큰 축복들 중 하나와 하늘의 가장 큰 기쁨들 가운데 하나는 형제의 교통이다. 우리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말타에서 로마로 따라가면서,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고 그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로 서로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바울은 말타에서 그의 형제들과 떨어졌다 (11 절). 말타 섬에 몸을 의지한 후, 바울의 전도는 몇 명, 아마도 많은 수의 회심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었다. 회심한 자들은 매우 은혜롭고 관대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가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자를 그들은 높이 평가하였다 (사 52:7; 롬 10:15). 경을 내내 그들은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머물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하나님의 종들로 그들을 지극히 귀하게 여겼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필요에 사역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보살펴야 하는 것은 오직 옳은 것이라 생각하였다 (고전 9:9-11; 갈 6:6). 바울이 말타를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이 말타 형제들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로마까지의 여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였다. 하나님은 야만인들 사이에 새로 난 형제들의 활기찬 위로를 그분의 난파된 종들에게 은혜롭게 제공하셨다. 그들의 분리가 얼마



나 애정 어린 나눔이었을지! 말타의 어린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들의 관대함과 존경심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으로서 서 있다.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사역 아래에 자리할 특권을 가진 모든 자는 그의 일을 위한 그 사람을 높이 존경해야 하며 (살전 5:12-13),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함으로 그를 관대하게 지원해야 한다 (갈 6: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행해진 것처럼 그의 종들에게도 행해질 것을 생각하신다 (마 10 40-41). 하나님의 종들은 보수를 받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득을 위하여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꾼은 그의 보수를 받을 가치가 있다 (눅 10:7). 전쟁에 나가는 자는 아무도 이 세상의 일에 그 자신을 얽어 매지 않는다 (딤후 2:4). 하나님의 종은 아무도 물질적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관용으로 그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 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이유가 되므로 그는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세상적 물질적 염려가 없어야 한다. 이 관용은 자신의 목사를 보살피는 지방 교회에 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도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전적으로 복음 사역의 일에 드릴 수 있다.

11 절은 우리에게 신성한 섭리에 대한 또 다른 부수적인 공과를 준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다른 배를 타고 말타를 떠나 항해했다고 말한다. 폭풍우 속에서 난파했던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났다 (27:6). 여가 알렉산드리아에 떠난 두 척의 배가 있으며, 모두 로마를 향하고 있었고 공포의 폭풍 속에 갇혔다. 배들 중 한 척은 안전하게 말타로 항해하였다. 다른 배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다 - 폭풍을 뚫고 안전하게 항해했던 배는 바다의 신들인 캐스더와 폴룩스의 표식을 달고 항해하였던 지독한 이교도들의 선원을 태우고 갔다! 난파한 배는 그 승객과 선원들이 차가운 겨울 바다 속에 던져졌으며, 하나님의 사랑스런 종들이었던 자들을 태우고 갔다. 누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아니고, 섭리에 따른 어려움이 그분이 화가 나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려 의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바울을 난파시키심으로 그가 선택한 말타 야만인들의 한 무리에게 전도하도록 문을 열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는 아무런 은혜의 계획이 없던 자들을 태운 다른 배를 방해나 해가 없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자들을 동정하라! 시편 72:-18 과 92:1-15 을 읽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한 폭풍우나 얼어붙는 차가운 겨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실 때라도 그분의 특별한 섭리를 감사하라!

말타의 형제들을 떠난 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르고는 보디올의 형제들을 찾았다 (12-14). 로마로 가는 길에 그들의 배가 사흘 동안 시실리의 수라구사에 정박하였고 레기온에 하루를 정박하였다. 분명히 그것은 정기적 정박을 하는 상선이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볼리 가까이 있는 성인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바울과 그 친구들과 병사들은 로마로 육로로 여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보디올에서 누가는, “우리가 형제를 찾았다.”고 말한다. 분명히 바울은 그를 호위하였던 백부장의 눈에 우호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바울을 예외적으로 호의를 갖고 대하였으며, 그에게 큰 자유를 허용하였다. 바울이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행한 첫 번째 일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곧 그의 형제들을 찾아 발견한 것이였다 (14 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바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있었다. 박해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로마 세계의 도처로 흩어 놓았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흩어질 때마다, 복음의 누룩이 퍼졌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을 그의 일로 삼았다. 그것은 누구든 그 친척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을 찾기 위하여 한 마을을 지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족이다. 우리를 연합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이다. 바울은 그들의 교통

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찾았다. 양은 사회적 피조물이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떼를 지어 다닌다. 그들이 혼자 있는 유일한 때는 아프거나 길을 잃었을 때이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르고는 닷새 동안 그들과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는 믿음이 없이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디올에서 그들은 형제들을 찾았고 활기를 찾았다. 일단 그들이 이들 구속 받은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은 즉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보디올의 형제들은 바울과 그 동료들이 그들과 칠일 동안 머물기를 청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적어도 한 번의 주일을 지나며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 로마에서 왔던 형제들은 그를 매우 격려하였다 (15 절). 이런 저런 방법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오래전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바울이 그들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전에 영 안에서를 제외하곤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구원자를 사랑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다. 바울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격려를 받았다. 그들은 그가 직면하게 되었을 전투를 위

한 늙은 전사를 격려하였고 분발하게 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격려의 교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 로마의 믿는 자들이 바울에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 흥미로운 부수적인 점이 있다 - 15 절에서 “만나다”로 번역된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17 에서도 발견되는 데 그곳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활의 아름다운 그림이 주어진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처음 일어날 것이며 살아 있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들려 올라갈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새 창조로 그분과 함께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죄수로서 이송되었다 (16 절).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로마에 죄수로 왔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옆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던 호위자와 함께 집을 빌려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할 커다란 자유가 주어졌다. 마침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왔다. 그가 로마의 죄수로 왔던 것이 그에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에 관한 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그곳에 왔다. 그는 지금 그 앞에 놓인 복음을 전하고 신약의 훌륭한 부분을 쓰기 위한 기회를 붙잡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고 하나님께

서 그곳에서 그를 사용하실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로마에서조차 그 내용이었다 (빌 4:12). 당신은 그럴 것인가?

## 82. "이스라엘의 소망"

사도행전 28:17-20

죄수로 로마에 이송된 지 사흘 후,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을 함께 불렀다. 비록 그들에게 멸시 받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그의 나라 사람들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보이기를 결코 그만 두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기도와 마음의 갈망은 이스라엘이 구원 받게 되는 것이었다 (롬 10:1).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열정은 본보기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가장 합당한 사랑의 표현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그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진정으로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연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만스러워 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은 주권적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신 것을 하고 그분이 뜻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권리이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안다면, 우리가 그 혼들의 구원을

구함이 없이 어떤 사람을 멸망하도록 둔다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다.

일단 그가 이 유대인들을 한데 부른 후, 바울은 그들에게 왜 그가 죄수로서 로마에 이송되었는지를 그대로 말했다. 그는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았으며, 유대인 나라 위에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고, 성경에 위배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의 전갈을 받을 준비가 좀더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결백함을 유대인들에게 역설하였다. 그는 그들의 생각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도록 막는 어떤 것도 없애기를 원했다. 그리고, 20 절에서 그는 왜 그가 체포되었고 로마로 끌려 왔으며 왜 그가 그들에게 말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함께 모았는지를 이야기 하였다. 바울이 체포되고 로마에 죄수로 지금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선포하였다. 그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말했던 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분,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였던 분,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희생제물, 이스라엘의 참 구속자가 오셨으며 그분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솔직하게 선포하였다. 이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하여, 바울은 죄



사슬에 매인 죄수로 이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이 유대인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밝힌다. 그것이 이해되어야 할 주제이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비록 바울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부분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었다. 그들은 외적으로 유대인들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아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육체적 나라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거룩한 나라”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할 -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과 그분의 은혜의 축복들은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씨를 위하여 결코 의도되지 않았다. 은혜는 천연적인 후손에 의해 오지 않는다. 공효는 가족 안에 흐르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도 아니다 (요 1:11-13; 롬 9:16). 날라와 종족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특별한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다. 그것은 상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에 전적으로 상반된다. 하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않으신 것을 천연적인 이스라엘에 하신 어떤 약속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분은 오래 동안, 오래 전에 그들을 충만케 하셨다. 여호수아 21:44-45 을 보라. 하나님은 구약 안에서 율법의 본과 그림자 아래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들이 영광의 주, 우리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그의 사도들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러나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멸시한 후에, 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다 (마 22:1-7). 큰 긍휼 가운데 그분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그분의 이스라엘)을 땅의 사방에서 모으시려고 그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 이것은 언제나 그분의 계획이었다 (행 28:26-28; 롬 11:25-26).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하여 투명하다 (롬 2:28; 9:6-8; 갈 4:22-28).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과 모든 세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갈 6:16). 모든 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실질적 이스라엘 민족이다 (롬 2:29; 갈 3:6-7; 빌 3:3).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와 성령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온다 (갈 3:13-14).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특징

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할례를 받으며, 그들은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만을 신뢰하며, 육신에 아무런 확신을 갖지 않는다 (빌 3:3; 골 2:11). 아브라함 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요 8:39).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모든 약속과 축복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두에게 속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속한다 (고후 1:20; 갈 3:13-18, 26-29; 엡 1:3-6; 2:11-14; 딤후 1:9).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불리는가? 바울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이런 칭호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 칭호로 그분을 불렀다 (렘 14:8; 17:13; 율 3:16).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칭호로 불렀다 (딤후 전 1:1; 골 1:27). 모든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는)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롬 8:24-25).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가운데 이해하고 기뻐한다 (눅 2:30; 롬 8:33-39). 구원의 전체 역사는 삶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우리를 위하여 완료되었다 (요 17:4; 19:28-30). 그것은 그분 안

에서 완성되었고 완전하다 (골 2:10).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구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모든 죄인 위에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가 없는 은사이다 (롬 6:23; 엡 2:8-9).

모든 참된 이스라엘, 모든 참된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충만한 온전함을 아직 누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하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딤후 2:11-12; 살전 4:13-18; 요일 3:1-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는 그분의 닦음 안에서 성장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가 어떠한 모든 것과 그분의 순종의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우리 소망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중보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을 그분이 얻으셨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결코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영화로운 인성이 어떠함과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덕분에 될 것이고 가질 것이다 (요 17:5, 22).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다 (롬 8:17-18, 24-25). 그분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셨고, 온전하게 의롭고 거룩하시며, 완전히 만족하셨고, 완전한 안식에 계시며, 삼일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 우리가 될 모든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애가 3:21-26을 읽어보라. 늙은 선지자가 외친다, “이것이 내 중심에 회상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가졌나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과 신실함과 선하심 가운데 소망을 둔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 것이 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더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소망은 먹구름을 뚫고 하늘을 볼 수 있다. 소망은 인내의 어머니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주의 구원을 (인내로서)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아무것도 소망 가운데 사는 자의 평강을 크게 방해할 수 없다. 그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 83. "어떤 자는 믿었고 어떤 자는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 28:21-24

바울이 가는 곳 마다, 그에게는 단 한 사람의 사환만 있었다. 그는 속박된 죄인들을 영원으로 구원할 전갈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복음 전도자, 사자, 대사였다. “복음에 분별” 되었으므로 (롬 1:1), 그는 그의 위대한 일로부터 그를 돌이키게 할 것은 투옥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멸망하는 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은혜의 전갈을 가져가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 그는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사자였으므로, 그의 전갈은 언제나 동일하였다. 그의 주제, 그의 테마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 외에 사람들 사이에 아무것도 알지 않도록 정해졌다 (고전 2:2). 그는 그것, 언제 어디를 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의 확고한 의무라 생각했다 (고전 9:16). 그는 하나의 주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그 한 주관에 헌신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을 전하였다 (고전 1:23). 그가 무슨 능력을 가질 때마다, 그가 기회를 잡을 때마다, 이 위대한 본보기 전

도자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갈 6:14). 우리 앞의 단락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도의 전갈과 그의 전도 방법 모두의 예를 제시한다. 바울은 설명하듯 전했다. “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들을 해설하였다.” 모든 진실한 전도는 성경의 신실한 해석을 포함한다. 전도는 교리의 해석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교파적 세뇌이다. 전도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롬 10:17). 누구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복음의 전파이다 (고전 1:21; 벧전 1:23-25). 성경의 전갈을 신실하게 해설하면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열어 보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다. 많은 전도자들과 교사들은 사건과 시간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이해력과 어리석은 질문들에 답하는 그들의 능력과 끝없는 족보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으로 그들의 청중의 눈을 어지럽히기를 좋아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귀의 덫에 잡히는 것을 슬기롭게 피한다 (딤후 2:23; 딤후 3:9).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의 손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은 성경의 전갈을 해석한다. 본질적으로 성경의 전갈은 삼중이다.



성경의 첫 번째 전갈은 파멸의 전갈,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우리 인류의 철저한 영적 파멸이다 (롬 5:12).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사람은 성경내의 다른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담은 우리 종족의 선구자 그 이상이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든 사람의 연합된 머리이며 대표자였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며,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었고, 그분의 손으로 만든 모든 작품을 지배하도록 하셨다. 아담과 그 자손들은 만약 그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인식한 가운데 단순하게 살았다면, 그런 행복한 조건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것을 주셨다 (창 2:15-17). 그 한 나무가 하나님의 의롭고 주권적인 통치에 대하여 아담에게 지속적인 일깨움으로써 서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 아담은 강직하게 서지 않았다. 시간 가운데,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부풀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의 교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무의 열매를 훔쳤다. 그 행위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불법으로 취하고자 하였다. 즉시 그는 영적으로 사망하였으며, 법적 사망의 저주 아래로 왔으며, 육체적으로 사망하기 시작하였고,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아담이 죄지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죄를 지었다. 그가 죽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형상을 모두 품고 있다. 아담의 모든 아들들은 죄인들로 태어났으며, 거짓을 말하도록 태어나자마자 방황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역들이다 (시 51:5; 58:3; 롬 3:9-19; 8:7; 엡 2:1-3). 이것이 완전한 타락의 교리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너무도 죄로 충만하고 영적 사망 안에서 너무도 완전히 쓸모 없게 되어 그는 자신의 상태를 바꿀 능력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태의 변화를 돕지도 못하게 되었다 (렘 13:23; 17:9). “사람은 두 번 사망한 악당이다. 사람은 원래 천연적으로 부패하였으며 후에 실행으로 부패하였다.” (A. H. Strong).

성경의 두 번째 전갈은 구속,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속의 전갈이다 (고후 5:18-21; 갈 3:13; 벰전 1:18-20; 2:24). 둘째 아담, 또 다른 대표 사람, 또 다른 대속물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들이 되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들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다 (롬 5:17-21; 고전 15:21-22).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전가된다. 그 의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게 된다 (렘 23:6; 롬 3:28-31; 4:21-25). 우리 행위는 우리 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분의 역사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 그분의 생명의 피를 사망에 부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면서 우리 구원자는 죄에 대한 완전한 속량을 만드셨다 (롬 3:24-26).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대가 없이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율법의 저주 모두를 우리에게서 공의롭게 없애신다 (요 3:14-18; 롬 8:1, 33, 34).

성경의 세 번째 전갈은 거듭남,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권능으로 인한 거듭남의 전갈이다 (요 3:3-8; 엡 2:1-4). 이것이 새로운 출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새 출생의 열매와 결과, 이 생명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사망한 죄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또한 우리 안에 믿음도 창조하셨다 (엡 2:8-9; 골 2:12).

바울은 해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것도 전하였다. 성경의 전갈을 해설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였다.” 그는 그의 청중들에게 그가 다마스쿠스 도

상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였는지 말했다. 그가 그의 회심의 체험을 너무도 자주 말했으므로 내가 상상하기로는 누가와 그가 전하는 것을 자주 들었던 누구든지 그가 했던 것만큼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행 8:1-22; 22:1-16; 26:9-19).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신 것을 말하기를 싫증 내지 않았다. 마음 속에서 체험한 은혜는 말할 가치도 있고 들을 가치도 있는 이야기이다. 누군가 한번은, “아무도 그가 체험하기 전까지 정말로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전할 것이다.

이 해설과 체험의 전도는 설득력이 있었다. 바울이 전할 때, 그는 “예수에 대하여 그들을 설득”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서 신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을 청중들에게 피력하였다 (고후 5:11). “그리고 어떤 자는 들은 것들을 믿었으며, 어떤 자는 믿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복음 전파의 결과이다 (고후 2:14-16). 세 가지 것이 이 사실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 죄인들의 구원은 전파자의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믿은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과 동일한 전도자의 말을 들었다. (2)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 전부터 그것을 뜻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성경을 읽어보라. 믿음은 사람의 자유 의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은사이다 (요 1:12-13; 3:8; 롬 9:16-18; 엡 1:19, 2:8; 골 2:12). (3)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피와 의의 공로만을 통한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요 5:40). 만약 어떤 죄인이 구원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의 결과이다. 만약 어떤 죄인이 저주 받는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고 그의 행위로 만의 결과이다. 아무도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 받는 자는 없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파멸은 인간의 일이다.

## 84.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8:23-29

“그들이 그와 한 날을 약속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전도자들이 수감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가고 투옥되는 것은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죄수들에 의해서 불러 모은 자들이었다! “그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 모두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득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해설하고 간증하였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성경과 그 자신의 마음의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본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그들이 항상 가르침 받아 왔던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외적이고, 육체적이며, 땅에 속한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제국이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마음과 생명의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출생에 의하지 않고 새로 태어나는 것에 의한다 (요 3:3-7). 하나님의 왕국은 허례허식의 왕국이 아니라 순전함과 회심의 왕국이다. 바울은 또 예수

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설득하였다. 성경과 그 자신의 체험과 논리에 호소하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은 실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구원자의 영원한 신성과 그분의 성육신과 순종의 삶, 죄인들의 대속물로서의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만유의 주로서 높여지심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죄인들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음 교리를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순종으로 영원한 의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택함 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속량이 되셨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보좌 위에서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하늘에서의 중보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바울은 그의 인척인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기를 강권하였다. 그러나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어떤 자는 들은 것들을 믿었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은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하려 예비되었다. 어떤 자들에게 그분은 걸림돌이고 방해가 되는 바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은 확실한 주춧돌이고 구원의 반석이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평안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마

10:34). 이것이 그분이 가져오시는 분열의 검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믿으며 어떤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며 모욕한다. 빛은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그들의 눈을 감아버린다.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지만, 그들의 귀를 닫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영광이 그들에게 효험 있게 전파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만든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 바울이 한 마디를 말하고 난 후 그들은 떠나갔다.”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 가운데 합의를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그들이 욕하고 화가 난 가운데 떠나기로 결정하였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잠깐만, 내가 여러분이 가기 전에 해 줄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집스런 불신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리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이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 것이 둔하며, 그들의 눈을 닫아버렸다.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귀로 듣지 않으며,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며, 회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치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졌으며,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떠났고, 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본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빛을 멸시하였고 그리스도의 주장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복음의 빛을 거두어드리셨으며 그것을 묶으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비록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으나, 이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았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배우는 공과는 커다란 중요성이 있다.

영벌의 원인은 계시된 진리의 의도적인 불신과 의도적인 거절이다 (25-27 절). 복음은, “믿고 침례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한다 (막 16:16).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영벌을 판결 받는 것이다 (눅 13:23-30). 영벌은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잠 1:23-33; 29:1; 호 4:17; 마 21:28-46; 23:37-38). 구약의 바로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완고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 가운데 그분께서 그러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셨다 (사 6:9-10; 롬 11:8). 선지자 뒤에 선지자가 세대에서 세대로 그들에게 보내졌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사도를 한 사람 더 보내셨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십자가에 못박힌 대속물을 통한 대가 없는 은혜의 구원에 관한 전갈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의 귀가 듣는 것이 무뎠다.” 바울의 전갈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적대심을 갖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에 앞드리기를 거절하였다. 자신들의 공로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함으로 구원 받기를 구하지 않을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의 눈을 의도적으로 감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감았다.” (롬 9:31-33).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멸시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장들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셨다.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굳히시고 그들이 믿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실 것이다 (렘 7:16). 사람의 정죄는 의도적인 불신의 결과이다. Matthew Henry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라, 그리고 그것에 유의하지 말고 이 종말 때에 떨게 하라. 왜냐하면, 일

단 그들이 마음의 냉담함에 항복할 때, 그들은 이미 지옥의 주변에 있다!”고 경고하였을 때, 그는 정확히 옳았다. 천벌에 의한 영벌은 부인할 수 없는 계시된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의도적 은폐와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이다 (롬 1:18-28; 살후 2:10-12).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 (27 절). 버림 받은 자에게 내릴 끔찍한 심판을 바울이 공언했던 것처럼,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로 들으며,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변화된다면, 나는 그들을 치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롭게 명하신 방법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신다. (1.) 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 하시려 의도하신 각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복음의 전파에서 떨어져 구원하지 않으신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튀어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복음 안에서 가르침 받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인간의 조력을 사용함이 없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의문은 없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할 것을 택하지 않으셨다 (롬 10:17; 고전 1:23; 약

1:18; 뵤전 1:23-25). (2.) 말쑤 전과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죄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신다. 구원은 신성한 계시에 의해 온다 (갈 1:15-16). 아무도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까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그들에게 계시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본 자는 모두 그분께 저항하지 않고 끌려간다 (슌 12:10; 13:1). (3.) 하나님은 깨달음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요 6:44-45; 요일 2:20, 27). (4.)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를 회심케 하신다.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역자들을 자발적인 종들로서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한다. 은혜는 의지를 정복하며, 감정을 제압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화해하게 한다 (살전 1:4-10). (5.)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들 마음의 죽음의 역병을 치유하신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을 죄의 속박과 통치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신다 (겔 16:8).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28 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금욕과 의도적 불신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비통하다. 그러나 사람의 불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멸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기쁘다 (롬 3:3-4). “하나님의 기초는 확실하게 서있다!” 비록 그분께서 믿지 않는 버림 받은 자로부터 그분의 선을 가져가실 지라도, 이 세상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사 56:8; 요 10:16).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원 받을 것이다 (롬 11:26). 흔히, 몇몇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지혜로운 안배로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수단인 이유가 된다 (롬 11:11, 25, 26, 33-36).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영원 가운데 선택된 모든 자는 갈보리에서 하나님 아들에 의해 구속 받았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사랑의 시간에 부름 받을 것이다.

## 85. 바울의 마지막 두 해

사도행전 28:30-31

하나님의 영께서 바울의 마지막 두 해를 아주 간단하지만 교훈적인 말로서 묘사하도록 누가에게 영감을 주셨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 오 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30-31 절). 바울이 로마에 온 이후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한 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이상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이 두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이 마지막 두 해에 바울은 네로에 의해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로 죽는 것으로 처형 당했을 것이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갈을 종합 할 것이며, 로마에서 죄수로 있던 바울의 마지막 두 해를 돌아보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으로부터 몇 가지 공과를 끌어낼 것이다.

사도행전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우리의 주의를 계속하여 집중하고 있다. 이 스물 여덟 장을 통하여 누가는 이들 다섯 가지에 우리 주의를 끌고 있다. 그것들을 마음 속에 두자.

(1) 섭리에 따른 그리스도의 통치 - 누가는 모든 것 위에 주이신 그리스도의 승천과 찬양을 선포함으로써 초대 교회의 이 간략한 역사를 연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속하여 보여 준다. 그들에 의해 초대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모욕과 투옥, 박해, 그리고 고난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교회의 영적이고 영원한 선과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에 의해 통치 받았다. 이 장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과 부르심 받았던 자들인 그들에게 그분의 계획에 따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역사하였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모든 것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섭리의 통치는 그들이 받았던 모든 고난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했던 것을 통하여 확신에 찬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탱하였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던 모든 자가 그분의 우주에 대한 주권적 통치 가운데 더욱 신뢰하고 기뻐하도록 하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좋다. 그 순간 일들이 어떻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 가운데 성취하고 계신다 (요 17:2; 엡 1:20-23).

- (2)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으로부터 절대적인 위임을 부여 받아 왔다. 그 위임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주께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8). 믿는 자 각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위대함과 은혜와 영광의 전갈을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은 선교사이다. 각 지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전도 센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명을 이런 동기로 새롭게 하자. 초대 교회가 예수는 주이심을 전파하며 도처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런 동기에 드리도록 하자.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교육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개혁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의 단 하나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 (3) 십자가의 모욕 -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의해 박해를 받아왔다. 가인이 아벨을 박해하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였으며, 종교적 세상이 기독교 초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박해의 이유는 교회가 선포하였던 전갈 -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의한 구원 - 이었다! 오늘날도 달라진 것들이 없다. 우리는 그 시



대 우리 형제들이 견뎌야 했던 육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전갈은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때처럼 오늘날 종교주의자들에 의해서 증오와 멸시를 받고 있다. 십자가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것이다.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할 것을 결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천연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이며, 천연적인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증오한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로부터의 분노와 박해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서 있는 한, 십자가의 모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갈 5:11).

- (4) 성령의 활발한 사역 - 우리 주님은, “내가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한다!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의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본다면, 우리는 초대 교회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는다. 우리 위에 그분의 은혜로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것이든 행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인도되고 통치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5)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 -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께서 세우셨을 것과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본다. 비록 모든 지옥이 그것을 거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수행하신다. 그분은 심지어 사람의 반대나 사탄 자신의 반대에 조금도 방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초가 확실히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여, 기뻐하라! 아무것도 너희를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라. 아무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계획을 은혜롭게 성취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됨을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언제나 우리 앞에 지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동기를 수행하기를 구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된 두 해는 교훈으로 충만하다. 기억하라, 바울은 아무것도 잘 못한 것이 없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하셨던 것을 알았던 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죄수였다 (행 20:22-24; 21:10-14). 그는 벨릭스 하에 2년 동안 죄수로 있었다. 로마를 향한 그의 여정은 적어도 1년이 걸렸다. 그러면 그는 로마에 2년 이상 동안 투옥되었다. 모든 가운데, 이 신실한 사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5년 동안 계속적인 감시 하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섭리의 행위로서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처럼 그의 투옥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축진을 위하여 매인 상태로 로마에 보내셨음을 알았다 (빌 1:12-14). 이 2년 간의 투옥 동안, 바울은 어떻게 그에게 나쁜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불평하며 의기소침 한다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극찬하여 말한다든지, 좀더 나은 상황에서 그가 하였을 것에 대하여 꿈을 꾸지 않았다. 로마에 죄수로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좋은 신약의 서신서 중 절반을 기록하였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오네시모에게 전도하였고 훈련하였으며, 네로의 집의 몇 사람과 그의 호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두 해 동안 바울이 했던 결과로 알려지지 않은 수 백만이 회심하였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바울을 사슬에 묶인 채 로마에 보셨을 때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을 아셨으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을 아셨다는 것을 알았다 (롬 8:28-30). 따라서 그는 만족하였다 (빌 4:1-13). 바울이 이 기간 동안 썼던 것과 그의 행동에 대하여 누가가 말한 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그의 편에서 어떤 불만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는 순종적이었으며, 감사하였고, 끝까지 인내하였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딤후 4:6-8).

우리가 본 것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바울의 생애와 사역의 마지막 단 2년 간으로부터 수 많은 공과를 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책의 스물여덟 장을 되돌아 보는데 시간을 들인다면 더 많은 것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 가지 공과가 이 영감의 지면에서 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1.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을 배워라 (창 50:20; 롬 8:28).
2. 그리스도의 영광과 불멸의 혼의 선을 위하여 행할 능력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행하는 것을 배워라 (전 9:10).

3. 이것도 배워라 -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삼상 2:30).

오순절 이후의 삶  
**Life After Pentecost**

By Don Fortner  
(옮김: 박영호)